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中國 知青文學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侯 林

指導教授 趙 成 植

2014年 2月



中國 知青文學 研究

指導教授 趙 成 植

侯 林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12月

侯 林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沈 揆 昊

審 查 委 員 金 良 守

審 查 委 員 李 權 洪

審 查 委 員 趙 洪 善

審 查 委 員 趙 成 植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2月



目 次

I. 서 론	1
一. 國內外의 研究 現況	3
1. 國內 研究 現況	3
2. 中國內 研究 現況	4
二. 研究目的	9
三. 研究 範圍 및 方法	10
1. 研究 範圍	10
2. 研究 方法	11
II. 知識青年 및 知青文學	13
一. 知青의 定義와 범주	13
二. 知青 탄생의 시대적 배경	16
1. 知青 現況	16
2. 정치적 原因	23
三. 知青文學의 함의 및 발전단계	29
III. 知青文學의 發生	32
一. 文革 종결 이전까지 知青小說 개괄	36
二. 主題 分析	43
1. 階級鬭爭	43
2. 貧下中農의 再教育	49
3. 知青의 農村 정착	54
三. 小結	58

IV. 知青文學의 發展	60
一. 新時期 知青小說 概論	60
二. 主題 分析	62
1. 현실주의 回歸	62
2. 文革 ‘極左’에 대한 폭로	65
3. 文革에 대한 반성	71
三. 표현 특징	82
1. 理想主義와 英雄主義의 결합	82
2. ‘上山下鄉’ 운동에 대한 반성	99
四. 小結	108
 V. 知青文學의 解體	 109
一. 後新時期 知青小說 概括	109
二. 主題 分析	110
1. 문화적인 뿌리 찾기— 尋根文學	110
2.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改革文學	116
三. 全面 解體의 原因	122
1. 사회적 變動	122
2. 知青作家의 創作 傾向 變化	124
3. 새로운 文學의 대두	128
3-1. 都市文學의 흥기	128
3-2. ‘新寫實’ 小說의 흥기	130
四. 小結	133
 VI. 결 론	 134

參考文獻	140
【中文提要】	153
【附錄】	155
中國 知青作家 소개	155
中國知識青上山下鄉大事記	181
中國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	193
中國 當代文學 키워드	201
後記	207

中國 知青文學 研究

侯 林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趙 成 植)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知青文學의 長篇小說, 中篇小說 및 短篇小說에서 시대적인 특징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知青文學의 發生, 發展 및 解體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知青題材 小說 창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知青이 자신들의 내용을 쓴 것이며 作家와 題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知青文學은 일반적으로 文革時期의 知青小說, 新時期의 知青小說 및 後新時期의 知青小說로 구성되어 있다. 知青文學 대표적인 작가로는 梁曉聲, 韓少功, 張承志, 史鐵生, 葉辛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今夜有暴風雪』, 『北方的河』, 『我遙遠的清平灣』, 『這是一片神奇的土地』, 『蹉跎歲月』 등이 있다.

知青文學의 발전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知識青年의 上山下鄉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묘사가 시대적인 특징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대적 언어 환경 속에 놓인 文革時期 작가들이 자신의 主體性을 드러내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 시기는 창작이 徹底하게 政治權力에 장악된 시기여서, 소설의 내용이라든가 형식이 權力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그 즉시 제거되었다. 개인적으로 억눌린 목소리나 욕망은 표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新時期 소설들이 다루는 모순과 막막함, 절박함은 사회 전환기의 심리

상태와도 같아 그 속에 흐르는 생생한 분위기는 독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깊이가 결여되었다는 소설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동시대 독자들, 특히 知識青年 독자들이 유사한 경험과 비슷한 문화적 수준으로 인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후 시대의 독자들은 좋은 소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지할 것이다. 소설에 드러난 모순과 절박, 막막함은 개인적인 範圍에 머물며, 인류 전체의 것은 아니다. 심지어 비록 그들이 세대 차원의 의식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한 세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감나면서도 깊이가 결여된 이런 소설들은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전환기를 살아가는 개인 심리에 대한 묘사는 될 수 있지만, 독자를 사색으로 이끌고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도록 해 주는 고전의 경지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後新時期에 들어와 政治權力이 약화되고 商業權力이 흥기하자 작가들은 바로 商業大衆文學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하여 순문학 탐색 혹은 세속의식의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 後新時期 文學은 특히 1992년도에 鄧小平 ‘南巡講話’ 이후, ‘모든 국민의 상업 활동[全民經商]’과 ‘공직을 나와 창업하는 것[下海]’의 열풍으로 文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시대의 큰 흐름을 하나의 中心思想으로 삼았을 뿐 자아의 독립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문학은 전면적인 해체 단계로 들어가 文學思潮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문학 창작은 본격적으로 ‘百家爭鳴’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따라서 知青 작가 創作傾向의 變化, 社會環境의 대변동, 都市문학의 興起, 그리고 ‘新寫實’小說의 興起 등으로 인하여 知青文學은 퇴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핵심어 : 知青文學, 知識青年(知青), 文化大革命, 上山下鄉, 新時期文學, 新時期文學, 傷痕文學, 反思文學, 尋根文學, 改革文學, 都市文學

I. 서론

中國 當代文學史에 있어서 知靑小説은 知靑¹⁾의 생활을 묘사한 소설을 가리킨다. 작품에서는 文革時期的 眞相을 폭로하고, 知靑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으며,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는 이상적인 心境을 드러내고 있다. 新時期 小説 가운데 의미 있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知靑小説은 인생의 참뜻에 대한 탐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들의 생활과 농민 문제에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知靑 출신의 작가들로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梁曉聲, 韓少功, 張承志, 史鐵生, 葉辛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今夜有暴風雪』, 『北方的河』, 『我遙遠的清平灣』, 『這是一片神奇的土地』, 『蹉跎歲月』 등이 있다.

文學史 時期 부분과 관련하여 古代 中國文學史의 시대 구분에 관해서는 거의 다른 의견이 없으나 現代文學의 시대 구분에 있어서는 韓國學界와 中國學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中國學界는 1919년 ‘5·4’ 운동 이후부터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하기 전까지를 現代文學이라고 하고, 194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當代文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學界에서는 일반적으로 19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문학

1) 知識靑年, 簡稱知靑, 廣義泛指有知識的青年, 一般指受過高等教育的年輕人. 20世紀50年代初期, 該詞語出現之時, 小學畢業就足以被當作“知識靑年”. 實際上, 那個時期, 這個詞語主要是指在城鎮念過書的農村靑年, 國家鼓勵他們回鄉. 可是, 從1955年起, 特別在20世紀60年代, 這個稱呼就擴大泛指城市靑年了, 政府期望說服他們中學畢業后到農村去勞動. 自打這個時期, 就有兩類知識靑年并存: “下鄉知靑”和“回鄉知靑”. ([불] 미셸 보냉(Michel, Bonnin, 중국명 潘鳴嘯 著 歐陽因 譯, 『失落的一代— 中國的上山下鄉運動·1968~1980』,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北京), 2010년 1월 초판, p. 3.)

을 現代文學이라 하고, 當代文學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구분된 것이 없는
계 定說이다.

일반적으로 1949년 中華人民共和國이 탄생한 이후의 문학은 ‘當代文學’²⁾이라고 한다. ‘共和國文學’³⁾이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當代文學’이라고 구분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當代文學을 자세히 구분해 보면, 1949년부터 1966년 ‘文化大革命’⁴⁾ 이전까지를 ‘十七年文學’, 1966년 ‘文化大革命’부터 1976년 ‘四人幫’의 실각까지를 ‘文革文學’, 1978년부터 현재까지를 ‘新時期文學’⁵⁾과 ‘後新時期文學’이라고 한다. ‘後新時期文學’은 90년대부터 시작된 商業社會의 文學인데, 新時期文學의 후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後新時期文學은 新時期文學의 연속과 발전으로 볼 수 있지만 後新時期文學은 그 자체의 독특한 특징과 성격으로 인해 新時期文學과 구별 짓고 있다. ‘傷痕文學’은 中國 當代文學 중 新時期文學의 첫 번째 文學思潮이며, 또한 知青文學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국 當代文學은 1962년까지 華中師範大學 중문과가 편찬한 『中國當代文學史稿』에서 처음으로 ‘當代文學’의 정식적인 명칭이 탄생되었다.

(洪子誠 著, 『中國當代文學史』(修訂本),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7년, p. 1. 참조.)

3) 楊匡漢·孟繁華 主編, 『共和國文學50年』,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9년 8월, p. 2.

4) 全稱是“無產階級文化大革命”。1966年5月到1976年10月由毛澤東錯誤發動和領導, 被林彪、江青兩個反革命集團利用, 給黨、國家和各族人民帶來嚴重災難的內亂。發動的指導思想是“無產階級專政下繼續革命的理論”。“文化大革命”共分為三個階段, ①. 從開始發動到中國共產黨第九代表大會的召開。中共九大使“文化大革命”的錯誤理論和實踐合法化。②. 從九大到十大。中共十大繼續九大“左”傾錯誤, 江青、張春橋、王洪文、姚文元在中央政治局結成一伙, 江青反革命集團的勢力得到加強。③. 從中共十大到1976年10月。1976年10月上旬中共中央政治局毅然粉碎了江青反革命集團, 結束了“文化大革命”這場災難。1978年12月中共十一屆三中全會開始全面糾正“文化大革命”的錯誤。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1999年版縮印本), 上海辭書出版社(上海), p. 1863.)

5) 1977年8月在北京召開的中共第十一次代表大會上, 宣布“文革”以粉碎“四人幫”為標志而結束。這次會議的文件, 把文革結束後稱為中國社會主義革命和建設的“新時期”。文藝界也很快把“文革”後文學稱為“新時期文學”。

(洪子誠 著, 『中國當代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北京), p. 237. 각주① 재인용.)

張炯把新時期文學的轉折分作三個階段: 一. 轉折發動期(1976-1978) 二. 轉折的關鍵期(1979-1982) 三. 轉折的完成期(1983-1986)

(張炯, 「新時期文學的流程及特徵」, 『批評家』(太原), 1986년 제 6기, pp. 35~36.)

一. 國內外的 研究 現況

1. 國內 研究 現況

中國 當代文學 중에서 新時期文學의 첫 번째 文學思潮로 볼 수 있는 傷痕文學⁶⁾은 韓國學界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韓國學界에서의 研究로는 현성진의 「傷痕文學에 나타난 現實과 소외, -短篇小說속의 中共農村現實을 중심으로-」⁷⁾가 있으며, 여기서는 초기 知青의 단편소설을 위주로 특히 知青의 上山下鄉의 삶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유정의 「중국 신시기 상흔문학 연구」⁸⁾에서는 단지 中國 新時期, 즉 1978년 이후의 작품을 위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류성준의 「문혁 이후 상흔 문학의 시와 소설」⁹⁾에서는 文革 이후의 傷痕文學의 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들은 文革 이전의 知青 소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필자의 연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知青文學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진공의 「文化大革命 時期의 文藝 研究」(2001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가 있는데, 文藝界를 文革 연구의 주요한 접근 경로로 삼고 있다. 즉 權力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으려 했던 文藝界의 모습을 통해 社會主義 理想의 실현이 마치 사회주의를 표방한 권력에 스스로 동일화되는 것인 양 받아들인 中國 社會 전체의

6) 根據蔣守謙的考證, 首先使用‘傷痕文學’這一概念的是蘇叔陽, 時間是1978年11月。見蔣守謙, 「傷痕文學— 概念的生成和操作」, 「管窺蠡測— 蔣守謙當代文學評論選」, 新疆人民出版社1999年版, p. 404.

而秦宇慧在他的「文革後小說創作流程」中說, ‘傷痕’一詞在學界被用來概括文學潮最早可見於旅美華僑許芥昱的「在美國加州舊金山州立大學中共文學討論的講話」一文。許芥昱認為, 中國大陸自1976年10月以後, 短篇小說最爲活躍, 并說, “最引大衆注目的內容, 我稱之爲‘Hurts Generations’, 即‘傷痕文學’, 因爲有篇小說叫做『傷痕』, 很出風頭。”

(陶東風·和磊 著, 『中國新時期文學30年』(1978-2008),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2008년 9 월, p. 41.)

7) 高麗大學校 中語中文科 碩士學位論文, 1986년 10월 31일.

8)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학교육 석사학위논문, 2008년.

9)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논총』제 26집(2006년).

矛盾을 그려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文革이라는 비극적인 집단 최면상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曹惠英의 「문화대혁명 시기의 ‘知青’ 제재 소설과 홍위병 시가에 관한 연구」(2003년 『한국현대문학』제26호)에서는 文革 시기의 知青 소설과 紅衛兵 詩歌에 대해 연구했는데 필자의 연구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정인혜의 「중국 지식청년문학 연구, 지식청년문학(1953~)의 형성·전개·특징 및 의의」(2006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는 文革 이전부터 知青文學을 연구하고 있지만 知青文學의 흐름 및 意義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知青小說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없다.

2. 중국내 연구 현황

文化大革命 이전의 연구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다수 작품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평이 많았다는 점에 그치며, 文革時期的 사상적인 색깔만 농후하고 순수 문학적인 연구 성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한계성을 안고 있다. 거의 모든 長篇小說은 출판된 이후의 작품에 대한 評論이 전국적인 규모의 신문과 간행물에 게재되었다. 작가 역시 그 당시 유명한 인물이거나 그와 관련된 유명 단체가 주를 이루었다. 그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曉一의 「廣闊天地，海鷹高翔——談長篇小說『雁鳴湖畔』的藍海鷹形象塑造」¹⁰⁾, 任犢의 「燃燒着戰鬥豪情的作品——『農場的春天』代序(附編者按)」¹¹⁾, 上海市工人文化宮工人作家業餘寫作組의 「在大風大浪中百煉成鋼——評長篇小說『草原新牧民』」¹²⁾, 陳鴻祥의 「嚴峻的考驗——長篇小說『劍河浪』讀後」¹³⁾ 등이 있다.

10) 「人民日報」, 1974년 7월 15일, 제 3면.

11) 『朝霞』, 1974년, 제 6기.

12) 「人民日報」, 1975년 1월 31일, 제 3면.

13) 「光明日報」, 1975년 8월 31일, 제 4면.

中國 當代文學史에 있어 新時期文學의 첫 번째 文學思潮의 중심 소재로 부각되었던 ‘四人幫’의 실각은 文化大革命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 新時期文學에 접어들면서 知青小說 창작은 크게 성행하였으며, 知青小說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전성기를 맞이했다. 傷痕文學과 反思文學은 知青文學의 발전 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데, 특히 ‘三中全會’¹⁴⁾ 개최를 통해 知青文學 연구에 새로운 장이 열렸으며, 傷痕文學에 대한 연구도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활발히 진행되기에 이른다. 盧新華의 短篇小說 『傷痕』¹⁵⁾은 中國 當代文學에 있어 新時期文學의 서막을 열었으며, 茹志鵬의 『剪輯錯了的故事』¹⁶⁾는 反思文學의 선두주자로 볼 수 있다. 長篇小說로는 高曉聲의 『李順大造屋』¹⁷⁾과 古華의 『芙蓉鎮』¹⁸⁾, 魯彥周的 『天雲山傳奇』¹⁹⁾등이 있다.

지난 역사에 대한 ‘反思’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예사조가 감성적인 단계에서 이성적인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 時期가 反思文學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 蔣子龍은 특유의 민감한 시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그의 短篇小說인 『喬廠長上任記』²⁰⁾는 新時期文學의 대표작으로 ‘改革文學’²¹⁾무대에 등장했다. 80년대 중기에 阿城의 『棋

14) 全稱“中國共產黨十一屆三中全會”，1978年12月18日至22日在北京舉行。會議堅決批判了“兩個凡是”的錯誤方針，充分肯定了必須完整地、準確地掌握毛澤東的科學體系；高度評價了關於真理標準問題的討論，確了解放思想、開動腦筋、實事求是、團結一致向前看的指導方針；果斷地停止使用“以階級鬥爭爲綱”這個不適用於社會主義社會的口號，作出了全黨工作的重點轉移到社會主義現代化建設上來的戰略決策。這次會議結束了1976年10月以來黨的工作在徘徊中前進的局面，開始全面地認真地糾正“文化大革命”中及其以前的“左”傾錯誤。

(李盛平·張明澍 編, 『1976~1986十年政治大事記』, 光明日報出版社(北京), 1988년 7월, pp. 65~66.)

15) 盧新華, 『傷痕』, 『文匯報』(上海), 1978년 8월 11일.

16) 茹志鵬, 『剪輯錯了的故事』, 『人民文學』(北京), 1979년 제2기.

17) 高曉聲, 『李順大造屋』, 『雨花』(南京), 1979년 제7기.

18) 古華, 『芙蓉鎮』,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81년 판.

19) 魯彥周, 『天雲山傳奇』, 『清明』創刊號, 安徽人民出版社(合肥), 1979년 7월.

20) 蔣子龍, 『喬廠長上任記』, 江蘇人民出版社(南京), 1979년 판.

21) 中國自1978年底年十一屆三中全會之後, 便開始了自上而下的全國性經濟體制改革。與此同時, 許多作家開始把創作目光由歷史拉到現實, 一邊關注着現實中的改革發展, 一邊在文學中發表自己關於祖國發展的種種思考和設想。這就是風騷一時的“改革文學”, 其開篇之作, 是蔣子龍的中篇小說『喬廠長上任記』。

王』²²⁾은 ‘尋根文學’²³⁾의 열풍을 불러 일으켜 민족문화의 정신을 찾고자 하였다.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自覺은 그 방식이 천차만별이었고 예술적인 풍격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문학에 있어서 동일성을 싫어하는 수많은 작가들이 각각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知青文學은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중국내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蔣守謙의 「偉大的變革、豐碩的成果— 新時期的短篇小說」²⁴⁾, 張韜의 「從崛起走向繁榮— 新時期的中篇小說」²⁵⁾, 張法的 「傷痕文學,興起、演進、解構及其意義」²⁶⁾, 周明榮의 「傷痕文學二十年記」²⁷⁾, 陳廣思의 「論新時期八年悲劇人物形象」²⁸⁾, 王如靑의 「新時期文學人物形象的變遷」²⁹⁾, 彭禮賢의 「論新時期之初文藝思想解放運動」³⁰⁾, 鄭昇旭의 「論新時期小說發展的趨勢」³¹⁾등이 있다.

新時期 이후 知青小說 創作이 활발해짐에 따라 知青小說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그 전성기를 맞이한다. 각종 전문 서적과 論文들이 잇달아 발표되었으며, 연구의 방향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고, 제기되는 論題도

22) 阿城, 『棋王』, 『上海文學』(上海), 1984년 제7기.

23) 尋根文學의 내용은 대강 이하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1. 문학 미학의 의의에 있어 민족문화자료에 대한 재인식과 해석을 통해서 적극적인 문화 핵심을 발굴한다(阿城의 『棋王』). 2. 현대 사람들이 세계를 느낀 방식으로 고대문화 遺風을 이해하고, 생명 에너지를 분발시킬 수 있는 원천을 찾는다(張承志의 『北方的河』). 3. 當代 사회생활 중에 존재하는 흥측한 문화적 요소에 대해 계속 비판하고 민족문화 心理的인 심층 구조를 깊이 있게 발굴한다. 이것은 啓蒙主義 화제이기는 하나 현대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다(韓少功의 『爸爸』).

24) 蔣守謙, 「偉大的變革、豐碩的成果— 新時期的短篇小說」, 『社會科學戰線』(吉林), 1984년 제 3기.

25) 張韜, 「從崛起走向繁榮— 新時期的中篇小說」, 『社會科學戰線』(吉林), 1984년 제 3기.

26) 張法, 「傷痕文學,興起、演進、解構及其意義」, 『江漢論壇』(武漢), 1998년 제 9기.

27) 周明榮, 「傷痕文學二十年記」, 『東方藝術』(上海), 1998년 제 5기.

28) 陳廣思, 「論新時期八年悲劇人物形象」,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合肥), 2000년 7월 제 24권 제 4기.

29) 王如靑, 「新時期文學人物形象的變遷」, 『渭南師專學報』(社會科學版)(渭南市), 1995년 제 1기.

30) 彭禮賢, 「論新時期之初文藝思想解放運動」, 『吉安師專學報』(哲學社會科學)(吉安), 1994년 제 1기, 제 20권 제 2기.

31) 鄭昇旭, 「論新時期小說發展的趨勢」, 『唐都學刊』(西安), 1994년 제 6기, 제 10권(總第40期).

매우 광범위했다. 작가의 작품 연구뿐만 아니라 新時期 知青小說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도 있고, 知青小說의 심미적인 성격, 모델, 주체, 감정 특징, 인물의 형상화 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며, 知青小說의 결점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심지어 知青小說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도 있었다.

新時期文學은 文革文學 다음에 형성된 文學思潮로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당시 政治 경향에 대해 論評하고, 文革에 대해 날카롭고 신랄한 批判을 더했다. 郭小東의 『中國當代知青文學』³²⁾은 知青에 대해 연구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郭小東 본인 역시 ‘上山下鄉’³³⁾의 知識青年으로서 知青들의 삶을 매우 잘 이해하는 작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知青 작가의 감정·사상·심미적 느낌 등을 작품 속에서 잘 표현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季紅眞의 「沉雄蒼涼的崇高感— 論張承志小說的美學風格」³⁴⁾, 「文明與愚

32) 郭小東, 『中國當代知青文學』, 廣東高等教育出版社(廣州), 1988년 1월 제 1판, p. 312.

33) 「全國農業發展綱要修正草案」中首次使用‘上山下鄉’用語。九月二十日至十月九日, 中共八屆三中全會原則通過了「一九五六年到一九六七年全國農業發展綱要修正草案」。其中將「綱要草案」中的第39條調整爲第38條, 有關城鎮知識青年到農村去的內容, 做了重大修改。條文規定:“城市的中、小學畢業生的青年, 除了能够在城市昇學、就業的以外, 應當積極響應國家的號召, 遐想上山去參加農業生產, 參加社會主義農業建設的偉大事業。我國人口百分之八十五在農村, 農業如果不發展, 工業不可能單獨發展。到農村去工作是非常必要的和極其光榮的。”

在新中國歷史文獻上第一次出現‘上山下鄉’的用語, 并且把下鄉上山的主體明确爲‘城市的中、小學畢業的青年’。

(顧洪章 主編, 『中國知青青年上山下鄉大事記』, 人民日報出版社(北京), 1998년 6월, pp. 16~17.)

50年代中期, 城鎮日益增多的高小和初中生不能昇學、就業, 而發展農業生產和農村合作化運動正需要大批有文化的青年。到50年代末期國家又處在精簡職工、壓縮城鎮人口中, 於是, 動員城鎮中學畢業生回鄉、下鄉參加農業生產勞動便應運而生。

當時國家對城鎮知識青年下鄉問題, 沒有統一的規劃和部署, 均由地方自行安排, 基本上屬於投親靠友和隨父母全家回鄉落戶。有少數地區跨省區下鄉, 創辦青年墾荒隊, 則是各級青年組織發動的, 後來逐步納入了地方政府部門管理。對當時的知青來說, 鼓動他們到農村去, 是爲了消滅“三大差別”, 即工農差別、城鄉差別、和體力與腦力勞動差別。

(顧洪章 主編, 앞의 책, p. 1.)

34) 季紅眞, 「沉雄蒼涼的崇高感 論張承志小說的美學風格」, 『當代作家評論』(沈陽)1984年第6期。

昧의衝突, 論新時期小說的基本主題」³⁵⁾, 葉虎의 「新時期‘知青小說’模式管窺」³⁶⁾, 王源의 「新時期‘知青小說’主題的嬗變」³⁷⁾, 馬相武의 「現實主義文學在當代中國的發展」³⁸⁾, 董之林의 「知青題材的現代意蘊— 評中篇小說『流浪漢的神采』」³⁹⁾, 朱維妙의 「知青小說中的英雄主義再解讀」⁴⁰⁾, 康長福의 「論知青文學的英雄主義精神」⁴¹⁾, 金雪芬의 「感傷者的浪漫激情— 論知青文學的理想主義潮流」⁴²⁾, 賀紹俊의 「繞不開理想情結的知青小說」⁴³⁾, 康長福의 「苦澀的鄉土記憶與溫暖的靈魂家園— 試論知青文學史的鄉村情結」⁴⁴⁾ 등이 있다.

이러한 論文들은 思想, 內容 측면에서 新時期的 知青小說을 상흔·회고·참회 등의 방식으로 표면적인 현상에서부터 사물의 본질로 들어가는 과정을 탐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향토적인 추억과 감정을 묘사한 내용을 연구한 것도 있고, 新時期 知青小說의 이상적인 심리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한 연구도 있다.

1990년 이후는 知青小說의 창작이 매우 감소되어 社會文化[商品經濟]의 主流가 될 수 없지만, 知青文學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시기 知青小說의 연구는 이미 이데올로기와 反이데올로기, 그리고 知青과 農民의 이슈의 논쟁을 넘어서, 이성적 默想의 단계로 진입한 단계였다. 90년 이후 知青 작가들은 知青의 題材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의 작품을 창작하게 되는데 이로써 知青文學은 解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5) 季紅眞, 북경대학교 중어중문과 석사학위 청구논문(1984년)

36) 葉虎, 「新時期‘知青小說’模式管窺」, 『池州師專學報』, 2000년 2월, 제14권 제 1기.

37) 王源, 「新時期‘知青小說’主題的嬗變」, 『蘭州大學學報』(蘭州), 1997년, 제 1기.

38) 馬相武, 북경대학교 중어중문과 박사학위논문(1982년)

39) 董之林, 「知青題材的現代意蘊— 評中篇小說『流浪漢的神采』」, 『文論報』(石家莊), 1989년 1월 15일, 제 2판.

40) 朱維妙, 「知青小說中的英雄主義再解讀」, 『安徽教育學院學報』(合肥), 2003년 9월, 제 21권 제 5기.

41) 康長福, 「論知青文學的英雄主義精神」, 『齊魯學刊』(濟南), 2000년 제 6기.

42) 金雪芬, 「感傷者的浪漫激情— 論知青文學的理想主義潮流」, 『湘潭師範學院學報』(湘潭市), 2000년 12월, 제21卷增刊.

43) 賀紹俊, 「繞不開理想情結的知青小說」, 『南方文壇』, 總65期.

44) 康長福, 「苦澀的鄉土記憶與溫暖的靈魂家園— 試論知青文學史的鄉村情結」, 『棗莊師專學報』, 2001년 12월, 제 18권 제 6기.

二. 研究目的

中國 當代文學의 新時期文學 중 傷痕文學에 관한 연구는 현재 韓國學界에서는 거의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新時期文學’은 韓國學界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개념이며,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 성과도 또한 많지 않다. 中國에서도 知青文學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 文學 思潮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보면 대부분 文學史 자료의 정리와 묘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상 주제, 정감의 특징, 審美의 경향, 서술 주제 등에 대해 연구를 하였을 뿐 소설 원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知青 작가와 소설의 형식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으며, 연구 대부분이 新時期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文革 이전이나 文革 時期의 知青 소설과 知青文學은 왜 퇴조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3시기의 知青小說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성과는 더욱 부족하다.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가 있지만 원작에 대한 분석과 증거의 제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 時期의 원작 내용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知青小說 각 時期의 특징을 구분하며 살펴보았다.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時期의 원작이나 연구 성과들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5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知青小說을 고찰하고 知青文學의 퇴조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 이외에도 中國 當代文學 연구, 특히 新時期文學 연구에 대해 그 실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中國 當代文學의 연구가 韓國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三. 研究 範圍 및 方法

1. 研究 範圍

知青文學은 中國 當代文學에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특히 1980년대 中國 문학의 중심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文革文學, 新時期文學, 그리고 後新時期文學 등 주요 文學思潮에서 知青文學을 대부분 깊이 관련되어 있다.

文革 이전의 知青小說이나 新時期 知青小說 대부분이 短篇小說이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는 원본 소설이 많다. 본 논문 연구대상으로 삼은 知青小說은 모두 知青 생활을 묘사하는 소설이며 모두 知青 代表 작가들의 작품이다. 대표적으로 郭先紅의 『征途』, 梁曉聲의 『這是一片神奇的土地』, 『今夜有暴風雪』, 張承志의 『北方的河』, 馮驥才의 『啊!』, 史鐵生的 『我遙遠的清平灣』, 孔捷生の 『南方的岸』, 葉辛의 『蹉跎歲月』 등의 소설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소설들의 내용은 모두 知識青年을 주인공으로 묘사하는 내용이며, 小說의 作家가 知青이라고 하더라도 知青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경우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록 연구대상을 知青小說에 국한하고 산문과 詩歌는 제외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다른 전문자료와 르포르타주를 포함하였다. 예를 들면 프랑스 미셸 보냉(Michel Bonnin, 중국명 潘鳴嘯)의 『失落的一代— 中國的上山下鄉運動·1968~1980』, 定宜庄의 『中國知青史— 初瀾(一九五三~一九六八)』, 미국 토머스·번스타인(중국명 托馬斯·伯恩斯坦)의 『上山下鄉 — 一個美國人眼中的中國知青運動』, 楊健의 『中國知青文學史』 등 전문 연구 서적도 본 논문의 연구 자료로 삼았다.

知青文學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文化大革命 및 1978년 11期 3中全會⁴⁵⁾ 개최 이전을 知青小說의 시작단계, 1978년부터 1990년까지는 新時期文學을 知青文學의 발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가 바로 知青文學의 황금시대라고 일컫고 있다. 1990년 이후 특히 1992년도 鄧小平의 ‘南巡講話’⁴⁶⁾ 이후 知青을 묘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知青을 主題로 쓴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개혁개방을 主題로 하였는데 이것이 知青文學의 해체단계라고 볼 수 있다.

2. 研究 方法

본 논문은 知青文學의 長篇小說, 中篇小說 및 短篇小說에서 시대적인 특징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知青小說은 필자가 보유한 원본 소설이나 자료를 철저히 읽어서 소설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여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知青文學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서 知青

45)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期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國共產黨11屆3中全會)는 문화대혁명 기간과 그 이전의 좌경적 착오를 수정하고 調整·改革·整頓·提高라는 新八字方針을 제기하여, 근본적인 경제이론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중국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자체가 계획에 의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변동하는 각종 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방대한 행정계통이 경제를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약점 이외에도, 중국 자체의 정확한 경제정책 방침의 미흡 및 계속되는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좌·우파 투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낙후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중국 경제정책의 변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과도기 총노선 시기(1953~1957)는 불균형 발전의 소련 모델을 적용하고, ② 대약진 운동 시기(1958~1960)는 모택동의 좌경적 모험 노선이고, ③ 1차 조정정책 시기(1961~1965)는 후르시초프 모델의 수정주의 노선이고, ④ 문화대혁명 초기(1966~1970)에는 모택동 노선이 부활하고, ⑤ 2차 조정정책 시기(1971~1975)는 수정주의와 모택동 노선의 종합이고, ⑥ 문화대혁명 말기(1975~1976)는 4인방의 극좌 노선이고, ⑦ 양약진 시기(1977~1979)는 3차 조정정책 시기로 수정주의가 부활하였다.

46) 鄧小平이 1992년 1월 18일~2월 22일까지 武漢, 深圳, 珠海, 上海 등을 시찰하고 발표한 담화이다. 鄧小平은 1991년 舊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개혁개방 정책에 차질이 생기자, 1989년 天安門 사태 이후 목소리가 커진 보수 세력을 견제하고 반대세력의 의해 주춤했던 경제 활성화를 다시 추진하고자 1992년 1월 당시 중국 남부를 시찰하면서 개혁·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남순강화를 계기로 중국은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는 중국의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文學의 발생, 발전 및 해체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각 시대별 上山下郷 사건을 묘사하는 소설을 분석해서 知青文學의 발전 흐름을 탐구하고자 한다.

각 시대별로 ‘知識青年 上山下郷’ 사건에 대한 묘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설 배후에 숨겨진 당시의 문화, 언어,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작가의 생각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知青文學은 일반적으로 文革時期의 知青小說, 新時期의 知青小說 및 後新時期의 知青小說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논문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中國 當代 학계의 일반적인 시대구분에 따라 1966년-1978년은 文革時期로, 1978년-1990년은 新時期로, 그리고 1991년부터 지금까지를 後新時期로 구분하였다. 비록 文化大革命이 1976년에 끝났지만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문학은 여전히 文革時期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1976-1978년의 문학은 文革時期로 간주한다. 文革時期, 新時期 및 後新時期의 작품에서는 같은 역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묘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知青小說의 한 범주로 파악하고 있으며, 文學思潮의 흐름에 따라 작품의 내용, 시대, 주체를 고찰해 知青文學이 왜 해체단계의 수순을 밟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知識青年 및 知青文學

一. 知青의 定義와 범주

知識青年은 中國의 특정한 역사 시기에 유행했던 명칭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자원했거나 강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보내져 농민이 된 젊은이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知青’은 바로 그 약칭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실제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교육만 받았다.⁴⁷⁾ 知青은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나눌 수 있다. 광의적 의미의 知青은 진학하지 못하고 국가의 ‘上山下鄉’ 호소에 호응하여 농촌으로 간 青年들로 원래 집은 農村이고 졸업한 후에 다시 농촌으로 돌아간 ‘回鄉青年’도 포함이 되어 있다. ‘文革’ 前後에 中國 각 신문에 홍보된 모범 知青 대부분은 고향이 농촌이면서 졸업한 후에 귀향한 ‘回鄉青年’들이다. ‘回鄉青年’과 ‘知青’은 홍보하는 과정에서는 그 차이가 없지만 정책과 待遇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있다. 다시 말해, ‘回鄉青年’은 거의 농민처럼 취급되었고 知青에 대한 모든 정책에 있어 그들은 배제되었다. 실제로 그들이 中國 知青 上山下鄉의 최초 희생자들이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반해 협의적 의미의 知青은 1962년 이후 知識青年의 上山下鄉를 추진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國家에서 공식적으로 青年學生에게 농촌에 안착하는 비용까지 분배해 준 청년들을 가리킨다. 1962년 이후 졸업한 중고등학생과 ‘文革’ 期間에 졸업한 ‘老三屆’⁴⁸⁾,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도시 청년이 모두 ‘知青’의 주역⁴⁹⁾이 되었다. 50년대의 ‘回鄉青年’부터 1979년 대규모

47) [불] 潘鳴嘯 著 歐陽因 譯, 『失落的一代— 中國의 上山下鄉運動 · 1968~1980』,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北京), 2010년 1월 초판, p. 3.

48) 老三屆란 1966-1968년 中國 문화대혁명 전기 三年 기간 중에 졸업한 중·고등학생을 가리키는 말이다.

49) 定宜庄, 『中國知青史— 初瀾(一九五三~一九六八)』,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8년, 前言 p. 2.

知青들이 도시로 돌아오기까지 ‘上山下鄉’ 운동은 20여 년간 지속되었다.

프랑스 학자인 潘鳴嘯(Michel·Bonnin 미셸·보냉)는 『失落的一代— 中國의上山下鄉運動·1968~1980』중에서 知識青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上山下鄉 운동 때 관련된 젊은이를 ‘知識青年’이라고 하고 ‘知青’이라고 약칭한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계층이 없기 때문에 외국어 번역도 많이 다르다. 중국 정부가 정한 표준에 따라 영어로는 ‘educated youth’이고 프랑스어로는 좀 더 어색한 ‘jeunes instruits’라고 한다. 이것은 이미 일반적인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식이 많은 청년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가서 정착했거나 정착할 젊은이를 가리키는 것이다⁵⁰⁾.

이 용어가 출현한 1950년대 초에는 초등학교 과정만을 졸업한 사람도 모두 ‘知識青年’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이 용어는 주로 도시에서 공부했던 농촌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가는 그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격려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1955년부터 특히 1960년대에 와서 이 용어는 농촌 청년뿐만 아니라 도시 청년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정부는 중고등학교 졸업생을 설득하여 농촌으로 가서 노동하도록 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두 종류의 知青, 즉 ‘下鄉知青’과 ‘回鄉知青’으로⁵¹⁾ 나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知青作品은 모두 ‘下鄉知青’의 작품들이다.

1955년 河南省 陝縣 大李庄鄉의 중학교 졸업생들이 농촌으로 가서 農業合作化運動에 참여하는 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1960년까지만 해도 知識青年의 下鄉 운동은 실험단계에 불과해 그 규모가 매우 작았다. 그 시기의 知青은 거의 대부분이 원래 농촌 호적을 가진 학생들이었고 졸업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들로 ‘早期知青’이나 ‘返鄉知識青年’이라고 불린다.

50) [불] 潘鳴嘯 著 歐陽因 譯, 『失落的一代— 中國의上山下鄉運動·1968~1980』,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北京), 2010년 1월 초판, p. 2.

51) 潘鳴嘯, 앞의 책, p. 3.

‘知識青年’이 일반적 개념이 아닌 특정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青年’이라서가 아니다. 당시 도시와 농촌의 青年들이 어찌 천만 명에 불과했겠는가? 그들 중에는 ‘知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농촌 청년들이 공장으로 들어간 노동자나 군인이 된 사람도 모두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들을 모두 ‘知識青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知識青年’이라는 특정 개념으로 불렸던 대상은 도시 사람들이 신분을 바꿔 농촌으로 가서 ‘貧下中農’의 再教育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야 ‘知識青年 上山下鄉 運動’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定宜庄⁵²⁾은 知青이 특정한 역사 배경에서 생긴 특수한 계층이라고 생각한다. 知青은 학교 교육을 받은 후에 ‘上山下鄉’이라는 특수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긴 집단으로, 政府가 조직해서 농촌으로 보내져 농업생산에 종사한 청년들을 가리킨다. ‘知青’ 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들의 불확실성이다. 政府가 그들을 농촌으로 보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세대의 농민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도시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농촌과 융합한 새로운 세대의 대표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농민과 같은데 농민은 아니었고, 오늘은 농민이지만 내일은 농민이 아닐 수도 있다. 결국 그들은 국가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회의 특별한 집단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을 뿐이다.⁵³⁾

52) 定宜庄(1948.12.12~), 女, 北京市人, 滿族額莫托氏。北京市人1968年赴內蒙古錫林郭勒盟阿巴嘎旗插隊, 1974年回城。1978考入北京師範大學歷史系, 1982年本科畢業, 同年考入中央民族學院歷史系, 1985年獲碩士學位。1991年6月獲中央民族學院歷史學博士學位, 師從於中國著名的清史、滿族史專家王鍾翰教授, 定宜庄成爲中國首位滿族史女博士, 曾任中央民族學院歷史系講師、副教授, 1993年調入中國社會科學院, 現爲社科院歷史所研究員、中央民族大學滿學研究所兼職研究員, 博士生導師, 主要從事清史、滿族史研究。講過『清代八旗制度』, 主要著作有『中國知青史—初瀾』(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年)和『中國知青事典』(與劉小萌、史衛民、何嵐合著), 四川人民出版社, 1995年。

53) 定宜庄, 앞의 책, 前言 p. 3.

특수한 역사적 환경은 ‘上山下鄉’의 ‘知識青年’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만들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고, 학생에서 농민이 된다는 것은 人生에 있어 큰 전환점이다. 그들은 매우 험난한 일을 경험했으며 사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생활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점차 중국의 현실에 대해 비교적 사실과 가까운 실정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중국 인구의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인식의 전환으로 강렬한 농촌개혁의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54)

二. 知青 탄생의 시대적 배경

1. 知青 現況

知青‘上山下鄉’의 政策은 1950년대 政府에 의해 農村 출신의 중·초등학생을 동원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후에 ‘大躍進運動’⁵⁵⁾이 큰 경제 재난을 초래하자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도시의 청년을 동원하여 농촌으로 보내는 ‘上山下鄉’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⁵⁶⁾. ‘城鄉分治’⁵⁷⁾는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모여들어 생겨난 도시 인구 문제를 해

54) 定宜庄, 앞의 책, pp. 480~481.

55) ‘大躍進運動’是指1958年至1960年間, 中國共產黨在全國範圍內開展的極‘左’路線的運動, 是在中共八屆三中全會及其以後不斷地錯誤批判1956年反冒進的基礎上發動起來的, 忽略了客觀經濟規律, 以高指標、瞎指揮、浮夸風和‘共產風’爲主要標志的‘左’錯誤嚴重泛濫, 加上當時的自然災害和前蘇聯背信棄義地撕毀合同, 使中國國民經濟遇到嚴重困難, 國家和人民受到嚴重損失. 經濟工作中急躁冒進的“左”傾錯誤, 使國民經濟遭受嚴重挫折, 人民生活受到很大的影響.

(李成瑞, 「大躍進引起的人口變動」, 『人口研究』, 中國人民大學人口與發展研究中心『人口研究』編輯部(北京), 1998년 1월, 제 21권 제 1기, p. 3.)

56) 定宜庄, 앞의 책, p. 146.

57) 20世紀50年代以後, 中國逐步形成一套城鄉分割的二元體制. 這一的理論基礎是所有制不同, 城市以全民所有制爲主, 農村以集體所有制爲主. 這一體制的運行, 在諸多方面是兩套政策, 對城

결하게 되었다. 1968년에 일어난 文化大革命으로 인해 1966년, 1967년, 1968년에 졸업하고 진학하지 못한 중·고등학생의 수는 천만 명이 넘었다. 이 시기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모두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고, 졸업생들은 취업할 일자리가 없었다. 게다가 경제는 쇠퇴의 길을 걸으며 1968년 국내총생산액은 1966년의 86.2%(표1 참조)⁵⁸⁾에 불과하였고 ‘老三屆’ 졸업생은 도시의 잉여 노동력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1953년부터 중국에서는 經濟建設의 제1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주된 힘을 모아 重工業을 발전시켜 국가 공업화와 국방 현대화를 建設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그러나 낙후한 농업경제로는 국민의 공산품 需要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공업 발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1953년과 1954년 2년 동안 농업생산이 감소되어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농촌과 도시의 생활수준 차이가 커서 많은 빈곤 지역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로 물러와 도시 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 인구 문제와 취업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은 교육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된 후 몇 년 간은 교육사업이 매우 발전하여 1953년 말까지 1949년과 비교해보면 전국 초등학교는 50%가 증가되고, 중학교는 13% 이상 증가되어 중학생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⁵⁹⁾

市、對居民是一套政策，對農村、對農民是另一套政策。幾十年來逐漸固定話，加上有戶籍、身份制做劃分標準，就形成了‘城鄉分治、一國兩策’的格局。

(陸學藝, 「走出‘城鄉分治, 一國兩制’的困境」, 『特區展望』, 海南省委宣傳部出版(海口), 2000년 제3기, pp. 13~14.)

58) 표1. 『中國勞動工資統計資料』, 中國統計出版社(北京), 1987年, p. 217.

59) 定宜庄 著 앞의 책 pp. 1~2.

社會勞動 生産率 표 1

(국민생산 총액으로 계산) 단위, 위안/인·年

연도	국내총생산 勞動生産率	농업인구 勞動生産率	공업인구 勞動生産率		
			계	경공업	중공업
1952	482	486	2,095	2,098	2,291
1953	564	495	2,580	2,544	2,943
1954	596	500	2,735	2,621	3,295
1955	618	523	2,860	2,557	3,878
1956	710	546	3,829	3,442	4,813
1957	730	555	4,270	3,981	4,868
1958	899	618	3,155	5,255	2,306
1959	1,013	585	3,423	5,872	2,583
1960	1,076	487	4,740	4,826	4,633
1961	723	430	3,300	3,788	2,992
1962	650	410	3,644	3,981	3,408
1963	702	434	4,655	4,726	4,623
1964	798	476	5,584	5,564	5,628
1965	915	499	6,666	7,650	5,931
1966	1,032	525	7,468	8,139	6,990
1967	897	515	6,109	7,343	5,204
1968	826	484	5,638	6,994	4,678
1969	997	472	7,006	8,307	6,109
1970	1,191	509	7,888	8,724	7,314
1971	1,270	513	7,761	8,445	7,299
1972	1,300	508	7,429	8,287	6,886
1973	1,392	546	7,603	8,671	6,942
1974	1,389	560	7,220	8,470	6,451
1975	1,518	580	7,722	8,758	7,066
1976	1,510	592	7,132	8,082	6,523
1977	1,640	633	7,701	9,004	6,909
1978	1,831	657	7,438	9,985	7,579
1979	1,957	713	7,706	10,184	7,830
1980	2,069	731	7,952	10,825	7,755
1981	2,095	757	8,946	11,175	7,383
1982	2,221	817	9,364	11,184	8,029
1983	2,376	877	10,151	11,955	8,837
1984	2,641	1,023	11,190	13,127	9,781
1985	2,955	1,192	11,113	12,616	9,957

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된 후에 도시 인구 문제와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0년대부터 도시 인구 중 靑年들을 조직화하여 농촌으로 이주시켰다. 1955년 毛澤東은 ‘농촌은 넓은 세상이고 거기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農村是一個廣闊的天地，在那里是可以大有作爲的]’는 구호를 만들어 냈고, 知識靑年 ‘上山下鄉’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때부터 정부에서 농장을 만들고 靑年들을 황무지 개간 운동에 참여시켰다.

1966년 文化大革命의 영향으로 대학입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8년까지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로 진학할 수도, 취업할 수도 없었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文化大革命의 動亂으로 중앙정부는 도시 청년들을 농촌에 안착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도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1968년 12월 22일 毛澤東은 ‘人民日報’에 ‘我們也有兩隻手，不在城里吃閑飯’이라는 社說을 발표했다. 社說에서 毛澤東은 ‘知識靑年은 농촌에 가서 貧下中農⁶⁰⁾에게서 再教育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指示를 내렸고, 1969년에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게 되었다.

1977년 대학 입시가 다시 시작되면서 농촌에 있던 대다수 知識靑年들은 도시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1980년 5월 8일 당시 中國 總書記인 胡耀邦은 ‘上山下鄉’ 運動을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10월 1일에 중앙정부는 知識靑年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정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上山下鄉’의 知識靑年의 총인원수는 약 1,700만 명(아래 도표2 참조) 정도가 된다. 知識靑年의 분포 범위를 보면 1962부터 1979년까지는 全國 ‘插隊靑年’이 약 1282.21만 명, 農場과 生産建設兵團의 知識靑年의 수는

60) “貧下中農” 一詞，在10世紀60至70年代家喻戶曉人人皆知，它表明一個人的“階級成分”。該詞語最早始於何時呢？查閱毛澤東著作和一些重要的中共中央文件後發現，其最早出現在毛澤東的「關於農業合作化的問題」(1975年7月31日)一文中。文中有這樣一段話：‘這裏談一個社員成分問題。我以為在目前一兩年內，在一切合作社還在開始推廣或者推廣不久的地區，即目前的大多數地區，應當是，① 貧農 ② 新中農中間的下中農 ③ 老中農中間的下中農— 這幾部分人中間的積極分子，讓他們首先組織起來。’這是在中國產黨的重要文獻中首次出現“下中農”這個“階級成分”詞。

1955年9月7日，毛澤東在爲中共中央起草的一份黨內指示的標題就是「農業合作化必須依靠黨團員和貧農下中農」，此後，“貧下中農”這個詞在各種場合頻繁出現，到文革期間更是達到了鼎盛。

(引自「“貧下中農”始於何時」，『文史天地』(貴陽市)，2012년 제 6기, p. 94.)

494.94만 명, 농장의 知識青年은 203.08만 명이였다. 生産建設兵團은 주로 黑龍江, 內蒙古와 雲南(文化大革命 前新疆 生産建設兵團) 등에 있고, 農村으로 간 知青은 널리 퍼져 있었다.⁶¹⁾ ‘上山下鄉’ 運動 결과 사람 수가 가장 많았고, 분포 지역이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는 知青들은 실제 농촌으로 간 知青은 ‘插隊落戶’의 知識青年이었다.

知識青年 上山下鄉 人數一覽表 (單位：萬人) 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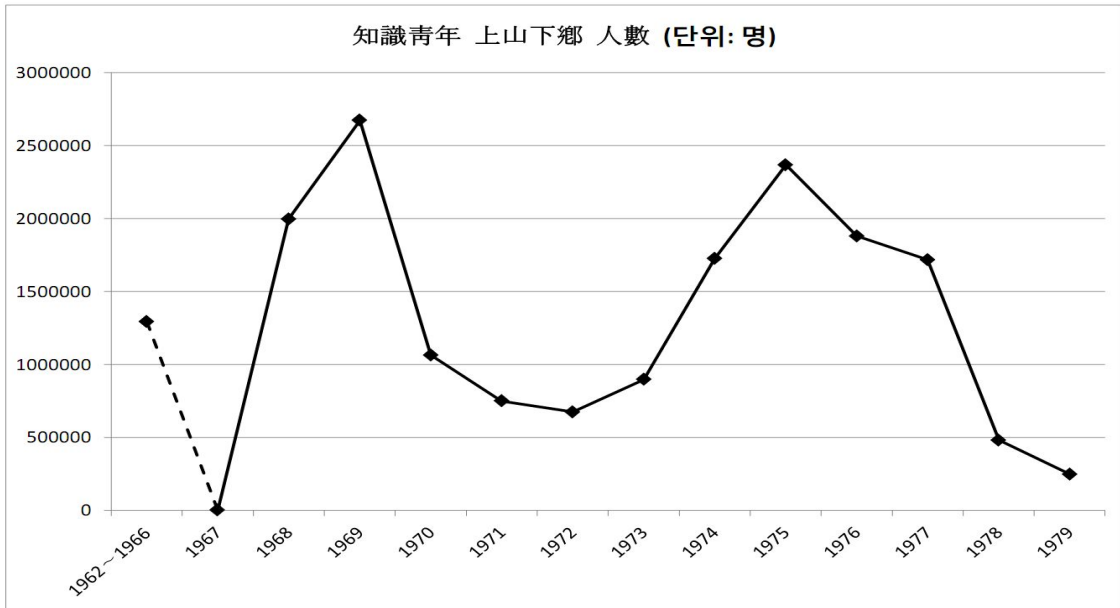
연 도	합계	插隊(산간·농촌)	공동체 농장	국유 농장
1962~1966	129.28	87.06		42.22
1967~1968	199.68	165.96		33.72
1969	267.38	220.44		46.94
1970	106.40	74.99		31.41
1971	74.83	50.21		24.62
1972	67.39	50.26		17.13
1973	89.61	80.64		8.97
1974	72.48	119.19	34.63	18.66
1975	36.86	163.45	49.68	23.73
1976	88.03	122.86	41.51	23.66
1977	71.68	113.79	41.90	15.99
1978	8.09	26.04	18.92	3.13
1979	24.77	7.32	16.44	1.01
총 계	1,776.48	1,282.21	283.08	291.19

※ 출처 : 『中國勞動工資統計資料』, 中國統計出版社, 1987年, p110.

注, 插隊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을 포함. 공동체농장으로 간 사람에는 농업 기지, 농·공상 연합기업체로 들어간 사람을 포함. 국유 농장으로 간 사람은 국유의 산림, 목장, 漁場으로 간 사람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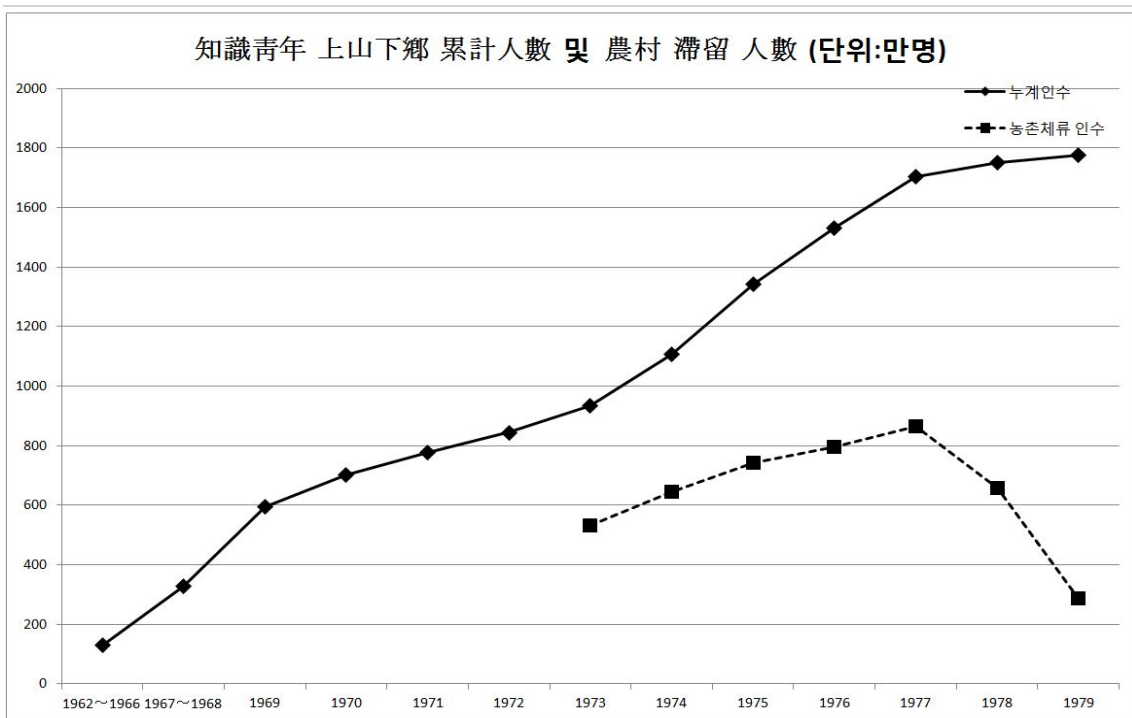
61) 顧洪章 主編,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始末』, 人民日報出版社(北京), 2009년 1월, p. 193.

1962-1980년 지식청년 上山下郷 그래프 표3



※ 출처: 이 그래프는 위 표2의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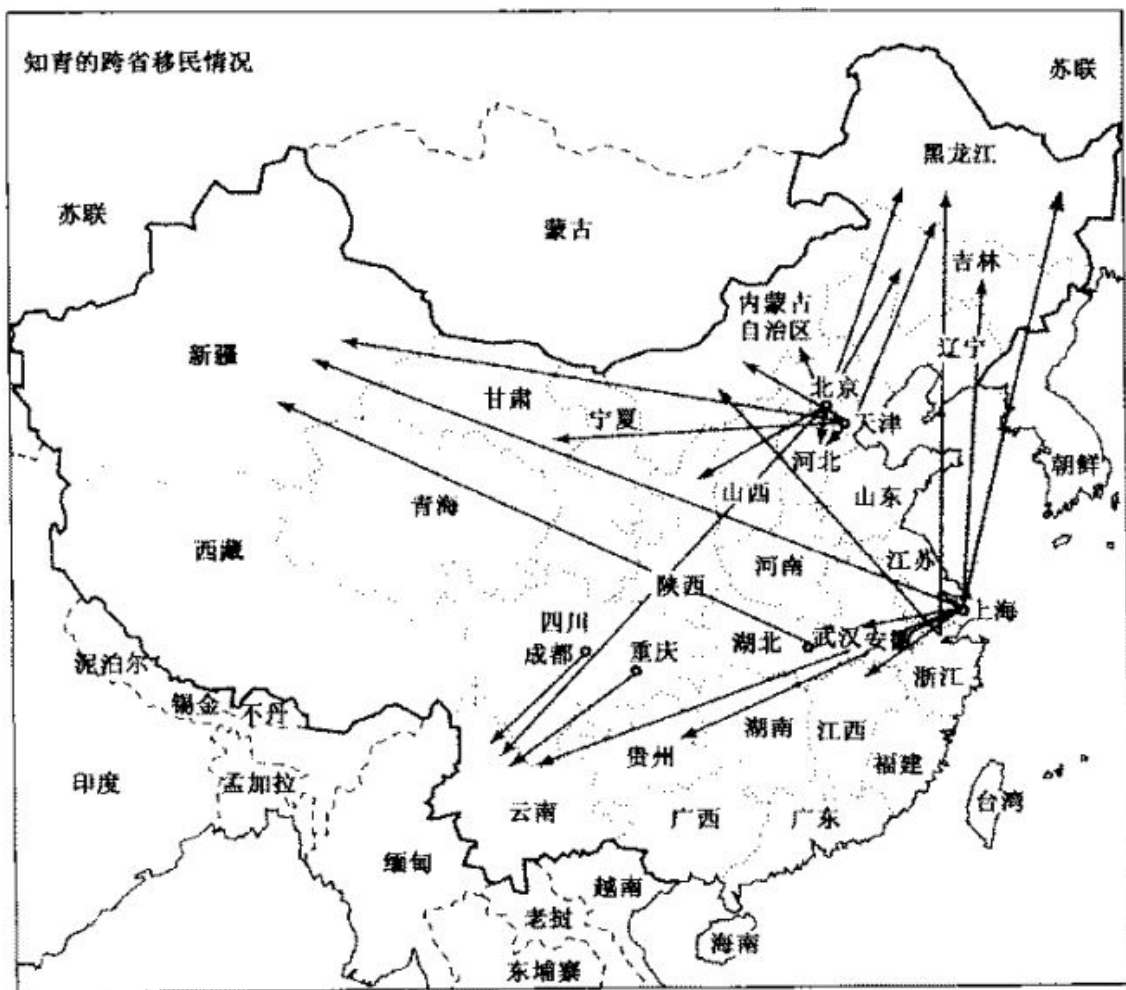
1962-1980년 지식청년 上山下郷 누계인수 및 농촌 체류인수 표4



※ 출처: 이 그래프는 위 표2의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上山下乡 운동 때 인구 이동의 도표를 보면 중국의 최대 도시들 가운데 주로 三大 직할시(北京, 上海, 天津)에서 주변의 省이나 혹은 변경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대다수의 知青은 주변의 각 省이나 市郊外로 이동했지만 그중에 대략 8%(1962~1980년 사이에 知青 數는 17,919,800명)정도에 해당하는 1,429,200명을 다른 省으로 보내졌다.⁶²⁾ 이동 노선은 다음과 같다.

다른 省으로 知青 移動 상황도 표5



※ 출처: 潘鳴瀟, 앞의 책, 179쪽.

62) [불] 潘鳴瀟, 앞의 책, p. 179.

2. 정치적 原因

中國의 경제정책이 공업을 중시하고 농업을 경시하는 ‘重工輕農’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따로 다스리고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의 정책 [城鄉分治, 一國兩策]’을 실시하는 것은 정부가 도시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농촌은 국가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知靑은 이런 ‘城鄉分治’ 政策의 희생물이었다.

美國人 교수인 托馬斯·伯恩斯坦(Thomas P. Bernstein 토머스·번스타인)은 그의 著書 『上山下鄉— 一個美國人眼中的中國知靑運動』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도시 인구의 팽창과 실업을 급증이라는 문제에 대부분 직면한다. 정부는 도시로의 移民 물결과 취업 요구, 날로 증가되는 교육의 압력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 하에 중국의 해결책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도시의 인구팽창을 억제하고 농촌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교육과 경제 발전을 실제로 적응시키는 조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중·고등학생들을 농촌으로 보내 정착시키는 일로 보았다.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 1200만 명의 도시 중·고등학교 졸업생을 농촌으로 보낸 것은 20세기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실험은 毛澤東의 강렬한 支持를 받았고 그의 후계자인 華國鋒 역시 1977년에도 이 事業을 계속해서 진행시켰다.

許多第三世界國家都面臨着源於無法遏止的城市人口膨脹和城市失業率日益高漲的社會壓力。它們的政府在向城市移民的浪潮及因就業能力要求而與日俱增的教育壓力面前束手無策。相對這種一般的狀況而言，中國曾是一個引人注目的例外。在這個國家曾實行一系列的控制城市膨脹、促進農村發展以及使教育與經濟發展實際相適應的措施中，一個最重要的舉措就是將城市中學畢業生送到農村和邊疆去安家落戶。在1968到1975年間就有1200萬城市中學畢業生被送到農村，這無疑是本世紀任何一個國家中最大的一項社會實驗，這一實驗得到了毛澤東的强有力的支持，他的後繼者華國鋒

1977年前後亦在繼續這一事業。⁶³⁾

그의 이러한 말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中國 政府가 ‘上山下鄉’ 운동을 시작하게 된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또한 毛澤東이 上山下鄉 運動을 일으킨 동기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귀납했다.

첫 번째 동기는 이데올로기이다. 그 당시 상황은 중국과 舊소련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던 시기였다. 毛澤東은 중국의 학교 교육이 자본주의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靑年들이 점차 實際, 群衆, 革命理想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농촌에 가서 貧下中農의 再教育을 받아야 革命事業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上山下鄉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 목적은 ‘三大差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三大差別’은 도시와 농촌, 도시 노동자와 농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의 차별⁶⁴⁾을 가리킨다.

두 번째 동기는 政治的인 것이다. 그 목적은 紅衛兵을 길들여 社會秩序를 회복시켜 혼란한 국면을 진정시키는데 있었다. 1968년에 中國 각지에 이미 ‘天下大亂’의 국면을 종결시키고자 혁명위원회를 성립했지만 紅衛兵 간에는 여전히 파벌 의식 사이의 투쟁과 무장 투쟁이 끊이질 않았다. 7월 말부터 毛澤東은 解放軍과 노동자 宣傳隊를 대학으로 보내 강제로 질서를 회복시킨 후 마침내 上山下鄉 運動을 불리일으켰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역할은 바로 毛澤東의 權威를 강화시키는 것이었으며 ‘魅力領袖’인 권위 제도를 확립시키

63) [美] 托馬斯·伯恩斯坦著, 李楓 等 번역 夏潮 교정, 『上山下鄉— 一個美國人眼中的中國 知靑運動』, 警官教育出版社(北京), 1993년 5월, p. 1.

64) [불] 潘鳴嘯 著 앞의 책, pp. 31~36.

는 것이었다.⁶⁵⁾

세 번째 동기는 사회경제 문제다. 1968년 말에 文化大革命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각종 투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많은 도시 靑年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촌으로 보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다.⁶⁶⁾

미셸·보냉은 ‘上山下鄉’ 運動을 일으킨 계기가 경제적인 要素가 없었다고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러한 동기를 적극적인 동기와 소극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적극적 동기는 농촌과 변경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도시의 靑年이 지식, 문화와 과학기술을 가지고 농촌으로 가서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변경 지역은 中·蘇 분쟁으로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은 대외적으로 ‘반제반수[反帝反修]’의 구호 하에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적대시하는 防衛 역량을 강화시켜야 했다. 두 번째인 소극적 동기는 도시 취업 인구와 과잉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미셸·보냉과 토머스·번스타인의 관점을 비교해 보면 미셸·보냉의 첫 번째 동기는 토머스·번스타인의 세 번째 동기와 같은 것이며, 그가 경제적인 동기라고 생각한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은 토머스·번스타인이 말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동기인 셈이다. 미셸·보냉이 제시한 紅衛兵을 굴복시킨 두 번째 동기는 토머스·번스타인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며, 이것이 미셸·보냉의 주장 중에 가장 중요하고 특색 있는 것이다.

65) [불] 潘鳴嘯 著 앞의 책, pp. 3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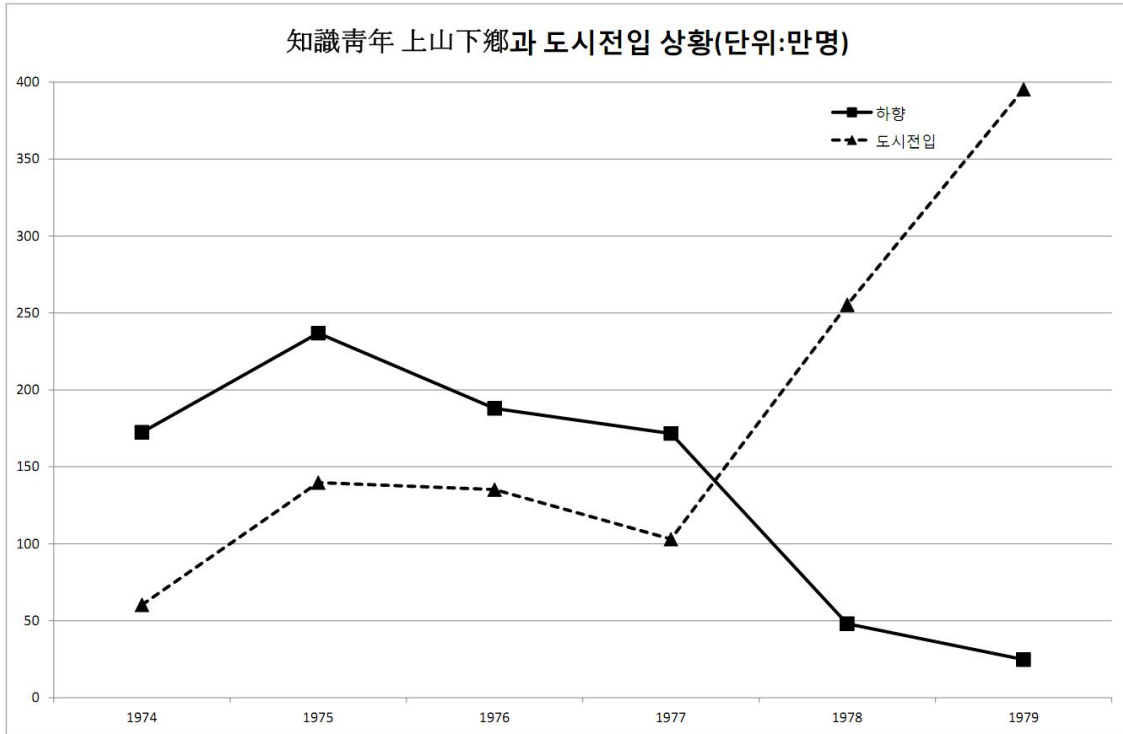
66) [불] 潘鳴嘯 著 앞의 책, pp. 42~48.

上山下郷 知識青年 농촌에서 진출 인구(回城人數) 표5

연 도	합계	대학 입학	징 병	직공 모집	질병·곤란 등 도시로 돌아감	기타
一. 절대 인구(만명)						
총 계	1,490.46	126.46	86.03	912.31	353.25	12.41
1962~1973	401.35	43.35	24.10	249.60	82.70	1.60
1974	60.35	16.98	4.24	28.63	10.20	0.30
1975	139.79	14.93	2.00	105.81	16.24	0.81
1976	135.25	7.30	11.27	99.24	17.03	0.41
1977	103.01	7.90	5.57	69.44	19.78	0.32
1978	255.32	27.09	29.81	130.78	66.64	1.00
1979	395.39	8.91	9.04	228.81	140.66	7.97
二. 각 항목 차지하는 비율(%)						
총 계	100.0	8.5	5.8	61.2	23.7	0.8
1962~1973	100.0	10.8	6.0	62.2	20.6	0.4
1974	100.0	28.2	7.0	47.4	16.9	0.5
1975	100.0	10.7	1.4	75.7	11.6	0.6
1976	100.0	5.4	8.3	73.4	12.6	0.3
1977	100.0	7.7	5.4	67.4	19.2	0.3
1978	100.0	10.6	11.7	51.2	26.1	0.4
1979	100.0	2.2	2.3	57.9	35.6	2.0

※ 출처: 『中國勞動工資統計資料』, 中國統計出版社, 1987年, p111

知識青年 上山下鄉과 도시 전입[回城] 상황 표6



※이 그래프는 위 표5의 자료를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위 그래프를 보면 1977년은 ‘上山下鄉’의 분계선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때부터 대량의 知青이 도시로 전입되기 시작했다. 1978년 가을 ‘文革’時期에 ‘上山下鄉’의 知青은 1600여만 명에 달했으나 농촌에 체류한 知青은 불과 800만 뿐이었으며, 그 중 절반이 도시로 전입했다. 그러나 雲南 지역의 10여만 명의 知青 중 도시로 전입한 知青은 1/4 미만이다. 1978년 말, 雲南 國營農場에 체류된 知青數는 아직도 7.55만 명, 그 중에 上海 知青은 3.7만 명(49%)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四川 知青으로 3.2만 명(42%), 昆明 知青은 3600명(5%), 北京 知青은 2900명(4%)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⁶⁷⁾

‘上山下鄉’ 운동은 1954년 말 ‘回鄉知青’으로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중국

67) 王增如, 李向東, 『上山下鄉: 中國1968』, 解放軍出版社(北京), 1989년 1월, p. 328.

인구의 이동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 아래의 도표는 이 시기의 인구 이동 상황표이다.

1954년~1979년 단계별 중국 인구 이동 상황 및 年 이동률 표7

연 도	年 평균 이동 인수(만명)	年 평균 이동률
1954~1957	2,627	43.0
1958~1960	3,213	49.0
1961~1965	1,680	25.0
1966~1969	797	20.0
1970~1976	1,466	18.0
1977~1979	1,906	20.0
1980~1984	1,820	18.2

※ 費聲 著 『熱血冷淚— 世紀回顧中的中國知青運動』, 成都出版社(成都), 1993년 10월, 31쪽 자료

위 표를 보면 1954년부터 1979년까지 중국 인구 이동은 모두 1억3천5백9만 명이였다. 물론 인구 이동이 전부 上山下鄉의 知青은 아니고, 도시로 돌아온 知青, 도시로 들어온 농민, 제대 군인, 졸업 취업 등이 있지만 대부분은 도시에서 下鄉한 知青들이였다. 1954년~1957년, 1958년~1960년 이외에 1977년~1979년의 이동 인구가 가장 많았고, 그 후는 1980년~1984년에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 이것은 知青들이 도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1979년은 知青 上山下鄉의 종결이라고 볼 수 있다.⁶⁸⁾

68) 費聲, 『熱血冷淚— 世紀回顧中的中國知青運動』, 成都出版社(成都), 1993년 10월, p. 32.

三. 知靑文學의 함의와 발전단계

中國 當代文學에 있어 知靑文學의 작품은 대부분 知靑들의 생활을 묘사한 작품들을 가리킨다. 작품 속에서 知靑 자신들의 苦難한 생활을 묘사함으로써 文革 시기의 진상을 폭로하고, 지난 청춘 세월을 그리워하며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知靑 출신의 작가들은 그들의 생활과 농민 문체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생의 참뜻에 대한 탐구로서의 知靑小説은 新時期 小説 중에서 중요하고도 특별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梁曉聲, 韓少功, 張承志, 史鐵生, 葉辛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今夜有暴風雪』, 『北方的河』, 『我遙遠的清平灣』, 『這是一片神奇的土地』, 『蹉跎歲月』 등이 있다.

知靑文學은 독특한 발전 법칙을 갖고 있다. 그것은 上山下鄉 運動의 產物이라고도 할 수 있다. 文革의 政治運動은 知靑文學의 創作과 藝術 形式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全面的으로 文革 運動과 上山下鄉 運動, 그리고 知靑들이 성장했던 社會環境을 연구해야만 知靑文學의 내부적인 발전 법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⁶⁹⁾ 본고에서 언급한 문학 작품은 작가가 반드시 知識靑年이어야 되고, 작품의 내용은 반드시 知靑 자신의 생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작가가 知靑 출신이지만 작품의 내용이 知靑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散文과 詩歌도 본 논문의 범위 내에 넣지 않았다.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知靑文學 解體 원인을 분석할 때나 知靑 작가가 아니어도 문학 조류를 분석할 때 필요에 따라 언급하였다.

楊健은 『中國知靑文學史』에서 知靑文學의 發展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다. 文革 이전의 上山下鄉 時期(1953~1966년), 紅衛兵 時期(1966~1968년), 文革 중의 上山下鄉 時期(1969~1978년), 新時期(1978~1989년), 後新時期(1990~

69) 楊健, 『中國知靑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2년 1월, 속표지[扉頁] 부분.

1998년) 등의 5단계이다.

知青文學의 제1단계(1953~1966년)는 形成 時期다. 知青文學은 ‘城鄉分治’ 정책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며 당시 경제·정치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생겨나게 되었다. 제1단계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50~60년대는 故鄉으로 돌아간 知青이 창작한 ‘回鄉’ 知青文學과 60년대 초에 변경 지역으로 간 知青들이 창작한 ‘支邊’ 知青文學이다. ‘支邊’ 知青文學에서 나타난 革命 낭만주의는 신세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知青文學의 제2단계(1966~1968년)는 過渡期이다. 紅衛兵 文學은 文革 當局의 지도하에 형성된 것이지만 紅衛兵 運動 後期의 신세대는 권력 이데올로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紅衛兵 文學은 知青의 民間 창작에 기초를 다졌다.

知青文學의 제3단계(1969~1978년)는 上山下鄉 時期의 知青文學이며, 또한 知青文學史의 주요 부분이다. 이 時期는 초기(1968~1971년), 중기(1971~1973년), 후기(1974~1976년), 전환기(1976~1978년)등으로 나뉜다. 知青 집단은 兵團知青과 插隊知青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 방식에 따라 知青文學의 창작도 組織化와 非組織化라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文革 중의 知青文學은 後期 知青文學의 창작에 색다른 요소를 제공하게 된다.

知青文學의 제4단계(1978~1989)는 新時期의 知青文學이다. 新時期 知青文學도 80년대 전기와 후기라는 두 개의 시기로 나뉜다. 後期 知青文學은 知青들이 도시에 생존하기 위해 창작한 하나의 표현이다. 80년대 전기는 文革 이데올로기 잔재 영향으로 창작에 있어 구애를 받았는데 80년대 후기에는 규제가 완화되어서 知青文學의 다원화에 새로운 여건을 제공했다.

知青文學의 제5단계(1990~1998년)는 後新時期的 知青文學이다. 창작 환경이 완전히 완화되어 知青 집단 내부에도 ‘知青學人’과 ‘知青作家’라는 문화 집단이 형성되었다. ‘私人敍事’와 ‘宏大敍事’의 차이가 나날이 나타나게 되었고, 理想主義의 소멸에 따라 生存 文學은 知青文學의 主流가 되었고 90년대 말에 知青文學이 全面的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⁷⁰⁾

80년대 知青文學은 역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은 傷痕文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비록 ‘청춘이 후회가 없다[青春無悔]’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는 심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知青이 도시로 돌아온 후 생활에 변화가 생기면서 知青文學의 創作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작가들은 더욱 깊어진 思考로 知青文學을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知青이 도시로 돌아온 후 난감해진 심경을 묘사하는 내용도 있고 知青이 도시로 돌아왔다가 다시 농촌으로 가는 내용도 있다. 90년대 이후 知青 作家들이 과거 생활을 회고하는 데 있어, 知青文學은 知青 生活의 어려움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知青을 농촌의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人情과 人性, 그리고 生命 體驗과 人生 哲學을 깨닫게 되어 知青文學은 더욱 높은 경지로 들어간다. 90년대 이후의 知青文學은 ‘後知青文學’⁷¹⁾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70) 楊健, 앞의 책 pp. 3~5.

71) 姚新勇, 『主體的塑造與變遷— 中國知青文學新論(1977-1995年)』, 暨南大學出版社(廣州), 2000년, p. 5.

Ⅲ. 知靑文學의 發生

知靑題材 小說 창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知靑이 자신들의 내용을 쓴 것이며 作家와 題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知靑文學의 발전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知識靑年의 上山下鄉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묘사가 시대적인 특징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발표 시기를 보지 않아도 어느 시대의 작품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작품 면에서 시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知靑小說은 現實主義의 문학 정신을 바탕으로 ‘文革’ 때 제정된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대의 심정과 역경을 그려내고 있다. ‘傷痕’과 ‘回歸’를 제재로 삼은 知靑文學 작품은 新時期 思想 解放運動의 산물이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⁷²⁾ 知靑文學은 많은 작품들이 창작됐지만 작품성이나 예술성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다. 특히 文革 이전의 작품을 현재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정서와 다소 다른 느낌이 든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작품들은 작가에 따라서 그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후속 작품들은 각각의 작품에서 자기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전의 작품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경향도 갖고 있다. 따라서 같은 시기의 같은 사건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보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다. 90년대 이후로 접어들어서는 소설의 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써 知靑文學은 해체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新時期文學의 흐름은 傷痕文學⇒ 反思文學⇒ 尋根文學⇒ 改革文學⇒ 都市文學, 新寫實文學 등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傷痕文學과

72) 郭錦華, 「知靑文學走向—『中國知靑部落』三部曲創作批評綜述」, 『文藝理論與批評』(北京), 2003년, 제 6기, p. 72.

反思文學은 知靑文學의 발전단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知靑文學의 해체단계로 볼 수 있다. 新時期文學과 文革文學 중 知靑文學의 서술 방법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각 시대의 작품을 선택해서 읽어 보고 같이 비교해 보면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그 시대적인 언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역사 사건에 대한 문학적인 묘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를 달리한 작품 간의 차이는 각 시대의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결정짓게 된다. 특히 그 시대의 언어 환경은 작품의 성격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文化大革命 시기의 생활은 知靑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그들이 作家가 되면 知靑을 題材로 하는 소설로 그들의 운명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知靑들의 생활 경험은 作家 평생의 창작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知靑 제재의 소설 중에서 훌륭한 작품들은 대부분 그들이 창작한 것이다.

1천 여 만의 知識靑年들은 나이와 그들이 받은 문화 전통, 사상 교육, 그리고 생활과 정서적인 경험 및 그들이 처했던 역사 시대가 같다는 사실로 인해 집약된 집단화 특징을 갖는다. 연령으로 보면 知靑은 나이 차이가 10살 이내였고 같은 역사 시기에 있었으며, 거의 동일한 역사사건을 경험했고 같은 문화 지식 체계의 교육과 진지한 정치송배 그리고 집단주의와 영웅주의 등의 시범 교육을 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 동일한 집단적 강화교육으로 인해 누구든지 知靑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적인 낙인이 깊게 찍혀서 공동적인 사유가 개성적인 사고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이다.

一千多万的‘知靑’，由於他們在年齡、所受的文化傳統思想教育，生活和情感經歷以及所處的歷史時代的相同，又使得他們具有集中的群體化特點。從年齡上看，‘知靑’的年齡差異在十歲以內，他們都處在同一歷史時期，經歷了大致相同的歷史事件，接受着相同的文化知識系統的教育和虔誠地政治崇拜以及集體主義、英雄主義等模式教育。更重要的是，那時期趨同的強化教育，使誰也無法擺脫，‘知靑’的大腦里，都深深地打上了時代的烙印，共性的思維遠遠大於個性的思考。⁷³⁾

이에 따라 많은 知識青年 작가들은 知青 대변인 신분으로 知識青年 세대를 위해 대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知識作家群이 형성되었고, 전례 없이 많은 작품이 창작되기에 이른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知青文學의 發展 단계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제1단계에서는 ‘文革’ 時期의 知青 작품은 대부분 知識青年의 ‘上山下鄉運動’을 칭송하고 있다. 그래서 知識青年이 ‘貧下中農’에게서 再教育을 받고, 계급투쟁을 통해서 단련되고 훌륭하게 성장되었다고 묘사하는 소설이 많다.

제2단계에서는 ‘四人幫’ 실각 후 몇 년간 知識青年을 주제로 한 작품이 대량으로 나왔다. 그 중 盧新華의 『傷痕』, 孔捷生の 『在小河那邊』⁷⁴⁾, 甘鐵生の 『聚會』⁷⁵⁾, 徐明旭의 『調動』⁷⁶⁾, 竹林의 『生活的路』⁷⁷⁾ 등의 작품 대부분은 知青의 불행과 타락을 묘사하고 知識青年 운동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이런 작품들은 ‘文革’ 시기의 知識青年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은 합리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편협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제3단계에서는 ‘四人幫’의 범행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흐름이 지나간 후 역사를 좀 더 차분하게 반성하고 知識青年의 생활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 시기의 주요 작품은 王安憶의 『本次列車終點』⁷⁸⁾, 孔捷生の 『南方的岸』⁷⁹⁾, 梁曉聲의 『這是一片神奇的土地』⁸⁰⁾와 『今夜有暴風雪』⁸¹⁾, 張承志의 『黑駿馬

73) 劉建敏, 「論‘知青文學’的興盛與衰落」, 『西藏大學學報』(拉薩), 1997년 제 1기, p. 24.

74) 孔捷生, 『在小河那邊』, 『作品』(廣州), 1979년 제 3기.

75) 甘鐵生, 『聚會』, 『北京文學』(北京), 1980년 제 2기.

76) 徐明旭, 『調動』, 『清明』(合肥), 1979년 제 2기.

77) 竹林, 『生活的路』,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79년 8월 1일 제1일판.

78) 王安憶, 『本次列車終點』, 『上海文學』(上海), 1981년 제 10기.

79) 孔捷生, 『南方的岸』, 『十月』(北京), 1982년 제 1기.

80) 梁曉聲, 『這是一片神奇的土地』, 『北方文學』(哈爾濱), 1982년 제 3기.

』82), 史鐵生の 『我的遙遠的清平灣』83) 등이 있다. 이 단계의 작품 중에는 知青들이 도시로 돌아온 후 이전에 생활했던 시골을 그리워하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감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시 시골로 돌아가려는 ‘逆向回歸’의 정서를 다룬 작품도 있다. 이 단계의 知青文學은 2단계 知青文學을 부정하거나 知青들의 생활에 대해 다시 회고하는 것이다.

80년대 중반 이후에 ‘反思’ 성격의 知青小說이 등장하면서 비뚤어진 人性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朱曉平的 『桑樹坪紀事』84), 張抗抗의 『隱形伴侶』85), 陸天明的 『桑那高地的太陽』86), 老鬼의 『血色黃昏』87) 등이 있다.

제4단계에서는 90년대 이후 많은 知青 作家들이 방향을 바꿔서 非知青 주제를 갖고 창작하기 시작했고 깊은 사색을 거쳐 탄생한 長篇小說도 출판되기에 이른다. 그 작품으로는 郭小東의 『中國知青部落』88), 趙維夷의 『老插春秋』89), 芒克的 『野事』90), 米琴의 『芳草天涯』91), 劉軍의 『噩戀』92), 韓乃寅의 『遠離太陽的地方』93), 王小波의 『黃金時代』94), 劉醒龍 『大樹還小』95) 등이 있다.

81) 梁曉聲, 『今夜有暴風雪』, 『青春』(南京) 增刊1983년 제 1기.

82) 張承志, 『黑駿馬』, 『十月』(北京), 1982년 제 6기.

83) 史鐵生, 『我的遙遠的清平灣』, 『青年文學』(北京), 1983년 제1기.

84) 朱曉平, 『桑樹坪紀事』, 『劇本』, 1988년 4월호.

85) 張抗抗, 『隱形伴侶』, 作家出版社(北京), 1986년.

86) 陸天明, 『桑那高地的太陽』, 『當代』(合肥), 1986년 제 6기.

87) 老鬼, 『血色黃昏』, 中國工人出版社(北京), 1987년판.

88) 郭小東, 『中國知青部落』, 花城出版社出版社(廣州), 2001년 8월 1일. 郭小東의 『中國知青部落』은 모두 三部作이고, 第1部는 『1979·知青大逃亡』, 第2部는 『青年流放者』, 第3部는 『暗夜舞蹈』가 있는데 모두 花城出版社出版社가 출판했다.

89) 趙維夷, 『老插春秋』, 華夏出版社(北京), 1994년 10월.

90) 芒克, 『野事』, 湖南文藝出版社(長沙), 1994년 제 1판.

91) 米琴, 『芳草天涯』, 春風文藝出版社(沈陽), 1997년 제 1판.

92) 劉軍, 『噩戀』,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0년 제1판.

93) 韓乃寅, 『遠離太陽的地方』, 北方文藝出版社(哈爾濱), 1998년 12월 제 1판.

94) 王小波, 『黃金時代』, 長江文藝出版社(武漢市), 2006년 8월 제 1판.

95) 劉醒龍, 『大樹還小』, 解放軍文藝出版社(北京), 2001년 4월 제1판.

一. 文革 종결 이전까지 知青 小說 개괄

知青文學은 ‘上山下鄉’ 運動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運動은 이미 1955년에 소규모로 전개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文化大革命 이전에 少數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그 중에 鄧普의 『軍隊的女兒』⁹⁶⁾와 黃天명의 『邊疆曉歌』⁹⁷⁾는 文革 이전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다. 知青 小說은 1972년 이후에 대량으로 나오게 된다. 1968년 12월 22일에 毛澤東은 “청년은 농촌으로 가서 가난한 농민의 품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도시의 간부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들이 이미 경험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시절을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指示를 『人民日報』에 발표한다. 그래서 수많은 知識青年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 농촌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내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⁹⁸⁾는 지시가 내려졌다. 知識青年을 동원해서 농촌으로 가는 것은 농촌의 발전과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思想教育이었다. 새로운 후계자를 양성하고, 특권에 반대해 ‘三大差別’을 축소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소위 ‘三

96) 鄧普, 『軍隊的女兒』, 中國青年出版社(北京), 1963년 출판. 這部長篇小說講述的是一個十五歲的湖南女孩感人至深的成長故事. 主人公劉海英滿懷革命理想, 毅然參軍到新疆支援邊疆建設. 正在她生命充滿青春活力、努力實現自己理想的時候, 接二連三地被病魔纏身, 忍受着極大的痛苦和折磨. 但她以堅強的意志和樂觀的精神與疾病抗爭, 表現了生命的極限和奇蹟, 最終她身心健康地重回到了崗位. 西安電影制片廠曾根據這個故事改編拍攝了電影『生命的火花』. 雖然是文革以前的作品, 具有文革小說的特徵, 並且又是少有的長篇小說. 周建江在『時代的激情與廢墟上的狂舞— 文革時期新疆軍墾知青文學個案分析』中給予了很高的評價[石河子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1年 6月, 第25卷 第3期, p. 104].

97) 黃天明, 『邊疆曉歌』, 作家出版社(北京), 1965년 출판. 這也是在文革以前不多的長篇小說, 已經帶有濃厚的文革色彩. 戰鬪的號角吹響了! 青年們即將離開美麗的春城, 踏上征途, 奔赴祖國的亞熱帶邊疆. 那里是一片天然碧綠的大地. 那里也是一片幾乎斷絕人跡的神秘的大地. 它是埋藏在千里雲山之中的一塊巨大的綠寶石, 它就是本書所寫到的孔雀壩. 青年們將迎着亞熱帶陽光, 在那里披荊斬棘, 和大自然展開一場激烈的搏鬥; 他們決心把這塊綠寶石開發出來, 使它在祖國社會主義時代, 放射出獨特鮮艷的光彩! ……

98) ‘知識青年到農村去, 接受貧下中農的再教育, 很有必要. 要說服城里幹部和其他人, 把自己初中、高中大學畢業的子女, 送到鄉下去, 來一個動員. 各地農村的同志應當歡迎他們去.’

(『我們也有兩隻手, 不在城里吃閑飯!』(編者按語), 『人民日報』, 1968년 12월 22일, 제 1면.)

大差別'은 도시와 농촌, 도시 노동자와 농민,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의 차별을 가리킨다.⁹⁹⁾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知識青年의 上山下鄉 運動이 대규모로 전개되었고, 국가 차원에서도 모든 언론기구를 동원해서 “세상은 넓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¹⁰⁰⁾는 것을 宣傳했으며, 당시 정치적 권력의 宣傳 도구인 문학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66년부터 1971년에 文革의 문예 운동은 아직 초기 단계라 문학적인 창작은 미미했다.

李新宇는 “1972년 이후 文革의 문예운동은 전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많은 작가들도 다시 창작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농민, 군인 등 아마추어의 창작 단체가 전례 없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문예 간행물이 점차적으로 다시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각종 詩歌 비평회, 강연 및 詩歌 경진대회가 열려 문학 창작의 열기가 하늘을 찔렀다”¹⁰¹⁾고 평가할 정도였다.

1972년 中國의 文學 정기간행물이 잇따라 재발간 되면서 知青들의 생활과 경험을 주제로 한 知青 제재의 중·단편 소설이 대량으로 문학 정기간행물에 발표되었다. 그 중에 侯樹槐의 『高山春水』¹⁰²⁾는 文革 時期 중에서도 비교적 일찍 知識青年의 上山下鄉 생활을 묘사한 小說에 해당한다. 소설에서 下鄉 知青인 春花는 국가 元首의 호소에 응하여 長春의 左家山이라는 마을에 내려가 자리를 잡고 살면서 농민들에게 재교육을 받고, 毛

99) 토마스·번스타인 著, 李 楓 譯, 『上山下鄉』, 警官教育出版社(北京), 1993년 5월, p. 10.

100) 1955년 9月至12月, 中共中央主席毛澤東主持編輯 『中國農村社會主義高潮』一書, 并爲此書寫了許多按語。在 「農業合作化的一場辯論和當前的階級鬥爭」一文的按語中, 提出‘全國合作社, 需要幾百萬人當會計, 到哪里去找呢?其實人是有的, 可以動員大批的高小畢業生和中學生去做這個工作。’當他看到 「在一個鄉里進行合作化規劃的經驗」一文中, 反映‘社架子’之間出現‘爭骨干、爭認字的人’的情況, 又爲此寫的編者按說, ‘其中提出組織中學生參加合作化的工作, 值得特別注意。一切可以到農村中去工作的這樣的知識分子, 應當高興地到那里去。農村是一個廣闊的天地, 在那里是可以大有作爲的。’毛主席發出的這一號召, 激勵了一代代年輕人, 在60年代前期, 一直是推動城鎮知識青年下鄉上山的巨大精神動力。

(顧洪章 主編,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人民日報出版社(北京), 1996년 6월, p. 6.)

101) 從1966年到1971年, 文革文藝運動尙處於掃蕩‘封資修文藝’和‘種驗田’的階段, 文學創作不能不蕭條。……1972年以後, 文革文藝開始全面的大力建設。一部分詩人被‘解放’出來重新拿起了詩筆, 工農兵業餘創作隊伍空前壯大, 文藝刊物陸續復刊, 詩歌批判會、詩歌講用會、賽詩臺等群眾性的詩歌創作和朗誦活動搞得熱火朝天。詩歌創作不僅不是蕭條的, 而且顯示出某種繁榮景象。

(李新宇, 「‘文革’詩歌略論」, 『齊魯學刊』(曲阜), 1993년 제 3기, p. 108.)

102) 侯樹槐, 『高山春水』, 『吉林文藝』(長春), 1972년 1월호.

澤東이 제창한 혁명 노선의 指導 아래 성장하여 보수 세력과 격렬히 투쟁하는 돌격대장으로 묘사된다.

1973년부터 知青들의 생활과 경험을 위주로 한 知青 장편소설도 경쟁적으로 출판되었는데 郭先紅의 『征途』¹⁰³⁾와 汪雷의 『劍河浪』¹⁰⁴⁾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또한 知青 小說에 관한 小說集도 출판되었다. 『終身課題—上山下鄉知識青年創作選(小說)』¹⁰⁵⁾, 『農場的春天』¹⁰⁶⁾, 『紅瓦—知識青年上山下鄉短篇小說集』¹⁰⁷⁾ 등이 출판되면서 知青文學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楊健이 『中國知青文學史』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文革 時期의 知青小說은 1974년이 분기점이 된다. 前期와 後期에 출판된 知青小說은 사상성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상성의 차이에 따라 작품 중의 인물형상도 다르고, 이러한 사상의 경향 및 각종 인물형상의 차이는 그 배후에 있는 각종 권력집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1974년 이전 집권자들의 문학은 “知青은 농민의 재교육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문학 작품에 나타난 知識青年은 다소 유치하고 미숙한 사람이어서 혁명 간부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 1974년 이후의 陰謀 文學에서는 知識青年은 사회 발전 추세를 반대하는 맹장(‘反潮流’의先鋒)으로 성장해야 하고, 각종 세력과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 작품에 나타난 知識青年은 생각이 成熟되고 확고부동하며, 정치적인 自覺이 높아 맹렬하게 투쟁한다. 그래서 知青에 대한 인물 형상은 두 시기의 문학 형태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¹⁰⁸⁾

103) 郭先紅, 『征途』,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3년 6월 제 1판.

104) 汪雷, 『劍河浪』,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4년 9월 제 1판.

105) 『終身課題—上山下鄉知識青年創作選(小說)』, 江蘇人民出版社(南京), 1974년 2월 제 1판.

106) 上海市屬國營農場三結合創作組, 『農場的春天』,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4년 7월 제 1판.

107) 農村版圖書編寫小組, 『紅瓦—知識青年上山下鄉短篇小說集』, 農村讀物出版社(北京), 1976년 1월 제 1판.

108) 以1974年爲分界線, 前後出版的知青小說在思想傾向上有很大的差別. 1974年之前的

知青文學은 집권자 문학과 陰謀 문학으로 구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知青은 上山下鄉의 장소에 따라 兵團知青과 插隊知青이라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집단이 창작한 문학 작품도 그 자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兵團 知青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管理되었다. 문예 활동을 매우 중시하여 당시에 각종 生産建設兵團은 모두 문예조직을 만들었다. 師·團 같은 경우 전문 宣傳隊를 만들었고, 連隊에 ‘三員’(敎歌員, 板報員, 夜校敎員), ‘二隊’(文藝宣傳隊, 球隊) 및 ‘一室’(圖書室) 制度를 만들었다. 政治 活動 때마다 각종 문예단체는 지시에 따라 문예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문학적인 소양이 있고 문예정책을 숙지하는 知青 작가들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래서 黑龍江 生産建設兵團인 경우 유명한 知青 작가를 많이 배출하게 되었다. 학계에 잘 알려진 梁曉聲, 陸星兒, 陳可雄, 張辛欣, 蔣巍 등이 모두 兵團 知青 출신이었다.

그러나 兵團의 軍事化 경영으로 인해 더욱 집단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은 단체에 복종해야 한다는 集團主義에 의해 그들은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창작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일반적인 문화생활(예를 들면 소설의 열람)에도 구속을 받았다.¹⁰⁹⁾ 이러한 환경에서 개성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적으로 插隊知青은 각 마을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체로 주민과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워 개성 있는 창작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농촌은 자유가 많아 낮에는 농촌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마음대로

作品, 大多可歸如權力文學的範疇, 1974年之後的作品, 由於江青集團的介入, 作品大多可歸入偽知青文學的範疇。盡管兩者分屬於不同的政治集團。但他們都經過組織話, 不是知青自由創作的、真實反映知青字身的生活作品, 都可以把它們歸於偽知青文學。…… 當權文學強調知青要‘接受貧下中農再教育’, 而陰謀文學則強調知青要在農村當‘反潮流’的先鋒。前者寫知青幼稚、動搖, 必須接受幹部子弟(幹部化身)的教育; 後者描寫的知青立場堅定、高瞻遠矚, 勇闖‘走資派’。同是知青在兩種文學中却呈現出截然不同的形象。無論是何種形象都是不同政治勢力對知青所作的命名。

(楊健, 『中國知青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2년 1월 제1판, pp. 264~265.)

109) 楊健, 『中國知青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2년 1월 제 1판, p. 172.

읽을 수 있었다¹¹⁰⁾.

兵團知青과 插隊知青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소설 속 대화에서 분명하게 구분된다.

“너 앞으로는 이렇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 여기는 너 같은 무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兵團이야! 멋대로 산만하고 꺾렁꺾렁하면 안 돼.”

“你以後少游來蕩去，這不是你插隊的地方，是兵團！不能自由散漫，吊兒郎當。¹¹¹⁾”

우리에게 잘 알려진 插隊知青 작가들은 葉辛, 王安憶, 韓少功, 鐵凝, 史鐵生, 張曼菱¹¹²⁾ 등이 있다.

知青 작가들의 소설은 자기 생활환경에 따라 兵團知青 소설과 농촌지청(插隊知青) 소설로 나뉘는데 내용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知青은 오랜 기간 동안 농민들과 같이 향촌생활을 하면서 농촌 생활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작품의 내용 대부분이 知青과 知青사이, 知青과 농민 사이, 知青과 자연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兵團知青의 창작은 농민에 관한 재제가 거의 없고 知青과 知青 및 知青과 자연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黑龍江生產建設兵團의 知青 작가 陸星兒가 文革 時期에 공개 발표한 소설은 대부분 兵團 生活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대표작으로 『牛角』¹¹³⁾과 『楓葉殷紅』¹¹⁴⁾ 등이 있다. 그러나 농촌지청 王堅革의 『先鋒』¹¹⁵⁾과 吳江所의 『百柳河畔機聲揚』¹¹⁶⁾은 모두 知青과 농민에 관한 내용만을 묘사하고 있다.

文革時期的 知青小説은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의 知青 작가들이 창작한 소설문학 대부분이 정치적인 상황의 영향을 받고 정치적인 宣傳 도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작품에 심미적인 부분은 거의

110) 鄭義, 『永恆的流浪— 鄭義自傳』, 『作家』(長春), 1988년 제 5기, p. 50.

111) 孔捷生, 『大林莽』, 花城出版社(廣州), 1985년 제 5기, p. 256.

112) 楊健, 앞의 책, p. 172.

113) 陸星兒, 『牛角』, 『黑龍江文藝』(哈爾濱), 1975년 제 3기.

114) 陸星兒, 『楓葉殷紅』, 『人民文學』,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76년 제 1기.

115) 王堅革, 『先鋒』, 『湘江文藝』(現在改名爲『湘江文學』), 湖南人民出版社(長沙), 1975년 제 3기.

116) 吳江, 『百柳河畔機聲揚』, 『廣西文藝』, 1974년 4월호.

찾아볼 수 없고 작품의 구성도 公式처럼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文革時期 知青小說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가들이 내세운 ‘廣闊天地, 大有作爲(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구호는 그들의 유일한 가치 판단 기준이었다. 대신 인간의 진실성과 욕망, 감정과 몽상은 무자비하게 억압을 받았다. 이것은 시대적 문학 언어 환경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文革은 유일하고도 최고의 정치적인 원소로 이루어진 一元化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권위는 각종 독재적인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도구화시켜 문학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文革 시기의 서술 방식은 정치적인 권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서술 방식이나 용어가 거의 일맥상통하였다.

文革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1. 정확한 노선을 주장하는 영웅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2. 영웅은 정확한 노선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대중을 단결시켜 반혁명적인 노선 세력과의 투쟁에 앞장선다.
3. 영웅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¹¹⁷⁾

그러나 文革 시기의 작품들은 그 시대의 언어 환경을 주관하는 政治權威者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文革 시기의 수많은 작가들이 창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특징을 지닌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가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文革 시기 작가의 정신 상황은 ‘無我’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작가는 시대의 언어적 환경의 제약을 받아 시대의 정치적인 권위의 宣傳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작품은 제한적인 시대의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가 시대를 초월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체인 작

117) 張法, 「傷痕文學, 興起、演進、解構及其意義」, 『江漢論壇』(武漢), 1998년 제 9기, p. 58.

가는 時代의 환경 아래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時期와 主體라는 두 개념 가운데 작품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히 시대였다. 文革 시기 작품의 특징은 모두 그 시대가 부여해 준 것이다. 작가는 그 시대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창작도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文革이 시작된 후부터 知靑文學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로 지청문학은 점차 독립적인 위치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知識靑年은 창작의 주체로서 문단에 등장하여 다방면에서 진솔하게 자신들의 생활을 묘사했다. 단체 창작 방식으로 知靑文學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文革時期 知靑文學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것은 80년대의 知靑文學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을 다졌고 新時期 문학의 성립에 중요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定宜庄은 “이 시기의 ‘知靑文學’(만약 知靑文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의 저자의 대부분은 知識靑年 자신들이 아니고, 창작 목적도 知識靑年들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묘사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목적은 당시 정부의 ‘上山下乡’政策에 호응하는 정치적인 홍보에 있었다. 특별한 시대적 배경 하에 이러한 작품들은 허위, 과장, 공동적인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환경과 시비를 가려내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호소력만 있어도 충분했다.”¹¹⁸⁾고 했다.

118) 這時期的‘知靑文學’(如果可以稱得上是知靑文學的話), 作者絕大部分并不是知靑本人, 寫作的目的也不是抒發知靑對那段人生道路的感悟, 而是非常明确地爲了配合黨的上山下乡政策而進行的政治宣傳。在那個時期獨特的背景下, 這些作品必不可免地帶有虛假、誇張、空洞的特點。對於生活於其中, 已難於分辨個中滋味的靑年, 其感染力已經足够了。
(定宜庄, 『中國知靑史— 初瀾(一九五三~一九六八)』,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8년, p. 375.)

二. 主題 分析

1. 階級鬭爭

文革時期的 知青小說은 각 분야의 주제를 중심으로 창작되었다. 邊境 지역에 가서 열악한 자연환경과 투쟁하는 내용도 있고 知青이 자연 재해와 투쟁하는 내용도 있다. 知青이 과학 실험에 대해 묘사하는 작품도 있지만 수량이 많지 않으며, 계급투쟁을 묘사하는 소설이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한다. 이런 작품 대부분은 毛澤東 혁명노선의 지도하에 무산계급이나 知青과 貧下中農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시기 작품 중에 韋尙田의 『火紅的戰旗』¹¹⁹⁾는 知青들이 예술 전선을堅持하고 투쟁하는 이야기이고, 紀延華의 『雁鳴湖畔』¹²⁰⁾과 尢藏才旦의 『紅十字藥箱』¹²¹⁾, 그리고 馬繼紅 『百草園的風雨』¹²²⁾는 의료 분야에서 투쟁하는 이야기이며, 路寧의 『怒濤』¹²³⁾는 修正主義 교육 노선과 철저히 투쟁하는 내용이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郭先紅의 『征途』를 들 수 있다. 당시의 출판물은 대부분 속표지에 소설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 『征途』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9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知識青年의 下鄉上山을 배경으로 上海의 많은 홍위병과 청년들이 毛澤東의 ‘知識青年들은 농촌으로 가라’라는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흑룡강 변방 지역에 가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묘사했다. 그들은 농촌이라는 넓은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심분 발휘하여 혁명 투쟁의 최전방에 서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고, 조국의 신성한 변방을 지켰다. 가난한 농민들의 정열적인 관심과 교육 아래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을 개조하고 강건하게 자랐다. 소설은 흑룡강 변방 지역의 날카

119) 韋尙田, 『火紅的戰旗』, 『黑龍江文藝』(哈爾濱), 1974년 제 6기.

120) 紀延華, 『雁鳴湖畔』, 吉林人民出版社(長春), 1973년 12월 제 1판.

121) 尢藏才旦, 『紅十字藥箱』, 『甘肅文藝』(蘭州), 1974년 제 2기.

122) 馬繼紅, 『百草園的風雨』, 『青海文藝』(西寧), 1977년 제2-3기.

123) 路寧, 『怒濤』, 『黑龍江文藝』, 1976년 제 5기.

롭고 복잡한 계급투쟁, 노선투쟁, 그리고 한창 진행 중인 생산투쟁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생산 대대의 당서기인 이덕강, 지식청년 종위화, 그리고 가난한 농민인 관동해 등 위대한 인물을 형상화시켰다.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통해 단련된 중국 知識青年들이 계속되는 혁명의 征途에서 생기 넘치는 정신 상태를 서술했다. 작품은 웅장한 혁명 청춘의 찬송가이며, 동시에 劉少奇 같은 사기꾼들이 知識青年 上山下鄉 운동에 대해 함부로 중상모략하는 것을 성토했다는 전투 격문이기도 하다.

以一九六九年風起雲湧的知識青年下鄉上山運動爲背景，描寫上海一批紅衛兵、青年熱烈響應毛主席‘知識青年到農村去’的偉大號召，奔赴黑龍江邊疆插隊落戶干革命的故事。他們在農村這個廣闊天地里，經風雨，見世面，一不怕苦，二不怕死，奮戰在三大革命鬥爭第一線，建設社會主義新農村，保衛祖國神聖的邊疆。在貧下中農的熱情關懷教育下，他們刻苦改造世界觀，茁壯成長。小說以生動有力的筆觸，描繪了黑龍江邊陲尖銳復雜的階級鬥爭、路線鬥爭和熱火朝天的生產鬥爭，塑造了大隊黨支部書記李德江、知識青年鐘衛華和老貧農關東海等高大的英雄形象，展現了經過無產階級文化大革命鍛煉的我國青年一代在繼續革命的征途上煥發昂揚的精神風貌。作品是一曲壯麗的革命青春的頌歌，是聲討劉少奇一類騙子誣蔑知識青年下鄉上山運動的戰鬥檄文。¹²⁴⁾

宋振國의 소설인 『茶山春』¹²⁵⁾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소설은 知識青年들이 茶山에서 단련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묘사했다. 작품에서 생산건설병단의 모 知識青年 연대가 강남지역의 어느 산간 지역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知識青年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는 광대한 혁명정신을 열렬히 찬송했다. 소설에서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을 강령으로 산을 깎아 물을 끌어 오는 것에 대한 두 개의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知識青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동적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가난한 농민의 도움을 받아서 용감하게 투쟁해서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계급적인 음모를 폭로하고 毛澤東의 혁명노선을 견지했다. 동시에 ‘三大革命’¹²⁶⁾의 투쟁 중 단련된 지청들이 온갖 풍파를 겪어내고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참신한 정신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知識青年의 上山下鄉 운동이 무산계급 專政의 중요한 조치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描寫的是知識青年在茶山鍛煉成長的故事。作品通過對生產建設兵團某知識青年連隊

124) 郭先紅, 『征途』,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3년 6월 제 1판. (속표지 부분)

125) 宋振國, 『茶山春』, 安徽人民出版社(合肥), 1976년 8월 제 1판(속표지 부분).

126) 三大革命은 1966년-1976년의 문화대혁명 시기 ‘계급투쟁’, ‘생산투쟁’ 그리고 ‘科學試驗’이라는 三大革命運動을 가리키는 것이다.

在江南山區開荒種茶的描述，熱情歌頌了廣大知識青年扎根農村的革命精神。全書以階級鬭爭、路線鬭爭爲綱，緊密圍繞開山引水問題上兩個方案的爭論，以生動有力的筆觸刻畫了一群知識青年的正面形象。他們在貧下中農的關懷幫助下，敢於鬭爭，敢於勝利，揭露了階級敵人的破壞陰謀，堅持了毛主席的革命路線。同時，在沸騰的三大革命鬭爭中，也鍛煉了他們自己，經風雨，見世面，茁壯成長，展現了嶄新的精神風貌，有力地證明了知識青年上山下鄉是鞏固無產階級專政的重要措施。

鐘虎·石冰의 소설인 『鼓角相聞』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소개¹²⁷⁾하고 있다.

知識青年들이 지대가 높고 추운 산간 지역에서 좋은 벼 품종을 육종하기 위하여 과학 실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고 복잡한 모순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신과 장해연, 진영, 장효용 등 知識青年들이 紅軍은 옛날 군대를 건립한 과정 중의 두 개의 노선과 두 개의 사상 투쟁을 교훈으로 삼아 원대한 혁명 이상과 실제에 근거하여 견실하게 일하는 풍격과 결합하여 단결해서 전투한다. 자산계급 법권에 잠시 유혹당한 同志를 교육시키고, 새로 생겨난 자산계급 분자를 폭로하고 숨은 배신자를 잡아냈다. 그들은 우량 품종도 배출했고, 투쟁의 실천 과정에서 스스로 무산계급혁명 사업의 후계자로 성장했다.

圍繞着知識青年在高寒山區培育水稻良種的科學實驗活動，展開了激烈、復雜的矛盾和鬭爭。趙新以及張海燕、陳英、張驍勇等知識青年，以紅軍當年建軍過程中的兩條路線、兩種思想的鬭爭爲借鑑，把遠大的革命理想同腳踏實地的工作作風結合起來，團結戰鬭，教育了一度爲資產階級法權所誘惑的同志，揭露了新生的資產階級分子，揪出了隱藏的叛徒。他們既培育了良種，也在鬭爭的實踐中把自己培養成一代無產階級革命事業的接班人。

한편 楊小林은 『決裂』에서 人民公社의 黨員 간부들이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논쟁을 벌이는데 貧下中農의 金할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말한다.

이것은 식수에 관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사상 투쟁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투쟁이

127) 鐘虎·石冰, 『鼓角相聞』,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6년 5월 제 1판(內容說明 부분).

다!

這不僅是一場水的鬭爭，也是一場思想鬭爭，跟人的鬭爭！¹²⁸⁾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을 강령으로 삼는다’는 내용과 ‘두 개의 노선과 두 개의 사상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다’는 내용,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여 혁명 투쟁의 최전방에 선다.’는 내용은 소설의 핵심이 되었고, 위대한 영웅의 인물형상화를 통해 ‘知識靑年들의 긍정인물 형상을 생동적으로 묘사하고, 스스로 무산계급혁명 사업의 후계자로 성장하였다’는 것이 주로 이 시기 소설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 계급간의 음모를 폭로하고, 숨은 배신자를 잡아냈다는 내용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知識靑年들은 온갖 풍파를 겪으며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내용을 서술한 목적은 知識靑年의 ‘上山下鄉’ 운동이 무산계급 專政의 중요한 조치라는 것을 강력히 증명하는 것에 있다. 이런 작품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文革時期의 작품들이 대부분 수학 공식 같다는 것이다. 文革時期의 知靑小說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계급투쟁을 綱領’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뿐이다.

文化大革命 중에 劉少奇는 공산당 내의 자본주의 집권자로 무너진다. 文化大革命의 계급투쟁은 공산당 내부까지 침투되었다. 劉少奇의 人民公社 운동과 기계화 운동에 반대한 『劉集公社農業機械化』는 이러한 계급투쟁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첨예하게 묘사하고 있다.

修正主義 노선과 투쟁하여 농업기계화의 길로 활보하며 나아가자! 毛澤東은 資產階級은 바로 공산당 내부에 존재하고 있고, 이런 당내의 자본주의 노선의 집권파는 공산당과 국가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잡고 있으며, 그들은 무산계급 투쟁의 도구를 가지고 반대로 무산계급을 공격하는 도구로 바뀔 수도 있으니 복벽하면 공산당 이외의 자산계급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농업기계화를 실천하고 사회주의 大農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먼저 공산당 내부의 자산계급 및 수정주의 노선과 투

128) 楊小林, 『決裂』, 『寧夏文藝』(銀川), 1975년 제 4기, p. 6.

쟁해야 한다. …… 劉少奇 一派는 바로 공산당 내의 자산계급이다. 그들은 인민공사 운동과 기계화 운동도 반대했다. 그들은 ‘사람이 많고 경작지는 적어서 기계화가 불필요’하고, ‘정성스럽고 꼼꼼한 경작은 기계화로 불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 유소기 일파가 주장한 이런 황당무계한 논리는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혁명을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인민 대중의 위대한 창조력을 부정하여 자본주의가 다시 권위를 회복시키려는 죄악적인 목적을 이루려 한다.

同修正主義路線戰鬪，在農業機械化的道路上闊步前進。毛主席指出，資產階級“就在共產黨內，黨內走資本主義道路的當權派”這種黨內資產階級掌握黨內和國家很大一部分權利，他們可以把無產階級專政的工具變為對無產階級專政的工具，因而搞起復辟來，比黨外的資產階級還厲害得多。實現農業機械化，建設社會主義大農業，首先必須同黨內資產階級及修正注意路線作鬪爭。…… 劉少奇一伙是黨內的資產階級，他們既反對合作化，也反對機械化。他們胡說什么‘人多地少不用機械化’，‘精耕細作不能機械化’。劉少奇一伙所宣揚的這些謬論，實質上就是要否定無產階級專政下的繼續革命，否定人民群眾的偉大創作力，達到復辟資本主義的罪惡目的。¹²⁹⁾

文化大革命 時期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와 대립하고 있었고 舊蘇聯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시기 知青小說 중에서는 이러한 계급투쟁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다. 예컨대 知青 작품 중의 『征途』에는 關씨 할아버지가 러시아 新차르(新沙皇)¹³⁰⁾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9쪽이 넘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놈들(舊소련의 군인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이면 죽이고, 짐만 보이면 불태워 버렸다. 보이는 대로 죽이고 불태워 버리고, 최후에는 武器를 갖고 있지 않은 백성들을 강가에 모아 머리카락을 서로 묶어서 흑룡강으로 쫓아내 버렸다. 어린 아이 구별 없이 강물로 밀어내 버리고 칼로 찌르고, 화포로 폭격하고,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 강물에 시체가 뗏목처럼 이어져 며칠 동안 물이 흘러도 시체가 사라지지 않았다. 피가 강물을 빨갈게 물들었는데, 말조차도 강물을 마시지 않았다.

這些畜牲不分男女老少，見人就殺，見房就燒。殺一屯燒一屯，最後把兩手攥空拳的

129) 中共新洲縣委員會·中共劉集公社委員·劉集公社貧下中農·武漢大學經濟系七二級工農兵學員, 『劉集公社農業機械化』, 人民出版社(北京), 1976년 10월 제 1판, pp. 43~44.

130) 중국 문화대혁명 때는 스탈린(Stalin, 斯大林), 후르시초프(赫魯曉夫), 브레즈네프(Brezhnev, 勃列日涅夫)를 러시아의 三代 ‘新차르’라고 칭했다.

老百姓都圍到江沿上，大瓣栓小瓣幾個人栓在一起，生往黑龍江里趕。把大人小孩象下扁食似的往水里推，使馬刀劈，拿火炮轟、洋槍打。江里的屍首跟跑水排一樣，幾天幾夜漂不盡。血把江水都染紅了，馬都不喝啊！¹³¹⁾

이들 작품은 거의 다 毛澤東 노선의 指導 하에 농민과 知靑이 어려운 투쟁을 통하여 승리를 얻는다는 내용들로 일관된다.

앞길은 유망하지만 갈 길(임무)은 험난하다. ‘세상에 못 해낼 일 없노라 마음먹고 오르려고만 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毛澤東 혁명 노선의 지도하에 ‘위로는 구중천에 올라가 달을 따보고, 아래로는 오대양의 자라를 잡다’는 영웅의 기개로 대寨(大寨)¹³²⁾의 틀을 따라 농업기계화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갔다.

前途是光明的，任務是艱巨的。‘世上無難事，只要肯登攀’劉集人民在毛主席革命路線指引下，正以‘可上九天攬月，可下五洋捉鼈’的英雄氣概，以大寨爲榜樣，朝着實現農業機械化，建設社會主義的宏偉目標奮勇前進。¹³³⁾

張抗抗은 저명한 知靑文學 작가다. 대표작 『分界線』¹³⁴⁾은 知靑에 관한 그녀의 첫 長篇小說로 黑龍江 농장에 간 知識靑年의 투쟁생활을 묘사하였다. 1973년 봄에 北大荒의 伏蛟河農場의 제5農場이 침수로 농작물이 피

131) 郭先紅, 『征途』,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3년 6월 제 1판, pp. 183~184.

132) 1964년 5월 10일, 毛澤東은 국가계획위원회 指導팀이 제3개의 5년 계획의 예상을 회보했을 때 “農業은 自力更生해야 되고, 大寨처럼 해야 한다. 그들은 국가의 돈을 빌리지 않고, 국가에게 물건을 주라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에 毛澤東은 中央工作會議에서 「關於第三個五年計劃的講話」중에서 “農業은 주로 大寨精神처럼 自力更生을 해야 한다”고 했다. 1964년 12월에 毛澤東과 中共中央의 同意로 周恩來는 三屆人大一次會議 「政府工作報告」에서 ‘農業學大寨’에 대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논술했고, 大寨 大隊의 “무산계급 政治가 가장 중요하고, 모택동 사상은 선진적인 원칙, 자력갱생과 역전분투의 精神, 국가와 집체를 사랑하는 공산주의 풍격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1965년 6월 16일, 毛澤東은 제3개의 5년 계획 문제의 보고를 듣고 “農業의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農業은 大寨精神을 배워야 한다. 돈을 주면 잘못하고, 오히려 돈을 안 주면 더 잘 한다. 農業은 大寨, 工業은 大慶에 의지한다.”고 강조했다. 1965년 10월 10일, 毛澤東은 또한 “農業은 역시 大寨精神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6년 8월 12일, 毛澤東이 동의하여 중국공산당의 8차 11中全會의 공보에서 ‘工業學大慶, 農業學大寨, 全國學人民解放軍’의 구호를 세웠고, 정치사상 工作을 강화했다.

(李靜萍, 『農業學大寨運動史』, 中央文獻出版社(北京), 2011년 4월 1일, p. 3.)

133) 同上, 102쪽.

134) 張抗抗, 『分界線』,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5년 9월 제 1판.

해를 받은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다. 소설에서는 東大窪와 밭의 농작물을 버려야 되는가 살려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노선투쟁을 벌인다. 耿常炯을 대표한 농장의 혁명청년은 농장을 식량 생산 基地와 ‘무산계급 사업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큰 학교’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농장의 知青들과 같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수재해 등 자연 재해를 극복해 결국 농장에서 대풍작을 거둔다.¹³⁵⁾

이런 내용들은 文革 知青文學 작품 속에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국내 투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투쟁도 담고 있다. 이 시기 知青小說에 있어 蘇聯의 ‘修正主義’ 뿐만 아니라 美國의 제국주의 ‘反動派’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는 교육자와 비교육자의 관계를 形成한다. 교육자는 뼈에 사무친 원한으로 전투에서 영광을 얻고 비교육자는 영웅의 빛나는 공적에 대해 흠모하게 된다. 그래서 교육자는 마음과 語調가 격앙되고 비교육자는 마음에 격동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은 그 당시의 허위적인 장면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실제적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文革 시기의 知青 작품은 상당 부분이 階級鬭爭과 路線鬭爭, 그리고 무산계급을 이끌어 가는 지속적인 혁명 내용으로 관철되어 있다.

2. 貧下中農의 再教育

知識青年을 본격적으로 山村과 시골로 내려 보낸 까닭은 文化大革命 때 도시 내에서 이미 대규모 무장 투쟁을 일으킨 紅衛兵 운동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毛澤東은 知識青年에게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인은 기꺼이 가야하고, 농촌이라는 넓은 세상에서 할 역할이 매우 크다¹³⁶⁾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1968년 12월에 毛澤東은 ‘知識青年은 농촌에

135) 楊健, 『中國知青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2년 1월, pp. 266~267.

136) 「人民日報」社論, 「堅持知識青年上山下鄉的正確方向」, 1967년 7월 9일.

위대한 영수 모택동은 우리들에게 교도하기를 ‘모든 농촌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지식인은 마땅히 즐겁게 농촌에 가야 된다. 농촌은 넓은 세상이고, 거기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서 貧下中農의 再教育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137)는 指示를 내리면서 '上山下鄉' 運動이 大規模로 전개되었다. 1968년 그 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생들 이른바 '老三屆'138)를 거의 다 농촌으로 보냈다.

1955년부터 1979년까지 중국 국내 도시의 知識青年(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중 1,700만 명이 도시를 떠나 각 산골이나 농촌, 공동체 농장 및 국유농장으로 갔다.

知識青年 上山下鄉 人數一覽表 (單位,萬人)

연 도	합계	插隊(산간· 농촌)	공동체 농장	국유 농장
1962~1966	129.28	87.06		42.22
1967~1968	199.68	165.96		33.72
1969	267.38	220.44		46.94
1970	106.40	74.99		31.41
1971	74.83	50.21		24.62
1972	67.39	50.26		17.13
1973	89.61	80.64		8.97
1974	172.48	119.19	34.63	18.66
1975	236.86	163.45	49.68	23.73
1976	188.03	122.86	41.51	23.66
1977	171.68	113.79	41.90	15.99
1978	48.09	26.04	18.92	3.13
1979	24.77	7.32	16.44	1.01
총 계	1,776.48	1,282.21	283.08	291.19

137) 知識青年到農村去, 接受貧下中農再教育, 很有必要。要說服城里幹部和其他人, 把自己初中、高中、大學畢業的子女, 送到農村去, 來一個動員。各地農村的同志應當歡迎他們去。(1968년 12월 22일 「人民日報」, 轉自 遼寧省革委會宣傳組, 『無產階級文化大革命以來毛主席的重要指示』(1965-1976), 瀋陽軍區政治部宣傳部翻印(瀋陽), 1976년 7월, p. 109.)

138) 老三屆, 中國1966年、1967年、1968年三年共三屆高中、初中畢業生的統稱。1966年到1968年, 中國正陷於'文化大革命'的混亂之中, 大學停止招生。在1968年至1969年的上山下鄉高潮中, 這三屆本應已畢業的而實際上並沒有完整結束學業高中、初中生, 作為'知識青年'的主體'上山下鄉', 被安排下鄉, 或集體到農林牧場, 或分散插隊落戶農村。當時, 他們的年齡大多在15至21歲之間。

(肖復興 肖復華, 『啊, 老三屆』, 安徽文藝出版社(合肥), 1988년 11월, 序 pp. 1~2.)

※ 『中國勞動工資統計資料』, 中國統計出版社, 1987年, p110.

注, 插隊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포함.

공동체 농장으로 간 사람은 농업 기지, 농공상 연합기업체로 들어간 사람 포함. 국유 농장으로 간 사람은 국유의 산림, 목장, 漁場으로 간 사람을 포함.

이러한 知識青年들이 시골이나 농장에서 貧下中農에 의한 재교육이나 군사 재교육(학교에서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上山下鄉의 교육은 재교육이라고 함)을 받았다. 군인 농장은 建設兵團이라 한다. 兵團은 군사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문예작품의 창작은 개인보다 단체로 한 경우가 많았고, 창작의 주제나 내용에 있어 장애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山間이나 시골로 간 知識青年들은 비교적 자유로웠고, 작품 내용도 다양하다. 여기서 貧下中農의 재교육을 받는 내용의 소설은 시골 생활의 묘사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소설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광활한 천지에서 할 역할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知識青年들이 위대한 領袖의 호소에 응해 가족과 이별하고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한 山間이나 농촌으로 가서 貧下中農에게 전심전력하여 교육을 받고, 농촌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을 견지하며, 투쟁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무산계급의 새로운 후계자가 된다. 작품 내용의 설정도 知青은 교육과 개조를 받는 對象이고 貧下中農은 당연히 知青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런 貧下中農의 지도하에 일 처리에 있어서는 공평무사한 원칙을 고수한다. 투쟁력이 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 학설을 성실히 습득해서 새로운 영웅인물이 된다는 것이다.

文化大革命 시기의 知識青年은 貧下中農에게서 교육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였다. 知青小說에는 남녀 간의 애정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여자도 남성화가 되었고 많은 남성이 해야 하는 일을 여자 知青이 貧下中農에게 再教育을 받아 충분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도시에서 성장한 아가씨는 지금은 오히려 마차에 빠져서 채찍을 휘둘러서 마차를 몰았다. 이런 일은 1년 전에는 진짜 想像조차도 힘들었고 말 안구라는 이름도 몰랐다. 지금 크게 달라졌다. 채찍을 휘두르며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산 위로 가거나 내리거나 지그재그로 된 산길을 달리는 것도 모두 그녀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一個城里長大的姑娘，如今愛上了車馬，竟想接鞭子趕車了。這，在一年多以前，真是連想都想不到的事，就連這套包子還叫不上名來呢。現在可不一樣了，大鞭子一掬，說走就走，要停就停，上嶺下坡，里抹外拐，她都能得心應手了。139)

위와 같이 文化大革命 중의 소설은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 여성은 남성화되어 남성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征途』에서 關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러시아 군인과 싸워서 남긴 상처를 지청들에게 보여 주면서 知青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關할아버지는 옷을 어깨까지 걸었다. 옆 아주머니가 등잔을 높이 들어 청년들에게 생생한 역사의 산 증인임을 보여 주었다. 등불 아래서 청년들의 더운 피가 끓어 오르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지식청년들이 關할아버지 팔에 반짝이는 상처를 엄숙하고 공손하게 보았다. ……노인(關할아버지)의 마음은 흑룡강물과 같이 격양되어 순식간에 흥분하였다. 지청들 중에는 가볍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격분하여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도 있었다. …… 종위화는 ‘혁명 선열은 우리와 같은 후세 사람들에게 빛나는 모범을 보였다. 우리는 포부를 세워 전진하면서 변방 지역에 뿌리를 내려 변방을 건설하고, 조국을 지키고, 혁명을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關爺爺把襖袖捋到肩膀頭，虎嫂子高擎着油燈，讓青年們看看這活生生的歷史見證。燈光下，青年們熱血沸騰，心跳有聲，一個開肅穆無言地看着關爺爺胳膊上閃亮的傷疤。……老人的心情也跟黑龍江水一樣奔騰激蕩，一時很難平息。青年們有的在輕聲感慨，有的憤怒得咬牙切齒。……鐘衛華說，‘革命先烈給我們下一代做出了光輝的榜樣。我們立志扎根邊疆，建設邊疆，保衛祖國，革命到底。’140)

139) 樂淑芳, 『清脆的鞭聲』, 『吉林文藝』(長春), 1974년 3월호, pp. 38~39.

140) 郭先紅, 『征途』,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3년 6월 제 1판, pp. 188~193.

知識青年 중에는 농민에게서 교육을 받고 농민들과 서로가 한 가족처럼 가까워진 내용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작품들은 知青들과 농민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知青과 농민 사이의 差異가 존재하고 있으며 知青은 농민에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의 시선으로 知青을 서술하며 농민은 知青과 가족처럼 친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知青小說에서 ‘貧下中農’은 知識青年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선생과 피교육자의 관계라는 모델이다. 知識青年은 교육을 받고 改造를 받는 대상이고 ‘貧下中農’은 知識青年의 좋은 스승과 유익한 친구라는 데에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이다.

허허, 서기님, 貧下中農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매우 높은 문화수준도 아니고, 노트에 적은 글씨도 아직 진매(陳梅, 여자 지청의 이름)의 글씨보다 훨씬 못하지만 왜 무산계급의 지도이론을 배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훨씬 철저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呵, 老支書、貧下中農!也許, 你們沒有很高的文化, 也許你們記事本上的字兒, 還趕不上陳梅的字兒一半漂亮, 可是爲什麼你們學起無產階級專政的理論來, 懂得透徹得多(141)?

소설 속 이 대목의 앞 내용은 貧下中農의 말을 전하며 몸으로 직접 知青들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즉 黨書記인 李德江은 知青들에게 無言으로 교육을 시킨 양손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여자 知青 萬莉莉는 겨울철 아침 도르래를 감아올려 물을 길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떠 얼음을 녹인 黨書記의 손은 아무 탈이 없었다. 田小兵이라는 知青은 왜 도르래는 李서기님의 손에 안 붙냐고 신기한 듯 물었고, 李德江은 웃으면서 이것은 무슨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일을 하며 굳은살이 बे기면서 손이 안 붙는 거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鐘衛華과 다른 知青들은 鐵手로 단련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貧下中農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물론 그들

141) 何春生, 『大路旁』, 『紅瓦—知識青年上山下鄉短篇小說集』, 農村讀物出版社(北京), 1976년 1월 제 1판, p. 15.

이 단련한 것은 양 손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의 思想도 단련하였다.¹⁴²⁾

關할아버지와 李書記는 教育者로서 知靑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혁명의 경력과 노동의 능력(鐵手)이다. 피교육자로서의 知靑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혁명전통과 ‘鐵手(노동 능력)’를 겸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 당시 毛澤東의 ‘知識青年은 농촌으로 가서 貧下中農에게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호소에 응한 知靑은 1700만에 달했다.

3. 知靑의 農村 정착

知靑小說의 다른 유형은 知靑들이 농촌에 뿌리를 내려 시골에 정착한다는 내용들로, ‘시골에서 뿌리를 내려 혁명을 진행하고, 광활한 들판에 밭을 붙여서 충성심을 키우자(扎根農村鬧革命, 立足田野煉紅心!)’는 구호를 내걸었다. 聞雨의 『根深葉茂』¹⁴³⁾는 知識青年이 농촌에서 뿌리를 내려 정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부모를 설득해 자녀를 농촌에 정착시킨다는 내용이다. 余松巖의 『扎根』¹⁴⁴⁾은 知識青年이 농촌에 뿌리를 내려 농민과 결혼까지 하여 완전히 농촌에 정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대

142) 知靑萬莉莉冬日清晨打水時, 手被轆轤粘住了, 老支書幫她打水衝手, 老支書的手却安然無恙。

田小兵好奇地問道, ‘老支書, 這鐵還會欺負人, 它咋不粘您的手呢?’

‘這個, 嘿嘿,’ 李德江一邊搖着轆轤把, 一邊笑着說, ‘這沒啥學問, 只要下決心, 闖過勞動關, 把手掌磨練得厚厚的, 長一層繃子, 就不怕它粘了。’

‘啊, 原來是手嫩的毛病。’ 田小兵一邊說, 一邊搓着自己的手, 鐘衛華羨慕地說, ‘老支書, 我們非得象您那樣, 磨一雙鐵手不可!’ 說着, 青年們連連點頭。

從這天起, 鐘衛華和一些立志磨練一雙鐵手的同學, 起床號剛吹頭遍, 就搶着給貧下中農挑水。當然, 他們磨練的不僅是一雙手, 主要是磨練思想。’

(郭先紅, 『征途』,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3년 6월 제 1판, pp. 207~208.)

143) 聞雨, 『根深葉茂』, 『遼寧文藝』(沈陽), 1974년 제 6기.

144) 余松巖, 『扎根』, 『廣東文藝』, 1976년 제 3기.

부분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즉, 知青은 포부를 세워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려 방황을 한다. 이때 교육자로서의 貧下中農이 적당한 시기에 나타나 知青들을 교육시키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知青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실수를 반성하고 思想을 철저히 개조해 결국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劉學道の 『豐收序曲』¹⁴⁵⁾에서 知青李玉은 四川省의 북부 산간 시골에 내려가 黨書記와 마을 貧下中農의 열정적인 도움을 받아 農活과 모내기 등 기본적인 농업기술을 배우고 농업 생산과정 중에 즐거움도 느낀다.李玉은 자기가 이미 농민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품종을 실험하는 과정 중에 실험을 망치고 국가 건설에 큰 손해를 가져온다. 이런 상황 하에 당서기는 참을성 있게 그를 교육시켜 貧下中農의 사상과 혁명 사업에 대한 감정을 갖추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한다. 결국李玉은 貧下中農의 敎育을 받아 열심히 혁명이론을 배우고 세계관을 철저히 개조한다. 그 후 堤防 누수공사 사건 중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 몸으로 漏水 구멍을 막고 농사가 豐作이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李玉은 新農村의 후계자가 되고 최종 농촌에 뿌리를 내려서 시골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扎根新農村的一代新人].

文革 時期의 知青 작품 속에서 피교육자 知青과 교육자인 농민과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知識青年은 피교육자로서 농촌의 넓은 지역에서 ‘貧下中農’의 敎育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여 시골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知青 上山下鄉短篇小說集 『朝暉』¹⁴⁶⁾ 중에 달구지를 모는 葉美麗는 아름답고 여성스런 이름을 가진 知青이다. 文化大革命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도시에서 南泥灣¹⁴⁷⁾이라는 시골로 온다. 그녀는 그 곳에서 옛날 八路

145) 劉學道, 『豐收序曲』, 『四川文藝』, 1973년 12월 總第9期.

146) 知識青年上山下鄉短篇小說集, 『朝暉』, 人民文學出版社出版(北京), 1974년 4월 제 1판.

軍과 같이 南泥灣에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곡식을 심었던 趙할아버지(貧下中農)를 만난다. 趙할아버지는 葉美麗의 이름을 葉紅이라고 바꾸라고 했다. 왜냐하면 빨강계 물들인 단풍은 혁명 선열의 피(血)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이런 미학관은 전형적인 文革 美學觀으로서, ‘紅’은 당시 특별한 정치적인 색깔이 사람들의 생활에 들어가 정치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곳곳에 퍼지고, 나중에는 ‘전국의 강산은 모두 빨강계(全國山河一片紅)’되는 지경까지 요구한다. 葉紅은 南泥灣의 精神을 계승하고 趙할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농촌에 정착하는 것을 결심한다. 그녀는 본래 上海로 돌아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본인이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 친구 苗靑으로 하여금 南泥灣의 精神을 이어받아서 南泥灣에 정착하도록 설득하기까지 한다.¹⁴⁸⁾

知青小說 『紅花』중에는 당시 知青들이 농촌에서 정착하려고 한 경향을 보여주는 내용이 보인다.

春光은 밝고 큰 두 눈을 뜨고 무서운 눈빛으로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쳐다보면서 “당신이 이런 유연비어를 퍼뜨린 이유가 뭐냐고? 당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으니 모두 간부가 돼야 되고 월급을 받아야 하냐고? 이런 유연비어를 퍼뜨리지 마! 이것은 劉少奇가 고취한 지식인이 관리가 돼야 한다고 하는 독이야. 우리 같은 지식청년은 上山下鄉해서 貧下中農의 재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며,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 초원을 건설하고, 목장의 면모를 바꾸려고 온 것이지 화려하게 포장(鍍金)하러 온 것이 아니다”고 했다.

‘你散布這些話是什麼意思呢?’ 春光的兩只明亮的大眼，放出凌厲的光芒，她目不轉睛地盯住拉西寧布質問道，‘你以為念過書的人，有了文化都得當幹部掙工資嗎？不要宣揚

147) 1941년 3월에 八路軍의 359旅團長인 王震이 군인들을 이끌어서 南泥灣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대생산 운동(황무지 개간)을 진행했다. 南泥灣은 혁명의 聖地인 延安精神의 발원지이며, 中國 농지개간 사업의 발원지이다. 南泥灣 精神은 延安精神의 重要한 구성 부분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고, 강성해지기 위해 분발하자의 핵심 정신으로 중국인들의 자아를 격려해서 곤란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었다.

148) 앞의 책, p. 51.

這一套。這是劉少奇鼓吹的讀書做官論的流毒。我們知識青年上山下鄉，是接受貧下中農的再教育，扎根邊疆干革命，是爲了建設草原，改變牧區面貌，不是來鍍金！’149)

華彤은 그의 『延安의 種子』¹⁵⁰⁾에서 知識青年 紀延風이 처음 시골에 갔을 때는 더럽고 힘든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처음의 신기한 느낌은 사라지고 농촌의 생활이 무료할 따름이었다. 게다가 도망갔다가 잡힌 知青 杜씨는 항상 뒤에서 불평불만을 일삼아 知青들은 농촌에 정착한 것에 대해 정신적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紀延風의 의지는 점차 약해지지만 이 모든 것을 貧下中農인 田할 아버지가 직접 지켜보며 참을성 있게 교육시켜 紀延風의 행동으로 하여금 知青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다. 毛澤東 思想의 감화를 받고 貧下中農의 教育을 받아서 紀延風은 과거와 고별하고, 드디어 農村의 넓은 지역에 성장된 새로운 세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文革 時期의 知青小說에 묘사된 인물 형상 가운데 貧下中農은 階級鬭爭과 路線鬭爭을 분명히 알고 있는 知青들의 스승으로 毛主席의 혁명 이론을 잘 숙지하고 젊은 知青들을 교육시켜 새로운 세대로서 농촌에 정착하게 하는 先知的인 인물로 묘사된다.

江雷의 『劍河浪』¹⁵¹⁾은 文化大革命 이래 上山下鄉한 知青들의 생활을 묘사하는 첫 번째 長篇小說로서 上海 紅衛兵 柳竹慧와 戰友들이 함께 濱海 紅霞村에 가서 知青 생활을 한다는 내용이다. 共產黨의 기본 노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人民公社의 지도자와 함께 숨어 지내는 적을 찾아냈다. 소설

149) 『紅花』創作組集体創作, 張向午執筆, 『紅花』, 遼寧人民出版社(沈陽), 1976년 4월 제 1판, p. 31.

150) 華彤, 『延安의 種子』, 選自『紅瓦— 知識青年上山下鄉短篇小說集』, 農村讀物出版社(北京), 1976년 1월 제 1판.

151) 江雷, 『劍河浪』,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4년 9월 제 1판.

중에서 紅衛兵 柳竹慧와 貧下中農 嚴德鐵은 人民公社 부주임 馮志凌과 변절자인 會計 孟振甫와 치열하게 투쟁한다. 작품은 知識靑年들이 농촌에 와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아니면 대충 하고 떠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展開되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柳竹慧의 正義派가 결국 승리를 얻어 낸다는 내용이다¹⁵²⁾. 작품 중에는 柳竹慧, 葛輝, 陳阿根, 李淑敏 등의 영웅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三. 小 結

1950년대 시작한 ‘知識靑年 上山下鄉 運動’은 文革 時期에 매우 왕성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전국적인 知青運動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 시기의 소설은 거의 정해진 모델이 있다. 농촌에 정착하려는 포부를 세운 知青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정신이 산만해져서 방황을 하거나 실수를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貧下中農’이 나타나 참을성이 있게 교육시켜 知青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열심히 사상을 개조해 최후에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대적 언어 환경 속에 놓인 文革時期 작가들이 자신의 主體性을 드러내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 시기는 창작이 徹底하게 政治權力에 장악된 시기여서, 소설의 내용이라든가 형식이 權力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그 즉시 제거되었다. 개인적으로 억눌린 목소리나 욕망은 표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文革時期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주체는 바로 政治權力밖에 없었다. 굳이 작가의 주체에 관해 논하자면, 기본적으로 작가의

152) 楊健, 『中國知青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2년 1월, p. 270.

주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政治權力을 떠받드는 작가들은 그 주체가 이미 변질되어 권력의 노예로 전락하였고, 創作을 이용해 권력과 타협한 작가들의 眞實된 자아는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이 소설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權力的의 목소리였다. 문학에 작가의 주체가 결여된 결과, 政治權力은 경쟁자도 감시자도 없이 독주할 수 있었다. 또한 소설은 획일적이고 정형화되었으며, 정치권력을 제외한 모든 사회는 노예화되었다. 작가와 문학이 권력의 도구이자 시대의 도구가 돼 버린 것이다. 이는 비단 文革 시기에 커다란 재앙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新時期, 後新時期의 문학의 主體性 확보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주체, 시대, 소설의 관계를 보면, 주체는 시대와 소설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시대의 주도권이나 소설의 창작권은 政治權力의 손아귀에 단단히 붙잡혔다. 그 결과 주체, 시대, 소설은 모두 함께 일시에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IV. 知青文學의 發展

一. 新時期 知青小說 概括

新時期 단계에 이르러 知青文學은 文革 시기의 소설처럼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다양해졌고 형식도 자유스러워졌다. 대체로 傷痕, 英雄主義(이상주의), 反思(반성), 그리고 비판 등이 주제를 다루었다. 각각의 독특한 관점에 중점을 두고 특유의 서술목적을 가지고 있다.

비록 文學의 시대구분에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신시기 문학의 시작은 확실하다. 1976년에 ‘四人幫’이 몰락하였지만 1976~1978년의 문학은 여전히 文革 시기의 이데올로기[意識形態]가 전승이 되어 文革時期라는 낙인이 찍혔다. 1978년의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 이후에 鄧少平은 ‘실천은 진리를 검증할 유일한 표준[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¹⁵³⁾이라는 이론을 제창하자 문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명실상부한 新時期 文學時代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미 논한 것처럼 1978년 이전의 많은 작품은 아직도 十七年文學과 文革文學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었다. 그렇지만 1978년 이후 當代文學의 흐름이 의미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 문학의 양상과 내용이 바뀌었다.¹⁵⁴⁾ 文學이 이러한 新時期를 맞이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이미 新時期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新時期에 접어들어 知青小說 創作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知青小說을 對象으로 삼은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서적과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연구의 시각도 대폭 넓어졌으며 언급하고 있는 문제도 광범위해졌다. 작가의 작품연구 이외에 전체적으로 新時期 知青小說에 대해

153) 「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 眞理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미 無產階級혁명의 선도자를 비롯해서 증명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四人幫’의 파괴와 그들이 사회 여론을 통제해서 왜곡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혼란스럽고 모호하게 만들었다. ‘四人幫’을 철저히 비판하고, 악영향을 숙청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혼란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1978년 5월 11일 「光明日報」特約評論員.)

154) 丁帆·朱麗麗, 「新時期文學」, 『南方文壇』(南寧市), 總 71期, p. 26.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知青小說의 風格, 모델, 主題, 情感특징, 인물형상의 묘사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는 知青小說의 결함에 대한 연구도 있고 知青小說의 추세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傷痕文學에 대한 비평 논문은 작가 작품에 대한 정치적인 평론이 대부분이지만 이미 文革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때 『傷痕』에 대한 평론이 대량으로 쏟아져 왔다. 「評小說『傷痕』—來稿摘登(十篇)」¹⁵⁵⁾, 「『傷痕』出了‘格’嗎?」¹⁵⁶⁾, 「一篇值得重視的好作品—談『傷痕』」¹⁵⁷⁾, 「『傷痕』也觸動了文藝創作的傷痕!」¹⁵⁸⁾ 등이 그것이다. 그 후의 연구는 점차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작품의 감정적인 함의, 철학적인 차원, 문학형식,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발표된 연구물로는 「‘雯雯’的情緒天地—讀王安憶的短篇近作」¹⁵⁹⁾, 「越過‘滿盖荒原’後的沉思—評梁曉聲的短篇小說『這是一片神奇的土地』」¹⁶⁰⁾, 「藝術的節制—評孔捷生的‘第二步’, 兼論‘意識流」」¹⁶¹⁾, 「沉雄蒼涼的崇高感—論張承志小說的美學風格」¹⁶²⁾, 「知青題材的現代意蘊—評中篇小說『流浪漢的神采』」¹⁶³⁾ 등이 있다. 新時期的 知青小說 연구는 어느 정도 文革의 이데올로기 성향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知青文學에 관한 전문 연구들 중에 郭小東의 『中國當代知青文學』¹⁶⁴⁾과 『中國知青部落』三部作(長篇小說)¹⁶⁵⁾, 鄧賢의 『中國知青夢』¹⁶⁶⁾, 그리고 楊健의 『中國知青文學史』이 대표적인 서적이다. 두 작가는 본인도 知青인

155) 「評小說『傷痕』—來稿摘登(十篇)」, 『文匯報』, 1978년 8월 22일 제 4면.

156) 孫小淇, 「『傷痕』出了‘格’嗎?」, 『文匯報』, 1978년 8월 29일 제 4면.

157) 肖地, 「一篇值得重視的好作品—談『傷痕』」, 『光明日報』, 1978년 9월 29일 제 3면.

158) 荒煤等, 「『傷痕』也觸動了文藝創作的傷痕!」, 『文匯報』, 1978년 9월 19일 제 4면.

159) 程德培, 「‘雯雯’的情緒天地—讀王安憶的短篇近作」, 『上海文學』(上海), 1981년 7월호.

160) 孟繁華, 「越過‘滿盖荒原’後的沉思—評梁曉聲的短篇小說『這是一片神奇的土地』」, 『電大文科園地』(北京市), 1983년 제 3기.

161) 黃偉宗, 「藝術的節制—評孔捷生的‘第二步’, 兼論‘意識流」」, 『廣州文藝』, 1981년 제 10기.

162) 季紅眞, 「沉雄蒼涼的崇高感—論張承志小說的美學風格」, 『當代作家評論』, 1984년 제6기.

163) 董之林, 「知青題材的現代意蘊—評中篇小說『流浪漢的神采』」, 『文論報』, 1989. 1. 15 제 2면.

164) 郭小東, 『中國當代知青文學』, 廣東高等教育出版社(廣州), 1988년 1월 제 1판.

165) 郭小東, 『中國知青部落』, 花城出版社(廣州), 2001년 8월 제 1판.

166) 鄧賢, 『中國知青夢』, 人民文學出版社(北京市), 1993년 3월 제 1판.

까닭에 知青에 대한 연구에 있어 정감, 사상, 審美 등에 동질감이 있고 知青의 心理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과 시대적인 차이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체가 知青에 속하다 보니 연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작품들이 知青 생활을 칭송하고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다.

1990년대 이후 知青小說의 創作이 줄어들고 문학 및 문학연구도 非主流化 되기 시작했다. 知青小說의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이전만큼 시대의 중심에 서거나 열풍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특히 1992년 이후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에 知青文學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二. 主題 分析

1. 現實主義 回歸

新時期 文學은 中國 當代文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新時期 小說² 新時期 文學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또한 작품 속에서 대표적인 문학형상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 知青 인물형상은 中國 當代 文壇의 특유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當代 文學史에 있어 傷痕文學¹⁶⁷⁾은 新時期 文學 중 제일 먼저 등

167) 傷痕文學是20世紀70年代末到80年代初在中國大陸文壇占據主導地位的一種文學現象。它得名於盧新華以“文革”中知青生活爲題材的短篇小說『傷痕』。

傷痕文學是新時期出現的第一個全新的文學思潮。社會主義新時期是以徹底否定文化大革命爲歷史起點的。這種對靈魂的摧殘尤其容易造成慘痛的心靈創傷。但這只有在掙脫了精神枷鎖、真正思想解放之後，人們才能意識到這“傷痕”有多重、多深。這是傷痕文學噴發的歷史根源。

新時期伊始，中國人民在政治上解放了，但由於兩個“凡是”未被推翻，“無產階級專政下繼續革命”的錯誤理論依然流行，所以文學理論與創造仍受到嚴重束縛，以致出現“東邊日出西邊雨”的奇特現象。隨着“真理標準”的大討論和黨的十一屆三中全會的召開，當代中國才真正出現轉機，文學才走上康庄大道。這種社會情勢正是傷痕文學出現的時代背景。

장한 文學思潮이다. 그것은 ‘四人幫’이 실각한 후인 1977년에 나타나, 1980년대 초 잠시 高潮에 달했다가 나뉘대로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한 후 衰退하여 현재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文學思潮의 쇠퇴는 정치적 사회적 결과가 아니라 文學 내부의 新陳代謝라고 할 수 있다.

傷痕文學은 ‘四人幫’이 실각한 이후의 특징적인 역사 상황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회 상황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새로운 창작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文學史에 있어 傷痕文學이 왜 그렇게 짧은 기간에 高潮에 달했다가 금방 사라졌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¹⁶⁸⁾ 그러나 傷痕文學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새로운 文學思潮 속에서 새로운 모습(모델)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 뒤를 이은 反思文學, 改革文學, 그리고 尋根文學으로 대체되지만 그 속에서 傷痕文學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傷痕文學은 용감하고도 비타협적인 자세로 文化大革命을 철저히 부정한 문학을 말한다. 그래서 傷痕文學의 작품들은 주제가 선명하고 거리낌 없이 直言하며, 비판적인 사상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뿐 아니라 참여한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강한 예술 解放 思潮이다. 따라서 傷痕文學은 결코 단순한 비애와 불행, 그리고 눈물의 문학이 아니고, 주로 文革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재난과 그로 인한 내외적인 상처를 폭로하는 내용의 문학이다.¹⁶⁹⁾

傷痕文學의 특징은 강한 비판 정신과 걱정에서 터져 나온 규탄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작품 속에서 독재정치의 온갖 범행에 대해 성토했고 있다. 傷痕文學 작가들은 작품을 통하여 林彪와 ‘四人幫’의 범행을 맹렬히 비판

新時期文學首先必須面對的是文化大革命，所以傷痕文學自然而然地以文化大革命這一歷史時期作爲了重要內容。當時的文學作品或以悲歡离合的故事，或以鮮血淋淋的場景，對長達十年的大動亂對中國人民造成的精神創傷予以了“字字血、聲聲淚”的強烈控訴，對肆虐橫行的極左路線予以了強烈的譴責。這便是傷痕文學的核心思想內涵。

168) 陳曉明, 『中國當代文學主潮』,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9년 4월 1일, 제1판, p. 242.

169) 張志忠 主編, 『中國當代文學藝術主潮』,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4년 1월, p. 197.

했다. 그러므로 傷痕文學은 文革의 황당무계성과 죄악성을 인식하고 文革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전투적 성격의 격문이며, 사상 해방운동의 전주곡¹⁷⁰⁾이라고 말할 수 있다.

新時期 文學의 첫 번째 曙光이라고 할 수 있는 傷痕文學은 정치적인 울타리를 과감하게 타파해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 분노, 통한 등을 토로하였다. 처음 2, 3년 동안 傷痕文學은 眞實性的 回歸라는 바탕 위에 중국 문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批判精神의 회복에 그 의미가 있었다. 당시 작가들은 이미 사회적인 意義에서 출발하여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개인적인 傷痕에서 국가적인 傷痕으로 확대시켰다. 그래서 傷痕文學은 각종 심리적인 상처를 폭로하는 동시에 농후한 시대적인 의식과 정치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¹⁷¹⁾. 傷痕文學의 발단은 劉心武의 『班主任』¹⁷²⁾이지만, 傷痕文學을 高潮로 촉진시킨 작품은 盧新華의 『傷痕』이었는데, 傷痕文學이 바로 여기서 이름을 얻게 된다.

傷痕小說의 內容은 다양하다. ‘四人幫’의 범행에 대해 폭로하고, 動亂으로 불행을 야기한 것을 규탄한 작품으로 劉心武의 『班主任』, 盧新華의 『傷痕』, 陳國凱의 『代價』¹⁷³⁾와 『我應該怎麼辦』¹⁷⁴⁾, 鄭義의 『楓』¹⁷⁵⁾, 金河의 『重逢』¹⁷⁶⁾, 馮驥才의 『啊!』¹⁷⁷⁾ 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당한 상처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고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지조를 열정적으로 칭송한 작품으로는 張潔의 『從森林里來的孩子』¹⁷⁸⁾, 宗璞의 『弦上的夢』¹⁷⁹⁾, 張賢亮的 『土牢情話』¹⁸⁰⁾ 등도 있다. ‘四人幫’의 위세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내용을 묘사한 작품으로 莫應豐의 『將軍吟』¹⁸¹⁾, 從維熙의 『大牆下的

170) 張學正, 『現實主義文學在當代中國』, 南開大學出版社(天津), 1998년 6월, p. 37.

171) 裴毅然, 『二十世紀中國文學人性史論』, 上海書店出版社(上海), 2000년 9월, p. 303.

172) 劉心武, 『班主任』, 『人民文學』(北京), 1977년, 제11기.

173) 陳國凱, 『代價』, 『當代』1980년, 제 1기.

174) 陳國凱, 『我應該怎麼辦?』, 『作品』, 1979년, 제 2기.

175) 鄭義, 『楓』, 『文匯報』, 1979년 2월 11일.

176) 金河, 『重逢』, 『上海文學』(上海), 1979년, 제 4기.

177) 馮驥才, 『啊!』, 『收穫』(上海), 1979년, 제 1기.

178) 張潔, 『從森林里來的孩子』, 『北京文藝』(北京), 1978년, 제 7기.

179) 宗璞, 『弦上的夢』, 『人民文學』(上海), 1978년 12월.

180) 張賢亮, 『土牢情話』, 『十月』(北京), 1981년, 제 1기.

181) 莫應豐, 『將軍吟』,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83년 6월, 제 1판.

紅玉蘭』¹⁸²⁾, 陳世旭의 『小鎮上的將軍』¹⁸³⁾ 등이 있다. 또한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는 농촌생활에 대해 묘사한 작품은 周克芹의 『許茂和他的女兒們』¹⁸⁴⁾, 韓少功의 『月蘭』¹⁸⁵⁾, 張賢亮的 『邢老漢和狗的故事』¹⁸⁶⁾ 등이 있다.

2. 文革 ‘極左’에 대한 폭로

知識青年의 人物形象 변천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중국 當代小說의 발전 과정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히 文革 動亂期를 묘사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회문제를 제시했는데, 劉心武의 『班主任』이 바로 이러한 소설이다. 작품 중에서 宋寶琦와 謝惠敏 같은 인물은 피해자와 상처를 받은 학생으로 묘사하여 ‘四人幫’이 청소년에 끼친 해악을 고발했다¹⁸⁷⁾. 작품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묘사하면서 학생이 겪은 고통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상처에 끝나지 않고 정치적인 해악으로 말미암아 중국 전체의 민족정신의 內傷으로 확대 심화시킨 것이다. 劉心武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야만스럽고 공부도 하지 않는 불량배 宋寶琦와 생각이 경직된 소위 ‘모범 학생(好學生)’ 謝惠敏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文化大革命이 청소년들의 심리에 끼친 해악을 폭로했다. 특히 謝惠敏의 人物形象을 통해 작가는 교육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장기간 정치적인 동란으로 민족의 사상이 경직되었다(僵化)는 것을 들추어냈다¹⁸⁸⁾. 불량 학생인 宋寶琦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宋寶琦) 탄력이 있는 나일론 러닝을 입고 있고 근육이 볼끈 솟았다. 얼굴은 뽀얗기도 하면서 붉은 빛이 돌았다. 지금은 다행히 먹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않은

182) 從維熙, 『大牆下的紅玉蘭』, 『收穫』(上海), 1979년, 제 2기.

183) 陳世旭, 『小鎮上的將軍』, 『十月』(北京), 1979년 創刊號.

184) 周克芹, 『許茂和他的女兒們』, 百花文藝出版社(天津), 1980년 5월, 제 1판.

185) 韓少功, 『月蘭』, 『人民文學』(上海), 1979년 4월.

186) 張賢亮, 『邢老漢和狗的故事』, 『寧夏文藝』(銀川), 1980년, 제 2기.

187) 黃偉宗 編著, 『當代中國文學』, 廣東旅遊出版社(廣州), 2001년 4월, p. 201.

188) 季紅真, 『文明與愚昧的衝突, 論新時期小說的基本主題』,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

庫·文學卷』(下), 浙江教育出版社(杭州), 1999년 12월, p. 1417.

시대에 사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었다. 얼마나 충족하게 영양을 공급받는지 알게 되어 왕성하고 정력적인 건강미를 가질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 몸으로 보여 주었다.……한심한 것은 얼굴의 근육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입술에 남긴 상처, 신경질적으로 벌롱대는 코, 특히 그 공허함과 어리석음이 가득 찬 눈빛 속에서 더럽혀진 영혼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듯이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

他(宋寶琦)身上只穿着尼龍彈力背心,一疙瘩一疙瘩的橫肉,和那白里透紅皮膚,充分說明他有幸生活在我們這個不愁吃不愁穿的社會里,營養是多麼充分,軀體里蘊藏着多麼充沛的精力。……令人心寒的是從面部肌肉里,從毆鬥中打裂過又縫上的上唇中,從鼻翅的神經質扇動中,特別是從那雙一目了然地充斥着空虛與愚昧的眼神中,你立刻會感覺到,儼佛一個被污水潑得變了形的靈魂,赤裸裸地立在聚光燈下。189)

모두 다 宋寶琦는 ‘나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謝惠敏은 오히려 그 시대의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謝惠敏은 共產主義 청년단원, 품행 단정의 班幹部로서 그녀의 사상은 極左다. 小說 중 자세히 묘사한 내용이 없어 여기서 그녀의 말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그 인물형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농촌에 農活을 갔다 돌아오면서 한 남학생이 밀 이삭을 갖고 오자 그 사실을 안 그녀는 흠칫 놀라면서 왜 貧下中農의 밀 이삭을 갖고 왔느냐며 그 남학생을 힐난한다. 또한 그녀는 부르주아적 색채에 오염될까 두려워 더운 날씨에도 줄곧 반팔 블라우스와 짧은 주름치마는 입지도 않았다. 불량배 宋寶琦가 자기 班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서도 무서운 것이 뭐가 있냐며 오만 방자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녀는 서점에서 팔지도 않고 도서관에서 조차 대출하지도 않는 책은 모두 불량서적이라고 규정하며 신문이나 잡지에서 추천하지 않은 책을 읽게 되면 나쁜 사상에 오염된다는 보수적인 관념을 갖고 있다.

위에 서술한 표현을 놓고 본다면 謝惠敏 같은 학생의 품행은 당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건전한 인격과 독립적 사고

189) 劉錫慶 主編, 『生命如同那年夏天·傷痕小說』, 北京師範大學出版社(北京), 1992년 7월, pp. 11~12.

방식이 모자라는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謝惠敏은 新時期文學의 첫 번째 전형적인 인물¹⁹⁰⁾이라고 말할 수 있다. 劉心武의 『班主任』에서 직접적으로 ‘四人幫’의 범행에 대해 묘사하지 않으면서도 謝惠敏과 宋寶琦의 비뚤어진 정신세계를 묘사하면서 당시 청소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⁹¹⁾

傷痕文學을 얘기하면서 盧新華의 『傷痕』(『文匯報』(上海), 1978年 8月 11日)을 빼놓을 수 없다. ‘傷痕’이란文學思潮도 그의 소설 제목에서命名된 만큼 작품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소설은 주인공인 王曉華의 아픔을 통해 그 어두운 당시를 비판하고 있다. 16살 소녀인 王曉華에게는 모친에게 붙여진 ‘반혁명 변절자’라는 딱지가 바로 정신적 속박이었다. 그 당시 정치적인 투쟁노선이 사회 전체에 침투되어 있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정상적인 가정, 우정, 그리고 애정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세계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王曉華의 생활 묘사를 통해 그 가혹한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은 盧新華의 주관적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¹⁹²⁾. 王曉華은 어머니의 ‘반혁명 변절’ 문제 때문에 어머니를 몹시 증오하며 시골로 내려가 知青이 되었다. 나중에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는 공문서를 받아 도시로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이미 병사한 후였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변절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두 모녀에 남겨진 상처를 어느 누가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녀는 그런 상처의 원인을 영원히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주인공인 王曉華 인물의 사상과 성격의 형상을 완성시키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다.

밤이다. 고요하다. 황포강의 물은 동쪽으로 세차게 흐르고 있다. 갑자기 멀리 대

190) 張學正, 『現實主義文學在當代中國』, 南開大學出版社(天津), 1998년 6월, p. 39.

191) 賀桂梅, 『新話語的誕生—重讀』, 主編 胡健玲, 編選 陳振華,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中),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p. 271.

192) 李書磊, 『歷史與未來的精神產兒, 論新時期的“青年文學體”』,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庫·文學卷』(下),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9년 12월, pp. 1463~1464.

형선에서 기적 소리가 크게 울렸다. 曉華는 온 몸에 더운 피가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蘇小林的 손을 낚아채고, 돌계단을 내려가 등빛 휘황찬란한 南京路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디뎠다.

夜，是靜靜的。黃浦江的水在向東滾滾奔流。忽然，遠處傳來巨輪上汽迪的大聲怒吼。曉華便覺得渾身的熱血一下子都在往上沸騰。於是，她猛地一把拉了蘇小林的胳膊，下了石階，朝着燈火通明的南京路大步走去……。193)

시대가 어찌 되었든 간에 미래는 존재한다. 젊은이에게 있어 미래는 늘 아름답다. 이 시기의 작품은 모두 독특한 표현방식이 있다. 개인을 赦免하고 일치단결하며 앞을 향해 나아간다. 역사 및 인성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허공에 띄우고 있다.¹⁹⁴⁾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 이전의 작품은 아직 文革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鄭義는 文化大革命 때 紅衛兵¹⁹⁵⁾이었는데, 여러 과의 紅衛兵과 자주 다투었다. 그의 작품 『楓』¹⁹⁶⁾은 바로 紅衛兵들이 싸우고 죽이는 참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盧丹楓과 李紅鋼의 비극은 실제로 紅衛兵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文革 때 어떤 것에 열광하는 것이나, 단순한 특성 등은 대다수 紅衛兵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다. 盧丹楓과 李紅鋼은 원래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데 派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革命造反派’¹⁹⁷⁾라고 생각해 공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李紅鋼은 원래 이름은

193) 盧新華, 『傷痕』, 『文匯報』(上海), 1978년 8월 11일.

194) 陳曉明, 『中國當代文學主潮』,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9년 4월 1일, 제 1판, p. 246.

195) 1966년 5월 29일 淸華大學의 附屬中學의 幾個學生聚集在一起, 對形勢進行了分析, 秘密組織了 紅衛兵組織。在他們的影響下, 六月初, 北京地質學院附屬中學、北京石油學院附屬中學、北京大學附屬中學、北京礦業學院附屬中學以及北京市第二十五中學的學生相繼成立了‘紅衛兵’、‘紅旗’、‘東風’等秘密學生組織, 亦即最早的紅衛兵組織。他們的誓言是:“我們是保衛紅色政權的衛兵, 黨中央毛主席是我們的靠山, 解放全人類是我們義不容辭的責任, 毛澤東思想是我們一切行動的最高指示。我們宣誓: 爲保衛黨中央, 爲保衛偉大的領袖毛主席, 我們堅決灑盡最後一滴血!” 從此, 由中學生首先自由組織的秘密團體“紅衛兵”開始作爲一種集團力量, 步入中國的政治舞臺。

(高 阜, 嚴家其, 『文化大革命十年史1966—1976』, 天津人民出版社(天津), 1988년 4월, pp. 40~41.)

196) 鄭義, 『楓』, 『文匯報』(上海), 1979년 2월 11일.

李黔剛이라고 했는데 ‘黔’을 떼어내면 ‘黑’과 ‘今’으로 되니 너무 반동적인 것이라 ‘紅鋼’으로 개명했다. 양파의 무장 투쟁은 참혹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異端’이라고 여겼고, 상대 派에 대한 투쟁을 십자군 聖戰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결국 양측은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李紅鋼은 이 무장투쟁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인 盧丹楓을 잃었다.

작가는 남주인공 李紅鋼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 여주인공 盧丹楓을 묘사했다. 盧丹楓은 열광과 맹종의 개인숭배 와중에서 이성과 침착성을 잃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게 되는데, 그녀는 종교에 가까운 절대적 숭배로 인해 『毛主席語錄』을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쪽 번호까지 정확히 암기했다. 저자가 인물을 형상화할 때 대부분을 주인공의 대화로 표현했다.

작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서술하면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派가 자기 진영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휴, 이미 알고 있어요. 혁명을 위해서는 마땅히 희생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찌 혁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 毛主席이 ‘인생에 있어 힘들고 고된 여정 끝에 반드시 평탄한 길이 나올 것이다.’ – 우리의 정권이 공고해지고 文化大革命이 승리를 얻으면 그때……”라고 했다.

자기의 派를 공격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李紅鋼이라고 알았을 때 그녀는 천천히 李紅鋼의 앞으로 걸어 나오며 심하게 그를 쏘아붙이며 “당신 왜 여기 왔어? 왜? …… 양손에 井岡山 사람들의 선혈이 가득히 묻은 살인자! 살인자!”라고 책망한다.

盧丹楓은 쓴웃음을 지으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될 지는 애초에 생각지도 못했잖아! 우리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지는 애초 생각지도

197) 造反派是文革時期以“造反”自稱、標榜的一種群眾組織，及其與他們的政治實踐相關連的一整套思想方法、行爲特徵、價值取向。該詞當時仍按傳統價值來闡釋，含貶義。1966年秋冬，通過毛澤東八次接見紅衛兵(以學生以主體)造成的氣候，造反派組織獲得迅速發展，已占壓倒優勢；而黨政領導和基層單位失去了運轉、整合功能，陷入癱瘓狀態。參加這類組織就成了時髦一進步、革命的標志。文革早期的“保皇派”紛紛轉而加入造反派了。

못했잖아!”라고 말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며 “만약 내가 文化大革命의 최후의 승리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李紅鋼의 가슴을 부여잡으며 紅鋼에게 “黔剛, 빨리 정신 차려! 빨리 毛主席의 革命路線으로 돌아와! 黔剛”이라고 간절히 말했다.

李紅鋼은 얼굴을 돌려서 그녀에게 “아니야!……너, 너, 네가……항복해!”라고 말했다.

盧丹楓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핏자국으로 얼룩진 낡은 군복을 정리한 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야!…… 겁쟁이, 총을 쏘라!”……“井岡山 사람 모두를 모조리 없애지는 못할 걸! 공산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건물에서 투신하고 만다.

이상의 서술에서 남·여 주인공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나치게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모택동의 語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숭배의 영향과 정치적 영향으로 빚어진 종교적 색채의 맹신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열광적인 개인숭배가 가져온 破壞性이 신속하게 계급투쟁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임과 동시에 그러한 영향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투쟁 노선에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盧丹楓과 李黔剛의 비극은 개인적인 숭배가 사람에게 끼친 심리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지한 학생들이 치열한 노선 투쟁 속에서 자신이 사랑한 연인이 결국 허황된 理想을 좇으며 건물에서 투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러한 고통은 다른 의미에서의 최고의 분노¹⁹⁸⁾일지도 모른다. 연인 사이의 사랑이 원한이 되고 그 원한이 비극적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애증의 관계에서 어째서 사랑을 하지 않고 원한을 선택했는가? 여기에 중국 當代史의 비극이 있다. 個人崇拜, 특히 종교에 가까운 맹신적

198) 李書磊, 「歷史與未來的精神產兒, 論新時期的‘青年文學體’」,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庫·文學卷』(下), 浙江教育出版社(杭州), 1999년 12월, p. 1465.

개인숭배가 청년들에게 끼친 해악의 정도가 매우 깊었다는 것을 작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人性이 고갈되고 맹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분위기를 질타하면서, 당시 모든 청년들이 자신이 ‘모택동의 혁명노선을 지키는 [捍衛毛主席的革命路線]’ 것이 사명임을 죽을 때까지 믿었고, 그들 모두 다 왜곡된 理想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의 죽음은 역사의 발전 속에서 의미 없는 희생에 불과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비극이 되는 것이다.¹⁹⁹⁾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人性의 고갈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고갈에서 빚어진 紅衛兵의 비극은 그 당시 사회 전체적인 비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3. 文 革 에 대 한 반 성

從維熙는 知青들 중에서 처음으로 傷痕을 題材로 한 작품을 썼으며 文 革의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의 『大牆下的紅玉蘭』중에서 ‘四人幫’의 권세로 인해 犯人 馬玉麟이 反革命者임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자’에서 ‘유기징역’으로 번복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馬玉麟를 통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시대의 앞잡이가 되어 교도소 處長인 葛翎에게 박해를 가하는 모습과 노동교화를 통해 개조되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오히려 공산당의 간부가 되어 버리는 세태를 교묘한 풍자로 빗대고 있다. 작품 속에서 加害者인 馬玉麟에 대해 아래와 같이 描寫했다.

늙은 범인(馬玉麟)은 대략 57, 8살로 보이는데 체격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 그의 얼굴은 붉은 자줏빛으로, 안색은 산간 9월의 산복숭아 나무의 껍질과 닮았다.

199) 何西來, 「蚌病成珠— 論“傷痕文學”」, 『新時期文學思潮論』, 江蘇文藝出版社(南京), 1985년 12월, pp. 91~92.

반달모양의 빗자루 눈썹이 크지 않은 눈 한 쌍을 둘러싸고, 때로는 눈 감고 뜨고 한다. 눈을 감을 때는 눈언저리의 근육이 느슨해져 밑으로 늘어져 이미 늙은이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눈을 뜰 때는 노태가 갑자기 사라지고 살짝 눈알 한 쌍이 튀어나올 것처럼 날카로운 눈빛이 나타난다.

老犯人(馬玉麟)大約有五七八歲的樣子，身材長得高大魁偉，虎背熊腰。他的臉膛紅中透紫，顏色就象山窪里九月的山桃樹皮；月牙形的掃帚眉包圍着那對不大的眼睛，時而閉闔，時而張開，當他眼睛閉合時，眼圈周圍的肌肉松弛下垂，顯示出他已經是個老者；當他睜開眼睛時，老態頓然消失，兩個微微外突的眼球閃出刀鋒似的目光。²⁰⁰⁾

馬玉麟의 심리 묘사를 보면 인물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오랫동안 사냥을 나섰으나 사냥감을 못 잡은 사냥꾼처럼 갑자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을 만난 듯 그렇게 만족하며 즐거워했다. 그는 반달모양의 빗자루 눈썹을 찡그리며 흉악한 눈빛으로 葛翎의 이마 한 줄 한 줄의 주름살을 노려보고, 그의 희끗 희끗한 양측 귀밑머리를 사납게 노려보면서, 입가에 한 줄기 냉소를 흘리며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듯 “당신 늙었구나, 나도 늙었어!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정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라고 말했다.

세상에 몹시 밍살스러운 수생동물인 칠거머리(螞蟻)가 있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피(血)를 빨아 먹고 산다. 이 늙은 범인을 칠거머리라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을 것이다. 강렬한 정치 운동 때 專政의 위력에 겁을 먹어 칠거머리와 같이 웅송그리고 흡혈의 빨판을 복부에 숨겨버린다. 일단 외부의 압력이 사라지면 즉시 뱀처럼 몸을 곧게 펴고 날카로운 빨판을 드러내 사람의 새빨간 피를 빨아먹는다. 게다가 이 늙은 범인은 권력 있는 사람이 뒤를 봐 주니 그 입 앞에 나타난 사냥감은 마침내 그의 속적이 되는 것이라?!

他象一個久獵未獲的獵手，突然尋覓到一件最心愛的獵物那樣滿足，那麼開心。他皺着月牙形的掃帚眉，睜視着葛翎額頭上一道道皺紋，睜視着葛翎斑白的兩鬢，嘴角情不自禁地浮起一絲冷笑，“你老了，我也老了，真是冤家路窄，想不到在這兒又重新見

200) 劉錫慶 主編，『生命如同那年夏天·傷痕小說』- 從維熙，「大牆下的紅玉蘭」，北京師範大學出版社(北京)，1992년 7월，p. 43.

面……”

世界上有一種討厭的水生動物，叫做螞蟻；他的本能就是靠吸吮人血養活自己。用這個動物來比喻老犯人是非常恰當的，在專政的大牆之下，攝於專政的威力，他像螞蟻一樣卷縮起來，把它吸血的吸盤藏在腹下；一旦外力消失，它立刻象蛇蟒一樣伸直了腰腿，亮出尖尖的吸盤，吸吮人的鮮紅血液——何況，這個老犯人有權威人物撐腰，而來到嘴邊的正是他的對頭冤家呢？！²⁰¹⁾

작가가 이러한 인물을 전면에 등장시킨 이유는 당시 是非가 전도된 세태를 풍자하기 위함이다. 즉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박해를 받는 모습을 통해 ‘革命’ 운동이 인위적으로 발생한 비극임을 말하고 있고, 그 비극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혁명분자 [反革命分子]인 馬玉麟은 감옥에 갇혀 인성을 개조해야 할 사람인데도 오히려 ‘체격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인물이라고 묘사하면서, 오히려 혁명에 충실한 사람은 반혁명분자들을 계도하는 감옥에 갇혀 끝내 감옥의 돌담 아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大牆文學’²⁰²⁾이라고 하는 小說 테마로 비극이 극에 달하고, 동시에 ‘傷痕小說’ 사고의 깊이와 역량이 있어서도 한걸음 더 앞서 있다.²⁰³⁾

從維熙의 『大牆下的紅玉蘭』은 비록 傷痕文學에 속하지만 이미 反思文學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작품에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그 전조를 알 수 있다.

201)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p. 48~49.

202) “大牆文學”就是以特定歷史條件造成的冤獄生活爲描寫對象的文學。“大牆文學”成爲七、八十年代影響較大的一種文學派別。代表作是從維熙『大牆下的紅玉蘭』，也是新時期文學中敢於直面現實生活、衝破題材禁區、徹底否定“文革”，反映了在那個特殊的歷史時期，“四人幫”製造了大量的冤假錯案，一大批堅定的共產主義者在獄內同“四人幫”惡勢力進行了不屈不撓的鬪爭，在大牆里面，正義與邪惡、進步的與反動的、是與非、人與妖展開了激烈的鬪爭，人性之間的對立碰撞發生了璀璨的火花。他們威武不屈、貧賤不移，成爲進步、正義、眞理的化身，從這一意義上講，“大牆文學”是那個特殊時代中國共產黨人和知識分子凜然浩然的正氣歌。(金漢 主編. 『中國當代文學作品選評』, 浙江大學出版社(杭州), pp. 423~424.)

203) 顧驥, 「革命現實主義的藝術力——讀從維熙的中篇小說」, 『十月』(北京), 1981년, 제3기, p. 219.

역사—정말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얼마나 모질고 무정한가! 항일전쟁 때 화약연기 자욱한 참호에서 공산당원에 가입한 사람(葛翎), 한국전쟁에서 돌아와 공안국에서 예심과 범인 노동개조의 일을 담당하던 간부, 마침내 역사의 폭풍에 공산당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국가 정권을 掌管한 고급 간부는 순식간에 관제 대상이 되어서 그가 여러 번 시찰한 감옥에 처넣어졌다. 감옥에서 ‘사형 집행 유예(死緩)’에서 유기징역의 늙은 범인(馬玉麟)조차 그에게 호령을 내리고, 그에게 專政을 실시했다.

歷史— 多么不可思議，又多么嚴峻無情；一個在抗日戰爭硝煙彌漫的戰壕里入黨的共產黨員；一個從朝鮮戰場上復員到公安局負責過預審和勞改工作的幹部，竟然被歷史的旋風卷進共產黨的監獄；一個掌管國家政權工具的領導幹部，瞬息之間變成了專政對象，被裝進他曾經多次視察過的牢房，連這個‘死緩’減為有期徒刑的老犯人，都對他發號施令，對他實行專政了。²⁰⁴⁾

從維熙는 일찍부터 文革에 대해 반성을 한 작가이다. 1979년에 발표한 이 작품은 비록 傷痕의 분위기가 소설의 주요한 내용으로 反思文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從維熙의 소설은 비록 반성의 역량이 부족하지만, 문학의 흐름에 따라 傷痕文學에서 反思文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馮驥才는 知青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인물 묘사에 심혈을 기울였고 표현의 경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깊이가 있다. 한 단계 높은 묘사와 표현으로 당시 文學思潮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뚜렷한 화면 묘사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馮驥才의 창작 기품은 다른 작가와 확실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當代小說 문단의 걸작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²⁰⁵⁾. 馮驥才가 성공한 이유는 繪畫의 修養에서 비롯되었다. 실제 그는 소설 작가가 되기 전에 20년 가까이 화가 생활을 했다. 그래서 가시적인 想像의 사고방식이 작품 속에 잘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啊!』라는 작품에서 繪畫 수법을 통해 賈大眞과 被害者 吳仲義의

204)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 44.

205) 李兆忠, 「論馮驥才小說藝術特色」, 『文藝理論研究』(上海), 1986년, 第3期, pp. 65~66.

인물 형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우선 虐待狂인 賈大眞의 외모 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40살이 넘었는데 지나치게 머리를 써서 일찍 대머리가 되었다.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큰 덩치에 비해 머리가 작게 보인다. 그는 일반적인 정신노동자처럼 장기간의 노고로 온 몸의 정혈이 다 소모돼서 몸의 골격의 형태가 밖으로 모두 드러나 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노랄게 떠서 낡은 신문지의 색깔과 비슷하다. 다만 눈빛은 도발적이며 냉랭하고 상서롭지 않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다. 정기를 뿜어 사방을 훑어보는 두 개의 눈동자가 말라 비틀어진 눈두덩 속에 박혀있었다. 게다가 항상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의 얼굴을 쳐다본다. 허심탄회한 사람조차도 이런 눈빛을 마주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四十多歲，用腦過度，過早禿了頂。在他瘦高的身子頭上，這腦袋顯得小了些。他也像一般的腦力勞動者那樣，長期辛苦，耗盡了身上的血肉，各處骨骼的形狀都凸現在外；面皮褪盡血色，黃黃的，像舊報紙的顏色。只留下一雙精氣外露、四處打量的眼睛，鑲在乾癟癟的眼眶里。目光挑剔、冷冰冰、不祥、咄咄逼人。而且總是不客氣地盯住別人的臉；連心地最坦白的人，也不願意碰到這種目光。(206)

그리고 賈大眞의 언행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그는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키가 크다. 당시 유행하던 혁명을 상징하는 녹색 軍帽을 쓰고 단상에 오르면 몹시 여윈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살벌한 기운이 돈다.

“우리가 여러 번 운동을 했지만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관에 지식분자들이 많고 계급성분이 복잡하여 용과 범이 숨어 있듯이 각양각색의 나쁜 놈들이 적지 않게 뒤섞여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공개된 것도 있고, 숨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에게 관용을 베풀면 혁명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뛰쳐나와 반대를 했던 사람이 한 두 명입니까? 이제야말로 그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깊이 숨어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3척 깊이 땅을 파서라도 그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운동의 특징은 형세가 사납다는 데 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세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강력한 정치 공세를 펴야 합니다. 적들에게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해

206)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 239.

야 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사람과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철저히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오점이 있는 사람은 다시 조사를 하고, 새로 평가하고, 새로운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적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 운동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 그물망을 펼쳐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상급 영도자도 이미 말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을 보내고, 관리해야 할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번의 대대적인 폭로, 검거, 비판, 투쟁이라는 階級 鬪爭의 새로운 큰 물결을 맞이합시다!”고 했다.

他瘦瘦高高，戴一頂時髦的象徵革命的綠軍帽，站在台上，他那瘦骨稜稜的臉上有種可怕的嚴肅勁兒。

“雖然我們搞過許多次運動，但並不徹底。我們這個單位知識分子成堆，階級成份複雜，藏龍臥虎，混雜着大大小小、為數不少的一批壞人。有歷史的，也有現行的；有的公開，有的隱蔽。我們不能掉以輕心，墊高枕頭睡大覺。對敵人姑息，就是對革命犯罪。不少人在運動中不是跳出來表演了嗎？現在該是和他們算總帳的時候了！對於那些隱藏得很深的傢伙們，就是掘地三尺，也要把他們挖出來！”

“這次運動的特點是來勢猛，決心大、搞得細。一方面，發動強大的政治攻勢，對階級敵人展開全面進攻。另一方面，對所有問題、有嫌疑的人，要進行一次徹底的清理；對歷史有污點的人，也要重新調查、重新鑒定、重新結論。我們下了決心決不漏掉一個敵人！而且，這次運動還將在社會上廣泛展開，撒下天羅地網，將一切敵人一網打盡。上級領導講了，‘該殺的就殺，該關的就關，該管的就管！我們立即行動起來，迎接這場大揭發、大檢舉、大批判、大鬪爭的階級鬪爭的新高潮！’²⁰⁷⁾

마지막으로 작가가 賈大眞에 대한 변태적인 심리 묘사를 살펴보면,

그(賈大眞)는 민감하고, 예리하며, 안광이 날카롭고 총명하고 기민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눈빛, 얼굴빛, 말투 및 작은 동작으로 남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엿본다. 또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서 남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꺼내 놓게도 한다. 이런 때 그는 노련하고 자신감을 드러낸다. 그는 마치 귀뚜라미를 잡는 고수와 같고, 벽돌 틈에 숨어 있는 귀뚜라미를 꺼낼 수 있는 만큼 영리한데다 손재주도 있고 수법이 무척 다양하다. …… 조용한 생활 분위기에는 특별히 적막하게 보이고, 한산하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다. 성적이 변변찮다. 정치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 마약을

207)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p. 201~202.

피운 후처럼 전신이 진작되고 잔뜩 흥미로워지며, 총명해진다. 야행성 동물처럼 밤이 되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 때의 賈大眞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시합 경기에 나갈 선수처럼 원기왕성하고 온몸에 힘이 넘쳤다.

他敏感、銳利、精明、機警。能從別人的眼神、臉色、口氣以及某一個微小的動作，隔着皮窺見人心。還能想方設法迫使人把藏在心里的東西掏出來。每逢此時，他就顯得老練而自信。好象一個捉蟋蟀的能手，能將躲在磚縫里的蟋蟀逗弄出來那樣心靈手巧，手段多得出奇。…… 在平靜的生活氣氛就顯得分外寂寞，閑散無聊，無所作爲；當生活翻起浪頭，他立刻就象抽一口大煙那樣振作起來，興致勃勃，聰明十足。好象夜幕一降，夜蟲夜鳥就都歡動起來。此時此刻的賈大眞正是這樣，如同一個剛上場的運動員那樣神采奕奕，渾身都憋足了勁兒。(208)

이상 가해자인 賈大眞의 외모와 언어 그리고 심리상태의 묘사를 통해 작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一連串整垮、整倒、整服別人，構成他生活的主要內容，工作的主要成績。他是那個時期生活的主角和強者— 當然是另一種主角和強者。把握着人與人關係絕對的主動權。同他打交道，便意味着自己招災惹禍，沾上了不好的兆頭；他帶着一種威脅性，沒有人願意同他接近。他却自鳴得意。說自己是“濃縮的殺蟲劑”。由於到處噴灑，連益蟲也怕它。(209)

연달아 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며 굴복시키는 것이 그의 생활의 주요내용이고 업무의 주요 성과이다. 그는 그 시대 삶의 주인공이며 강한 자— 당연히 다른 의미의 주인공이었고 강한 자 이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절대적 주도권을 장악한 사람이었다. 그와 왕래하면 화를 자초하는 것이었다. 좋은 징후는 하나도 없다. 그는 일종의 위협적인 사람으로 그와 가까이 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기양양했다. 스스로 “고독성 살충제”라고 했다. 여기저기 살포하니 유익한 벌레조차도 그를 무서워했다.

馮驥才是『啊!』라는 작품에서 모 역사연구소의 연구원인 吳仲義가 文化大革命의 정치 투쟁 중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형상을 묘사했다. 그는 조심

208)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 238.

209)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 238.

스럽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아 어떤 일에 부딪히면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풍랑 속에서 재능 많은 청년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²¹⁰⁾ 文化大革命 때 ‘四人幫’의 학대를 받기 전 吳仲義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의 성격은 비록 형보다 연약하지만 열정적이고 순박하다. 한 그루 건장한 참나무와 한 그루 가늘고 긴 자작나무와 같아서 생기가 넘쳐흐르는 봄에는 파르스름한 새싹이 가득이 자라 자태가 너무 아름답다. …… 미래는 그에게 너무 아름다운 한 장의 그림과 같았다. 수시로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감동을 받기도 쉬운 청년이었다. 세상의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갖고, 성격이 민감하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믿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허심탄회하고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토로해야 정말 통쾌하다고 느끼고, 사람을 성실히 사람을 대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 또한 그 시대(문화대혁명 이전)는 사람들과 모든 사회생활은 발전의 속도를 의연히 높이 들어올렸다.

雖然性格上雖然比哥哥脆弱些，但一樣熱情淳朴。好比一株精壯的橡樹和一棵修長的白樺，在生機洋溢的春天里都長滿鵝黃嫩綠、生氣盈盈的葉子。……未來對於他還是一張想象得無比瑰麗與絢麗的圖畫。隨時隨地容易激動和受感動；對於一切事物都好奇、敏感、喜歡發問，相信自己獨立思考得出的結論，也相信別人與自己一樣坦白，心里的話只有吐盡了才痛快，并以對人誠實而引為自豪……再有，那個時代，人們和整個社會生活，都高抬着昂然向上的步伐呵！²¹¹⁾

그러나 여러 번 정치적인 투쟁을 거치면서 吳仲義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겁이 많고, 안절부절 못하며 말 수가 적고, 쉽게 사람을 믿지 않고, 남에게 진심을 토로하지 않고, 사람이나 생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 긴 시간이 지나 의식적인 것이 무의식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고, 사람은 장기간에 말을 안 하면 병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는 점차 주관적인 견해가 없고, 지나치게 연약해 지고, 유머가 전혀 없고,

210) 盛英, 「探索“非常時代”人們的心靈— 簡評馮驥才的小說創作」, 「人民日報」(北京), 1981년 3월 18일, 제 5면.

211)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 207.

심지어 활력도 부족해졌다. 마침내 아직 익지 않은 청과가 폭풍우를 맞아 때 이르게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그의 외모도 마찬가지다. 몸이 마르고, 얼굴이 꾸깃꾸깃하며 마침내 하나의 밑반죽 덩어리와 같이 돼 버렸다. 가는 목이 작은 머리 하나를 지탱하고 있고, 약간 대머리가 되었다. 쓰고 있는 안경은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빛이 날 수 있는 물건이다. 마침내 털이 다 뽑힌 참새와 같고 몹시 가련하다. ……

怕事，拘謹，不愛說話，不輕信於人，難得對人說兩句知己話，很少發表對人和對生活的看法，不出風頭……久而久之，有意識的會變成無意識的，就如同一個人長期不說話便會變成半個啞巴。他漸漸成了一個缺少主見、過於脆弱的人，沒有風趣，甚至缺乏生氣。好比一個青青的果子，未成熟却遇到一陣肅殺而猛烈的狂飈，過早的衰退了。連外貌也是如此。瘦弱的身子，皺皺巴巴，象一個千面團那樣不舒展。細細的脖子支撐一個小腦袋，有點洩頂；一副白光眼鏡則是他身上唯一的閃光之物。好象一只拔了毛的麻雀，帶點可憐巴巴的樣子 ……²¹²⁾

이 모든 것은 吳仲義가 ‘鳴放²¹³⁾’시기에 ‘과격 한 언론[過激言論]’의 편지를 잃어버린 공포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吳仲義의 얼굴은 석회 담장과 같고, 안경의 알 뒤에 있는 눈은 위축돼 있고 다른 사람이 그와 눈을 마주치면 즉시 눈꺼풀이 늘어져 남의 시선을 피한다. 그는 흥미가 전혀 없고, 얼굴에는 근심과 병색이 가득 찼다. 때로는 창문 밖으로 혹은 벽 모퉁이 한 곳을 노려보며, 30분이나 났을 잃고 쳐다본다. 이때 그의 얼굴에는 간간이 공포감과 애처로운 표정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이 그를 부르거나 혹은 갑자기 무슨 기척이 있으면 참새처럼 무슨 소리를 들어도 놀란 모양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다.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자주 실수하는 것은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의 얼굴은 더럽고 눈에 마른 눈곱이 끼어 있으며, 목은 시커매서 사오일을

212)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 214.

213) ‘온갖 꽃이 같이 피고 서로 다른 많은 학파들이 논쟁을 벌인다.’는 말,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 운동은 인민 대중들에게 언론을 확대하여 공산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도 감내하겠다, 그리하여 공산당 내부에 서서히 싹트는 여러 문제들 즉 관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말하자면 일종의 정풍운동으로 공산당 신정권의 자신감의 표출이자, 이름에서 풍기듯이 제자백가가 활약한 춘추전국시대처럼 문화적 황금기를 구현하려는 의도까지 포함된 것이었으며, ‘쌍백운동’이라고도 불린다.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1999年版縮印本), 上海辭書出版社(上海), p. 2135.)

(발행인 고정일, 『세계대백화사전』, 2000년 3월 1일, 동서문화(서울), p. 6447.)

세수도 안 한 것 같다. 며칠 동안 머리도 안 빗어 어지럽게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건초 무더기와 같다. 게다가 살도 많이 빠졌다. 깡마른 얼굴에 광대뼈가 푹 볼거져 썰물에 바위가 드러난 거뭇거무하였다. ……

吳仲義의臉象牆皮一樣灰白，鏡片後邊的目光躲躲閃閃，只要別人一瞧他，他立刻垂下眼皮，躲開別人的視線。他顯得沒有興致，帶着一種愁容和病容。有時眼盯着窗外或牆角什麼地方，能一連怔上半個小時。這時他臉上會一陣陣泛出一種恐怕與愁慘的神情。當時人招呼他一聲，或有什麼突然的響動，他就象麻雀聽到什麼聲音那樣渾身微微地驚栗般地一顫。動作失常，時時出錯，那是一個心不在焉時的表現。……他面皮發污，眼角帶着干結了的眼屎，脖子黑黑的，大約有四、五天沒好好洗臉了。也有幾天梳子不曾光臨到他的頭上，亂蓬蓬好似一窩秋草。而且居然瘦了許多。顴骨在塌陷的臉頰上象退潮後的礁石那樣突出來，眼圈隱隱發黑……²¹⁴⁾

傷痕文學의 초기 작품 대부분은 이른바 林彪와 ‘四人幫’이 文化大革命 때 사람들을 참혹하게 박해를 가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文革 기간 혹은 그 이전에 창작을 했던 작가들은 사건사고를 수학 공식처럼 나열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특징인데, 傷痕文學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작가 자신의 사고·사상이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작가들이 傷痕이 발생한 원인, 해를 끼친 정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들의 판단 등을 서술했다. 비록 인식하고 분석한 상황을 보면 전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즉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교훈을 통해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였다.²¹⁵⁾

독자들은 傷痕文學을 통해 비극에 대한 의식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文革 시기의 문학은 ‘현실을 노래(歌頌現實)’하는 분위기만 전달할 수 있어

214) 劉錫慶 主編 앞의 책, pp. 242~243.

215) 何西來, 「蚌病成珠—論“傷痕文學”」, 『新時期文學思潮論』, 江蘇文藝出版社(南京), 1985년 12월, pp. 97~98.

서 悲劇意識은 당시의 문학계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文革이 끝나고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분노와 원망의 토로였다. 그래서 中國 當代文學에 있어 처음으로 비극 형식으로 文學思潮를 표현하는 傷痕文學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傷痕文學은 傷痕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실질적인 묘사를 통해 비극적인 색채가 더욱 농후해 지고 더욱 진실성을 띠게 되었다. ‘傷痕文學’은 두 가지의 미학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이 신성한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비극의식이 다시 문학 작품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張抗抗의 아래와 같은 평가는 傷痕文學에 대한 가장 좋은 總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싹이 터야 할 때는 가뭄을 맞고, 꽃이 피어야 할 때는 폭우를 만났다. 선량하고 순진한 감정은 迫害를 당했고, 인간 세상의 비열하고 추악한 것들이 모두 노골적으로 눈앞에서 드러났다.

該發芽的時候是乾旱；該揚花的時候又遇暴雨。善良、純真的感情被摧殘，而人世間幾乎一切卑鄙醜惡却都赤裸裸展示在眼前。(216)

거의 모든 知青 傷痕小說의 主題와 內容은 상처와 아픔을 다루고 있다. 左派 路線[左傾路線]이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남긴 상처를 폭로하고 덧없이 흘러간 자신의 청춘을 애도한다. 소설에서 그려 낸 인물들은 대부분 치욕과 상처를 받은 이들로, 비참하고 순탄치 않은 운명과 마주한다. 피와 눈물의 세월이 이들에게 가져온 상처는 영원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로 했다. 소설은 전반적으로 암울과 비탄의 정서로 점철되어 있다. 그

216) 張抗抗, 『北極光』, 『收獲』(上海), 1981년, 제3기, p. 10.

가운데 흐르는 것은 비극적인 분위기가 자명할 수밖에 없다.

傷痕을 제재로 한 소설은 1980년대 초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 말 老鬼[본명 馬波, 중국 저명 작가 楊沫의 아들]의 『血色黃昏』²¹⁷⁾의 출판으로 인해 傷痕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이 더욱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되었을 뿐 내용상으로 보면 傷痕 주제와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 이후에 傷痕文學 작품이 다시 출현한 적이 없어서 결국 傷痕文學은 마침표를 찍게 되고 만다.

三. 表現 特徵

1. 理想主義와 英雄主義의 결합

知青文學 중의 ‘傷痕’ 작품은 문학이 현실주의 창작 전통으로 회복이 된 결과라 하겠다. 그것은 文革 시기 현실에 대한 칭송과 虛僞的인 찬양으로 점철된 내용을 탈피하고 현실에 대한 사실 묘사와 폭로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된 知青小說의 초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 미래의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傷痕의 기억을 잊거나 치유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세월이라는 흐름 앞에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판단을 해야 하고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知青小說은 다른 제재의 소설과 같이 11期 3中全會 이후에는 점차 ‘傷痕’에서 벗어난 反思와 냉정적 사고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순수한 상흔·상처를 묘사하는 내용보다 理想主義와 英雄主義를 주장하는 知青 작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만약 傷痕文學의 작품들이 강하게 文革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上山下鄉 運動을 단호하게 반대했다면, 傷痕小說 이후에 나타난 英雄主義 知青小說은 文革의 이데올로기 전체를 부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英雄主義와 理想主義

217) 老鬼, 『血色黃昏』, 中國工人出版社(北京), 1987년.

는 文革의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文革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동시에 知青의 영웅주의와 이상주의 정신을 찬양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梁曉聲, 王安憶, 孔捷生, 張承志, 史鐵生 등이 있는데 梁曉聲은 숭고한 理想과 후회 없는 청년의 삶을 서술한 ‘知青小說’을 창작하여 중국 當代 文學界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의 知青小說은 知青 운동에 대한 사실적인 서술과 더불어 당시 知識青年들이 理想에 대한 굳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這是一片神奇的土地』²¹⁸⁾, 『今夜有暴風雪』²¹⁹⁾와 같은 중·단편 소설, 그리고 『雪城』²²⁰⁾과 『年輪』²²¹⁾등 長篇小說은 梁曉聲의 知青小說의 創作 완성도와 特色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這是一片神奇的土地』, 『今夜有暴風雪』와 『雪城』은 ‘知青三部曲’이라 불리고 있다.

新時期 知青 작가들의 창작 출발점은 자신들의 경험과 감정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작가들은 처음 자기가 생활을 했던 시골 생활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上山下鄉 운동의 知識青年들이다. 그 중 王安憶은 69회 졸업생인데 1969년에 安徽 농촌에서 생활했으며, 梁曉聲은 1968년에 黑龍江生產建設兵團에서 知青 생활을 했다. 張抗抗은 1969년에 黑龍江 농촌에서 농촌 생활을 했으며, 陸星兒는 1968년에 黑龍江生產建設兵團에 가입했다. 鐵凝은 1975년에 河北省 농촌으로 갔으며, 史鐵生은 1969년에 陝西省의 농촌에서 3년 동안 知青 생활을 했는데 2년 동안 사육사로 소를 키웠다. 孔捷生은 1968년에 海南島에서 고무나무농장에서 노동을 했다. 이러한 知青 작가들은 자신의 인생 황금기를 도시와 동떨어진 산간 마을이나 가난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육체노동을 경험했다. 지방 생활을 몇 년, 또는 십년을 넘게 하였고, 이런 농촌생활 경험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218) 梁曉聲, 『這是一片神奇的土地』, 『北方文學』(哈爾濱), 1982년, 제 8기.

219) 梁曉聲, 『今夜有暴風雪』, 『青春』增刊號(北京), 1983년, 제 1기.

220) 梁曉聲, 『雪城』, 『十月』, 1986년, 상반부는 제2, 3, 4기에 연재, 하반부는 1988년, 『十月』, 제 1·2·3기에 연재됨.

221) 梁曉聲, 『年輪』, 貴州人民出版社(貴州), 1996년 11월.

新時期에 발표한 知青 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작품은 작가 본인이 생활했던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작품 배경은 그들이 知青 생활을 했던 지역이다. 예를 들면 梁曉聲의 『這是一片神奇的土地』와 陸星兒의 『達紫香悄悄地開了』²²²⁾ 등은 北大荒²²³⁾의 知青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다. 梁曉聲을 ‘北大荒文學’²²⁴⁾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평가한다. 작품 속 주인공은 작가 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王安憶의 『廣闊天地的一角』²²⁵⁾은 소녀 雯雯을 통하여 자신의 知青 생활을 묘사했다. 史鐵生의 『我的遙遠的清平灣』에서는 본인이 농촌에서 밭을 갈며 소를 키운 일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기의 많은 작품은 바로 자신의 知青 생활을 서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경험한 생활과 배경을 서술했기 때문에 新時期의 소설 주인공이 바로 知青 본인이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비교적 완벽하게 知識青年이 도시에서 농촌, 그리고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온 역사의 발자취와 정신여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시기 知青小説은 이전의 上山下鄉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작품이 知識青年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과 비통한 격조를 표현한 것과는 달리 농촌생활을 하는 知識青年들이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고 勞動價値를 긍정하며 젊은이들이 가난한 환경과 무시무시한 대자연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투쟁하려는 의지를 찬양하고 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하여

222) 陸星兒, 『達紫香悄悄地開了』, 福建人民出版社(福州), 1984년.

223) ‘北大荒’은 黑龍江省 북부의 三江平原과 黑龍江 및 嫩江 지역의 광활한 황무지를 일컫는 말이다.

이지역의 토지는 비옥하고 일부는 습지이다. 겨울이면 최저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열악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1958년부터 지식청년과 군인들이 투입되어 黑龍江生產建設兵團과 국유농장을 만들어서 대규모 개간 사업을 벌이면서 곡창지대로 변모하였다. 과도의 개간 때문에 습지의 면적은 80% 감소되었고, 大量的 稀有動物은 棲息地가 잃어버렸다. 지금 이미 경작지를 삼림으로 환원했다.

224) 특히 新時期 이후에 北大荒 지청 생활을 묘사하는 작품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은 지청문학의 문파이다. 50년대 말기 10만 명의 전역한 군관과 병상들, 그리고 60년대 많은 도시의 지식청년들이 北大荒 지역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업생산에 종사했다. 이것으로 北大荒 생활과 정신을 묘사하는 문학작품이 탄생이 되어서 北大荒文學이라고도 한다.

225) 王安憶, 『廣闊天地的一角』, 『收穫』(上海), 1980년, 제4기.

고생하는 헌신적인 영웅주의 정신을 칭송하여 知靑小說에 남성적인 강인한 기운을 주입하였고, 雄壯하고 힘차며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였다. 知靑들의 생활에 고난과 역경이 많아 대부분 知靑 작가들은 이상주의적 理想을 가지고 知靑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知靑의 미래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묘사한 내용은 하나하나가 비극적인 이야기였지만 결국 아름다운 대단원의 결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梁曉聲의 小說을 新時期 知靑 생활을 묘사한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 知識靑年들이 ‘文革’ 중에 겪은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담금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梁曉聲을 대표로 하는 理想主義와 英雄主義를 구가하는 소설들은 표면에 드러난 호방함이 글 속의 비극적 분위기를 덮어버리지는 못한다. 소설 속의 理想主義와 英雄主義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생명을 희생한 대가로 한 것이지만, 소설에서는 희생자들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생활 앞에서 쓰러린 교훈을 얻었지만 그들은 가혹한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처절한 운명에 대해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없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나간다. 北大荒의 생활이나 도시로 돌아온 후의 생활에 관계없이 그들은 한 걸 같이 마음 속 이상을 꿈꾸며 살아간다. 그리고 “순탄하지 못한 인생길에 큰 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은 비장하고 낭만적이다!”라는 이상주의적 포부를 작품 속에서 표출하고 있다. 北大荒의 넓은 땅에서 봉사와 희생을 하고, 그리고 도시로 돌아와 냉혹한 현실 앞에서 실의에 빠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긍정적인 사고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인생이 순탄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北大荒의 兵團戰士들이 이상주의적 理想을 품고 험준한 자연과 냉혹한 현실 앞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웅주의적 경향은 바로 梁曉聲의 前期 知靑小說의 핵심 주제이다. 梁曉聲은 그가 생활했던 北大荒을 창작 소

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 대부분은 知識青年 생활과 知識青年이 도시로 돌아온 후에 자신들의 삶과 만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梁曉聲은 『這是一片神奇的土地』에서 주로 생활에 대한 서술과 생명에 대한 탐색을 했다. 작품 속에 묘사된 생활은 苦痛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고통은 정치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²⁶⁾ 그는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시대(知青生活)는 불타오르는 듯이 걱정이 총만한 시대였다. 다시 회상해 보면 그렇게 황당하고 책임감이 없는 시대이기도 했다. 그 시대는 많은 청년들이 활기에 넘쳐 가슴에 큰 뜻을 품고 도시에서 北大荒에 와서 조국을 위하여 큰일을 해 보려고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힘든 운명과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들은 억압은 받았지만 아름다운 人性和 온정은 그들의 몸에서 종종 눈부신 빛을 발했다. “우리는 北大荒의 ‘大煙泡[강한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날씨]’를 경험했고, 이 신기한 땅을 개간하면서 비할 데 없는 고난과 환희를 경험했노라! 이제부터 떠나도 좋고, 남아도 좋다. 고난이나 고통도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라! ……아, 北大荒!”

那是一段火紅的充滿激情的年代。回首時却又是那麼荒唐和不負責任；那是一群充滿朝氣滿是干劲的青年，懷揣衝天壯氣從城市來到北大荒，想為祖國干出一番大事業，然而等待他們的却是多艱的命運和無奈的現實。他們雖然受着壓抑，有些人甚至淡於人情，但美好人性和溫情在他們身上不時地閃着光輝。“我們經歷了北大荒的‘大煙泡’，經歷了開墾這塊神奇的土地的無比艱辛和喜悅，從此，離開也罷，留下也罷，無論任何艱難困苦，都決不會在我們心上引起畏懼，都休想叫我們屈服……呵，北大荒！”²²⁷⁾

梁曉聲은 작품에서 황무지를 개발하려고 北大荒에 간 4명의 남녀 知青인 李曉燕(副指導員), 王志剛(摩爾人), ‘我’(저자 본인) 그리고 梁珊珊(저자의 여동생)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풍부한 감정, 아름답고 슬픈 사랑, 그리고 사랑 때문에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작가

226) 張法, 『傷痕文學, 興期, 演進, 解構及其意義』, 『江漢論壇』(武漢), 1998년, 제 9기, p. 62.

227) 梁曉聲, 『這是一片神奇的土地』, 賀紹俊·楊瑞平編, 『知青小說選』, 四川文藝出版社(成都), 1986년 3월, 제 1권, p. 386.

는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 네 사람 중 세 명은 자기들의 맹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젊음을 바쳤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는 이들이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뼈를 묻을 곳이 비단 고향 땅 뿐이겠는가? 황량한 들판에는 어디든지 내 집이 될 수 있으리라.’²²⁸⁾는 신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작품 속에서 다루고 있다.

梁曉聲은 1982년 『這是一片神奇的土地』를 발표한 후 1983년도에 『今夜有暴風雪』을 『青春』의 중간호에 발표했다. 이 작품은 기세가 웅장하고 비장할 뿐만 아니라 영웅주의와 낭만주의 색채로 가득 차 있어 ‘知青小說’의 이정표라 평가 받고 있다. 그는 ‘大返城’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면서 작품 속에서 暴風 雪夜의 曹鐵強, 劉邁克, 裴曉雲, 小瓦匠, 匡富春 등 知青들 중의 걸출한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知識青年들이 北大荒에서 지냈던 인생 역정을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서술하고 있으며, 작품 속 배경인 北大荒이 知識青年들에게 남겨 준 것은 고통과 失意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자연과 사회 환경의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굳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梁曉聲은 知識青年들이 경험했던 생활을 통해 숭고, 영감, 그리고 후회 없는 희생의 주제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²²⁹⁾ 그렇지만 작가는 知識青年들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은 학대와 유린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小瓦匠은 낮으로 기계를 대신하는 징벌 육체노동에 불만을 가져 낮으로 미친 듯이 자기 손을 자해한 부분이나 裴曉雲이 부모의 죄명 때문에 兵團의 전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작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어난 知識青年의 영웅주의 정신을 찬양했다. 劉邁克는 團長 馬崇漢이 배가고파도 원조를 받지 않는 만용을 부린 것에 대하여 兵團 본부를 고발한 장면이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에 曹

228) 앞의 책, ‘埋骨何須故土, 荒原處處爲家.’ p. 386.

229) 劉鳳霞, 「試談小說『今夜有暴風雪』的主題」, 『中國現當代文學研究』(北京), 2008년, 제5기, p. 58.

鐵強이 불타는 知識青年들의 인사 자료를 구하기 위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梁曉聲은 北大荒의 특유한 눈보라 장면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그 시기 사회적 환경을 묘사했다. 작품 속에서 자연 현상인 눈보라에 대한 신비감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눈보라가 비록 자연의 재난을 초래하지만 사람들이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 나타나는 마음 속 열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으로 인해 知識青年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게 되었고, 소설 속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의 예술적 통일이 시대적 비극적 환경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 환경 속에서 知識青年은 투쟁과 희생, 그리고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대부분의 知識青年들은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39명의 知青은 단호하게 北大荒에 남겠다고 결심했다. 작가는 이들의 후회 없는 청춘(青春無悔)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당신은 나중에 이런 생활을 회상할 때, 다른 사람과 우리 兵團 戰士가 북대황의 10년 역사를 말할 때,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自嘲하거나 비웃지 말고, 더욱 우리가 바쳤던 것과 잃어버린 수많은 것에 대해 절대로…… 헐뜯지 마라! 우리가 얻은 것은 역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고, 잃어버린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希望你，今後在回想起，在同任何人談起我們兵團戰士在北大荒的十年歷史時，不要抱怨，不要詛咒，不要自嘲和嘲笑，更不要……詆毀……我們付出和喪失了許多許多，可我們得到的，還是要比失去的多，比失去的有份量。²³⁰⁾

소설 속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 친 후 知識青年들이 北大荒을 떠나 도시로 돌아갈 때 兵團의 정치위원인 孫國泰가 감정이 격해져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앞으로 중국의 각 대도시에서 사회가 너희들과 같은 한 세대 중의 가장 우수한 청년을 논평할 때 ‘그들은 북대황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이런 한마디를 할 것이라

230) 梁曉聲, 『今夜有暴風雪』, 經濟日報出版社(北京), 1997년 4월, 제 1판, p. 424.

고 믿습니다.

‘我相信，今後在全國各大城市，當社會評論到你們這一代人中最優秀的青年時，會說到這樣一句話，‘他們曾在北大荒生活過！’²³¹⁾

梁曉聲 마음속 知識青年은 비록 농촌에서 도시로 돌아와서도 도시에서 계속 생활했던 일반 시민과는 정서상의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회에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권력에 대해 숭배하는 경향도 있다. 소설 속에는 ‘文革’ 시기의 많은 정치적인 구호가 들어 있어서 梁曉聲 자신과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가 『雪城』에서 강대하고 단결이 잘 된 知青 단체와 영원히 쇠퇴하지 않는 집단주의 정신을 허구화시킨 것은 실제로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집단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작가는 소설 속에서 “도시야 도시!!…… 우리들은 반드시 너를 정복하고 말거야!”라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해 知青 단체의 마음속 요구를 만족시켰고, 허위로 가득 찬 지식청년 집단이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²³²⁾ 梁曉聲은 知青들이 대단히 열정적이고, 진지하고, 희생정신과 진취감, 그리고 책임감으로 뚝뚝 뭉쳐진 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의 『這是一片神奇的土地』, 『白樺林作證』, 『今夜有暴風雪』에서는 한 세대를 풍미한 知青들과 文化大革命 운동 중의 知青들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다. 그의 知青小說 대부분은 넓고 처량한 北大荒을 줄거리의 서술 배경으로 삼아 비장한 영웅주의 氣概를 찬미하고 있다.²³³⁾ 梁曉聲은 영웅주의와 이상주의 표상 뒤에 숨겨진 정복과 귀순, 영웅과 연약을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게 했지만 그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후회 없는 청년과 英雄主義 정신을 찬양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 대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오직 梁曉聲 만이 文革時代의 理想主義와 英雄主義를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31) 앞의 책, p. 425.

232) 楊健, 『中國知青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2년 1월, p. 371.

233) 丁凡 等, 『中國鄉土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7년 1월, 제 1권, p. 256.

梁曉聲은 上山下鄉의 천 만 명이 넘는 知青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진실되며 희생정신과 개척정신, 그리고 책임감을 지닌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梁曉聲은 『這是一片神奇的土地』와 『今夜有暴風雪』에서는 文化大革命 시기 황당무계한 運動도 많았지만 그래도 칭송할 만한 知青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梁曉聲의 작품 중에 묘사된 知青들은 다른 知青 작가들과 달리 英雄主義와 理想主義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知青들은 당시 역사 조류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정신적인 이상과 동경을 철저히 지키는 품행을 칭찬하고 있다. 당연히 작품 속에는 보잘 것 없이 쓰러진 知識靑年도 있지만 성숙한 英雄主義와 진취정신을 가진 知識靑年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知青은 北大荒의 눈보라 속에서 英雄主義의 樂章을 연주한 것은 梁曉聲의 知青小說의 主旋律²³⁴⁾이 되었다. 그의 소설은 후회 없는 청춘을 잘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梁曉聲은 知青文學 중 대표적 理想主義 작가라고 하지만, 張承志 역시 知青文學의 理想主義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曠新年은 「張承志, 魯迅之後的一位作家」²³⁵⁾중에서 張承志는 魯迅 이후 가장 위대한 理想主義 작가라고 평하고 있다. 그는 짙은 호소력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와 사상을 갖추고 있어 當代 문학계에서 독창적인 매력을 지닌 作家임에는 틀림없다. 그의 知青小說은 人生의 理想과 精神을 追求하는 동태적인 운반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張承志의 소설 중 『北方的河』를 선택해서 그의 작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張承志는 『北方的河』에서 知識靑年의 정신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地理學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을 응시하는 과정에서 그는 황하, 滄水, 어얼치쓰강, 永定河, 그리고 黑龍江을 고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연과 역사문화에 자극과 충격을 받고 사회와 인생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계기를 통해 작가의 숭고한 理想이 작품

234) 孫旋, 「作家梁曉聲研究」, 『雲南社會科學』(昆明), 2005년, 제3기, p. 129.

235) 曠新年, 「張承志, 魯迅之後的一位作家」, 『讀書』, 讀書雜誌社(北京), 2006년, 제11기.

속에 잘 드러나게 된다. 주인공은 이상과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고 하나의 강에서 또 다른 강을 고찰하고, 하나의 목적지에서 또 다른 목적지로 달려간다. 그는 영원히 멈추지 않은 精神 여행 중 지리적인 범주를 훨씬 초월하게 되는데, 이는 자아의 정신 초월이라고 말할 수 있다. 『北方的河』는 강렬한 인문정신과 잠재된 재능 식견이 높은 哲理가 잘 갖춰져 있는 작품이다.

그는 『北方的河』의 後記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내가 시종일관 좋아하는 형상은 미늘창을 가지고 있는 전사이며, 자유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표현과 보답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아름다움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하여, 나조차도 모르는 광휘로운 성과를 찾기 위하여 내가 글을 쓰는 것은 혈관을 절개한 것 같다.

我喜愛的形象始終是一個荷戟的戰士，爲了尋求自由和真理，尋求表現和報答，尋求能够支撐自己的美好，尋求連我自己也弄不清是什麼的一個輝煌的終業，我提起筆來，如同切開了血管²³⁶。

張承志의 『北方的河』는 理想主義를 담고 있는 인생철학의 詩와 같은 작품이다. 작가는 미래의 꿈을 동경하고 있다. 그러한 동경 아래 소설은 현실주의 基調위에 이상주의적인 분위기로 가득 채우고 있다. 張承志는 주인공이 이전에 살던 곳을 다시 찾아가 돌아보는 장면 설정을 통해 실제 知青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몸소 겪었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싶어 했다. 그가 황하를 유람한 것은 ‘文革’ 때의 유람과 일치시켜 중점적으로 역사 존재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런 진실성은 역사의 본질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작품 중에서 張承志가 歷史의 일부분을 선택한 것은 그 역사를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상생활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순수한 정복과 비정복의 관계를 표현한 것²³⁷이다.

236) 張承志, 『北方的河·後記』, 十月出版社(北京), 1987年, p. 364.

237) 李盛濤, 「尋根的矯情與困惑—張承志和『北方的河』」, 『魯行經院學報』(濟南), 2002年, 제5기, p. 115.

그의 심장이 급하게 뛰었다. 강 언덕이 이미 눈앞에 놓여 있지 않은가. 그의 후두가 뻗뻗해지며 호흡이 거칠어졌다. 아, 황하 아버지는 또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남은 200미터는 문제없이 헤엄쳐 건널 수 있겠구나. ……그는 강가에서 십 몇 미터 가량 떨어진 격랑 중에 떠 있었다. 눈앞에서 이끼가 가득 낀 암벽이 나는 듯이 움직였다. 물결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다. 언뜻 보니 강바닥에 솟아있는 커다란 돌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왔다. 몸을 움츠리고 두 발로 세차게 밀쳤다. 커다란 돌은 물속에서 보일 듯 말듯 스치고 지나갔다. 유속이 너무 빨랐다. 자신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갈 것이라 생각하니 놀라 허둥졌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팔을 저었다. 다리에 힘을 더했다. 자유형으로 산 서쪽 석벽을 향해 돌진했다. 석벽의 이끼가 곧 손에 잡힐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강물이 그를 감싸고 계속 아래로 휘감아 흘렀다. 석벽의 틈새 무늬가 번쩍이며 눈을 못 뜨게 하였다. 두 팔이 갑자기 흐느적거렸다. 어깨도 점차 무거워져 시큰시큰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강물은 그를 암벽과 바싹 붙어 휩쓸고 하류로 밀어갔다. 흉악한 모양의 큰 돌이 자기에게 돌진하는 게 보였다. 목구멍에서 낮은 노호가 터졌다. 그는 그 암초를 무시했다. 자신이 이미 이겼음을 알았다. 온 힘을 다해 강가로 헤엄쳤다. 벼랑의 모서리가 눈앞에 핵 스쳐 지나갈 때 손으로 움켜잡았다. 그의 몸은 곧바로 강의 급류에 휩쓸려 세로로 기울어졌다. 그의 몸이 뒤쳐졌다. 오른쪽 어깨는 강한 힘에 휩쓸렸다. 끈질기게 오른 손으로 모서리를 꼭 잡았다. 급류가 그의 양 어깨와 양 발 위로 세차게 흐르며 포말을 쏟아 붓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매우 만족하며 눈을 감았다. 모래가 많은 따뜻한 물이 그의 몸을 애무하며 자신의 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다. 누런 파도가 격렬하게 그를 밀어붙이며 사방에서 세계 부딪쳐 그의 몸 주위에 기세 높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황하 아버지에게 감격했다고 얘기하고 싶었다. 곧이어 그는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양 다리를 모으고 있는 힘 다해 단단한 하안의 돌을 확실하게 밟았다.

他的心激動地跳了起來,河岸已經近在眼前啦。他的喉頭哽住了,呼吸有些急促。哦,黃河父親又一次護衛了我,剩下的這二百米我可以穩穩游過去。……他在激浪中游到了離河岸十幾米的水面。眼前粘滿青苔的岩壁飛快地移動着。這水流得太快啦,他想。就在這時他瞥見一塊從河底伸出的巨石正朝他衝來。他蜷起身子,雙腳拼命地蹬了那石頭一下,巨石在水里半隱半現地一掠而過。流得太快了,這水把我衝下去啦,他有些驚慌。他奮力揚起臂膀,鼓足力氣,用爬泳對準山西的石壁衝刺,他覺得石崖上的綠苔已經伸手可觸了。可是河水抓着他仍然向下飛流。閃過的石壁上的紋理裂縫晃得他睜不開眼睛。兩條手臂突然癱軟了,他感到肩頭上沈重如鉛,酸疼難忍。河水擁着他貼着石岸

滑下，他看見又一塊猙獰的巨石朝他駛來了。他低啞地從喉頭里吼了一聲。他蔑視這塊礁石，他知道自己已經勝利。他用盡全身力氣扑向河岸。當他看見陡崖上的一個棱角閃過眼前時，他一把攫住了它。他的身體立即被河水衝得橫了過去。他的身軀翻轉了，右臂被一股強力重重地拉了一下。他死死抓緊了右手 攀住的那個石棱，感到急流正在他的兩個肩頭和兩隻腳掌那兒嘩嘩地激起濁白的浪花。

他心滿意足地閉上了眼睛。溫暖多沙的水流撫着他的肉體滑過，朝着他的身體指着的方向繼續向前。渾黃的浪頭激烈地推撞着他，在他四周響成轟轟的一片。黃河父親，他想到，我感激你。接着他逆着水流收起雙腿，然後牢牢地踏住了堅實的石岸。(238)

황하는 소설에서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대상으로, 작가는 중국 북부지역의 제일 큰 강이고 북방의 가장 위대한 강이며, 중화 민족의 요람인 황하를 자신의 아버지와 같다고 말하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생동적이고 충실하며, 작가가 추상적으로 창조한 인물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平凡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치는 영웅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소설의 속표지[扉頁] 부분에 아래와 같이 서술했다.

공정하고 깊은 인식으로 우리들에게 최종평가를 해줄 거라고 굳게 믿는다. 그때는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분투, 사색, 낙인과 선택이 그 意義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들 스스로 유치, 실수, 그리고 한계에 대해 후회할 것이며, 더구나 자기들이 새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탄식을 할 것이다. 이것은 바탕자체가 극히 비관적인 것이 돼 버렸다. 국토 면적이 광활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미래는 결국은 밝아 질 것이다. 이 母胎 중에서 하나의 혈통, 하나의 水土, 하나의 창조력이 활발하고 건장한 유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며, 병색이 있고 연약한 신음은 결국은 그들의 환호성과 초함 속에 파묻혀 버릴 것이다.

我相信，會有一個公正而深刻的認識來爲我們總結的，那時，我們這一代獨有的奮鬥、思索、烙印和選擇才會顯露其意義。但那時我們也將爲自己曾有的幼稚、錯誤和局限而後悔，更會感慨自己無法重新生活。這是一種深刻的悲觀的基礎。對一個幅員遼闊又歷史悠久的國度來說，前途最終是光明的。因爲這個母體里會有一種血統，一種水

238) 張承志, 『北方的河』, 『張承志集』, 海峽文藝出版社(福州), 1986년, pp. 87~88.

土，一種創造的力量使活潑健壯的嬰兒降生於世，病態軟弱的呻吟將在他們的歡聲叫喊中被淹沒。239)

張承志의 영웅주의와 이상주의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다만 그 웅장한 대자연의 배경, 그리고 역사문화와 민족 영혼이 스며든 북방의 네 개의 큰 강물은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고 갈망하는 자아의 형상과 서로 잘 어울린다.²⁴⁰⁾ 張承志는 小說 속에서 조국과 민족 운명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상주의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 위대한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理想主義라고 말할 수 있다. ‘北方的河’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민족 역사문화의 상징임과 동시에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의 상징이기도 말할 수 있다.

孔捷生の 『南方的岸』²⁴¹⁾과 王安憶의 『本次列車終點』²⁴²⁾은 知識青年이 도시에 돌아온 후의 생활에 대해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젊음과 청춘, 그리고 이상을 바친 농촌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소설 속 ‘終點’과 ‘岸(기슭)’은 부랑 생활을 고별하고 귀착점을 찾는 희망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있다.²⁴³⁾

1982년 孔捷生이 『南方的岸』을 발표하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작품 속에서 知識青年이 도시로 돌아온 후 느끼게 되는 실의와 좌절감을 적극적인 理想主義 시선으로 담아 놓았다. 소설 『南方的岸』의 주인공 易杰은 지난 세월에 대한 懷疑와 방황 속에서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청춘을 바친 시골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239) 張承志 앞의 책, p.3.

240) 陳曉明, 『中國當代文學主潮』,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9년 4월 1일 초판, p. 304.

241) 孔捷生, 『南方的岸』, 『十月』(北京), 1982년, 제 2기.

242) 王安憶, 『本次列車終點』, 『上海文學』(上海), 1981년, 제 10기.

243) 丁凡 等著, 『中國鄉土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7년 1월 1일 초판, p. 256.

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위치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다시 시골로 돌아갔을 때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풍경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마치 13년 전의 그 순간인 것 같다. 그렇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 카페리에 탑승했을 때 사라진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 운명의 신은 셀 수 없이 눈부신 낮과 캄캄한 밤을 되돌려 주었고, 해마다 뜨겁게 흠뻑렸던 한 방울 한 방울의 피(血)와 땀(汗)을 다시 내 혈관과 모낭으로 주입시키는 것 같다. 사람의 한평생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삶과 죽음은 모두 이 겨울에 깊은 꿈속에서 다시 부활된 것 같다. 이것은 역사와 같이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마음껏 고향쳐서 새로운 시대 主調의 和聲이 되었다. 이 짧은 순간에 과거와 미래는 우르르 올리는 뱃사슬의 소리와 같이 연결이 되었다.

景物依然，恍如十三年前的同一時刻。是的，一切都未曾了結。當我登上這艘海輪，已逝的青春立時回來了。命運之神把無數耀眼的白晝和深沈的黑夜還給了我，把年復一年揮灑的每滴血每滴汗重新注進我的血管與毛孔。整整一輩人的動靜疾徐、生死歌哭全都在冬日沈酣的夢中復活，跟歷史一道斗轉星移，盡情吶喊着，成為新時序主調的和聲。這一瞬間之間，過去、未來都被那嘩啦絞起的錨鏈連接到一起了。²⁴⁴⁾

지난 1980년대 중국에서 그는 가장 사상성이 강하고 재주가 넘치는 능력 있는 作家이며, 그리고 시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그의 작품은 거의 다 海南島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海南島의 知青 생활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중국 문단에 孔捷生이 없을 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海南島에 대한 강한 귀속감을 느끼고 도시 생활에 대한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海南島로 돌아가려고 했다. 易杰과 暮珍이 다시 海南島에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의 상징성을 갖는다. 청춘에 대한 회귀이고 꿈속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집단적인 심리의 충동을 대표할 수 있지만 동시에 知青이 현실 생활 중에서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정감은 진지하고 강렬하지만 知青小說 독자들은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이다.²⁴⁵⁾

244) 孔捷生, 『南方的岸』, 賀紹俊·楊瑞平 編, 『知青小說選』, 四川文藝出版社(成都), 1986년 3월, 第1版, p. 176.

梁曉聲의 理想主義와 英雄主義의 작품인 『白樺林作證』은 진실 되게 知青들이 강렬한 신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변경을 지키는 비장한 인생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知青들은 자신의 이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운명에 대항하며, 자신의 마음 속 깊이 감춰진 人性의 숭고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 속 자작나무숲(白樺林)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숭고한 이상을 대변하고 있다. 작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신적인 동경의 매개체이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즉 냉혹한 현실에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대상의 표현인 셈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知識靑年들이 잇따라 도시로 돌아가는 사회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농촌을 지키고자 했다. 어쩔 수 없이 도시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 속 靑靑의 典型的 인물인 鄒心萍은 황량한 벌판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야가 증언하고, 公比拉河가 증언하고, 자작나무숲이 증언하리라. 오늘 내가 부득이 떠나지만 20년 후에 내가 우리 아들을 여기로 보내리라! 내가 여기서 자작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내 아들이 노동이 끝나고 여유가 생길 때 그 나무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쐬도록 하리라!

荒原作證, 公比拉河作證, 白樺林作證, 今天, 我雖然走了, 不得不走了, 但二十年後, 我將把我的兒子送來! 我曾在這裡栽過一棵扎根樹, 我的兒子勞動之餘, 將在那棵樹下乘涼! (246)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도 있다. 康長福은 아들을 통해 양심의 빛을 갚으려 했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고 했으며, 자신이 체험한 인생의 비극을 전통적 인격의 완성으로 덮어 숨기려 했다고 비판했다.²⁴⁷⁾ 梁曉聲의 소설에 대해 서술의 技巧를 운용하여 사건의 폐쇄성·진실성·연극성에 중점을 두고 역사적인 필연성과 가

245) 楊健, 앞의 책, p. 339.

246) 梁曉聲, 『白樺林作證』, 陝西旅游出版社(西安), 1997년 4월, 제 1판, p. 266.

247) 康長福, 『論靑靑文學的英雄主義精神』, 『齊魯學刊』(曲阜), 2000년, 제6기, p. 122.

상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서술 수법으로 만들어진 소위 필연성은 결국은 하나의 허구적, 상징적인 意義性 구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²⁴⁸⁾

新時期에 접어들면서 문학의 창작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이때 英雄主義와 理想主義의 창작 공간이 넓어졌고, 이러한 주제들도 知青小說의 主流가 되었다. 작품은 眞實되게 知青의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고 진지하고 소박한 매력을 보여 주었다.²⁴⁹⁾ 이 시기의 知青文學은 ‘鄉戀文學’이라고도 한다. ‘鄉戀文學’의 탄생은 知青文化의 주체의식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1984년 이후에 知青 作家群이 거의 형성되었고, 그들 앞에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²⁵⁰⁾ 文革이 끝난 후에 여러 가지 규제도 없어졌고, 특히 知青 작가 본인들은 上山下鄉 運動 중에 받은 커다란 고통을 眞實되게 기록했다. 시간이 흘러 육체적 ‘傷痕’은 점차 치유가 되어 갔지만, 정신적 상처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않았다. 그래서 작가들은 ‘傷痕’ 이후에 분분히 ‘反思(反省)’의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新時期 知識青年 작가 중에서 理想主義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史鐵生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72년부터 두 다리가 마비되어 2010년 12월 31일에 작고할 때까지 휠체어에서 인생을 보냈지만 뛰어난 작품을 많이 창작했다. 그의 理想主義를 대표하는 소설인 『我的遙遠的清平灣』은 하나의 아름답고 면면히 이어지는 詩歌와도 같다. 영감, 소떼, 민요, 그리고 아득히 넓어서 끝이 없는 黃土地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찬탄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다.

작품 중의 ‘我’는 清平灣에 한 사람의 외부인이다. 그 척박한 땅, 소박한 사람들, 운율이 아름다운 민요 등은 주인공의 눈에 마치 하나의 신화전설을 보고 듣는 것과 같다.

史鐵生은 이 소설을 쓴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0년 동안에 없어지지 않은 기억을 써내면 독자들도 어느 정도는 잊지 않을 것

248) 楊健, 앞의 책, p. 335.

249) 康長福, 「論知青文學的英雄主義精神」, 『齊魯學刊』(濟南), 2000년, 제6기, p. 119.

250) 楊健, 앞의 책, p. 320.

이라 생각했다. 10년 동안에 없어지지 않은 추억은 그 중에 독자와 함께 음미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며, 깊이 생각할만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다. 생각나는 대로 썼다. 마치 황토고원이 보이고, ‘淸平灣’의 마을 주민들이 보이고, 내가 키운 늙은 흑우와 붉은 소…… 다만 이런 식으로 쓰면 소설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我才想到，十年磨滅不了的記憶，如果寫下來，讀者或許也不會很快淡忘。十年磨滅不了的記憶，我想其中總會有些值得和讀者一塊來品味，來深思的東西。於是我開始寫，隨想隨寫，隨寫隨思，倣又見到了黃土高原，又見到了‘淸平灣’的鄉親，見到了我的老黑牛和紅犍生……只是不知道最終寫出來能不能算小說。²⁵¹⁾

작가는 1983년에 다시 가난하지만 포근하고 그림과 같은 시골 마을로 돌아간다. 그의 기억 속 멀리 있는 마을이 도시 외의 정신적 고향으로 변해 있었고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詩歌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도시화의 물질적인 욕구와 대립적인 향토의 몽상이다.²⁵²⁾ 史鐵生은 지난 세월을 그리기 위해 제1인칭 회상 방식을 통해 知識青年(저자 본인)이 황토고원 지역에 가서 破老漢이라는 노인과 함께 소를 사육한 경험을 묘사했다. 淸平灣의 생활은 전설적인 면이 있고 강인한 면도 있으며, 생활이 수수하고 질박하다. 사람들이 해마다 봄철에 파종하고 가을철에 농작물을 수확하며, 길고 긴 역사 속에서 만물은 끊임없이 생존을 유지해 왔다. 이곳의 사람들은 작은 동물이라도 잡아먹는 사람이 없었다. ‘破老漢’이라는 노인은 몇 개 자질구레한 이빨과 몇 개 듽성듬성 난 수염, 음치의 목소리, 그리고 용모도 변변치 않지만 질박하고 다정하게 사람을 대했다. 노인은 열정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손녀를 매우 사랑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제대로 말조차 건네지 못한다. ‘我’가 병이 들었을 때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10근의 식량 교환권을 보내왔는데 이 식량 교환권은 10근의 좁쌀을 팔아서 산 것이었다. 작가가 그려낸 淸平灣은 황량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살아가기에는 고생스럽지만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는

251) 史鐵生, 『我的遙遠的淸平灣·代序』, 廣州出版社(廣州), 2001년, p. 1.

252) 楊健, 앞의 책, p. 337.

것이다.

小説은 주인공 ‘我’가 몇 년 후 추억한 것이다. 여러 해에 걸친 불행한 현실 속에서 이전의 知靑生活을 되돌아보니 淸平灣의 知靑生活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추억을 통해 자기 운명을 다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史鐵生 작품에서 보여주는 창작 주제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향촌 생활, 농민, 그리고 농장 노동자를 미화하는 것은 도시의 세속적인 견해에 대한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도시의 세속적인 것을 비판하는 무기는 바로 도덕적인 이상주의다. 知靑들이 도시로 돌아간 후 대부분의 知靑은 현실생활에 미혹한 상태였다. 이전의 신앙은 부정을 당했고, 그리고 주류사회는 그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어려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일부 知靑들은 시골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도 했다. 知識靑年들의 뿌리는 시골이 아니고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귀향의 갈망은 실제로 현실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래서 知識靑年들은 꿈속에서라도 그 아름다운 시골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실제 知識靑年들은 원래 자기들의 과거는 감동적이고 눈물겹고 비장하며 역사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知靑들은 그 시기 생활(上山下鄉의 생활)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농민들의 눈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²⁵³⁾ 이런 면에서 보면 역사적 諷刺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知靑들은 문화의 뿌리를 찾는 것이 바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는 것이라 여겼다. 그들이 성장한 시대는 문화적 자원도 모자랐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理解하기 쉬운 것부터 찾으려 했다. 그래서 그들은 鄉村, 민간, 그리고 변경지역에 가서

253) 郭小東, 「中國知靑文學的另類書寫—論非主流傾向的現狀表述」, 『海南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海口市), 2005년 제 3기, p. 43.

자기의 신앙과 뿌리를 찾으려고 했다. 茹志鵬의 단편소설 『剪辑錯了的故事』는 이미 ‘傷痕文學’처럼 직접 고통의 역사와 개인 정감만을 묘사하지 않고, 고통이 지나간 뒤에 이전의 고통을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노력 아래 文化大革命 운동이라는 역사 재난에 대한 인식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²⁵⁴⁾. 이로부터 知靑文學은 反思文學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2. ‘上山下鄉’운동에 대한 반성

‘傷痕文學’ 전성기에 작가들은 ‘四人幫’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시대의 아픔을 묘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역사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경험과 교훈을 總結해야 했다. 많은 사상과 경험이 풍부한 작가들이 앞장서서 현실주의 심화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王蒙, 李國文, 從維熙, 張賢亮, 方之, 高曉聲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이러한 작가들은 여러 가지 제재로 다양한 각도에서 전형적인 환경과 전형적인 인물의 묘사를 통하여 현실과 역사에 대한 독특한 느낌과 사고를 반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역사 경험의 교훈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창작의 문학사조를 ‘反思文學’이라고 한다. 이것은 新時期 이후 ‘傷痕文學’思潮에 이어 나타난 文學思潮로 사상은 더욱 깊어지고 영향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 의의는 더욱 심화된 창작의 潮流이다.²⁵⁵⁾ 이 시기는 文革의 규제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품 속 반성의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上山下鄉’ 운동에 대해 이미 반성하기 시작했다.

1984년 孔捷生이 『大林莽』을 발표하면서 知靑文學은 ‘傷痕’에서 ‘反思’로 전환되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작품에서 5명의 知識青年 小分隊는 명령을 받아 고무나무 재배를 위해 아열대숲으로 들어간다. 自然의 법칙을 무시하고 제대로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원시림 속에서 길을 잃고 목숨마저 잃게 된다. 사람과 자연의 대결 속에서 주인공들의

254) 陳思和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第2版), 復旦大學出版社(上海), 2008년 12월, p. 207.

255) 金 漢·馮雲青·李新宇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浙江大學出版社(杭州), 1997년 5월, p. 447.

청춘이 무너져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는 반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즉 知青 운동은 사회 발전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988년에 老鬼의 『血色黃昏』은 마지막 傷痕文學 작품이면서 동시에 그 치열했던 시기를 반성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256) 反思文學은 ‘10년 動亂’의 비극의 근원을 찾아 더욱 깊이 있는 반성의 단계로 들어섰을 뿐 아니라 그 범위도 더욱 확대되기에 이른다. 『剪輯錯了的故事』는 1950년대 농촌 ‘大躍進運動’에서 잘못된 근원을 찾아내 4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중국 공산당과 일반 대중 사이의 관계 변화를 살피고 있다. 또한 『天雲山傳奇』의 주인공 周瑜貞은 이러한 10년 동안의 動亂의 주범이 바로 ‘四人幫’이라고 했는데 과연 10년 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四人幫’을 반대하면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그 이전에 또 다른 영웅의 의미에 대해 반문을 끊임없이 했다. 다시 말해 反思文學은 ‘文化大革命’이라는 시대적 재난과 비극이 단순히 ‘文化大革命’ 몇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이다. 257) 新時期 反思 작품은 文革 시기의 이데올로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뛰어난 작품 역시 그리 많지 않다.

孔捷生은 『大林莽』에서 5명의 주인공인 簡和平, 謝晴, 邱靄, 洗四海, 大陸仔 등의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무거운 필치로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과 시대의 비극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각자 저마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謝晴과 邱靄는 성격이 강인하고 판단력이 확실하다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謝晴은 비록 여성이지만 여장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특히 그녀의 인물형상이 점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邱靄는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대의 영웅이다. 용감하면서도 뜻이 완강하고 충성심도 있는 영웅

256) 張先雲, 「知青文學的中現象寫主義潮流」, 『安徽師範大學學報』(蕪湖), 2009년 5월, p. 300.

257) 陶東風·和磊 著, 「中國新時期文學30年」(1978-2008),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2008년 12월, 제 1판, pp. 56~57.

적 특징은 작품 속에서 홀로 分隊를 떠나 大林莽을 정복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장면 묘사로 잘 대변되고 있으며 목숨을 잃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의 인물형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으로 실수하면 죄를 졌다고 해야 되니? 세상에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신기한 일이군! 그가 말했던 산꼭대기 고무나무를 재배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황무지를 개간하라고 국가의 돈을 얼마나 낭비했고, 사람들의 공력을 헛되게 들였는데 왜 죄를 받지 않는 건가? 누가 이런 책임을 질 거야? 이상한 말로 ‘政治生命’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정치와 非정치로 구별했는데, 사람의 생명조차도 정치로 구분한 거군! 책임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우리는 모두 사형수이면서 모두 피해자’라는 말인데. …… 簡和平은 죽기 전에 ‘위험한 경지에 처할 때 그들은 불 속에 열반한 봉황새와 같이 새로운 자아로 태어났고, …… 또한 잇따라 갑자기 서거한 전우들은 종교 제단 위의 犧牲羊일 뿐이고, 그러나 삼림을 살리자고 한 맹세를 한 후 여러 차례의 죽음의 고비는 함의를 바꾸고, 분대의 모든 사람은 환생이 되었다’고 각성했다.

‘科學上犯錯誤就得定罪? 天下奇聞! 你怎么不想想他說過不能種橡膠的山頭, 多少個連隊拉進去墾荒, 白丟了國家的錢, 白費了大家的血汗, 怎不見有人獲罪? 誰來負這份責? 有個古怪的詞兒, 叫‘政治生命’, 什么都拿政治和非政治來劃分, 連人的生命! 責任誰也逃脫不了這份責任, 咱們都是劊子手, 又都是受害者。’ …… 簡和平在臨死之前的感慨意味着主體已經覺醒, ‘在危厄的時刻, 他們宛如火中涅槃的鳳凰, 塑造出全新的自我……還有那一個接一個地溘然逝去的戰友, 本來不過是宗教祭壇上的犧牲品, 然而, 在發出拯救森林的誓言後, 一次次死難都更新了涵義, 分隊里每個人都得到了超生。’(258)

孔捷生은 『大林莽』에서 반성한 것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다. 簡和平과 邱靈 사이의 논쟁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연을 약탈해야 되는가? 사람은 자연을 이겨야 될지 이길 수 있을지, 이 모순된 세상 속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은 이미 文革 時代를 초월했고 新時期에 최고봉을 차지했다. 다만 孔捷生

258) 孔捷生, 『大林莽』, 花城出版社(廣州), 1985년 5월, pp. 324~325.

은 『大林莽』 중에서 반성은 단지 理想性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理想과 獻身이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작가와 이 구조의 꼭짓점에서 知青 英雄主義에 대한 작가의 반성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理想과 獻身이라는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헌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사고는 상투적인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의 사유모델과 일치된 것이다.²⁵⁹⁾ 그래서 新時期에 이런 반성에 관한 작품은 文革時期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葉辛의 『蹉跎歲月』도 다른 작품에 비해 知青 생활을 반성하는 작품에 속한다. 이 장편소설은 知青文學이 단순히 傷痕의 基調에서 벗어나 비장의 基調를 갖추게 되는 특징마저 보인다. 작품에서 정직하고 근면한 知青 柯碧舟가 출신성분이 좋지 않아 생기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반혁명’ 출신의 아들인 柯碧舟는 ‘血統論’의 시대 속에 감시 대상이 되어 아무리 노력해도 객관적인 평가와 이해를 얻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아름다운 고급간부의 딸 杜見春을 알게 되고 杜見春은 柯碧舟의 재능을 흠모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반혁명’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사랑마저 포기하기에 이른다. 절망에 빠진 柯碧舟는 자살을 시도하는데 마을의 아가씨인 邵玉蓉과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목숨을 구해주게 된다. 이때부터 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후에 사고로 邵玉蓉이 목숨을 잃자 柯碧舟가 고통 속에 빠져 생활하게 된다. 이 때 杜見春의 아버지가 ‘反革命’ 대상이 되어 집안이 몰락하자 柯碧舟가 杜見春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다음은 杜見春의 아버지가 ‘反革命’ 대상이 되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柯碧舟가 아버지를 구해 주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옷이 흠뻑 젖은 채, 온 몸이 반질거리며, 머리를 풀어헤쳐진 杜見春이 주저앉아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柯碧舟임을 확인했다. 그녀는 화내면서 멋대로 ‘너, 너 왜

259) 姚新勇, 『主體的塑造與變遷— 中國知青文學新論(1977~1995년)』, 暨南大學出版社(廣州), 2000년 3월, 제 1판, p. 87.

왔냐'고 말했다. 柯碧舟가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보면서 얼굴의 빗물을 닦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너...너는 여기서 ...월 월 하니'라고 반문했다. 杜見春은 낮이 나간 듯한 두 눈으로 그를 보면서 '난 살고 싶지 않아'고 말했다. '와~'울음이 터져 '난 살 수 없어, 너, 너 나 상관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처 없이 후다닥 뛰어가 버렸다. 柯碧舟는 벌떡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 잡아서 껴안았다. 큰 목소리로 '안 돼! 넌 가면 안 돼! 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했다. 杜見春은 柯碧舟의 팔속에서 발버둥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몸을 비틀거렸다. 柯碧舟는 다른 방법을 생각이 나지 않아, 꼭 잡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내 고개를 숙이고 너무 지쳐 그의 어깨에 기대면서 큰 소리로 울며 '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말했다.

貼身衣衫濕透，渾身水光油亮、披頭散發的杜見春跌坐在地，看清楚倒在身旁的是柯碧舟，她氣惱地撒野道，‘你、你來干啥？’柯碧舟嚇了一跳，怔了一怔，抹了把臉上的雨水，訥訥地反問，‘你…你在這里…干、干什么？’‘我不要活了！’杜見春眼睛失神地一瞪，‘哇’地一聲，放開喉嚨大哭着，‘我活不成了！你、你不要管我！’說着，她搖搖晃晃站起身子，撒開腿就無目的地跑去，柯碧舟悍然不顧地跳起身來，使勁地追到她身旁，一把抱住她，拉開嗓門吼着，‘不！不成，你不許走！你不能這麼做！’杜見春在柯碧舟的臂膀里掙扎着，踩着腳，扭着身子，但想不出其他辦法的柯碧舟只好緊緊抱住她，她怎么也掙不過他，最後只得認輸地垂倒了頭，精疲力盡地倒在他的肩膀上哭嚎着，‘你叫我怎麼活下去啊！’²⁶⁰⁾

이전의 知青小說에서는 주로 농촌을 묘사하고, 知識靑年들이 농촌에서 재교육을 받는 상황과 현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묘사했다. 그러나 『蹉跎歲月』에서는 청년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준 ‘血統論’을 깊이 통찰하며 知識靑年들이 농촌에서 노동 개조의 각종 상황을 묘사하여 소설이 靑史詩와도 같은 운율을 지니고 있다. 작품 속에 많은 知青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 柯碧舟과 杜見春을 통해 ‘血統論’의 억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소설은 傷痕文學의 특징도 지니고 있지만 文革에 대한 명확한 비판 경향을

260) 楊健, 앞의 책, p. 326. 재인용.

나타내고 있다.²⁶¹⁾ 上山下鄉의 眞實한 心理와 苦難 處地에 대한 등장인물 묘사를 통해 知靑들의 上山下鄉 運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知識靑年의 上山下鄉 운동은 知靑들이 인생을 헛되이 보낸 덧없는 세월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陸天明의 장편소설 『桑那高地的太陽』²⁶²⁾은 비교적 늦게 나온 文革 반성 소설이다. 理想主義의 破滅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인간의 노예근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知靑 운동을 역사의 한 부분이라 보면 문학 작품은 그것을 반영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역사 속으로 돌아가서 당시 생활 체험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 현재의 위치에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今夜有暴風雪』 등의 작품은 전자에 속하고, 『桑那高地的太陽』은 후자에 속한다. 예술창작 측면에서 두 작품을 평가할 때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역사적 의미로 평가할 때는 후자가 전자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 당시 삶을 그려내게 되면 그 시대의 역사적 결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 그래서 陸天明의 작품은 이러한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시간을 통해 작가의 시선을 더욱 넓혀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²⁶³⁾

작품 속에 등장하는 主人公 謝平은 그의 인생 중에 잊지 못할 험난한 인생을 몸소 겪게 된다. 上海 ⇒ 羊馬河 ⇒ 靑年班 ⇒ 農場本部 ⇒ 駱駝圈子, 다시 上海 ⇒ 啓龍鎮 ⇒ 羊馬河 ⇒ 駱駝圈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는 커다란 물음표가 찍힌 인생살이에 동그라미를 따라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인생에서의 온갖 시련을 견뎌내며 걷고 또 걸었다. 그가 갖

261) 陳曉明, 앞의 책, p. 297.

262) 陸天明, 『桑那高地的太陽』, 『當代』, 人民文學出版社編輯出版(北京), 1986년, 제 4기.

263) 李昕, 「歷史精神與當代意識的結合— 評『桑那高地的太陽』對知靑題材小說創作的突破」, 「文論報」(石家莊), 1987년 1월 1일, 제 2판.

고 있는 처음의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며 桑那高地에 새로운 太陽이 떠오르는 것을 갈망하고 우정과 인간 사이의 진실한 감정을 갈망했지만 그가 받은 것은 오히려 실망뿐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실망 속에서 결국 주인공 謝平的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²⁶⁴⁾ 그 비극은 그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적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다.

知識青年을 재제로 비극을 표현하고 있는 『桑那高地的太陽』은 知識青年들이 변방에 나아가 자신의 삶과 현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시대와 역사의 필연적인 산물이었지만, 결국 현실 속에서는 이를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작가는 人性 자체의 내재적인 요구에서 출발해 사람의 운명, 가치, 현실 속 위치, 그리고 사람과 역사의 관계 등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작품은 인성의 현실 내용을 긍정하고 인성의 역사 현상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 부정했다. 그래서 知青의 헌신정신에 대해서 다른 작품처럼 무턱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실적으로 표현했다.²⁶⁵⁾ 陸天明은 西部 開拓者의 비극적인 운명을 묘사할 때 소극적으로 事業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을 바라면서 사람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작품 내용을 보면 냉소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읽은 후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비장함마저 느끼게 한다. 이것은 아마도 작품이 현실주의적 색채를 지닌 文學作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²⁶⁶⁾ 陸天明의 이 작품은 知青 反思 소설 중에서도 시대의 아픔을 가장 철저히 반성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264) 周政保, 「太陽, 讓大地燃燒起來吧…… —評長篇小說『桑那高地的太陽』」, 『當代作家評論』(沈陽), 1987년, 제1기, p. 102.

265) 李昕, 앞의 논문 제 2~3판.

266) 何鎮邦, 「西部開拓者的命運—讀長篇小說『桑那高地的太陽』」, 『小說評論』(西安), 1987년, 제2기, p. 56.

張抗抗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우리들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은 이미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리고
털어놓았다. 우리들 세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울분하고 답답함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주시를 받았다. 우리들 세대 사람들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질문은 이미 여러 번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우리들 세대의 사람
들이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돌려 자기 자신을 살펴 자신들에게 몇 마디 진실을 말
해야 될 것인가?

我們這一代人經歷的苦難，已被我們反復傾訴和宣泄；我們這一代人內心的傷痛和憤
懣，已激起了世人廣泛關注；我們這一代人對於歷史和社會的質問，已一次次公之於
衆；然而，臨近20世紀末，我們這一代人，是不是能夠低頭回首，審視我們自身，也對
我們自己說幾句真話呢？²⁶⁷⁾

知青들은 역사 속에서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에 같이 참여한 주역들이
였다. 사람도 결국 역사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왜 그런 역사가 있었고, 자
신들이 주동적 혹은 피동적으로 역사 속 피해자가 됐어야 했는지 반성해
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체적으로 사람과 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지나치게 지식청년의 청춘 세월을 미화하는 것은 객관적 역사 태도가 아
니다.²⁶⁸⁾ 張抗抗는 비록 『北極光』에서 ‘反思’의 경향이 나타났고 『隱形伴
侶』에 이르러서 뚜렷한 ‘反思’의 경향을 갖추었고 비교적 구체적인 ‘反思’
成果를 얻었다. 소설 중에서 두 명의 주인공인 肖瀟와 陳旭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자기가 眞性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거짓말하지만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소위
품행이 단정한 인물의 내적 세계에 허위적인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가 만들어 낸 畸形兒인 肖瀟와
같은 인물에 대한 태도가 좀 모호하다. 그는 허위적인 인격에 대해 동정

267) 張抗抗, 『無法撫慰的歲月』, 『天然夏威夷』, 河南文藝出版社(鄭州), 2002년, p. 219.

268) 陳曉明, 앞의 책, p. 307.

과 찬양의 태도를 갖고 있는 듯 애매한 태도를 견지한다. 허위적인 것에 대해 진정한 비판이 부족하고, 허위적인 인격의 사회문화 체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며, 주체의 허위 상태에 대해 철저한 비판도 없는 이런 張抗抗 작품은 반성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 받는다.

文革時期 주체의 부재 상태와는 달리, 新時期에는 바람과 절박함은 있으나 思想과 기능, 믿음이 결여된 主體가 생겨났다. 이러한 主體性은 막 눈뜨기 시작한 것이어서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였다. 믿음이 결여된 상태는 이들에게 막막함을 던져 주었다. 그래서 農村과 같은 精神的 고향에 의지해야 하고 뿌리를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품에 현실적이고 公利的인 색채를 강하게 부여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政治權力과 함께 知靑話語라는 권력을 形成했다. 그런데 사상과 문화의 깊이가 부족한 탓에 이들의 작품은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하나는 이들이 現實 經驗에만 기대어 작품을 쓰기 때문에 소재가 빨리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점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이 知識靑年 세대의 ‘上山下鄉’운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들이 기댈 것이라고는 부분적인 개인 경험뿐이어서 ‘허구(虛假)’라든가 ‘단편적(片面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었다. 즉 개인적 경험과 세대를 대변하고자 하는 소망이 어긋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新時期 작가들의 主體性은 분주함과 矛盾, 混亂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자신을 美化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던 이들에게는 시대를 감시하고 비판할 능력은 없었다. 동시에 意識 깊숙이 남아 있는 문혁의 이데올로기적 잔재로 인해 이들의 사상적 능력은 限界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主體는 시대의 추종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시대를 초월한 작품을 탄생시키기는 어려웠다.

四. 小 結

비록 몇몇 작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고달픔에 대해 반성했지만 대부분의 반성은 아직 迷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만 『桑那高地的太陽』과 『大林莽』등 많지 않은 작품은 주체와 인격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桑那高地的太陽』은 노예의 인격을 폭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런 인격이 역사에 끼친 영향이 어떤지 주체가 역사에 대해 마땅히 져야 되는 책임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어쩌면 노예 근성에 대한 동정심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知靑文學 중의 文革과 ‘上山下鄉’에 대한 반성 작품은 단지 사고 자체의 표현일 뿐이고, 사람이 역사속의 위치와 책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속에 묻히게 되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新時期 때 문혁의 여러 가지 規制 속에서 해방된 창작 환경 속에서 젊은 작가들이 철저히 과거의 역사에 대해 반성해야 했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것은 현실에 그리 충분한 환경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文革이 끝난 후 몇 년간, 중국 작가들은 국가 정치와 경제생활에 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심지어 당시의 정치 운동에 참여한 작가들도 많았다. 이런 社會背景 속에서 문학 창작은 衰落하기 시작해 문학이 사회 생활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점차 잃어버리게 된다. 이 때 많은 청년 작가들이 전통의식과 민족문화 心理를 찾아내기 시작하여 80년대 중반에 중국 문단에 문화의 뿌리를 찾는 열풍이 일어난다.

V. 知青文學의 解體

一. 後新時期 知青小說의 概括

新時期文學은 文革文學과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文革文學의 색채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1989년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국의 개혁 개방은 3년 동안 잠시 멈췄지만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 개방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모든 국민의 상업 활동(全民經商)’과 ‘下海(공직을 나와 창업하는 것)’의 열풍으로 文學도 시대의 흐름을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知青文學도 전면적인 해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서서히 文學思潮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문학 창작은 본격적으로 ‘百家爭鳴’의 국면에 들어서고 다양한 창작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後新時期에 들어와 政治權力이 약화되고 商業權力이 흥기하자 작가들은 바로 商業大衆文學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하여 순문학 탐색 혹은 세속의식의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 그들은 시대의 큰 흐름을 하나의 中心思想으로 삼았을 뿐 자아의 독립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자신이나 믿음 모두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시대의 큰 主流에 귀의하여 예전의 그림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다른 의미에서의 ‘尋根文學’이라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생명의 성장에 기초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너무 빨리 부정하는 결과로 인해서 뿌리는 찾지도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결국 객관적 역사로서의 과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들은 이전 시대의 서술 방법을 탈피하여 다른 시각에서에서 그것을 서술하기에 이른다.

二. 主題 分析

1. 文學의 뿌리 찾기— 尋根文學

1985년에 들어와서 중국 소설은 주제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이후의 주제 구조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1985년 작가 韓少功은 논문 「文學的‘根’」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문학은 뿌리가 있고, 문학의 뿌리는 민족 전통적인 문화의 토양 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지엽이 茂盛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²⁶⁹⁾ ‘尋根派’는 대부분 知青 작가들이다. 굳은 理想主義 신념은 그들로 하여금 恒久的인 것과 초월적 가치를 찾아내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현대적인 意識 위에서 중국 민족이 현대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된 가치 위기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문학이 표현하는 객관적인 대상(방면)은 민족 생존의 역사적인 단계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애써 추구했다. ‘尋根派’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웠다.²⁷⁰⁾

1985년은 ‘尋根(사물의 근본을 찾는다)文學年’²⁷¹⁾ 라고 한 것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尋根에 관한 문학작품이 급속히 증가하고 특징이 더욱 뚜렷해 졌다. 특히 阿城은 『上海文學』에 『遍地風流』²⁷²⁾, 『人民文學』에 『孩子王』²⁷³⁾, 『中國作家』에 『棋王』²⁷⁴⁾을 각각 발표했으며, 鄭萬隆은 『上海文學』에 『黃煙』²⁷⁵⁾, 『空山』²⁷⁶⁾, 『野店』²⁷⁷⁾을 발표했다.

269) 劉保昌, 「小說文體, 在1985年及其以後」, 『求實學刊』(哈爾濱), 1998년, 제 6기, pp. 66~67.

270) 劉俊 等 編著, 『中國現當代文學研究導引』, 南京大學出版社(南京), 2006년 10월, p. 375.

271) 尋根文學은 중국 당대문학 중 하나의 문학사조이고, 1980年代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창도자는 韓少功·阿城·鄭義 等 청년 작가들이다. 尋根文學의 발단은 韓少功이 1985년 『長春』의 제 4기에 논문 「文學的‘根’」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尋根’에 관한 작품은 적어도 1983년에 賈平凹가 『鐘山』의 제 4기의 「商州初錄」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작가들이 현대적인 의식으로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심리를 찾아내기를 위하여 애썼다.

272) 阿城, 『遍地風流』, 『上海文學』(上海), 1985년, 제 4기 초간.

273) 阿城, 『孩子王』, 『人民文學』(北京), 1985년, 제 2기 초간.

274) 阿城, 『棋王』, 『上海文學』(上海), 1984년, 제 7기 초간.

275) 鄭萬隆, 『黃煙』, 『上海文學』(上海), 1985년, 제 5기 초간.

韓少功은 『人民文學』에 『歸去來』²⁷⁸⁾와 『藍蓋子』²⁷⁹⁾, 『人民文學』에 『爸爸』²⁸⁰⁾ 등을 발표했다. 또 하나는 국내의 몇몇 문예 정기간행물에 몇몇 젊은 작가들이 문장을 계속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文學尋根’의 선언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韓少功의 『文學的‘根’』²⁸¹⁾, 鄭萬隆의 『我的根』, 李杭育의 『理一理我們的根』²⁸²⁾, 그리고 阿城의 『文化制約着人類』²⁸³⁾ 등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소위 ‘文化尋根’의 意識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1. 문학 미학의 의의에 있어 민족문화자료에 대한 재인식과 해석을 통해 적극적인 문화 핵심을 발굴했다(阿城의 『棋王』).
2. 현대 사람들이 세상을 느끼는 방식으로 고대문화 遺風을 이해하고, 생명 에너지를 분발시킬 수 있는 원천을 찾았다(張承志의 『北方的河』).
3. 당대 사회생활 중에 존재하는 흥측한 문화적 要素에 대해 계속적인 비판과 함께 민족문화의 心理的 심층 구조를 깊이 있게 발굴했다.

이것은 비록 啓蒙主義의 화제이지만 현대적인 의식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韓少功의 『爸爸』).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작품들이 종합적으로 ‘尋根’의 意義를 표현했다²⁸⁴⁾고 할 것이다.

尋根文學의 작품 내용을 보면 조용하고 안일한 전원생활을 묘사해 해가 뜨면 일하고 날이 저물면 쉬는 농촌 安樂圖를 그려낸 작품이 있고,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 아래 사람들의 정신생활을 묘사한 작품도 있으며, 태고시대 인류의 선조를 묘사해 선사문화의 용맹, 호방, 哀切의 기개를 다룬 작품들도 많다. 지금도 우수한 ‘尋根’ 소설은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276) 鄭萬隆, 『空山』, 『上海文學』(上海), 1985년, 제 5기 초간.

277) 鄭萬隆, 『野店』, 『上海文學』(上海), 1985년, 제 5기 초간.

278) 韓少功, 『歸去來』, 『人民文學』(北京), 1985년, 제 6기 초간.

279) 韓少功, 『藍蓋子』, 『人民文學』(北京), 1985년, 제 5기 초간.

280) 韓少功, 『爸爸』, 『人民文學』(北京), 1985년, 제 6기 초간.

281) 韓少功, 『文學的‘根’』, 『作家』(北京), 1985년, 제 3기 초간.

282) 李杭育, 『理一理我們的根』, 『作家』(北京), 1985년, 제 6기 초간.

283) 阿城, 『文化制約着人類』, 『文藝報』, 1985년 7월 6일.

284) 陳思和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第2版), 復旦大學出版社(上海), 2008년 12월, pp. 277~278.

있다. 그 중에서 뛰어난 작품이란 평가를 받는 『棋王』과 『爸爸』 등은 80년대 중후기 중국소설 新潮流의 經典的인 작품이다. 문화의 뿌리에 대한 회귀와 숭배는 당시 ‘尋根’ 소설의 주요한 특징이다.²⁸⁵⁾ 阿城의 『棋王』은 文化大革命 시기 上山下鄉을 배경으로 ‘棋王’ 王一生을 대표로 하는 중국 民衆의 물질적인 빈곤과 정신적인 추구를 묘사했다. 王一生은 사회의 최하층에서 생활하는 보통사람이다. 그의 현실 상황은 가난으로 점철되었으나 개인의 기질, 그리고 인생의 기회와 인연으로 그는 將棋를 좋아했다. 그의 청춘은 장기 때문에 빛이 났다. 저자는 王一生에 대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인생 묘사를 통해 道家의 철학 사상(無爲而治)과 관련된 문화적 사고를 서술했다.

소설은 예술적인 경지에 입각하여 사소한 부분까지 매우 생동적으로 묘사했다. 王一生은 ‘棋王’이라고 하지만 의기양양하거나 남을 깔보는 기질이 없고, 오히려 棋道에 빠져서 멍한 면이 있다. 이런 멍한 표정은 그의 가난한 생활의 고통을 희석시켰다. 이런 생활 형편과의 충돌은 소설 중에서 ‘먹다(飢餓)’와 ‘棋(장기)’의 충돌로 구체화 되었다. 그의 명언은 ‘무엇으로 그 근심 풀리겠는가, 오직 장기가 있을 뿐일세(何以解憂, 唯有象棋)²⁸⁶⁾’인데, 장기는 그가 심리적으로 飢餓와 생활의 빈곤을 이길 수 있는 보물이고 그의 생존의 意義와 생명 자체가 되었다.²⁸⁷⁾

다음 ‘吃(먹다)’에 대해 묘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내가 보기에 그는 먹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가 먹을 때 특히 관심 두었다. 열차에서 우리의 열차 칸에 知青의 식사를 배달해 줄 때, 그는 장기를 두는 데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약간 불안하게 보였다. 다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알루미늄 도시락 부딪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항상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는데 오히려 속이 메스꺼운 것 같았다. 밥을 받은 후에 바로 먹기 시작했다. 급히 먹으면서 울대뼈까지 실룩실룩 거리면서 얼굴 가득 핏대를 세웠다. 자주 갑자기 멈춰 조심스럽게 입언저

285) 劉保昌, 앞의 논문, p. 66.

286) 이 말은 魏武帝 曹操의 「短歌行」중의 詩句인 ‘何以解憂, 唯有杜康’에서 나온 것이다. 무엇으로 그 근심 풀고, 오직 술이 있을 뿐일세.

287) 王鴻生 主編, 『中國當代文學精品導讀』(第四卷), 上海大學出版社(上海), 2006년 12월, p. 119.

리와 아래턱에 묻은 밥풀과 국물을 입으로 넣었다. 만약 밥풀이 옷에 떨어지면 즉시 집어서 입으로 넣었다. 만약 떨어진 밥풀을 못 잡아서 옷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즉시 반응하지 않고 몸을 돌려 찾아보곤 했다. 이 때 내 눈빛과 마주치면 속도를 늦췄다. 밥을 다 먹은 후에 젓가락을 깨끗이 빨아 먹고, 따뜻한 물을 도시락 가득 넣어서 위에 뜬 기름을 깨끗이 빨아먹고 나서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 것 같은 편안한 표정으로 한 입 한 입 천천히 마셨다. 한 번은 그가 장기를 둘 때 왼손으로 가볍게 다탁을 두드렸다. 말라버린 밥풀도 가볍게 작은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다. 그는 즉각 관심을 보였고, 그 밥풀을 즉시 입에 넣었는데 빵에 핏대가 세워졌다. 이런 말린 밥풀은 이빨 사이에 쉽게 끼었다. 끼었을 때는 혀바닥으로도 꺼낼 수 없는 것이다. 과연 잠시 후 그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후벼다. 마침내 다 씹어서 침과 같이 꿀꺽 삼켰다. 울대뼈가 천천히 아래로 움직였고 눈에 글썽이는 눈물이 보였다. 그가 먹는 것은 경건하고 정성스럽고 세세하다. 어떤 때는 그가 밥을 너무 깨끗하게 먹으면서 밥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이 정말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다.

我看他對吃很感興趣，就注意他吃的時候。列車上給我們這幾節知青車廂送飯時，他若心思不在下棋上，就稍稍有些不安。聽見前面大家拿吃時鋁盒的碰撞聲，他常常閉上眼，嘴巴緊緊收着，倒好像有些惡心。拿到飯後，馬上就開始吃，吃得很快，喉節一縮一縮的，臉上繃滿了筋。常常突然停下來，很小心地將嘴邊或下巴上的飯粒兒和湯水油花兒用整個兒食指抹進嘴里。若飯粒兒落在衣服上，就馬上一按，拈進嘴里。若一個沒按住，飯粒兒由衣服上掉下地，他也立刻雙腳不再移動，轉了上身找。這時候他若碰上我的目光，就放慢速度。吃完以後，他把兩只筷子吮淨，拿水把飯盒沖滿，先將上面一層油花吸淨，然後就帶着安全到達彼岸的神色小口小口的呷。有一次，他在下棋，左手輕輕地叩茶几。一粒乾縮了的飯粒兒也輕輕地小聲跳着。他一下注意到了，就迅速將那個飯粒兒放進嘴里，腮上立刻顯出筋絡。我知道這種乾飯粒兒很容易嵌到槽牙里，巴在那兒，舌頭是趕它不出的。果然，呆了一會兒，他就伸手到嘴里去搵。終於嚼完，和着一大股口水，‘咕’地一聲兒咽下去，喉節慢慢地移下來，眼睛里有了淚花。他對吃是虔誠的，而且很精細。有時你會可憐那些飯被他吃得一個渣兒都不剩，真有點兒慘無人道。(288)

작가는 작품 속에서 정신과 문화의 초월에 대해 지나치게 찬양하지 않고, 飢餓에 대한 세속적인 부정도 하지 않으며,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288) 阿城, 『棋王』, 王鴻生 主編 앞의 책 p. 127.

줄리면 잠을 잔다.’는 평상심을 심화시켜서 인물 형상화에 성공하였다.

韓少功은 ‘尋根’ 문학 운동의 대표적 작가이다. 그의 『文學的‘根’』은 ‘尋根’ 문학 운동의 이론적 宣言이라고 간주된다. 그리고 『爸爸』와 『馬橋詞典』은 그의 전후 시기의 ‘尋根’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爸爸』는 1983년 제 6기의 『人民文學』에 발표한 그의 ‘尋根’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韓少功은 기존 사회와 정치를 반성하는 경향과 달리 민족전통의 深層 문화심리가 누적된 것을 발굴하고, 우화처럼 전통문화 속의 폐쇄, 우매, 낙후의 낮은 민족 근성을 보여 주었다.

작품에서 작가는 시대성과 사회배경을 감추고 사람, 일, 물건 모두가 신비해서 알 수 없으며, 짐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서술했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가 없이 단지 간단하게 하나의 원시부락인 鷄頭寨의 역사 변천을 묘사했다. 소설에서 원시씨족 사회의 황당함과 怪異함을 묘사하면서 역사 이면에 있는 문화형태를 발굴해 민족 문화의 심층구조를 밝혔다. 전통 관념은 사람에게 준 질식과 억압을 암시한다. 전통문화 및 전통문화가 만든 문화품격에 대해 고찰하고 비판했다.

『爸爸』에서는 丙崽라는 인물을 성공적으로 그려냈다. 작품 중의 丙崽는 인물형상 자체가 하나의 상징물이 되었다. 저자는 丙崽가 변할 수 없는 늙은이와 같이 길 늙은이로 묘사하면서 하나의 기형적인 丙崽의 사고방식을 표현했다.²⁸⁹⁾ 이 기형아의 가장 큰 특징은 ‘爸爸’와 ‘×媽媽’라는 두 마디 말로 대변한다. 작품 속의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좋다 아니면 나쁘다는 사고방식은 마치 동방 古老民族의 ‘非此即彼(이것이 아니면 바로 저것이다)’라는 절대적이며 단순한 사고방식을 상징한다. 그리고 丙崽와 같은 기형적 사고방식은 바로 鷄頭寨라는 특정 문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²⁹⁰⁾ 작품 중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표현에 있어 시간은 정상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 내려온 다음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

289) 劍平·曉凡, 「新時期中篇小說表現形態的研後視(之二)」, 胡健玲 主編 陳振華 編選,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中),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제 1판. pp. 243.

290) 陳曉明, 『中國當代文學主潮』,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9년 4월 1일, 초판. p. 326.

히려 현재로부터 과거로 거꾸로 흐르고, 현실의 시간은 역사의 시간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²⁹¹⁾ 우리에게 끝없이 없는 기괴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韓少功이 1996년에 발표한 장편소설인 『馬橋詞典』은 또 하나의 ‘尋根’ 문학의 역작이다. 그의 民族文化와 意識에 대한 추구는 이미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 『馬橋詞典』에서 ‘馬橋’라는 湖南 農村을 특정지어 외진 마을의 특수 방언 단어를 나열하면서 역사 사건과 연결시켜 ‘馬橋’라는 향촌의 역사, 地理, 민속, 물산, 전설, 인물 등을 묘사하고 있다. 馬橋의 사투리로 부호를 삼아 하나의 향토사전을 편집하고, 사전의 편찬자와 知青 신분으로 그 단어들에 대해 해석하면서 일련의 줄거리를 만들었다.²⁹²⁾ 韓少功은 독창적인 새로운 서술 방법으로 그의 소설 세계를 구축하여 보고 듣는 것들 모두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는 지식인의 눈으로 역사를 인증하고 단어 뒤의 문화 내용을 보여 주었다. 馬橋 사람들의 독립적인 정신에 감탄하며 동시에 馬橋 民間社會의 수준 낮은 전통문화의 糟粕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넓은 민간 세계 속에서 본인의 이상적인 인문세계를 經營했다.²⁹³⁾ 韓少功은 빈궁, 풍부, 순박, 우매, 용맹, 진부, 야만, 포용……등을 생동하게 묘사해 馬橋 사람들의 복잡함을 보여주었다. 楚나라 문화의 한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의해 그는 ‘民族의 自我’라는 측면을 찾아내기도 했다.²⁹⁴⁾

韓少功은 『文學的‘根’』에서는 찬란한 楚나라 文化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원은 湖南省 서부의 산간 지역에서 찾았다. 『楚辭』에서는 신비, 綺麗, 자유분방, 고독의 경계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분명 심미의 경계다. ‘尋根’의 목적은 이론적으로 民族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심미의식 중에서 역사적인 의식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

291) 陳思和, 「時空的幻景 — 新時期小說的藝術蛻變側面研究」, 吳義勤 主編,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上),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제 1판. pp. 108~109.

292) 陳思和, 「多元格局下的小說文體實驗 — 以一九九七年幾部小說創作為例」, 吳義勤 主編,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上),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제 1판. p. 263.

293) 文貴良, 「『馬橋詞典』, 話語與存在的沈思」, 『中國文學研究』, 2002년, 제 4기, p. 66.

294) 王鴻生 主編, 『中國現當代文學精品導讀』, 上海大學出版社(上海), 2006년 12월, p. 247.

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소위 ‘尋根’은 실질적으로 審美範疇 내에서 역사문화를 추적하는 행위다. 韓少功의 ‘尋根’의 길은 자발, 자각, 自爲(自然)의 3단계를 거쳤고, 각 단계에서 저자 본인은 문화, 인성, 자연 및 문학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특수한 ‘尋根’이념으로 전개시켰다. 知青小說이 주류를 차지하던 시기에 신선함을 주입시키는 동시에 자기 특색을 지닌 창작 풍격이 형성되었다.²⁹⁵⁾ 이런 면에서 보면 韓少功이 신시기 문단에 차지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尋根’의 집단이 거의 모두 知青 집단이라는 사실은 ‘尋根’小說을 知青小說로 命名해도 될 것이다. 지청들의 작품은 개인적인 기억의 경험 범위 내에서 청춘 시절 失意의 고통스런 경험을 표현했다. 그 외진 산간마을에서 얻은 추억은 깊은 실의감이고 회미한 그리움이다. 개인이 기억한 의식 속에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진실성이 있다는 것에 의심할 바 없다.²⁹⁶⁾ ‘尋根文學’은 中國 傳統文化의 전승에 있어 추동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尋根文學 사조는 中國文學史上에서 짧은 기간 흥성했던 문학사조로 1987년 이후 점차 사라졌다.

2. 時代 變化에 대한 적응— 改革文學

1978년 11期 3中全會 개최 후 ‘사상을 해방하고, 개혁 개방을 하자’는 정치 노선을 확립하여 작가들도 국가와 민족의 희망을 다시 찾아 강렬한 사회적 책임감을 분발시켰다. 知青 작가들은 문학으로 개혁을 추진시키는 것에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1979년 蔣子龍의 단편소설 『喬廠長上任記』²⁹⁷⁾는 改革文學²⁹⁸⁾의 발단이 된 작품이다. 1981년 말 張潔의 장

295) 金偉大, 「自發·自覺·自爲(自然), 尋根文學의 三重變奏曲 — 綜論韓少功文學‘尋根’의 歷時衍變」,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阜陽), 2012년, 제1기, p. 82.

296) 陳曉明, 앞의 책, p. 327.

297) 蔣子龍, 『喬廠長上任記』, 『人民文學』(北京), 1979년, 제 7기.

298) 中國自1978年底年十一屆三中全會之後, 便開始了自上而下的全國性經濟體制改革。與此同時, 許多作家開始把創作目光由歷史拉到現實, 一邊關注着現實中的改革發展, 一邊在文學中發表自己關於祖國發展的種種思考和設想。這就是風騷一時的“改革文學”, 其開篇之作, 是蔣子龍的中篇

편소설 『沈重的翅膀』은 개혁문학 발전 단계의 창작이었고 1985년 이후 改革文學은 많은 성과를 얻었다. 이 時期의 작가들은 열정적인 개혁 정신을 가진 보통 노동자의 생활에 대해 묘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기에 개혁문학은 점차 쇠퇴된다.

改革文學은 탄생하자마자 단기간에 강렬한 사회적 반응을 일으켰다. 공장장은 개혁의 새 바람을 타고 문단에 등장해 독자들의 마음속에 개혁의 영웅이 되었다. 공장장은 신시기 문학 중에 이전 사람의 사업을 계승하여 앞길을 개척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 인물의 묘사는 아직 성공적이지 못했다. 小說 『喬廠長上任記』가 발표된 후 1984년 전후로 많은 개혁문학 작품이 계속해서 발표, 출판됨으로써 傷痕文學과 反思文學에 이어서 改革文學 사조가 형성되었다.²⁹⁹⁾ 개혁문학 사조의 대표적인 작품은 蔣子龍의 『喬廠長上任記』, 『一個工廠秘書的日記』³⁰⁰⁾, 『開拓者』³⁰¹⁾, 『赤橙黃綠青藍紫』³⁰²⁾, 『燕趙悲歌』³⁰³⁾가 있고, 柯雲路의 『三千萬』³⁰⁴⁾, 『新星』³⁰⁵⁾이 있으며, 水運憲의 『禍起蕭牆』³⁰⁶⁾, 張潔의 『沈重的翅膀』³⁰⁷⁾, 賈平凹의 『小月前本』³⁰⁸⁾, 『鷄窩洼人家』³⁰⁹⁾, 『臘月·正月』³¹⁰⁾, 周克芹의 『山月不知心裏事』³¹¹⁾, 張一弓의 『流淚的紅蠟燭』³¹²⁾, 王滋潤의 『內當家』³¹³⁾, 『魯班的子孫』³¹⁴⁾ 등이 있다.

小說『喬廠長上任記』。(陳曉明, 앞의 책, pp. 89~290.)

299) 陶東風·和 磊, 『中國新時期文學30年』(1978-2008),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2001년 3월, p. 73.

300) 蔣子龍, 『一個工廠秘書的日記』, 『新港』(北京), 1980년, 제 5기.

301) 蔣子龍, 『開拓者』, 『十月』(北京), 1980년, 제 6기.

302) 蔣子龍, 『赤橙黃綠青藍紫』, 『當代』(天津), 1981년, 제 4기.(필자 주, 1982년에 『新港』편집부는 『天津文學』잡지사로 개명했음.)

303) 柯雲路, 『燕趙悲歌』, 『人民文學』(北京), 1984년, 제 7기.

304) 柯雲路, 『三千萬』, 『人民文學』(北京), 1980년, 제 11기.

305) 柯雲路, 『新星』, 최초는 『當代』, 중간 1984년, 제 3기, 1985년, 人民文學出版社(北京) 재판.

306) 水運憲, 『禍起蕭牆』, 『收穫』(北京), 1981년 제 1기.

307) 張潔, 『沈重的翅膀』, 『十月』(北京), 1981년, 제4~5기 연재.

308) 賈平凹, 『小月前本』, 『收穫』(北京), 1983년, 제 5기.

309) 賈平凹, 『鷄窩洼人家』, 『十月』(北京), 1984년, 제 2기.

310) 賈平凹, 『臘月·正月』, 『十月』(北京), 1984년, 제 4기.

311) 周克芹, 『山月不知心裏事』, 『四川文學』(成都), 1981년, 제 8기.

312) 張一弓, 『會流淚的紅蠟燭』, 『小說月報』(成都), 1982년, 제 10기.

313) 王滋潤, 『內當家』, 『人民文學』(北京), 1981년, 제 3기.

314) 王滋潤, 『魯班的子孫』, 『文匯月刊』(上海), 1984년, 제 5기.

1978년 12월에 바로 『喬廠長上任記』가 발표하기 6개월 전에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는 北京에서 개최됐는데 그때부터가 중국 新時期와 新政治의 起點이라고 볼 수 있다. 회의에서 ‘兩個凡是’³¹⁵⁾의 잘못된 방침을 비판하고, ‘以階級鬪爭爲綱’의 구호의 사용금지가 확정이 되고, 국가 공작의 중점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改革開放 실시를 결정한다. 경제 법칙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가치 법칙의 역할 중시를 강조했다. 蔣子龍은 개혁문학의 대표작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은 여러 번 강렬한 반향을 일으켜 문단에서 주목을 받았다. 각종 평론이 잇따라 나왔지만 예술 측면에 관한 평가는 많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개혁을 표현하고 용감하게 ‘改革文學’의 길을 개척했다³¹⁶⁾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

개혁문학은 많은 영웅인물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개혁 시대의 정신을 반영했다. 그 중에서 비교적 대표적인 인물이 『喬廠長上任記』의 喬光朴工場長이다. 우선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과 숫자는 냉혹하고 무정한 것이며, 우리의 등 위에 걸린 2개의 채찍과 같다.”

“우선 시간을 말하자. 만약 국가가 현대화를 실현하는 시간이 23년이라면 우리는 國家에 전력설비를 공급하는 공장이라 현대화는 반드시 8-10년 내로 완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리사와 직원이 같이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고, 제 시간에 배식을 시작할 수 없다.”

“다음에 숫자를 보자! 일본 히타치회사의 전력설비공장에는 5천 5백 명 직원이 있는데 연생산량은 1백만 킬로와트다. 우리 공장의 직원은 8천 9백 명이 있는데 연생산량이 1백 20만 킬로와트이다. 무엇을 설명하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며칠 전에 다카시마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내가 우리 공장의 생산량을 말한 것을 듣고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내게 비밀을 지키라고 했다! 당시 원숭이 엉덩이처럼

315) 兩個凡是是毛澤東的接班人和政治遺產繼承者華國鋒爲了穩定形勢和鞏固自己的政治地位而提出的主政方針。“兩個凡是”是“凡是毛主席作出的決策，我們都必須擁護，凡是毛主席的指示，我們要始終不渝地遵循”。

316) 金漢·馮雲青·李新宇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浙江大學出版社(杭州), 1997년 5월, p. 493.

내 얼굴이 빨개졌다. 양손으로 주먹을 꼭 쥐어 땀이 나왔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때리고 싶었다. 너희들이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 그 때 너희들이 웃었다면 때렸을 거다.

사실 시간과 숫자는 생명과 감정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추구하면 당선 것이 될 것이다.”

— 공장장 喬光朴의 발언 기록에서

‘時間和數字是冷酷無情的，象兩條鞭子，懸在我們的背上。’

‘先講時間。如果說國家實現現代化的時間是二十三年³¹⁷⁾，咱們這個給國家提供機電設備的廠子，自身的現代化必八到十年內完成。否則，炊事員和職工一同進食堂，是不能按時開飯的。

‘再看數字。日本日立公司機電廠，五千五百人，年產一千百萬千瓦；咱們廠，八千九百人，年產一百二十萬千瓦。說明什麼？要求我們干什么？’

前天有個叫高島的人本人，聽我講咱們廠的年產量，他晃腦袋，說我保密！當時我的臉臊成了猴腩，兩只拳頭攥出了水。不是要揍人家，而是想揍自己。你們還有臉笑！當時要看見你們笑，我就揍你們。

其實，時間和數字是有生命、有感情的，只要你掏出心來追求它，它就屬於你。³¹⁸⁾

— 摘自廠長喬光朴的發言記錄

喬光朴의 이런 발언에서 집중적으로 개혁시대 개혁자의 정신 면모를 표현했다. 이것은 바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국민들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긴박감을 일련의 숫자를 통해 표현했다. 다시 말해 이런 정신을 현실을 냉혹한 시간과 숫자로 나타내면서 개혁은 엄하고 냉혹하며,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의연히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했다.³¹⁹⁾ 소설의主人公 喬光朴은 간부와 지식인의 이중 신분으로서 신시기의 정치 주체를 다시 세웠다. 문혁 소설 중 노동자와 반혁명 사이에 투쟁하는 서술 패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十七年文學’ 중에서 공업 주체의 소설 속에 노동자는 선진, 기술자는 낙후라는 창작 모델을 타파했다.

317) 11期 3中全會에서 20세기 말에 중국은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이라는 4개의 대화를 실현하자고 제시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23년이 남았다.

318) 蔣子龍, 『喬廠長上任記』, 『人民文學』(北京), 1979년, 제7기, p. 3.

319) 陶東風·和磊, 앞의 책, p. 74.

‘傷痕’과 ‘反省(反思)’문학이 중국 문단에서 크게 유행했을 때 蔣子龍은 기존의 문학 사조처럼 역사에 대한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침통하게 반성하거나 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모순과 문제를 제시하였다. 상흔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을 충실히 개척하고 건설하는 신시기의 영웅인물을 형상화시켰다. 이 특정한 역사 환경 속에서 『喬廠長上任記』는 문예계의 환영을 받았고 짧은 기간에 사회적 호평을 받았다.

張潔의 『沉重的翅膀』은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묘사했다. 중국 工業 現代化의 테이크오프는 버겁게 시작된 것이다. 중국 11期 3中全會 이후에 국가 중공업부에서는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의 쌍방은 鄭子雲을 대표하는 개혁파와 田守誠을 대표하는 보수파이다. 저자는 生活現實과 改革의 進行過程의 느낌과 인식에 근거하여 鄭子雲과 陳咏明 등이 정돈과 개혁을 위하여 진행한 悲壯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묘사했다.³²⁰⁾ 그들은 대립 세력과 타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세력과 과감하게 싸웠다. 특히 鄭子雲은 新時期 文學 중에 일찍 등장한 인물로 선명한 개혁가와 정치가로서의 형상은 당대 중국 민족의 중심이 되었다. 鄭子雲의 강렬한 사회 책임감과 憂患意識은 개혁의 격류 속에서 중심이 됐고 용감하게 정신을 집중해서 기업의 경영에 새로운 길을 탐색했다. 張潔의 『沉重的翅膀』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예술 영역이 개척되었다. 섬세함 속에서 호방함이 보이고 완곡함 속에서 웅건함이 드러났다. 냉혹함 속에서 정열을 나타내어 ‘온화한 슬픔[溫柔的傷感]’에도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초조하고 흥분된 감정으로 변하게 했다.³²¹⁾ 張潔의 개혁 작품은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賈平凹는 1983년 말부터 1984년에 연속 발표한 『小月前本』과 『鷄窩洼人家』 및 『臘月·正月』, 그리고 이전에 발표한 『商州初錄』과 『商州又錄』 등의 작품 모두 고문화의 발상지 陝西省 남부의 商州 지역의 농촌 사회생활을 소재로 보통 농민들의 고품이 배어든 생활을 묘사하면서 시대 變革의 動律을 표현

320) 上同, p. 80.

321) 金漢·馮雲青·李新宇 主編, 앞의 책, p. 499.

했다. 그의 민속민풍에 대한 묘사는 인물의 심리적인 동태를 발굴해내 세밀하게 민족의 심령 형식을 그려냈다. 작가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과 유구한 민족 문화전통을 접목시키고, 고대한어와 가까운 지방 사투리의 능숙한 운용을 통해 민족 정체의 문화 분위기를 과장되게 묘사했다. 그는 조용한 관찰력으로 전통적인 ‘神韻’과 ‘旨遠(뜻이 매우 깊음)’의 미학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³²²⁾ 이후 賈平凹는 창작 경향을 바꿔 『廢都』와 『秦腔』을 발표했는데 완전히 다른 풍격의 제재로 작품을 창작했다.

개혁문학은 하나의 文學思潮로써 신시기 문단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문학의 여러 規制의 영향으로 부족한 점이 다소 있는데 雷達은 『近三十中國文學思潮』³²³⁾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정치적인 열정을 지니고 있어 작가는 개혁의 복잡성에 대해 아직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낭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소설의 서술 형식을 보면 항상 개혁⇔反개혁이라는 모델로 인물과 구조를 안배했다.

둘째, 많은 작품에서 개혁자의 뒤에는 개혁을 지지하는 권력자가 있고, 개혁자가 곤경에 빠지면 즉시 나타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모델은 중국인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낭만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셋째, 개혁자의 모든 정력이 개혁의 전부를 차지할 뿐 주인공의 내재적인 복잡한 정신을 묘사하지 않았다. 개혁자에게 애정도 없고, 설사 애정이 있더라도 작품 묘사에 있어 하나의 장식일 뿐이다.

넷째, 줄거리와 모델이 거의 동일하다. 개혁자는 곤란에 맞닥뜨려도 물러서지 않고 상급 지도자가 곤란을 헤치고 나가서 개혁의 승리를 얻는다. 이런 서술 방식은 개혁의 복잡성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없었다.

322) 季紅眞, 앞의 논문, p. 1445.

323) 雷達, 『近三十年中國文學思潮』, 蘭州大學出版社(蘭州), 2009년 9월 1일 초판.

三. 全面 解體의 原因

1. 사회적 變動

1992년 1월에 南巡講話를 계기로 중국은 改革·開放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는 중국의 본격적인 市場經濟 體制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경제 중심의 물결이 닥쳐옴에 따라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한다[以經濟建設爲中心]’라는 사상은 사회 이데올로기의 통제력을 약화시켜 大衆文化는 당대 중국에서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新時期 文學은 90년대 접어들면서 市場經濟가 점차 형성됨으로써, 경제중심주의 주장의 영향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엘리트 문화가 점차 시장성과 활력을 잃게 됐다. 90년대에는 대중문화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매우 컸다. 90년대 중국 大衆文化의 특징은 취미성과 오락성이 주도한다. 상업성과 유행성은 외표가 되었으며, 현실성과 적시성은 내용이 되었다. 90년대 문화 가치관의 전환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쳐 90년대 문학은 80년대의 문학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중문화의 융성으로 인해 90년대의 문학은 농후하게 세속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90년대의 소설 창작은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시대적 영웅의 업적은 소홀히 하게 된다. 당시에는 사소한 일상적 일들에 관심을 두었고 영웅 敍事詩 같은 서술은 적어지게 된다. 언어의 생활화와 세속화에 관심을 두었고 우아하고 詩歌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新寫實小說과 新現實主義 小說로부터 新市民小說과 新歷史小說, 그리고 新生代小說까지 모든 소설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90년대의 문학 창작은 비이성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생활화의 경향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일반 민중이 추구하는 것을 보여 주고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³²⁴⁾

主旋律와 商業이 결합함으로써 90년대의 文化潮流를 만들었다. 文化工業이 생기고 사회 분위기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상업적인 조작과 비평계의 직업화 등은 文學 創造力이 번영한다는 허상을 만들었다. 後新時期에는 상업화가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해서 이데올로기에 전면적인 쇠퇴의 국면을 피할 수가 있었다. 理想主義가 퇴각함에 따라 가치가 무의미하게 되어 본래의 엄숙한 문학은 가치성이 사라졌다. 主流文學은 理想化 단계로부터 庸俗化 단계로 접어들었다. 主流文學은 통속적인 노선으로 변했다. 이때 政治는 商業과 결합하여 점차 ‘權力-商業’의 언어 체계가 형성되었다. 主流化的 通俗文學,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상업적인 文學은 大衆文化와 主流文化的 합류된 산물이다. 90년대 후기에 實際로 主流文學이 되었다.³²⁵⁾ 조급한 성공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新時期 문학의 傷痕文學이나 知青文學의 작품은 점차 인기가 없어졌다. 문학은 多元化的의 형태로 존재했다.

시장 경제는 문학의 상업화를 초래하고 고액의 이윤에 대한 추구가 수많은 독자를 가진 대중문학의 발전은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대중이 창작하고 대중이 감상하는 문학이 아니라, 상인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창작하고 대중들이 심미 취향을 맞추는 대중을 만족시키는 문학이다. 後新時期 商業大衆文學의 갑작스런 발전은 단순한 오락성과 자극성을 가진 小說일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오락, 심심풀이, 쾌감, 서스펜스 등 자극성과 소비성의 要素가 각종 문학 영역에 대해 폭넓게 침투한 것이다.

新時期 후반기에 知青小說은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知青小說의 창작은 대폭 감소되었고 많은 知青 題材의 小說은 실제로 知青生活를 빌려 다른 주제를 표현했다. 예를 들어 王安憶과 鐵凝은 知青 生活로 性的 주제를 표현했다. 당시 中國 文學界는 매우 활발했는데, 상업경제의 전무후무한 급성장으로 작가들이 새로운 창작 방식을 탐색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324) 楊劍龍 主編, 錢虹 副主編, 『中國現當代文學簡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上海), 2006년 9월, pp. 263~264.

325) 楊健, 앞의 책, p. 390.

때 史鐵生은 先鋒小說을 창작하기 시작했고, 範小青은 蘇州 도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기 시작했으며, 韓少功은 민족문화 전통의 발굴로 전환했다. 鐵凝은 늘 역사와 문화 속의 여성을 표현하였다. 여성에 대한 표현은 여성들의 신분과 맞는 女性意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鐵凝은 80년대 중·후반기에 『麥秸垛』³²⁶⁾와 『棉花垛』³²⁷⁾ 및 『青草垛』³²⁸⁾를 발표하는데 이른바 ‘三垛’라고 한다. 여성의 性本能으로 여성의 자아의식을 표현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여성일지라도 자아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세 편의 소설은 鐵凝의 여성주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³²⁹⁾ 작가들의 이런 창작 경향의 전환은 知青題材 小說의 창작이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반증한다.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知青 작가들이 와해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 변화로 知青文學의 해체는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

2. 知青作家的 創作 傾向 變化

後新時期 文學의 핵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규제가 약화되고 상업경제의 추세가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後現代主義思潮가 널리 전파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後新時期에 접어들어 많은 知青作家들의 창작 경향은 변화되기에 이르렀고, 知青 제재의 소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다른 제재의 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물론 같은 제재의 소설은 십 몇 년 간에 걸쳐 창작을 하다 보니 내용이 고갈되고, 상업경제의 영향으로 知青에 관한 내용은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 때문이다. 知青文學은 90년대 후기에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題材도 날로 分化 되고 작품 수량도 격감되면서 20세기 말에 전면적으로 쇠퇴되었고³³⁰⁾, 결국

326) 鐵凝, 『麥秸垛』, 『收獲』, 上海文藝出版社出版(上海), 1986年, 제 4기.

327) 鐵凝, 『棉花垛』, 『人民文學』(北京), 1989년, 제 2기.

328) 鐵凝, 『青草垛』, 重慶出版社(重慶), 2012년 10월 1일.

329) 陳曉明, 앞의 책, p. 408.

330) 楊健, 앞의 책, p. 415.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만다.

知青文學은 傷痕·反思의 단계를 거쳤고, 개혁·개방의 충격으로 새로운 심미 경계에 도달했다. 梁曉聲의 『雪城』, 老鬼의 『血色黃昏』, 張抗抗의 『隱形伴侶』, 그리고 陸天明的 『桑那高地的太陽』 등의 작품이 발표되면서 新時期 知青文學은 審美意識의 擴大와 深化라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작가들은 이미 知青 生活을 개인적인 비극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한 단계로 간주하고, 사람 자체에 대한 생명의 변화로 묘사하며, 비극 중에서 이성적인 시각으로 인생의 참뜻을 탐색하려고 했다³³¹. 知青 作家들의 창작 경향은 같은 주제와 같은 창작 기풍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

史鐵生은 1996년에 장편소설 『務虛筆記』를 발표하였다. 작품에서 사랑 이야기와 어린 시절의 생활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으며, ‘寫實’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작품은 하나의 ‘務虛(체계 있는 이론과 방침·정책 등을 연구하고 토론함)’ 筆記이고, 그 사실은 모두 務虛를 위한 것이다³³²라고 하여 知青文學의 풍격에서 완전히 독립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馮驥才는 최초의 ‘傷痕小說’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각종 제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기풍 유형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雕花煙斗』³³³, 『高女人和她的矮丈夫』³³⁴는 모두 보통 사람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지만,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에 있어서도 매우 哲理적인 운치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走進暴風雨』³³⁵는 공업 개혁 소설이고, 또한 『神鞭』³³⁶, 『三寸金蓮』³³⁷, 『陰陽八卦』³³⁸ 등 통속성과 예술성이

331) 金漢·馮雲青·李新宇 主編, 앞의 책, p. 528.

332) 張檸, 『史鐵生的文字盤若——論『務虛筆記』』, 胡健玲 主編, 앞의 책, p. 328.

333) 馮驥才, 『雕花煙斗』, 江蘇文藝出版社(南京), 1995년 12월.

334) 馮驥才, 『高女人和她的矮丈夫』, 江蘇文藝出版社(南京), 1995년 12월.

335) 馮驥才, 『走進高暴風雨』, 『小說家』, 百花文藝出版社(천진), 1983년 창간호.

336) 馮驥才, 『神鞭』, 江蘇文藝出版社(南京), 1995년 12월.

337) 馮驥才, 『三寸金蓮』, 『傳奇文學選刊』(鄭州), 1986년 7월호.

338) 馮驥才, 『陰陽八卦』, 『收穫』(上海), 1988년, 제 3기.

일체로 된 작품은 天津 지역의 특징이 가득한 풍속화와 같은 문화 소설이 되었다.³³⁹⁾ 馮驥才 후기의 작품 가운데는 이미 知青小說의 흔적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1997년 王小波가 한창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데³⁴⁰⁾, 그는 民間과 文壇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中國 文壇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黃金時代』는 知青 시기의 애정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 구조는 知青 소설 중에는 흔치 않은 것이다. 그 후 나타난 『我的陰陽兩界』의 서술 기법은 『黃金時代』와 자못 비슷하긴 하지만 『革命時期的愛情』³⁴¹⁾의 기법은 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白銀時代』는 2020년 編輯部の 이야기와 ‘師生戀’의 이야기를 열기설기 엮어 敘述함으로써 입체적으로 서로를 비추주는 小說의 表現 構造가 나타나 있다.³⁴²⁾ 이후의 작품에서는 知青에 관한 話題의 작품이 나오지는 않았다.

梁曉聲의 早期와 中期의 작품은 淳朴하고 농후한 시대적인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 後新時期에 작품의 기풍은 크게 변해서 내용과 제재, 그리고 서술 언어도 뚜렷하게 변했다. 『浮城』³⁴³⁾, 『苦戀』³⁴⁴⁾, 『紅暈』³⁴⁵⁾ 등은 서술 기법이 독창적이고 심지어 인성의 누추한 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韓東의 『知青變形記』³⁴⁶⁾는 표면적으로는 知青 소설이면서도 실제로 그 내용만을 봤을 때는 이미 知青 小說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39) 金漢·馮青雲·李新宇 主編, 『新編中國當代文學發展史』, 浙江大學出版社(杭州), 2001년 3월, p.443.

340) 王小波(1952-1997)는 原籍은 四川이며, 북경에서 태어났다. 1968년에 雲南에 가서 插隊했고, 1978년에 中國人民大學의 상경대학에 입학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의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1997년 4월 11일에 북경에서 죽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唐人秘傳故事』(山東文藝出版社(濟南), 1980년), 『王二風流史』(香港繁榮出版社(홍콩), 1993년), 『黃金時代』(華夏出版社(北京), 1994년), 『時代三部曲』(『黃金時代』·『白銀時代』·『青銅時代』라는 3편의 소설이 포함, 花城出版社(廣州)) 등이 있다.

341) 王小波, 『我的陰陽兩界·革命時期的愛情』, 北方文學出版社(哈爾濱), 2006년 3월.

342) 陳曉明, 앞의 책, p. 538.

343) 梁曉聲, 『浮城』, 文化藝術出版社(北京), 2006년 6월.

344) 梁曉聲, 『苦戀』, 經濟日報出版社(北京), 1997년 4월 1일.

345) 梁曉聲, 『紅暈』, 人民文學出版社(北京), 2001년 5월 1일.

346) 韓東, 『知青變形記』, 廣東省出版集團 花城出版社(廣州), 2010년 4월.

수천만 명을 휩쓸고, 몇 세대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 한 차례 狂風과도 같은 역사적 운동은 다양한 方式으로 表現되어야 하지만, 세대를 거치는 동안 고전이 될 만한 작품은 탄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자면, 각 시기 소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시대적 限界는 作家 自身과 時代가 지나치게 밀착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作家가 그 시대의 限界를 파악하고 이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小說 속에서 主體性을 잃고, 오히려 시대가 소설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작가의 主體性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시대를 초월하기는 커녕 그 시대 특유의 심리적 기록이라고 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작품들이 독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독자들은 결국 이들 작품에 의해 깊이를 잃어버리고 단순화, 획일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상업대중 문학 작가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주체적 욕망의 기형적 팽창을 의미한다. 순수문학의 경우, 後新時期 순수문학작가들의 주체에는 시대를 추구하려는 욕망과 그 시대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파헤치고자 하는 이성이 있었다. 그러나 시대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긴박함은 결국 主體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를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시대의 요구를 따르긴 했지만, 부분적인 면밖에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의 이성은 위축되고 파편화된 것이었다. 農民을 대변하는 소설 속에 표현된 작가 주체는 욕망은 강렬하나 심리적으로 편협하다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後新時期 작가들은 商業主義,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물들어 시대 안에 갇혀 時代를 이끄는 역할은 해낼 수 없었다.

後新時期에 접어들면서 상업경제의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작가들도 시대의 조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대에 순응하는 寫實小說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작가들이 문학 창작의 기풍을 전환하여 여러 분야로 진출하면서 知靑 題材와 전혀 相關없는 작품을 창작하게 됨으로써 知靑文學은 결국 해체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3. 새로운 文學의 대두

3-1. 都市文學의 흥기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都市文學’은 전통적인 도시 題材의 文學과는 다르다. 都市文學은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형성된 것이며 사람들의 생각, 관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都市文化는 文學 속에서 하나의 도시 의식으로 표현된다. 都市를 문명의 산물로 생각하고 都市를 모든 죄악의 온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품은 都市 사람들의 소원함과 都市의 발전 과정도 묘사한다. 張抗抗, 王安憶과 鐵凝 등은 都市文學 중의 대표적인 작가다. 그 후 池莉와 皮皮 등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나왔다.

傷痕·反思·尋根 등의 소설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었다. 작은 측면만을 묘사하기도 했고 시야를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단순한 문학 작품은 시장에서 배척되자 많은 知青 작가들이 다른 경향의 소설 창작을 시작하였다. 王安憶은 도시 소설이라고 하는 『長恨歌』를 발표하였다.

도시의 발전으로 현대화의 가장 현저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도시의 고속 발전 모습이 작가들의 창작 시야로 들어왔다. 90년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여성 작가들이 도시를 제재로 창작을 시도했다. 王安憶에게 있어 여성은 자연히 都市文學 제재에 속하는 대상이다. 90년 중기에 上海는 그녀의 창작 소재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上海는 문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上海의 역사 혹은 추억에 관한 작품은 都市文學 창작의 시류가 되었다. 『長恨歌』가 주목을 받은 것은 옛날을 회상하는 조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長恨歌』는 이미 소위 老上海를 회상한 수준을 훨씬 초월했다. 『長恨歌』는 上海에 대한 문화정치학과 문화지리학의 의미에서 고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90년대에 유행된 ‘上海流行’의 전체적인 양상을 바꿨다.³⁴⁷⁾ 王安憶은 순수한 女性史의 주제를 선택해 上海를 여성

347) 王鴻生 主編, 『中國現當代文學精品導讀』, 上海大學出版社(上海), 2006년 12월, 제 1판, p. 338.

의 都市로 묘사했다.³⁴⁸⁾ 그의 『長恨歌』는 중국 當代 文壇에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王安憶은 영예와 치욕의 역사에 대한 서술했는데 기쁨과 슬픔에 대해 과장되게 묘사하지 않고, 上海의 길목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평범하게 서술했다. 여성들은 평범한 생활 속에 자기의 인생을 마쳤다³⁴⁹⁾. 작품의 첫마디는 높은 곳에 서서 上海를 바라보면서 上海 길목의 경치의 장관³⁵⁰⁾을 묘사했다. 王安憶은 역사란 원래 중요한 사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하루하루의 사소한 일로 변화 발전된 것이며, 그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를 하나의 일상 생활사로 이해했다³⁵¹⁾. 王安憶은 이미 知青文學의 거대한 장면을 묘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일반 도시민의 일상생활의 묘사로 전환했는데 이것은 시대의 潮流에 順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王安憶이 쓴 시대별의 소설을 살펴보면 知青文學이 해체된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王安憶의 知青小說에서는 ‘나’ 라는 존재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 文革時期的 ‘나’ 는 하나의 혁명적 知識青年이었고, 新時期的 ‘나’ 는 문혁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무고한 知識青年이었으며, 後新時期的 ‘나’ 는 바로 생활 속의 심미주의에 심취한 知識青年이었다. 이 세 시기의 ‘나’ 는 바로 원래 상태의 역사 속의 ‘나’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즉 新時期的 ‘나’ 는 문혁시기의 ‘나’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문혁시기의 ‘나’를 식별해 낼 수 없으며, 後新時期的 ‘나’ 속에는 新時期와 문혁시기의 ‘나’ 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조차 없다. 이 세 시기의 ‘나’ 는 서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작품 속에서 역사 속으로 파고들거나 이 세 시기를 뛰어넘거나 협조하며 점차 成長되어지는 독립적 주체자로서의 ‘나’ 가 아닌 단지 시대의 흐름에 지

348) 西慧玲, 「尋找母親的聲音— 世紀末長篇小說『女性系譜』的擬建」, 胡健玲 主篇, 앞의 책, p. 213.

349) 陳曉明, 앞의 책, p. 406.

350) 王安憶, 『長恨歌』, 作家出版社(北京), 1995년 11월, p. 3.

351) 王安憶, 「我眼中的歷史是日常的一 與王安憶談『長恨歌』」, 「文學報」(上海), 2000년 10월 26일.

배되어지는 시대의 그림자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劉心武의 장편소설 『鐘鼓樓』는 시간으로 보면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공간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四合院³⁵²⁾에 제한되어 있다. 四合院의 여러 가정, 각종 인물의 역사와 현상·심리와 운명에 대해 발굴해 냈다. 소설은 북경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했다. 四合院의 구조부터 鐘鼓樓의 운명까지, 결혼식의 세속 의식부터 北京人의 當代 정치운동에 나타난 심리 상태까지 묘사했다. 소설은 구체적인 시공 한계를 초월해 농후한 역사 時空感을 느낄 수 있다. 『鐘鼓樓』의 전체 줄거리를 보면 희미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연관성이 없고 고정되지 않으나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³⁵³⁾ 이 시기에는 上山下鄉 제재의 知青小說보다는 도시나 여성을 묘사하는 작품이 점차 사람의 시선을 끌어 이른바 都市文學이 융성하게 되었다.

3-2. ‘新寫實’ 小說의 흥기

‘新寫實’小說이 1980년 말에 나타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당시 중국 사회의 전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국 문학 자체의 발전은 서양의 철학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계급투쟁 모델[鬪爭模式]’의 소설에 대해 싫증내고 배척했다. 사람들은 정치 역사의

352) 중국의 전통적인 주택건축의 평면구성. 사합방(四合房)이라고도한다.. 4각의 중정(中庭)을 둘러싸고 사방에 박공지붕, 장방형 평면의 건물이 배치된다. 북을 정방, 동서를 각각 동상방, 서상방, 남을 문방이라 한다. 북경 등에서는 가로에 면한 대문 안에 외정(外庭)이 있고 이문(두 번째의 문)을 지나 내정(內庭)에 들어가도록 되어 수화문(垂花門)을 이용한다. 정방(正房)에는 주인이 거거하고 상방에는 아이들과 기타 가족이 산다. 북쪽 안에 있는 건물을 후조방이라 하는데, 이것이 전방이 되는 경우에는 앞면의 건물들은 그냥 통과하는 곳이 된다. 문방은 객청과 잡사, 사용인의 거처가 된다. 정방·상방의 외측에는 이방(耳房)을 설치하기도 한다. 문방 또는 동서 어느 상방이 하나 없으면 삼합원이라 한다. 양자강 유역 이남에는, 동·북·서를 접속해서 凹자형 또는 사방을 접합해서 회자형평면(回字形平面) 계획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사합원 형식의 기원은 주대(周代) 초기(B.C. 11세기) 궁실건축의 유례에서 예를 볼 수 있다.

353) 金國華, 「新時期都市長篇小說的藝術創造」, 吳義勤 主編 王永兵 編選,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下),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제 1판. p. 85.

위대한 추진자와 주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생활과 주변의 작은 일에 대한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 이런 전환으로 중국 백년 이래 심미 경향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었다.³⁵⁴⁾ 眞實과 虛構는 後新時期 때 작가들이 직면하는 二元論이다. 王安憶은 스스로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眞實과 虛構’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寫實은 이미 당시 主流가 되었다³⁵⁵⁾. 이것은 중국 新時期 문학이 시대의 수요에 따라 변화한 결과이다.

1987년에 池莉의 『煩惱人生』³⁵⁶⁾은 ‘新寫實’小說의 발단이 된 작품이다. 그 후에 方方的 『風景』³⁵⁷⁾이 발표됨에 따라 ‘新寫實’小說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작품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보통 사람의 생존 상황을 서술해 ‘新寫實’小說이 중국 문단에 우뚝 서는데 공헌했다.³⁵⁸⁾ 이 文學思潮는 先鋒小說³⁵⁹⁾이 푸대접을 당한 후에 작가들이 현실에 관심을 두면서 생긴 것이다. 『鐘山』은 1989년 제 2기에 ‘新寫實小說大連展·卷首語’에서 新寫實은 역사상의 현실주의와 다르고, 現代主義의 ‘先鋒派’文學과도 다르며, 근래 몇 년간 소설 창작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생긴 새로운 문학 경향이나, 여전히 사실의 서술은 주요한 특징이며, 특히 현실 생활의 최초 상태로의 환원이라고 했다.³⁶⁰⁾ 後新時期의 소설은 전통적인 창작 기법을 벗어나 서양 철학문화 思潮와 표현 기법을 대량 받아들이면서 現實主義 창작의 부족함을 보충했다. 1987년 이후 劉恒, 劉震雲, 方方, 池莉, 王安憶, 遲子建, 李曉, 葉兆言, 楊爭光 등 많은 청년 작가들이 새로

354) 金元浦·陶東風, 『闡釋中國的焦慮 — 轉型時代的文化讀解』, 中國國際廣播出版社(北京), 1999년, p. 17.

355) 金文兵, 「現實主義之旅與當代處境 — 兼論90年代小說的命名真相」, 『長城』(石家莊), p. 12.

356) 池莉, 『煩惱人生』, 『上海文學』(上海), 1987년, 제 8기.

357) 方方, 『風景』, 『當代作家』, 長江文藝出版社(武漢市), 1987년, 제5기.

358) 陶東風·和磊, 앞의 책, p. 252.

359) 어떤 학자는 先鋒小說의 주제를 2개의 단어로 개괄했는데 ‘人性’과 ‘生存’이다.

(吳義勤 著, 『中國當代新潮小說論』, 江蘇文藝出版社(南京), 1997년, p. 91. 재인용.)

360) 楊劍龍 主編, 앞의 책, pp. 274~275.

운 창작 기법을 선택하고, 舊現實主義의 창작 기법을 일신해 나갔다.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新寫實小說’이라고 한다. ‘新寫實主義’의 대표적인 작가는 劉恒과 劉震雲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작품에서 표현하자 하는 주제는 다른 ‘新寫實’小說의 작가들처럼 ‘五四’ 이래 人道主義 지향 위주의 한계를 타파한 인류학의 분야로 사람 生命意識의 과정이다. 자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의 생존방식을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 생명 경험과정의 상태로 들어갔다³⁶¹. ‘新寫實’은 전통적 현실주의와 비교해서 말한 것이다.

‘新寫實’소설은 객관적인 서술로 생활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현대 사회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서술하며, 중국 文壇에 현실적인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王蒙은 ‘新寫實’소설에 대한 종합적으로 개괄했는데 다음 7가지를 정리했다. (1)그들의 작품은 조용한 서술로 기울고 자기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론은 하지 않는다. (2)그들은 긍정 인물과 음성 인물의 二分法을 내버리고 작가는 자기의 소설 인물에 대한 시비곡직을 평가하지 않는다. (3)그들은 감정의 표출과 선정적인 것을 싫어하고 소설가의 시인 氣質을 싫어한다. (4)그들은 어려운 언어와 문장을 지나치게 꾸미는 것을 싫어하고, 사실 그대로 서술하며, 좋은 의미의 말(褒義語)과 부정 또는 혐오의 의미가 내포된 말(貶義語)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5)그들은 神聖과 崇高를 회피하고, 비웃은 태도로 모든 일을 대응하며, 崇高와 卑微의 구별하지 않는다. (6)그들은 대체로 위대한 인물(VIP)에 대한 묘사를 피하고, 대부분 地位와 使命이 없는 평범한 인물을 묘사한다. (7)그들은 집착을 반대하고, 어떤 소설의 主人公은 아예 자기는 이전 민족영웅과 혁명 先烈처럼 권세와 무력에 屈服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했다³⁶². 이런 개괄은 상당히 정확하다.

361) 丁凡等 著, 『中國鄉土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7년 1월, p. 276.

362) 王蒙, 「中國的先鋒小說與新寫實主義」, 『當代作家評論』, 1992년, 제6기. 陶東風·和磊, 앞의 책, p. 266. 재인용.

四. 小 結

後新時期에 들어와 政治權力이 약화되고 商業權力이 흥기하자 작가들은 바로 商業大衆文學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하여 순문학 탐색 혹은 세속의식의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 後新時期 文學은 특히 1992년도에 鄧小平 ‘南巡講話’ 이후, ‘모든 국민의 상업 활동[全民經商]’과 ‘공직을 나와 창업하는 것[下海]’의 열풍으로 文學도 시대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시대의 큰 흐름을 하나의 中心思想으로 삼았을 뿐 자아의 독립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문학은 전면적인 해체 단계로 들어가 文學思潮의 일관성을 상실되고 문학의 창작은 본격적으로 ‘百家爭鳴’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知青 작가 創作傾向의 變化와 社會環境의 대변동, 都市문학의 興起, ‘新寫實’小說의 興起 등으로 인하여 知青文學은 퇴조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Ⅵ. 결 론

암울과 비탄의 정서는 종종 곁으로 드리난 호방한 분위기를 압도하며, 작품 전체에 녹아 있다. 독자들은 심지어 이상주의와 영웅주의가 죽음과 비탄의 대명사라고까지 여기게 된다. 비극적 분위기는 鄉戀類 知靑小說에도 만연돼 있다. 知識靑年들은 천신만고 끝에 꿈에 그리던 고향을 찾았으나 너무도 오래 떨어져 있던 고향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都市에서 자신들의 位置를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지난 날 자신들이 생활했던 農村을 그리면서 미화하기 시작하지만, 農村은 단지 그들이 평범한 현재를 위해 만들어낸 아름다운 幻想일 뿐, 그들의 진정한 고향은 아니다. 이에 그들은 숙명적으로 정신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유랑자가 되어 미화와 그리움 속에서 위안을 찾고, 비애와 상처 속에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다. 앞의 세 분류의 문학과 비교해 볼 때, 反思類 知靑小說도 비애의 정서를 띠다고 할 수 있다. 고민에 빠지게 한 현실은 반성을 일으키는 토양이 되었다. 문혁이 끝나자 그 동안 주입되었던 이상과 믿음이 부정되고 과거의 자신 역시 부정되었다. 反思類 小說에는 彷徨과 失意, 懺悔의 고통이 가득하다. 고난의 호소, 英雄과 理想 뒤에 가려진 죽음, 아름다운 農村 이면의 낙담과 유랑, 反省에 수반되는 실의와 참회의 고통이 모여 新時期 知識靑年 소설 속에 흐르는 濃厚한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文革時期, 新時期 및 後新時期라는 세 시기의 小說은 분명한 時代的 特徵을 지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文革時期 小說들은 밝은 색채와 생동적인 스토리, 명확하고 풍부한 思想과 感情을 지닌다. 만약 이데올로기의 制約이 없었다면, 소설의 可讀性은 매우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이 시기 소설은

훗날 商業大衆文學 小說과 유사하게 사색과 상상의 공간이 결여된 일회적인 소설에 그치고 말았다. 文革新時期 일부 독자들은 예외지만, 당시 독자들 대부분은 이 시기 소설과 이데올로기를 동일시했다. 그들에게 독서는 이데올로기를 信奉하고 강화하는 의미가 있어 再讀이 가능했으나, 이후 시대 독자들에게는 그런 동력이 없었다. 또한 독자를 도구화하려던 당시 소설들은 다른 이데올로기의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리고 文革新時期 소설들은 高度의 類似性으로 인해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文革新時期 小說은 시대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해 歷史적으로 널리 읽히기가 어려웠다고 단언할 수 있다.

新時期 소설들이 다루는 모순과 막막함, 절박함은 사회 전환기의 심리상태와도 같아 그 속에 흐르는 생생한 분위기는 독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깊이가 결여되었다는 이 시기 소설들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동시대 독자들, 특히 知識青年 독자들이 유사한 경험과 비슷한 문화적 수준으로 인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후 시대의 독자들은 좋은 소재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지할 것이다. 소설에 드러난 절박함과 막막함, 그리고 모순은 개인적인 範圍에 국한되며, 인류 전체의 것은 아니다. 심지어 비록 그들이 세대 차원의 의식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감나면서도 깊이가 결여된 이런 소설들은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전환기를 살아가는 개인 심리에 대한 묘사는 될 수 있지만, 독자를 사색으로 이끌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도록 해 주는 고전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後新時期文學 가운데 일부 뛰어난 商業大衆文學 作品에는 흥미를 자극할 만한 훌륭한 要素와 娛樂性이 있어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휴식을 선사

하는 입을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깊이 있는 사색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입을거리에 그치고 만다. 대다수 後新時期 작가 主體들은 시대와 밀접하게 결부되었으나 독립적 비판 의식이 결여되었다. 商業大衆文學의 발달이 개인적 이익의 추구하고 연관된다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商業大衆文學 作家들이 쓴 작품들은 일회적 즐거움만을 주는 일종의 정신적 즉석식일 따름이다.

作家와 作品, 시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知青小說은 항상 시대 앞에서 소극적이었다. 시대에 대한 이들의 추종은 결국 시대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시대의 변천에 따른 작가로서의 생명은 시대적 분열을 겪었다고도 할 수 있다. 張抗抗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으나 梁曉聲, 王安憶, 葉辛은 바로 文革時代에 ‘組織化’된 작가들이다. 張抗抗이 新時期 이후 줄곧 知識青年들의 주체적 반성을 추구하는 知青小說을 쓴 것과는 반대로 이 세 작가는 반성적 작품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紅衛兵-민간투사-Jahriya(哲合忍耶)³⁶³의 대변인’이라는 思想的 계통을 유지하던 張承志와는 달리, 創作 路線에서 두 차례 커다란 전향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두 차례의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이 세 작가는 거의 知青小說 創作領域에 있어 주도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시대의 思想과 時代的 變化의 흐름에 순응하는 작품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363) 哲合忍耶, 系阿拉伯語詞 Jahariyah 的音譯, 亦譯‘哲合忍耶’、‘哲赫忍耶’、‘哲合林耶’、‘哲赫林耶’等, 是中國伊斯蘭教蘇菲派四大門宦(哲合忍耶、虎夫耶、尕德忍耶、庫布忍耶)之一, 漢語意譯爲‘公開的’、‘響亮的’、‘高念的’, 主張高聲誦念贊詞‘齊克爾’, 所以又稱‘高贊派’或‘高聲派’. 與傳統默念(虎夫耶)方法相對應, 被稱爲新派方法. 原爲中亞伊斯蘭教蘇菲派納什班迪耶教團的一个分支, 盛行中亞、南亞和北非一帶. 公元18世紀中葉傳入中國, 是中國伊斯蘭教蘇菲門宦中人數最多、傳播區域最廣、教權最爲集中的門宦之一. (張承志, 『心靈史』, 扉頁.)

그들의 創作過程을 종합해 보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자신이 신봉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 (文革時期는 政治權力의 의지, 新時期에는 고난·상처, 그리고 미화된 이상주의와 영웅주의, 後新時期는 순문학과 상업대중문학, 그리고 세속화)을 따라갔다. 다시 말해, 文革時期 政治權力이 한창일 때 그들은 조직화된 작가를 만들었고, 문혁시기의 정치권력이 무너질 때는 새로운 政治權力과 협력하여 知靑話語라는 새로운 權力을 만들어 내었다.

그들의 이러한 변화는 종종 이전의 시대를 빨리 지워버리고 순수한 新時代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들이 文革時代에 기만당하고 주체성 없는 인간이기는 했지만, 新時期에 와서는 진정한 반성과 비판 없이 文革時代의 조직화된 흔적과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린다. 新時期 초기에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고, 新時期 후기에 와서는 문화의 기반을 찾기 시작했다. 건전한 주체자로서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아주 빨리 포스트모더니즘에 휩쓸려 버렸다. 그래서 많은 작가의 작품들은 결코 뚜렷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갖지는 못했다. 그들의 知靑小說 창작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시대를 얼마나 두려워했고, 그 時代를 얼마나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獨立的 主體가 되지 못하는 역설적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어떤 때는 時代를 뛰어넘는 것이 쓰라린 아픔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어떤 때는 그것이 시대의 걸치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지하게 된다. 張抗抗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文革時期의 의식에 對抗하는 하나의 新時期의 의식적 형태를 통해, 文革時期의 반성과 비판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그의 태도는 文革時期에 조직화된 작가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梁曉聲, 王安憶, 葉辛 등과 같이 줄곧 知青小說의 창작을 견지해 온 작가들 입장에서 보자면, 작가는 시대의 창작자이자 주관자가 아닌 시대의 추종자인 셈이다. 하지만 시대가 작가를 지배한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바로 作家가 時代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能力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오직 한 時代의 主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作家들만이 그 時代를 풍미할 수 있는 것이다.

後新時期文學은 특히 1992년도에 鄧小平 ‘南巡講話’ 이후 ‘모든 국민의 상업 활동[全民經商]’과 ‘공직을 나와 창업하는 것[下海]’의 열풍으로 文學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 知青文學은 전면적인 해체 단계로 들어가면서 文學思潮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문학 창작은 본격적으로 ‘百家爭鳴’의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知青 작가 創作傾向의 變化, 社會環境의 대변동, 都市문학의 興起, ‘新寫實’소설의 興起 등으로 인하여 知青文學은 전면적으로 소멸되었다.

參考文獻

一、知青關聯 서적

1. [USA] Bernstein, Thomas P., Up to the Mountains and down to the Villages : The Transfer of Youth from Urban to Rural China.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美] 托馬斯·伯恩斯坦 著, 李 楓 等譯, 『上山下鄉』, 警官教育出版社(北京), 1993年
2. 高阜·嚴家其, 『文化大革命十年史: 1966-1976』, 天津人民出版社(天津), 1986年
3. 費 聲, 『熱血冷淚: 世紀回顧中的中國知青運動』, 成都出版社(成都), 1993年
4. 杜鴻林, 『風潮蕩落, 1955-1979: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史』, 海天出版社(深圳), 1993年
5. 劉小萌·定宜庄·史衛民·何嵐, 『中國知青事典』, 四川人民出版社(成都), 1995年
6. 史衛民 主編, 『知青書信選編』,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6年
7. 王鳴劍, 『上山下鄉: 一場決定3,000萬中國人命運的運動之謎』, 光明日報出版社(北京), 1998年
8. 王增如·李向東, 『上山下鄉: 中國1968』, 解放軍出版社(北京), 1999年
9. 姚新勇, 『主體的塑造與變遷: 中國知青文學新論(1977-1995年)』, 暨南大學出版社(廣州), 2000年
10. 楊 健, 『中國知青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北京), 2002年
11. 潘鳴嘯(Michel Bonnin) 著, 歐陽因(Annie Au-Yeung) 번역, 『失落的一代— 中國的上山下鄉運動· 1968~1980』,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北京), 2010년 1월

12. 定宜庄 著, 『中國知青史— 初瀾(一九五三~一九六八)』,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8년
13. 顧洪章 主編,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始末』, 中國檢察出版社(北京), 1997年
14. 顧洪章 主編,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人民日報出版社(北京), 1996年 6月·北京
15. 劉小萌 著, 『中國知青史: 大潮(1966~1980年)』,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8年
16. 許子東 著, 『爲了忘却的集體記憶— 解讀50篇文革小說』,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0年4月
17.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庫·文學卷』(下), 浙江教育出版社(杭州), 1999년 12월
18. 吳義勤 主編,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上),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19. 胡健玲 主編 陳振華 編選,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中),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20. 胡健玲 主編 陳振華 編選,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下),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21. 王鴻生 主編, 『中國現當代文學精品導讀』, 上海大學出版社(上海), 2006년 12월
22. 『中國勞動工資統計資料』, 中國統計出版社(北京), 1987年
23. 李盛平·張明澍 編, 『1976—1986十年政治大事記』, 光明日報出版社(北京), 1988年7月
24. 余樹森·牛運清 主編, 『中國當代文學作品辭典』, 北京大學出版社(北京), 1992年 10月出版
25. 『知青檔案(1962~1979)』, 四川文藝出版社(成都), 1992년 4월
26. 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黨史黨建政工教研室, 『“文化大革命”研究資料』

(上·下冊), 1988年 10月·北京

27. 秦亢宗 主編, 『中國小說辭典』, 北京出版社(北京), 1995年11月

28. 辭海編輯委員會編, 『辭海』(縮印本), 上海辭書出版社, 1999年 9月

二、중국당대문학 개론류

楊樹茂 著, 『新時期小說史稿』, 花城出版社(廣州), 1989年5月

金漢 馮云青 李新宇 主編, 『新編中國當代文學發展史』, 杭州大學出版社
(杭州), 1992年8月

金漢 著, 『中國當代小說藝術演變史』, 浙江大學出版社(杭州), 2000年4月

金漢 主編, 『中國當代文學作品評選』, 浙江大學出版社(杭州), 2001年1月

吳秀明 著, 『轉型時期的中國當代文學思潮』, 浙江大學出版社(杭州),
2001年3月

郭誌剛等 主編, 『中國當代文學初稿』(下冊),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99年5月

張志忠 主編, 『中國當代文學藝術主潮』,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4年1月

楊匡漢 孟繁華 主編, 『共和國文學50年』,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1999年8月

張炯 主編, 『新中國文學五十年』, 山東教育出版社(濟南), 1999年12月

張炯 主編, 『新中國話劇文學概觀』, 中國戲劇出版社(北京), 1990年出版

孔範今 主編, 『二十世紀中國文學史』(下), 山東文藝出版社(濟南), 1997年6月

黃修己 主編, 『20世紀中國文學史』(下), 中山大學出版社(廣州), 1998年8月

楊志今 劉新風 主編, 『新時期文壇風雲錄: 1978—1998年』(上·下), 吉林人
民出版社(吉林), 1999年 4月

陳平原 著, 『二十世紀中國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北京), 1997年 7月

張鐘 洪子誠 余樹森 趙祖謨 汪景壽 編著, 『當代中國文學概觀』, 北京大

- 學出版社(北京), 1999年 1月
- 洪子誠 著, 『中國當代文學史』,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0年 5月
- 陳傳才 著, 『中國20世紀后20年文學思潮』, 中國人民大學出版社(北京),
2001年 4月
- 朱水湧·李曉紅 著, 『中國現當代文學』, 科學出版社(北京), 2000年 9月
- 陳思和 王曉明 主編, 洪子誠 著, 『當代文學概說』, 廣西教育出版社(南寧),
2000年 7月
- 陳思和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 復旦大學出版社(上海), 2000年10月
- 陳思和 著, 『談虎談兔』, 廣西師範大學出版社(桂林), 2001年 6月
- 陳思和 楊揚 編, 『90年代批評文選』, 漢語大詞典出版社(上海), 2001年1月
- 何西來 著, 『新時期文學思潮論』, 江蘇文藝出版社(南京), 1985年 12月
- 陳 濤 主編, 『中國當代文學掃描』, 四川文藝出版社(成都), 1989年 7月
- 劉大楓 著, 『新時期文學本體論思潮研究』, 天津社會科學出版社(天津),
2000年 7月
- 張學正 著, 『現實主義文學在當代中國』, 南開大學出版社(天津), 1998年6月
- 劉錫慶 主編, 『生命如同那年夏天·傷痕小說』, 北京師範大學出版社(北京),
1992年7月
- 張衛中 著, 『新時期小說的流變與中國傳統文化』, 學林出版社(上海),
2000年12月
- 王鐵仙 等著, 『新時期文學二十年』, 上海教育出版社(上海), 2001年4月
- 王慶生 主編, 『中國當代文學』, 上海文藝出版社(上海), 1989年5月
- 魏緒玉 主編, 『新時期小說思潮流派論』, 百花文藝出版社(天津), 1992年
- 裴毅然 著, 『二十世紀中國文學人性史論』, 上海書店出版社(上海), 2000年9月
- 陶東風·和磊 著, 『中國新時期文學30年』(1978-2008), 中國社會科學出版
社(北京), 2008년 9월
- 黃偉宗 編著, 『當代中國文學』, 廣東旅遊出版社(廣州), 2001년 4월
- 丁凡 等著, 『中國鄉土小說史』,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7년 1월

陳思和 主編, 『中國當代文學史教程』(第2版), 復旦大學出版社(上海), 2008년 12월

陶東風·和磊 著, 『中國新時期文學30年』(1978-2008), 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

2008년 12월

姚新勇, 『主體的塑造與變遷——中國知青文學新論(1977~1995년)』, 暨南大學

出版社(廣州), 2000년 3월

王鴻生 主編, 『中國當代文學精品導讀』(第四卷), 上海大學出版社(上海), 2006년 12월

楊劍龍 主編, 錢虹 副主編, 『中國現當代文學簡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上海), 2006년 9월

董文學·金永兵 等著, 『中國當代文學理論(1978-2008)』, 北京大學出版社(北京),

2008년 10월

三、知青 소설류

侯樹槐, 『高山春水』, 『吉林文藝』(長春), 1972년 第1期

劉學道, 『豐收序曲』, 『四川文藝』(成都), 1973년 12월 總第9期

郭先紅, 『征途』,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3년 6월

張長弓, 『青春』, 內蒙古人民出版社(呼和浩特), 1973년 11월

邢鳳藻、劉品青, 『草原新牧民』, 天津人民出版社(天津), 1973년 11월

紀延華, 『雁鳴湖畔』, 吉林人民出版社(長春), 1973년 12월

余松巖, 『扎根』, 『廣東文藝』(廣東), 1976년 第3期

吳江, 『百柳河畔機聲揚』, 『廣西文藝』(南寧), 1974년 4월 号

聞雷, 『根深葉茂』, 『遼寧文藝』(瀋陽), 1974년 第6期

韋尙田, 『火紅的戰旗』, 『黑龍江文藝』(哈爾濱), 1974년 第6期

上海市屬國營農場三結合創作組, 『農場的春天』,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4년

汪雷, 『劍河浪』, 上海人民出版社(上海), 1974년 9월

陸星兒, 『牛角』, 『黑龍江文藝』(哈爾濱), 1975년 第3期

周衍, 『牝牛石』, 『青海文藝』(西寧), 1975년 第3期

楊小林,『決裂』,『寧夏文藝』(銀川),1975年第4期

張抗抗,『分界線』,上海人民出版社(上海),1975年

陸星兒,『楓葉殷紅』,『人民文學』(北京),1976年第1期

農村版圖書編選小組,『紅瓦——知識青年上山下鄉短篇小說集』,農村讀物出版社(北京),1976年1月

鐘虎·石冰,『鼓角相聞』,上海人民出版社(上海),1976年5月

宋振國,『茶山春』,安徽人民出版社(合肥),1976年8月

劉心武,『班主任』,『人民文學』(北京),1977年第11期

張 潔,『從森林里來的孩子』,『北京文藝』(北京),1978年第7期

盧新華,『傷痕』,『文匯報』(上海),1978年8月11日

宗 璞,『弦上的夢』,『人民文學』(北京),1978年第12期

鄭 義,『楓』,『文匯報』(上海),1979年 2月 11日

從維熙,『大牆下的紅玉蘭』,『收穫』(北京),1979年第2期

孔捷生,『在小河那邊』,『作品』(長春),1979年第3期

馮驥才,『鋪花的歧路』,『收穫』(上海),1979年第2期

陳世旭,『小鎮上的將軍』,『十月』(北京),1979年第3期

孔捷生,『在小河那邊』,『作品』(廣州),1979年 第3期

韓少功,『月蘭』,『人民文學』(北京),1979年第4期

金 河,『重逢』『上海文藝』(上海),1979年第4期

馮驥才,『啊!』,『收穫』(北京),1979年第6期

竹 林,『生活的路』,人民文學出版社(北京),1979年8月

甘鐵生,『聚會』,『北京文藝』(北京),1980年第2期

張賢亮,『邢老漢和狗的故事』,『朔方』(銀川),1980年第2期

王安憶,『廣闊天地的一角』,『收穫』(上海),1980年第4期

葉 辛,『蹉跎歲月』,『收穫』(上海),1980年第5、6期

張抗抗,『白罌粟』,『上海文學』(上海),1980年8期

韓少功,『西望茅草地』,『人民文學』(北京),1980年10期

張抗抗,『北極光』,『收獲』(上海),1981年第3期
王安憶,『本次列車終點』,『上海文學』(上海),1981年第10期
孔捷生,『南方的岸』,『十月』(北京),1982年第2期
梁曉聲,『這是一片神奇的土地』,『北方文學』(哈爾濱),1982年第8期
史鐵生,『我那遙遠的清平灣』,『青年文學』(北京),1983年第1期
梁曉聲,『今夜有暴風雪』,『青春』,1983年第1期
陸星兒,『達紫香悄悄地開了』,『收獲』(上海),1983年第4期
柯云路,『新星』,『當代』(北京),1984年增刊,第3期
孔捷生,『大林莽』,『十月』(北京),1984年第6期
阿 城,『棋王』,『上海文學』(上海),1984年第7期
張承志,『老橋』,北京十月文藝出版社(北京),1984年
阿 城,『樹王』,『中國作家』(北京),1985年第1期
阿 城,『孩子王』,『人民文學』(北京),1985年第2期
朱小平,『桑樹坪記事』,『鐘山』(南京),1985年第3期
史鐵生,『我的遙遠的清平灣』,北京十月文藝出版社(北京),1985年10月
阿 城,『棋王』,作家出版社(北京),1985年11月
史鐵生,『插隊的故事』,『鐘山』(南京),1986年第1期
鐵 凝,『麥秸垛』,『收獲』(上海),1986年第4期
陸天明,『桑那高地的太陽』,『當代』(北京),1986年第4期
張抗抗,『隱形伴侶』,『收獲』(上海),1986年第4、5期
梁曉聲,『一個紅衛兵的自白』(上篇),『海峽』,1987年第1期
梁曉聲,『一個紅衛兵的自白』(下篇),『海峽』,1987年第2期
老 鬼,『血色黃昏』,工人出版社出版,1987年6月
梁曉聲,『雪城』(下部)『十月』(北京),1988年第1、2、3期
郭小東,『中國知青部落』,花城出版社,1990年9月
葉 辛,『孽債』,『小說界』(上海),1991年第4、6期
鄧 賢,『中國知青夢』,人民文學出版社(北京),1993年4月北京

郭小東,『青年流放者』,中國工人出版社,1994年9月
趙維夷,『老插春秋』,華夏出版社(北京),1994年10月北京
梁曉聲,『年輪』,貴州人民出版社(貴陽),1994年11月
池 莉,『絕代佳人』,『大家』(昆明),1996年第1期
王小波,『黃金時代』,花城出版社(廣州),1997年5月

三、知青文學 연구논문(중국)

蔣守謙,「偉大的變革、豐碩的成果— 新時期的短篇小說」,
『社會科學戰線』(吉林),1984年 第3期
張 韜,「從崛起走向繁榮— 新時期的中篇小說」,
『社會科學戰線』(吉林),1984年 第3期
張 法,「傷痕文學:興起、演進、解構及其意義」,
『江漢論壇』(武漢),1998年 第9期
周明榮,「傷痕文學二十年記」,『東方藝術』(上海),1998年 第5期
陳廣思,「論新時期八年悲劇人物形象」,『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
版)(合肥),2000年 7月 第24卷 第4期
王如青,「新時期文學人物形象的變遷」,『渭南師專學報』(社會科學版)
(渭南市),1995年 第1期
彭禮賢,「論新時期之初文藝思想解放運動」,『吉安師專學報』(哲學社會
科學)(吉安),1994年 第1期
鄭升旭,「論新時期小說發展的趨勢」,『唐都學刊』(西安),1994年 第6期,
張 鐘,「當代文學的轉變」,『北京大學學報.哲學版』,1985年 第5期 p. 53.
黃偉宗,「新時期以來中國小說藝術的發展」,『當代文藝思潮』(蘭州),
1982年 第3期, p. 76.
李兆忠,「論馮驥才小說藝術特色」,『文藝理論研究』(上海),1986年, 第3期,

pp. 65~66.

- 唐 摯, 「殘虐靈魂的歷史見證— 略論馮驥才的中篇小說」, 『文學評論』(北京), 1981年 第2期, pp. 91~92.
- 胡德培, 「對照藝術的運用」— 馮驥才創作談,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1981年, 第161期, p. 90.
- 楊世偉, 「謳歌生命的壯美— 漫話馮驥才的小說創作」, 『鐘山』(南京), 1982年 第5期, p. 116.
- 牛玉秋, 「對小人物世界的超越— 讀陳世旭近作有感」, 『文藝理論家』(南昌), 1986年, 第4期, p. 59.
- 雷 達, 「民族靈魂的發現與重鑄— 新時期文學主潮論綱」, 『文學評論』(北京), 1987年 第1期, pp. 18~19.
- 盛 英, 「探索“非常時代”人們的心靈— 簡評馮驥才的小說創作」, 『人民日報』(北京), 1981年 3月18日, 第5版
- 季紅貞, 「文明與愚昧的衝突, 論新時期小說的基本主題」,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庫·文學卷』(下), 浙江教育出版社(杭州), 1999年12月
- 馬相武, 「現實主義文學在當代的發展」,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庫·文學卷』(下), 浙江教育出版社(杭州), 1999年12月
- 李書磊, 「歷史與未來的精神產兒, 論新時期的“青年文學體”」, 『中國人文社會科學博士碩士文庫·文學卷』(下), 浙江教育出版社(杭州), 1999年12月
- 孫瑞丹, 「宗璞小說創作漫論」, 『淮陰師專學報』(淮陰), 1982年 第3期, p. 23.
- 李子云, 「淨化人的心靈— 讀『宗璞小說散文選』」, 『讀書』, 1982年第1期, p. 35.
- 方克強·費振剛, 「邁在探索和創作新的路上一 宗璞短篇近作漫評」, 『鐘山』(南京), 1982年 第3期, p. 52.
- 李子云, 「女作家在當代文學史所起的先鋒作用」, 『當代作家評論』(沈陽), 1987年, 第6期, p. 5.
- 許文鬱, 「晶體— 清純與復雜交合的魅力— 張潔小說藝術瑣談」, 『當代作家評論』(沈陽), 1986年 第4期, p. 41.

- 馮 牧, 「打破精神枷鎖, 走上創作的康莊大道— 在『班主任』座談會上的發言」,
『文學評論』(北京), 1986年 第4期, p. 56.
- 何西來·蔡葵, 「藝術家的責任和勇氣— 從『班主任』談起」, 『文學評論』
(北京), 1978年 第5期(雙月刊), p. 66.
- 李忠昌, 「歷史的心靈與心靈的歷史— 論金河短篇小說的心理描寫藝術」,
『社會科學輯刊』(沈陽), 1986年 第6期, p. 80.
- 許振強, 「金河小說的社會心理向度」, 『小說評論』(西安), 1988年第5期,
pp. 25~26.
- 何西來, 「蚌病成珠— 論“傷痕文學”」, 『新時期文學思潮論』, 江蘇文
藝出版社(南京), 1985年 12月, pp. 91~92.
- 顧 驥, 「革命現實主義的藝術力— 讀從維熙的中篇小說」, 『十月』(北京),
1981年 第3期, p. 219.
- 王 斌, 「陳世旭小說漫談— 從『小鎮上的將軍』到『小說兩題』」, 『上海文學』(上海),
1985年, 第12期, p. 88.
- 朱水湧·盛子潮, 「新時期小說形態的演化及其走向」, 『福建文學』(福州),
1987年, 第9期, p. 71.
- 羅 蓀, 「我們需要中篇小說」, 『十 月』(北京), 1981年 第3期, p. 6.
- 王又平, 「論新時期文學的多元審美體系」, 『華中師範大學學報, 哲社版』(武漢),
1987年 第1期, p. 57.
- 季紅真, 「沉雄蒼涼的崇高感 論張承志小說的美學風格」, 『當代作家評論』(沈陽),
1984년 제 6기.
- 葉 虎, 「新時期‘知青小說’模式管窺」, 『池州師專學報』, 2000년 2월, 제 14권 제 1기.
- 王 源, 「新時期‘知青小說’主題的嬗變」, 『蘭州大學學報』(蘭州), 1997년, 제 1기.
- 董之林, 「知青題材的現代意蘊— 評中篇小說『流浪漢的神采』」, 『文論報』(石家莊),
1989년 1월 15일, 제 2판.
- 朱維妙, 「知青小說中的英雄主義再解讀」, 『安徽教育學院學報』(合肥), 2003년 9월,
제 21권 제 5기.

- 康長福, 「論知青文學的英雄主義精神」, 『齊魯學刊』(濟南), 2000년 제 6기.
- 賀紹俊, 「繞不開理想情結的知青小說」, 『南方文壇』, 總65期.
- 康長福, 「苦澀的鄉土記憶與溫暖的靈魂家園— 試論知青文學史的鄉村情結」,
『棗莊師專學報』, 2001년 12월, 제1 8권 제6기.
- 姚新勇, 『主體的塑造與變遷— 中國知青文學新論(1977-1995年)』, 暨南大學
出版社(廣州), 2000년, p. 5.
- 郭錦華, 「知青文學走向—『中國知青部落』三部曲創作批評綜述」, 『文藝理論與批評』(北京),
2003년 제 6기, p. 72.
- 劉建敏, 「論‘知青文學’的興盛與衰落」, 『西藏大學學報』(拉薩), 1997년 제 1기, p. 24.
- 黃偉宗, 「藝術的節制— 評孔捷生的‘第二步’, 兼論‘意識流」, 『廣州文藝』,
1981년 제 10기.
- 程德培, 「‘雯雯’的情緒天地— 讀王安憶的短篇近作」, 『上海文學』(上海), 1981년 7월호.
- 孟繁華, 「越過‘滿蓋荒原’後的沉思— 評梁曉聲的短篇小說『這是一片神奇的土地』」,
『電大文科園地』(北京市), 1983년 제 3기.
- 「評小說『傷痕』— 來稿摘登(十篇)」, 『文匯報』, 1978년 8월 22일 제4 판.
- 孫小淇, 「『傷痕』出了‘格’嗎?」, 『文匯報』, 1978년 8월 29일 제4판.
- 賀桂梅, 「新話語的誕生— 重讀」, 主編 胡健玲, 編選 陳振華, 『中國新時期小說
研究資料』(中),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p. 271.
- 劉鳳霞, 「試談小說『今夜有暴風雪』的主題」, 『中國現當代文學研究』(北京),
2008년 제5기, p. 58.
- 孫 旋, 「作家梁曉聲研究」, 『雲南社會科學』(昆明), 2005년 제 3기, p. 129.
- 曠新年, 「張承志, 魯迅之後的一位作家」, 『讀書』, 讀書雜誌社(北京), 2006년 제 11기.
- 郭小東, 「中國知青文學的另類書寫— 論非主流傾向的現狀表述」, 『海南師
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海口市), 2005년 제 3기, p. 43.
- 張先雲, 「知青文學的中現象寫主義潮流」, 『安徽師範大學學報』(蕪湖), 2009년 5월, p. 300.
- 李昕, 「歷史精神與當代意識的結合— 評『桑那高地的太陽』對知青題材小
說創作的突破」, 『文論報』(石家莊), 1987년 1월 1일, 제 2판.

- 周政保, 「太陽, 讓大地燃燒起來吧…… — 評長篇小說『桑那高地的太陽』」,
『當代作家評論』(沈陽), 1987년 제 1기, p. 102.
- 張志忠, 「沈淪中史昇華, 夢醒後自省— 讀長篇小說『桑那高地的太陽』和『雪城』」,
『人民日報』(北京), 1987년 2월 4일, 제 5판.
- 何鎮邦, 「西部開拓者的命運— 讀長篇小說『桑那高地的太陽』」, 『小說評論』(西安),
1987년 제 2기, p. 56.
- 劉保昌, 「小說文體在1985年及其以後」, 『求實學刊』(哈爾濱), 1998년 제 6기, pp. 66~67.
- 劉俊等編著, 『中國現當代文學研究導引』, 南京大學出版社(南京), 2006년 10월, p. 375.
- 劍平·曉凡, 「新時期中篇小說表現形態的研後視(之二)」, 胡健玲 主編 陳振華 編選,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中),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제 1판. pp. 243.
- 陳思和, 「時空的幻景 — 新時期小說的藝術蛻變側面研究」, 吳義勤 主編,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上),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제 1판. pp. 108~109.
- 陳思和, 「多元格局下的小說文體實驗— 以一九九七年幾部小說創作為例」, 吳義勤 主編,
『中國新時期小說研究資料』(上), 山東文藝出版社(濟南), 2006년 4월 제 1판. p. 263.
- 金偉大, 「自發·自覺·自爲(自然), 尋根文學的三重變奏曲 — 綜論韓少功文學‘尋根’
的歷時衍變」,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阜陽), 2012년 제 1기, p. 82.
- 金文兵, 「現實主義之旅與當代處境— 兼論90年代小說的命名真相」, 『長城』(石家莊), p. 12.
- 王蒙, 「中國的先鋒小說與新寫實主義」, 『小說評論』, 2002년 제 1기.

四、知靑文學 연구논문(한국)

- 현성진, 「傷痕文學에 나타난 現實과 소외, —短篇小說속의 中共農村現
實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中語中文科 碩士學位論文, 1986년.
- 김유정, 「중국 신시기 상흔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학교육
석사학위논문, 2008년.
- 류성준, 「문혁 이후 상흔 문학의 시와 소설」,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논총』
제 26집(2006년).

- 김진공, 「文化大革命 時期의 文藝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년.
 曹惠英, 「문화대혁명 시기의 ‘知青’ 체재 소설과 홍위병 시가에 관한 연구」,
 2003년 『한국현대문학』제26호.
 정인혜, 「중국 지식청년문학 연구, 지식청년문학(1953~)의 형성·전개·
 특징 및 의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년.

五、학술 간행물

-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 北京
 『文學遺產』, 中國社會科學院, 北京
 『文藝理論』, 中國人民大學, 北京
 『社會科學戰線』, 吉林
 『十月』, 北京
 『收獲』, 上海
 『當代文藝思潮』, 蘭州
 『文藝理論研究』, 上海
 『鐘山』, 南京
 『文藝理論家』, 南昌
 『文學評論』, 北京
 『當代作家評論』, 沈陽
 『小說評論』, 西安

A Study on Chinese Educated Youth Literature

HOU LIN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 Sheong-Shik)

【 中文提要 】

本論文以知青文學的長篇小說、中篇小說及短篇小說作為研究對象，主要探討知青文學的時代特徵，進一步分析知青文學發生、發展及解體的原因。

知青題材小說創作最大的特徵就是知青們寫關於自己的事情，作家與題材之間存在着密接的關係。知青文學一般來說由文革時期的知青小說、新時期的知青小說及後新時期的知青小說構成。知青文學的代表作家有梁曉聲、韓少功、張承志、史鐵生、葉辛等，代表作品有《今夜有暴風雪》、《北方的河》、《我遙遠的清平灣》、《這是一片神奇的土地》、《蹉跎歲月》等。

知青文學隨着時代的不同對知識青年的上山下鄉這一歷史事件的描述也表現出明顯的不同。文革時期的作品帶有明顯的時代特徵，由於受到政治權威的壓制，作家沒有多少創作的自由空間，內容形式也是大多配合當時政府所宣傳的上山下鄉運動。

進入新時期以後，特別是在十一屆三中全會之後，作家創作環境已經有了非常大的改觀。首先對文革給自己帶來的創傷進行描述，接着對這場史無前例的歷史運動進行反思。他們集中於自我美化和逃避責任，致使他們沒有更多的精力去審視時代并對此去做深刻的反省。

進入後新時期，政治權力進一步弱化，隨着市場經濟的全面展開，作家不能不順應時代的潮流而去創作符合市場需求的作品。後新時期文學特別是到了1992年鄧小平“南巡講話”以後，中國進入了“全民經商”的時代，許多人“下海”經商，有些知青作家也改行經商了，當然文學創作也只有順應時代的潮流了。文學追隨時代的急切暴露了主體的不自信，而他們追隨時代的結果使其失去了自己的獨立性，知青文學進入解體階段，知青文學這一文學思潮也失去了一貫性，文學創作也迎來了“百家爭鳴”的局面。

因此，知青作家創作傾向的變化、社會環境的大變動、都市文學的興起以及‘新寫實小說的興起等，致使知青題材的小說創作進入了低潮。

핵심어 : 知青文學, 知識青年(知青), 文化大革命, 上山下鄉, 新時期文學, 新時期文學, 傷痕文學, 反思文學, 尋根文學, 改革文學, 都市文學

【附錄】

中國 知青作家 소개

A:

阿城

阿城(1949~)，原名鐘阿城，出生在北京，籍貫為四川江津，中國當代作家。中學還未結束文革便開始，高一時學業中斷，下放山西插隊，并開始學畫。為到草原寫生，到內蒙古插隊，後去雲南建設兵團農場落戶。文革結束後，《世界圖書》破格錄用阿城為編輯，1979年回北京。

1984年發表處女作《棋王》，引發關注，并獲1984年福建《中短篇小說選刊》評選優秀作品獎和1983-1984年全國優秀中篇小說獎。《棋王》表現出阿城的哲學觀念：“普遍認為很苦的知青生活，在生活水準低下的貧民階層看來，也許是物質上昇了一級呢！另外就是普通人的‘英雄’行為常常是歷史的縮影。那些普通人在一種被迫的情況下，煥發出一定的光彩。之後，普通人又復歸為普通人，并且常常被自己有過的行為所驚嚇，因此，從個人來說，常常是從零開始，復歸為零，而歷史由此便進一步。”

此後發表小說集《棋王》，包括《棋王》，《樹王》，《孩子王》和六短篇小說《會餐》，《樹樁》，《周轉》，《臥鋪》，《傻子》，《迷路》。1985年發表理論文章《文化製約着人類》。1990年代後移居美國，繼續有作品發表。

王安憶說：“阿城是一個有清談風格的人。現在作家里面其實很少有清談風格的，生活很功用，但是他是有清談風格的，他就覺得人生最大的享受就是在一起吃吃東西，海闊天空地聊天。法國人也有清談風格。”

C:

陳世旭

陳世旭(1933~)，男，江西南昌市人。1964年初中畢業後下鄉務農，

1972年至1977年，在縣級宣傳部門和文化館從事新聞報道和群眾文化工作。1981年調江西省文學藝術研究所從事專業創作。1982年加入中國作家協會，1985年當選為中國作協理事。1979年開始從事文學創作，短篇小說《小鎮上的將軍》，《驚濤》分別榮獲1979年、1984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主要著作有短篇小說集《帶海風的螺殼》，《天鵝湖畔》等。

池莉

池莉(1957~)，當代著名女作家，湖北仙桃人，1957年生於湖北仙桃，中國作家協會會員。她的作品大部分體現了武漢的特色，她寫的人物大部分也和武漢特色有關，多部作品被改編成電影和電視劇，反響強烈。

1982年憑借《月兒好》故事委婉動人，文字如清風明月，有一種傳統的、鄉土的、質朴的美。小說發表後立即被《小說選刊》及國內多種文學選本選載，并被譯成英、法、日等文字介紹到國外。新作《生活秀》一問世，便同時被改編成電影和電視劇。電影《生活秀》獲得多項大獎，充分展現了池莉作品影視元素的獨特魅力和市場價值。池莉當今是國內知名的作家，她的成名作是中篇小說《煩惱人生》，此作被譽為是“新寫實小說”的代表作。池莉現為武漢市專業作家，她因一部中篇小說《來來往往》被改編為電視劇而紅遍國內，并緊接着創作了另一部中篇《小姐，你早》。獲全國優秀中篇小說獎，魯迅文學獎以及《人民文學》，《十月》，《當代》，《小說月報》，《大家》，《中篇小說選刊》等各種文學獎50余項。

2012年憑借中篇小說《她的城》獲得文學獎——“中國作家”鄂爾多斯文學獎，頒獎詞是：《她的城》以平民態度，講述了3個武漢女人在這座城市里的婚姻遭遇和生命成長歷程。簡約的故事設置中，凸顯了作者對生活細微之處的洞察與穿透，而飽含於人物情節敘述里的溫情，則體現了作者對於世俗生活的豐富性與多元性的理解和認同。

從維熙

從維熙(1933~)，男，祖籍河北玉田，生於遵化。1950年初中畢業後考

入北京師範學校。1953年畢業後先後任小學教師、《北京日報》社記者，1956年開始專業創作。1957年被錯劃為右派。此後在勞改農場、鑛山做工。1978年重返文壇，任中國作家協會北京分會專業作家，常務理事，中國作家協會理事。他的《大牆下的紅玉蘭》榮獲全國第一屆優秀中篇小說獎，是新時期“大牆文學”的代表作，其作品還有中篇小說《第十個彈孔》，《泥濘》，《遺落在海灘的脚印》，《遠去的白帆》，《風淚眼》，《雪落黃河靜無聲》等，散文小說集《七月雨》，短篇小說集《曙光昇起的早晨》，長篇小說《北國草》以及《從維熙小說選》等。

D:

鄧賢

鄧賢(1953~)，作家。以其知青的出身，和以知青為題材的創作，常被稱為“知青作家”。主要作品為長篇紀實文學《大國之魂》、《中國知青夢》、《落日》、《流浪金三角》、《中國知青終結》等。

1971-1978年，雲南省國營隴川農場插隊；1978-1982年，雲南大學中文系讀書獲學士學位；1982-1988年，雲南大學中文系任教、任助教、講師；1988年，四川教育學院中文系任教、任講師、副教授、教授。著有長篇紀實文學《大國之魂》1991年人民文學出版社，《中國知青夢》1993年人民文學出版社，《日落東方》載1995年第1期《當代》雜誌；長篇紀實文學《落日》等作品。

曾獲全國大眾電視金鷹獎，兩次全國報告文學獎，首屆徐遲文學獎，莊重文學獎，第二、三屆《人民文學》獎，《人民文學》特別獎，團中央、文化部等單位聯合頒發中國青年圖書優秀獎，《中國作家》大紅鷹杯文學獎，《當代》文學獎，四川文學獎，巴金文學獎，成都市政府金芙蓉文學獎等。部分作品譯成英、日等多種文字在國外出版。

F:

馮驥才

馮驥才(1942~)，男，祖籍浙江慈溪。1961年天津塘沽第一中學畢業後參加過天津市籃球隊，1974年調天津工藝美術工人大學任國畫教師。十年浩劫期間，歷盡磨難。1978年開始發表作品，創作極豐，已經出版了長篇小說《義和拳》(與李定興合作)，《神燈》，發表了中篇小說《鋪花的歧路》，《啊!》，《愛之上》，《霧中人》，《走進暴風雨》，《神鞭》，《感謝生活》，《三寸金蓮》，《陰陽八卦》等和短篇小說《雕花煙斗》，《意大利小提琴》，《高女人和她的矮丈夫》等，其中《雕花煙斗》獲1979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啊!》，《神鞭》分獲全國第一、第三屆優秀中篇小說獎。《感謝生活》，《三寸金蓮》獲《中篇小說選刊》優秀中篇小說獎。散文集《珍珠鳥》獲新時期全國優秀散文(集)獎。早期寫作感應時代傷痕、反思潮流，以人性的變異來揭示歷史、社會問題，帶有批判性的政治色彩。曾為中國作協理事、天津文聯副主席、天津作協副主席、第六屆、第七屆全國政協委員。他的作品體現出濃厚的“津味兒”，以嚴肅的思考和荒誕的形式揭示隱藏在普通人事背後的民族文化傳統。

G:

郭小東

郭小東(1951~)，男，潮陽人，漢族，廣東文藝批評家協會副主席、廣東作家協會主席團成員，廣東職業技術師範學院教授。主要從事中國現當代文學史的教學和研究，同時進行文學創作與評論。

主要著作有：理論專著《中國當代知青文學》，《逐出伊甸園的夏娃》，《諸神的合唱》，《轉型期文學風度》等；長篇小說《中國知青部落》，《青年流放者》，中篇小說集《雨天的曼陀羅》，散文集《南方的憂郁》等。80年代起郭小東同志率先提出了“知青文學”體系，在80初轉入關於心態小說的研究，隨後又提出“南方精神的再度崛起”，呼吁開掘、弘揚南方精神，引發文壇討論。近年，又倡首“新南方主義精神”，主張傳統意義的廣東文學。這些都為地方文學的發展和研究帶來了新的路向。

高曉聲

高曉聲(1928~1999年)，江蘇武進人。從小酷愛文學，受古典名著熏陶。中學時代因經濟原因曾三次中斷學業。1947年高中畢業，1948年考入上海法學院經濟系(1950年8月併入上海財經學院，即現在的上海財經大學)。1949年入蘇南新聞專科學校，次年畢業。先後在蘇南文聯、江蘇省文化局從事群眾文化工作，在《新華日報》文藝副刊任編輯。1951年發表小說《收田財》，接受文學家直接指導的創作訓練。1953年參加農村合作化運動，撰寫錫劇劇本《走上新路》(與葉至誠合作)并獲獎。1954年，以新的婚姻法為背景的小說《解約》(《文藝月報》1954年2期)引起文壇注意。1957年與方之、陸文夫、葉至誠等江蘇青年文藝工作者發起“探索者”文學社團，起草《“探索者”文學月刊啓事》。同年6月發表了把宣言具體化的探索小說《不幸》，受到批判，被劃成右派，遣送武進農村“勞動改造”。1962年又重新創作，“文革”期間在農村勞動。直到1979年4月，徹底甄別、平反，并於11月回江蘇省作家協會創作組重新從事文學創作。高曉聲曾任中國作家協會委員和理事，江蘇省作家協會副主席、創作組組長，是江蘇最早享受國家特殊津貼的作家之一。

1999年7月6日晨6時30分，高曉聲因患肺性腦病在無錫逝世，享年71歲。

50年代開始創作，已出版《李順大造屋》，《七九小說集》，《高曉聲八一小說集》，《陳奐生》，《覓》，《新娘沒有來》等小說集與長篇小說《青天在上》，《收田財》，《走上新路》，《解約》，《不幸》，《陳奐生上城》，《79小說集》，《高曉聲1980年短篇小說集》，《高曉聲1981年短篇小說集》，《高曉聲1982年短篇小說集》，《高曉聲1983年小說集》，《高曉聲1984年小說集》，《青天在上》，《陳奐生上城出國記》，《錢包》。

H:

韓少功

韓少功(1953~)，男，筆名少功、艸公等，湖南長沙市人。1968年中學畢業後到湖北汨羅縣插隊。1974年至1978年在汨羅縣文化館工作。1978年

考入湖南師範大學中文系，畢業後到湖南省總工會工作，任《主人翁》雜誌副主編、記者。1984調中國作協湖南分會工作，1988年到海南省文聯工作，主編《海南紀實》，曾為中國作家協會會員、理事。1974年開始發表作品，對傳統文化心理的反思和批判是其創作的一個基本主題，粉碎“四人幫”後，先後發表短篇小說《月蘭》，《西望茅草地》，《飛過藍天》分獲1978年、1980年、1981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他是1985年倡導“尋根文學”主將，發表《文學的根》（《作家》1985年4期）提出“尋根”的口號，并以自己的創作實踐了這一主張。比較著名的有《爸爸》，《女女女》等，表現了向民族歷史文化深層汲取力量的趨向，包含深邃的哲學意蘊，在文壇產生很大影響。現有小說作品集《月蘭》，《誘惑》，《飛過藍天》等，曾被英國歐羅巴出版社編寫的《國際名人錄》列為國際名人。

韓 東

韓東(1961～)，男，漢族，南京人。1985年組織“他們文學社”，曾主編《他們》1-5期，被認為是“第三代詩歌”的最主要的代表，形成了對第三代詩群產生重要影響的他們詩群。他們詩群的詩人認為“詩到語言為止”，強調口語寫作的重要性，他們的作品對中國現代詩歌的發展產生了積極的促進作用。

韓東著有小說集《西天上》，《我的柏拉圖》，《我們的身體》，《知青變形記》，長篇小說《扎根》，《我和你》，詩集《吉祥的老虎》，《爸爸在天上看我》，詩文集《交叉跑動》，散文《愛情力學》，訪談錄《毛焰訪談錄》等。其作品被譯成多種文字。

J:

賈平凹

賈平凹(1952～)，陝西作協主席，中國書協會員，當代著名作家。現為中國作家協會主席團委員、陝西省作家協會主席、西安市文聯主席、西安建築科技大學文學院院長、《美文》雜誌主編，中國海洋大學駐校作家等。賈平凹是我國當代文壇屈指可數的文學大家和文學奇才，是一位當代中國最具叛逆性、最富創

造精神和廣泛影響的具有世界意義的作家，也是當代中國可以進入中國和世界文學史冊的為數不多的著名文學家之一，被譽為“鬼才”，曾多次獲文學大獎。《滿月兒》1978年獲全國優秀短篇小說獎，《腊月·正月》1984年獲中國作協第三屆全國優秀中篇小說獎，《浮躁》1987年獲美國美孚飛馬文學獎，《愛的踪跡》1989年獲第一屆全國優秀散文(集)獎，《廢都》1997年獲法國費米娜外國文學獎，《賈平凹長篇散文精選》2005年獲第三屆魯迅文學獎、第四屆華語文學傳媒大獎，《秦腔》2006年獲“紅樓夢獎 世界華文長篇小說獎” 2008年獲第七屆茅盾文學獎，《古爐》2011年獲施耐庵文學獎，《月迹》第二屆朱自清散文獎。

蔣子龍

蔣子龍(1941~)，河北滄縣人。1962年畢業於海軍製圖學校。1960年應征入伍。歷任海軍184部隊製圖組組長，天津重型機械廠車間主任，天津市作協專業作家、作協主席，編審。天津市政協常委，中國作協第三屆理事、第四屆主席團委員及第五、六、七屆副主席。1962年開始發表作品。1979年發表《喬廠長上任記》，揭示了新時期經濟改革中的種種矛盾，剖析了不同人物的複雜的靈魂，塑造了一位敢於向不正之風挑戰、勇於承擔革命重任，具有開拓精神的改革者的形象。作品較早地把注意力由揭露四人幫造成的創傷轉向社會現實，表達了當時人民渴望變革的迫切要求，因而獲得贊譽。

1981年加入中國作家協會。著有長篇小說《蛇神》，《子午流注》，《人氣》，《空洞》，中篇小說《鍋碗瓢盆交響曲》，短篇小說《三個起重工》，《蔣子龍選集》(3卷)，《蔣子龍文集》(8卷)等。短篇小說《喬廠長上任記》、《一個工廠秘書的日記》及《拜年》分獲1979、1980、1982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中篇小說《開拓者》，《赤橙黃綠青藍紫》及《燕趙悲歌》分獲1980、1982、1984年全國優秀中篇小說獎。

真正的内容來自於生活的體悟、觀察、糅合。他坦言，長篇寫作要找源頭，靠采訪和積累。他的積累方式是“永遠都在觀察”，他幽默地說：“連頭發梢和腳後跟都在觀察。”他的潛心積累是隨時隨地的，想到某些閃現靈感的轉瞬即逝的事情就立刻尋找紙筆記下來，他認為記錄可以加深記憶。

金河

金河(1943~)，男，原名徐鴻章。出生於內蒙古敖漢旗南部山區農村，1963年考入內蒙古大學中文系。1968年入伍。1971年分配到赤峰市做新聞報道工作。1975年調赤峰市醫院擔任領導工作。1978年調中國作家協會遼寧分會從事專業創作。1980年加入中國作家協會。1972年開始發表短篇小說。1979年《重逢》獲全國優秀短篇小說獎。《歷史之章》獲1977-1980年全國優秀報告文學獎，《不僅僅是留戀》獲1982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此外還發表過《畢竟是春天》，《帶血的眼睛》，《打魚的和釣魚的》，《白色的誘惑》，《貓眼兒》，《市委大院的門柱》，《神童》等短篇小說。

K:

孔捷生

孔捷生(1952~)廣東南海人。中國作家協會會員。中國傷痕文學新銳。香港《蘋果日報》專欄作家。

短篇小說小說集《追求》(1980, 廣州人民出版社), 小說集《普通女工》(1984, 上海文藝出版社), 中篇小說《南方的岸》(1983, 北京出版社)描寫了幾個知青經過動亂歲月的不幸後, 重新認識自身的價值。小說集《大林莽》(1985年5月, 花城出版社(廣州)), 敘述海南生產建設兵團5名知青奉命進入莽莽林海勘察的歷史悲劇。作品以沈重的感情, 揭示了這些知青的虔誠、狂熱以及精神上痛苦的裂變, 給那個動亂年代留下了血的印記。

他的創作多以知識青年生活為題材, 引起社會的關注。短篇小說《姻緣》獲1978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處女作短篇小說《因為有了她》獲1979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中短篇小說集《普通女工》獲1981-1982年全國優秀中篇小說獎。

柯云路

柯云路(1946~)，男，當代知名作家。在文學領域，著有長篇小說二十餘

部，其中有《大氣功師》《發現黃帝內經》等，這些作品擁有廣大讀者，並多次引起轟動，其《發現黃帝內經》更是一手將一個殺人犯胡萬林打造成一個“再世華佗”，為胡萬林的行騙提供了不少便利。在文學以外，作者廣泛涉獵哲學、心理學、生命科學、東方文化、性學等學科，著有文化人類學專著《人類時間》，歷史研究專著《極端十年》，心理學專著《焦慮症患者》，《破譯命運密碼》，教育學著作《情商啟蒙》，《中國孩子成功法》，《今天我們怎樣做父母》，《天才少年的十二把金鑰匙》，婚戀研究專著《今天我們為什麼結婚》，《婚戀潛規則》，《愛情真相》，《婚姻真相》等，皆受到讀者歡迎。

他特別關注當代人的生存境況，以博客為平臺，與網友廣泛交流心理健康、職場減壓、婚姻戀愛等問題。其總結的《大愛健身法》簡便有效，新近更在網友中廣為流傳，成為人們競相轉送的“健康禮物”。《走出心靈的地獄》，《破譯疾病密碼》與《工作禪二十四式》是作者關注當代人身心健康與人生智慧的代表性作品。

L:

梁曉聲

梁曉聲(1949~)，原名梁紹生，出生於黑龍江哈爾濱市，祖籍山東榮城市泊於鎮溫泉寨。現居北京，任教於北京語言大學人文學院中文系。漢族。漢語文學專業。曾創作出版過大量有影響的小說、散文、隨筆及影視作品。中國現當代以青春文學成名的代表作家之一。

當過知青，1968年下鄉赴黑龍江生產建設兵團。1974年入上海復旦大學中文系，1977年畢業後分配至北京電影製片廠。1988年調至中國兒童電影製片廠任藝術廠長。2002年調至北京語言大學，任人文學院教授。1979年開始發表作品，著有短篇小說集《天若有情》，《白樺樹皮燈罩》，《死神》，中篇小說集《人間煙火》，長篇小說《浮城》，《一個紅衛兵的自白》，《從復旦到北影》，《雪城》等。發表有長篇小說《生非》，其短篇小說《這是一片神奇的土地》《父親》，及中篇小說《今夜有暴風雪》分獲全國優秀小說獎。文章《慈母情深》（《母親》的節選）被選入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語文五年級下冊第18課。現任教於北京語言大學人文學院，中國作家協會會員。2012年6月被聘任為中央文史研究館館

員。

著有短篇小說集《年輪》等。小說《這是一片神奇的土地》，《父親》，《今夜有暴風雪》分獲全國優秀小說獎。小說《爲了收獲》，《學者之死》，《一只風箏的一生》，《雙琴祭》分獲《小說月報》百花獎。

劉心武

劉心武(1942~)，男，生於四川成都。1950年隨父親來京，1961年畢業於北京師範專科學校，做過教師、編輯工作，曾任《人民文學》常務副主編、主編等職。1958年開始文學創作，1977年發表的《班主任》獲1978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其他代表作有短篇小說《我愛每一片綠葉》，《醒來吧，弟弟》，《黑牆》；中篇小說《如意》，《立體交叉橋》；記實小說《5·19長鏡頭》，《公共汽車詠嘆調》等，長篇小說《鐘鼓樓》獲第三屆矛盾文學獎。

老鬼(馬波)

老鬼(1947~)，真名馬波，是一位中國當代作家。他生於河北省阜平縣，其母親是作家楊沫。他曾先後就讀於北京師大一附中和北京47中。1968年被分配去內蒙古錫林郭勒盟西烏旗插隊，1970年被打成反革命，被迫接受勞動改造。1975年得到平反，1977年老三屆考入北京大學中文系新聞專業。1982年畢業後，先後在文化藝術出版社任編輯，後調入法製日報社。1990-1995年在美國布朗大學英語系寫作中心做訪問學者。

他的第一部作品小說《血色黃昏》是以自己和其他知青的經歷爲素材，被認爲是文革後傷痕文學的代表作之一。《血與鐵》(1998年)，回憶錄《母親楊沫》(2005年)。

李國文

李國文(1930~)，中國作家協會專業作家。1949年畢業於南京戲劇專科學校理論編劇專業。中國作家協會第四屆理事。長篇代表作《冬天里的春天》，《花園街五號》等是任何一部當代文學教科書都不可忽略的。中短篇也很多，也很好，也很能得獎。凡中國當代文學所設的各類獎項，如茅盾文學獎、魯迅文學

獎、優秀短篇小說獎、華人傳媒文學獎等，一路得來，如拾草芥。李國文雖是半路出家寫雜文隨筆，不數年就在“歷史大散文”這個行當里獨樹一幟，儼然成一大家了。

1986年調到中國作家協會，擔任《小說選刊》主編，至1989年底該刊停刊。現為中國作家協會專業作家。著作還有隨筆散文集：《罵人的藝術》，《淡之美》，《大雅村言》，《樓外談紅》，《中國文人的非正常死亡》，《中國文人的活法》，《唐朝的天空》等，并著有《評點《三國演義》》，《莎士比亞傳》等書。作品多次獲國家級大獎。長篇小說《冬天里的春天》獲首屆茅盾文學獎，《大雅村言》獲第二屆魯迅文學獎。《月食》，《危樓紀事之一》分別獲全國第三、四屆優秀短篇小說獎。

盧新華

盧新華(1954～)，男，江蘇南通人，1968年初中畢業於山東長島中學，文革期間回原籍插隊勞動，1973年參軍，1977年復員後到江蘇南通農機廠當工人。粉碎“四人幫”後考入上海復旦大學中文系，《傷痕》是他讀大學期間的習作，1978年8月11日發表在《文匯報》，獲本年度優秀短篇小說獎，1981年畢業後，在《文匯報》社工作。

陸天明

陸天明(1943～)，男，祖籍江蘇南通，生於昆明，長在上海。兩次上山下鄉，曾在安徽農村當過農民、小學教師，又到新疆生產建設兵團當過農工、武裝連代理指導員、師軍務科參謀、農場機關幹部，後奉調北京，長期供職於中央電視臺電視劇製作中心。中國作協第五屆全委會委員，第六、七屆主席團委員。國家一級編劇。享受政府特殊津貼。1957年開始發表作品。1984年加入中國作家協會。主要作品有長篇小說《桑那高地的太陽》，《泥日》，《木凸》，《蒼天在上》，《大雪無痕》，《省委書記》，《黑雀群》，《高緯度戰栗》，中篇小說集《啊，野麻花》，電影劇本《走出地平線》，話劇劇本《揚帆萬里》，《第十七棵黑楊》，電視劇劇本《華羅庚》，《上將許世友》，《閻寶航》，《凍土帶》等，與小說同期創作的同名長篇電視連續劇《蒼天在上》，《大雪無痕》，《省委書記》播出後，

均在國內外引起強烈反響。長篇小說《大雪無痕》獲國家圖書獎。本人曾獲中國百佳電視藝術工作者、全國最佳編劇稱號，並在2003年獲中國電視藝術家協會頒發的金鷹突出成就獎。

主要作品有：《桑那高地的太陽》，《泥日》，《木凸》，《蒼天在上》，《大雪無痕》，《省委書記》，《黑雀群》。《省委書記》是著名作家陸天明繼《蒼天在上》，《大雪無痕》後又一部史詩般的現實主義巨著。

陸星兒

陸星兒(1949~2004)是中國著名的女作家。祖籍江蘇海門，1949年11月生於上海。中國作家協會會員，江蘇省作協會員，1968年前在上海新成中學，向明中學讀書；1968年上山下鄉到北大荒，在北大荒黑龍江生產建設兵團第二師第十一團（即軍川農場）參加工作，整整十年；後歷任北京中國兒童藝術劇院、上海作家協會專業作家，文學創作一級。1974年開始發表作品；1978年考入中央戲劇學院戲劇文學系；1982年始任中國兒童藝術劇院編劇；1983年加入中國作家協會，現為上海作協專業作家，《海上文壇》執行副主編。已創作出版長篇小說4部，中短篇小說集10部、散文集8部。她創作的長篇連續劇《我兒我女》獲“全國優秀劇本獎”，小說《在同一片屋頂下》獲“上海文學獎”，小說《今天沒有太陽》獲“十月文學獎”。2004年9月17日因胃癌晚期去世。

中國第六代導演陸川之姑媽。國家一級編劇陸天明之姊妹。

主要作品有長篇小說《留給世紀的吻》，《精神科醫生》，《我兒我女》，中篇小說《啊，青島》，《天生是個女人》，《一個女人的一臺戲》，以及《女人的規則》，《女人的出頭之日》，《生是真實的》，《激情歲月—郎平自傳》，《女足九號》等。

M：

馬原

馬原(1953~)，男，出生於遼寧錦州，現任同濟大學中文系教授，當過農民、鉗工。一九八二年遼寧大學中文系畢業後進西藏，任記者，編輯。一九八二

年開始發表作品，著有《岡底斯的誘惑》、《西海的無帆船》、《虛構》等。當代知名作家，曾是先鋒派的開拓者之一，其著名的“敘述圈套”開創了中國小說界“以形式為內容”的風氣，影響了一大批年輕作者。

主要作品有短篇小說《拉薩河女神》，《疊紙鷓的三種方法》，《拉薩生活的三種時間》，《上下都很平坦》，《希瑪拉雅古歌》，《塗滿古怪圖案的牆壁》等；中篇小說《岡底斯的誘惑》，《虛構》，《游神》，《舊死》等；長篇小說《上下都很平坦》，《牛鬼蛇神》，《糾纏》以及劇本《過了一百年》等。

莫應豐

莫應豐(1938~1989)當代著名作家。湖南益陽(今屬桃江)人。1956年入湖北藝術學院音樂系學習，1961年參軍，在廣州軍區空軍文工團從事音樂和劇本創作。1970年從部隊轉業到湖南長沙市群眾文藝工作室工作，任文學創作組組長。1978年調至湖南瀟湘電影製片廠任編劇。1972年起開始文學創作，主要作品有長篇小說《小兵闖大山》，《風》，《將軍吟》，《美神》等長篇，系列小說《迷糊外傳》及中短篇小說集《鹿山之迷》等；其中《將軍吟》是其代表作品，獲首屆茅盾文學獎。1984年後，他致力於探索“人性”的奧秘，主要作品有《桃源夢》，中短篇小說《山高林密處》，《駝背的竹鄉》，《死河的奇跡》，《黑洞》，《重圍》等。《將軍吟》獲全國首屆茅盾文學獎。1989年2月不幸英年早逝。曾任湖南省文聯副主席、省作協副主席，中國作家協會理事。

我在思考一個嚴肅的問題，就是作家的職責到底是什么。作家對於時代，應該是一面鏡子；作家對於讀者，應該是一個良友；作家對於妖孽，應該是一把尖刀；作家對於明天，應該是一只雄鷄。

S:

水運憲

水運憲(1948~)，1948年5月5日生於湖南省常德市，祖籍湖北武漢，1965年參加工作，在常德電機總廠當工人，長期堅持業餘創作。1979年調湖南廣播電視藝術團從事專業創作。1982年畢業於中央戲劇學院戲劇文學系，

1987年武漢大學中文系畢業。1985年調湖南作家協會任專業作家。

1983年加入中國作家協會，一級作家；現為中國作家協會會員、中國戲劇家協會會員、湖南作家協會理事、副主席兼湖南省政協常委；1979年開始創作，著有長篇小說、中篇小說、散文、報告文學、電影劇本等；主要作品有《禍起蕭牆》，《烏龍山剿匪記》，《天不藏姦》等。中篇小說《雷暴》獲《當代》文學獎；1989年出版長篇小說《莊園的欲望》，1990年11月，創作出版了長篇報告文學《股票，叩擊中國大門》。近年創作的電視連續劇《天不藏姦》獲全國最佳收視獎。品八百餘萬字；由於創作成績突出，曾多次獲省委、省政府獎勵。

史鐵生

史鐵生(1951~2010)，原籍河北涿縣，1951年出生於北京。1967年畢業於清華大學附屬中學，1969年去延安一帶插隊。因雙腿癱瘓於1972年回到北京。後來又患腎病并發展到尿毒症，需要靠透析維持生命。曾自稱說“職業是生病，業餘在寫作”。史鐵生創作的散文《我與地壇》激勵了無數人。2002年獲華語文學傳媒大獎年度杰出成就獎。曾任中國作家協會全國委員會委員，北京作家協會副主席，中國殘疾人協會評議委員會委員。

小說《我的遙遠的清平灣》、1984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作品風格清新，溫馨，富有哲理和幽默感，在表現方法上追求現實主義和象征手法的結合，在真實反映生活的基礎上注意吸收現代小說的表現技巧，從成名作《我的遙遠的清平灣》到《插隊的故事》，作品從內容到形式技巧都顯出異乎尋常平淡而拙朴，屬意蘊深沈的“散文化”作品。1996年11月，短篇小說《老屋小記》獲得《東海》文學月刊“三十萬東海文學巨獎”金獎。

史鐵生著有短篇小說《午餐半小時》，《我們的角落》，《我的遙遠的清平灣》《奶奶的星星》，《命若琴弦》，《第一人稱》，《別人》，《老屋小記》；中篇小說《關於詹牧師的報告文學》，《插隊的故事》，《禮拜日》，《原罪·宿命》，《一個謎語的幾種簡單的猜法》，《小說三篇》，《中篇1或短篇4》等；散文《好運設計》，《我與地壇》，《墻下短記》，《足球內外》；長篇小說《務虛筆記》，

《我的丁一之旅》。曾先後獲全國優秀短篇小說獎、魯迅文學獎，以及多種全國文學刊物獎。

T:

鐵凝

鐵凝(1957~)，姓屈，女，漢族，北京市人，籍貫河北省趙縣，高中學歷，中共黨員，著名作家，河北省作家協會名譽主席，2006年當選中國作家協會主席。中國共產黨第17屆中央候補委員、第18屆中央委員。

1984年成爲河北省文聯專業作家，1986年出任河北省文聯副主席，1996年開始擔任河北省作協主席，2006年11月出任中國作家協會主席、河北省作協名譽主席，中共十六屆、十七屆中央候補委員，十八屆中央委員。籍貫河北省趙縣，生於北京，四歲回保定。父爲油畫及水彩畫家，畢業於中央戲劇學院；母親是聲樂教授，畢業於天津音樂學院。鐵凝爲長女。人稱文壇“美女作家”，也有人稱她是“女性主義”作家。

1975年開始發表文學作品，主要著作有長篇小說《玫瑰門》、《大浴女》、《笨花》等4部，中、短篇小說《哦，香雪》，《第十二夜》，《沒有鈕扣的紅襯衫》，《對面》，《永遠有多遠》，《一千張糖紙》等100余篇、部，以及散文、隨筆等共400余萬字，結集出版小說、散文集50余種。1996年出版5卷本《鐵凝文集》，2007年人民文學出版社出版9卷本《鐵凝作品系列》。作品曾6次獲包括“魯迅文學獎”在內的國家級文學獎；另有小說、散文獲中國各大文學期刊獎30余項。由鐵凝編劇的電影《哦，香雪》獲第41屆柏林國際電影節大獎，以及中國電影“金鷄獎”“百花獎”。部分作品已譯成英、俄、德、法、日、韓、西班牙、丹麥、挪威、越南等多國文字。

早期作品描寫生活中普通的人與事，特別是細膩地描寫人物的內心，從中反映人們的理想與追求，矛盾與痛苦，語言柔婉清新。1986年和1988年先後發表反省古老歷史文化、關注女性生存的兩部中篇小說《麥秸垛》和《棉花垛》，標志着鐵凝步入一個新的文學創作時期。1988年還寫成第一部長篇小說《玫瑰門》，它一改鐵凝以往那和諧理想的詩意境界，透過幾代女人生存競爭間的較量

廝殺，徹底撕開了生活中丑陋和血污的一面。

W:

王蒙

王蒙(1934~)，男，曾用筆名陽雨，原籍河北南皮，出生於北京。1940年入北京師範學校附屬小學。50年代後擔任青年團幹部，並開始文學創作，1953年着手寫長篇處女作《青春萬歲》，並於1956年9月定稿，但因“反右鬥爭”受影響，直到20多年後才得以出版。1955年發表第一篇小說《小豆兒》，1956年以一篇“干預生活”的作品《組織部新來的年輕人》而引起轟動，1957年因這篇小說獲罪被劃右派。1962年曾到北京師範大學任教，同年發表了《眼睛》，《夜雨》等小說。1963年赴新疆思想改造，1978年調回作協北京分會，重新發表小說，1979年平反。1983至1986年任《人民文學》主編。1986年當選中共中央委員，任中國作協副主席、書記處書記，同年6月任文化部部長，1990年卸任。文革後撰寫了大量作品，出版小說集《深的湖》，《冬雨》，《木箱深處的紫綢花服》，《在伊犁》，《星球奇遇記》，《我又遇見你》，《堅硬的稀粥》等，長篇小說《青春萬歲》，《活動變形人》，《戀愛的季節》，《失態的季節》，《躊躇的季節》等，評論集《漫話小說創作》及《王蒙、王干談話錄》，《紅樓啓示錄》等。其中《最寶貴的》，《悠悠寸草心》，《春之聲》，《蝴蝶》，《相見時難》等先後獲全國優秀短、中篇小說獎。有廣泛的國際聲譽，曾獲得意大利的蒙德羅文學獎和日本創作學會的“和平文化獎”等。他的創作一直求變求新，經常領風氣之先。

王安憶

王安憶(1954~)，女，祖籍福建同安，生於南京，次年隨母親著名作家茹志鵬遷至上海讀小學，初中畢業後1970年赴安徽省蚌埠市五河縣農村插隊，1972年考入徐州文工團工作，1978年回上海，任《兒童時代》編輯。1978年發表處女作短篇小說《平原上》，1986年應邀訪美。1987年進上海市作家

協會專業創作至今。現為上海市作家協會主席，上海復旦大學教授。被視為“文化大革命”結束之後，自1980年代中期起盛行於中國文壇的“知青文學”、“尋根文學”等文學創作類型的代表性作家。本人於文化大革命期間曾在安徽插隊落戶，故對於安徽有深厚感情，並將農村情節融入作品。王安憶的文學作品摒棄現實功利性雜質，將人置於廣袤的時空背景中，在人類意義層面展示人的價值內涵，使價值求索具有了終極追尋的意。

王安憶母親是作家茹志鵬，父親也是作家王嘯平。王安憶一歲多便隨父母到上海定居，在那里接受最初的教育，讀小學時經常參加區、市的兒歌寫作比賽，對文學產生了很深的感情。1969年初中畢業，翌年赴安徽五河縣頭鋪公社大劉庄大隊插隊勞動，被選為縣、地區和省級積極分子。1972年考入徐州地區文工團，並參加一些創作活動。1976年在《江蘇文藝》上發表散文處女作《向前進》。兩年後到上海《兒童時代》雜誌社任小說編輯，不久發表小說成名作《誰是未來的中隊長》和《雨，沙沙沙》。1980年參加中國作家協會第五期文學講習所學習。曾於1983年參加美國愛荷華大學‘國際寫作計劃’文學活動。之後，曾任上海作家協會理事與中國作家協會第四屆理事會理事。她的履歷表雖然很短，却被生活浸泡得實實在在，成為一個真正豐富的人生。

王安憶的主要著作有：《雨，沙沙沙》，《王安憶中短篇小說集》，《流逝》，《小鮑庄》，《小城之戀》、《錦銹谷之戀》、《米妮》等小說集，及長篇小說《69屆初中生》、《黃河故道人》、《流水三十章》、《紀實和虛構》、《長恨歌》、《富萍》、《上種紅菱下種藕》、《桃之夭夭》、《遍地梟雄》等，散文集《蒲公英》、《母女漫遊美利堅》（與茹志鵬合著）等，兒童文學作品集《黑黑白白》等，論著《心靈世界——安憶小說講稿》等，《我們家的男子漢》一文入選蘇教版七年級下冊語文書。

王小波

王小波(1952~1997)，男。漢族。當代著名學者、作家。他的“時代三部曲”是由三部作品組成，分別是《黃金時代》、《白銀時代》和《青銅時代》。在整個三部曲系列中，他以喜劇精神和幽默風格述說人類生存狀況的荒謬故事，並

透過故事描寫權力對創造欲望和人性需求的扭曲及壓製。至於故事背景則是跨越各種年代，展示中國知識分子的命運。被譽為中國的喬伊斯兼卡夫卡。他的唯一一部電影劇本《東宮西宮》獲阿根廷國際電影節最佳編劇獎，並且入圍1997年的戛納國際電影節。

其成名作《黃金時代》，文學界的評譽甚高，中國社會科學出版社副編輯白樺更說：“《黃金時代》把以前所有寫性小說全槍斃了！”他的小說其實一直不大被出版社接受，也是因為文章中的性描寫。其實這些文字不如賈平凹等人的小腳文學來的露骨，也不如其它人寫的一樣媚俗，只是比較直率罷了。在新時期文學領域中，性禁忌依然存在，這原因涉及到中國人的文化傳統、社會心理、倫理價值等一些更深的層面。

X:

曉劍

曉劍(1952~)，中國電影編劇，原名王建，河北南宮人。1978年在北京電影學院文學系編劇班進修，海南師範學院編輯部編輯。1984年參與編寫劇本《我們的田野》，該片以回憶的形式講述了一群知識青年插隊時的生活和感情經歷，以及他們回城後所面臨的選擇與變遷，回憶穿插於回城後的行動，結構新穎。人物性格豐富，感情真摯，代表了一大批當時青年人的思想。同一年中，曉劍獨立創作了劇本《九月》，塑造了一位少年宮老師顧小玉的形象，這一人物有豐富的知識，關心學生，熱愛教育工作，而面對社會的人情冷淡又無可奈何，劇情按單線發展，延伸出衆多枝節。劇本較為成功。

1986年，曉劍編寫了一部商業片《槍口下的紅桃皇后》，以曲折的劇情，精彩的懸念，謎樣的人物身份，緊湊的發燕尾服，吸引觀衆但因拍攝效果不好，反響不大。之後，曉劍編寫了《雙頭鷹之謎》《秘闖金三角》等。1992年，曉劍創作了劇本《復仇的女人》，選材新奇，感人，敘事角度新穎，情節曲折，結構精巧，以婦女形象引起觀衆的同情心，增強情緒感染力。曉劍近幾年仍潛心於創作劇本。另外著有《中國知青在海外》。

Y:

余華

余華(1960~)，男，原籍山東高唐。生於浙江杭州，長於海鹽。父母都是醫生。1983年開始創作，同年進入浙江省海鹽縣文化館。處女作《星星》發表在《北京文學》(1984年1期)。後就讀於魯迅文學院、北京師範大學聯合招收的研究生班。主要作品有小說《十八歲出門遠行》，《四月三日事件》，《一九八六年》，《河邊的錯誤》，《現實一種》，《鮮血梅花》，《在劫難逃》，《世事如煙》，《古典愛情》，《黃昏里的男孩》等，長篇小說《在細雨中呼喊》，《活着》，《許三觀賣血記》。他是“先鋒派”的代表作家，早年小說帶有很強的實驗性，以其冷酷的筆調揭示人性醜陋陰暗的角落，罪惡、暴力、死亡是他執着於描寫的對象，處處透露着怪異奇特的氣息，又有非凡的想象力，客觀的敘述語言和跌宕恐怖的情節形成小名的對比，對生存的異化狀況有着特殊的敏感，給人震蕩。然而他在90年代後創作的長篇小說與80年代中後期的中篇有很大不同，特別是使他享有盛譽的《活着》和《許三觀賣血記》，逼近生活真實，以平實的民間姿態呈現一種淡薄而又建議的力量，提供了歷史的另一種敘述方法。死亡仍是其一大主題，極端化處理仍時隱時現。

葉辛

葉辛(1949~)，原名葉承熹，出生於上海。1969年去貴州插隊，在鄉間呆了十年。1977年發表處女作《高高的苗嶺》。此後共出版著作有：長篇小說《蹉跎歲月》，《家教》，《孽債》等。根據長篇小說《蹉跎歲月》，《家教》，《孽債》由其本人改編的電視連續劇，均在國內引起轟動，使其成為家喻戶曉的作家。電視劇文學本《風云際會宋耀如》榮獲“金獅榮譽獎”。葉辛1985年被評為全國優秀文藝工作者，並榮獲全國首屆五一勞動獎章；曾任第六屆、第七屆全國人大代表。現任中國作家協會副主席，上海市作家協會副主席、上海市文聯副主席，上海市人大常委等。

中學畢業時遇上“文化大革命”的風暴，於1969年早春去貴州山鄉插隊，一呆

就是十年又七個月。這段豐富而又跌宕的經歷使他和文學結了伴，守着茅屋里的煤油燈，他拿起筆來寫起了小說。1977年他的處女作《高高的苗嶺》問世。1979年調入貴州作家協會從事專業創作，歷任《山花》雜誌主編，貴州省作家協會副主席，《上海文壇》雜誌主編。此後筆耕不輟，前後出版了四十幾部書籍。其代表作有《蹉跎歲月》，《家教》，《孽債》，《孽債2》等長篇小說。電視劇劇本《家教》，《蹉跎歲月》(均已錄製播出)均獲1983年全國金像獎。

Z:

張潔

張潔(1937~)，女，原籍遼寧，生於北京。1960年中國人民大學計劃統計系畢業後，到第一機械部工作，1978年開始文學創作，以《森林里來的孩子》，《誰生活得更美好》的小說在文壇嶄露頭角。她的成名小說《愛，是不能忘記的》曾引起廣泛討論與爭議，中篇小說《方舟》，長篇小說《沈重的翅膀》，《只有一個太陽》顯示了作者對生活廣度和深度所作的藝術開拓，其中《沈重的翅膀》榮獲第二屆茅盾文學獎。現為北京作家協會專業作家，中國作家協會會員、理事。主要著作有《張潔小說劇本》，短篇小說、散文集《愛，是不能忘記的》，《方舟》，《在那綠草地上》等，其中有些作品譯成外文。

張煒

張煒(1956~)，1975年發表詩，1980年發表小說。山東省作家協會主席、專業作家。發表作品一千三百餘萬字，被譯成英、日、法、韓、德、瑞典等多種文字。在國內及海外出版單行本四百餘部。

主要作品有長篇小說《古船》，《九月寓言》、《外省書》、《遠河遠山》、《柏慧》、《能不憶蜀葵》、《醜行或浪漫》、《刺猬歌》、《半島哈里哈氣》及《你在高原》(十部)；1999年《古船》分別被兩岸三地評為“世界華語小說百年百強”和“百年百種優秀中國文學圖書”，《九月寓言》與作者分別被評為“九十年代最具影響力十作家十作品”。《聲音》、《一潭清水》、《九月寓言》、《外省書》、《能不憶蜀葵》、《魚的故事》、《丑行或浪漫》等作品分

別在海內外獲得七十多種獎項。

新作《你在高原》獲“鄂爾多斯文學大獎”、香港《亞洲周刊》全球華文十大小說之首、華語傳媒大獎杰出作家獎、中國作家出版集團特別獎、出版人年度作家獎、茅盾文學獎等十餘項。

張賢亮

張賢亮(1936～)，男，生於南京。抗戰時期在重慶讀小學，抗戰勝利後，在南京建南中學、南京市三中學習。1951年入北京三十九中學，1954年被除籍。1956年自願報名去西北，在甘肅賀蘭縣的農村當文書，後調任甘肅省幹部文化學校文學課教員。50年代初期開始詩歌創作。1957年因發表詩歌《大風歌》(《延河》1957年7期)被劃成右派。1958年至1976年，經歷了勞動、管製、群專、關監，在寧夏農場被剝奪一切社會權利從事勞動。1979年獲平反，重新發表作品。1980年調寧夏自治區文聯工作，當《寧夏文藝》的編輯，後從事專業創作。現任寧夏自治區文聯、作協寧夏分會主席。出版小說集《靈與肉》、《肖爾布拉克》、《感情的歷程》等。長篇小說《男人的風格》、《習慣死亡》、《朋友早安》等。代表作有《靈與肉》、《肖爾布拉克》、《綠化樹》、《男人的一半是女人》、《邢老漢和狗的故事》等，前兩篇分獲1980、1983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綠化樹》獲1983—1984年全國優秀中篇小說獎，還被翻譯成各國文字。他的作品一方面取材於自身經歷過的苦難生活，表現知識分子在困境中的反應和省思；另一方面寫農民的命運際遇，探究人性、人生，耐人尋味。以粗狂、蒼涼的大西北為背景，包含感情，又帶有例行色彩。但也曾因較為大膽的性描寫引起過爭議。

張承志

張承志(1948～)，中國當代穆斯林作家、學者。祖籍山東濟南，出年生於北平。回族。早年文風如鐵，慷慨硬朗，充滿大漠荒原氣息。90年代後宗教情感增重，文字開始神秘詭異，甚或偏激。作品多處涉及宗教，遂引發爭議。文學之於張承志不是目的，不是終極，而是工具，是手段，是表達人生理想和精神情

志的物態載體。已出版各類著作30余種。

1978年，開始發表文學作品，曾多次獲全國中、短篇小說獎。代表性作品有小說集《黑駿馬》《北方的河》、《黃泥小屋》；長篇小說《金牧場》《心靈史》；散文集《荒蕪英雄路》《清潔的精神》等。張承志具有獨立不羈，莊嚴深邃，冷峻熱烈的審美品格。以一種獨白的方式表達着他的精神哲學，以一種自信堅定的姿態捍衛着一種神聖價值觀，以一種熔鑄詩歌、音樂、繪畫、歷史和哲學的復雜形態創造着“美文”。其具有燃燒性和震撼力的新語言和思想顯示着中國當代文學的獨創性魅力。

1981~1982年，曾在日本東京大學進修。這一時期主要作品有長篇小說《金牧場》，中短篇小說《北方的河》《黑駿馬》《黃泥小屋》等，其中《黑駿馬》《北方的河》分獲1981-1982和1983-1984年全國優秀中篇小說獎，被稱作一個理想主義的精神漫遊者。早期作品以草原生活為題材，從大地、民間汲取精神養料；稍後他把個人理想與宗教信仰結合在一起，開始了他對於國民生存和真主信仰的探索。

張一弓

張一弓(1923~1991)，別名張振鈞，浙江溫州人。擅長油畫、中國畫。1942年在杭州國立藝專學習西洋畫。後任該校助教。歷任解放軍新疆軍區文化部、鐵道兵、農墾部、新疆兵團政治部美術組長。浙江美術學院教務處副處長。後任教於湖北藝術學院，上海國畫雕塑院專業畫家業務室主任。一級美術師。

男，1934年12月生於河南開封一個知識分子家庭，祖籍河南新野縣。1950年於開封高中二年級肄業，相繼在《河南大眾報》、《河南日報》任記者、編輯近三十年，後到登封縣基層工作三年。五十年代開始小說創作，因短篇小說《母親》受批判而輟筆二十年。1980年後重新發表作品，《犯人李銅鐘的故事》、《張鐵匠的羅曼史》、《春妞兒和她的小嘎斯》獲全國優秀中篇小說獎，《流星在尋找失去的軌跡》獲《中篇小說選刊》優秀中篇小說獎。《黑娃照相》獲全國優秀短篇小說獎。還著有長篇小說《遠去的驛站》。1982年加入中國作協，河南省文聯專業作家。

著有小說集《犯人李銅鐘的故事》、《張一弓代表作》、《張一弓小說自選集》、《流淚的紅蠟燭》、《死戀》、《火神》、《死戀》、《野美人與黑蝴蝶》、《死吻》等12部，長篇報告文學《正大集團創業史》，紀實散文集《飄逝的歲月》等。長篇小說《遠去的驛站》將於近日出版。

張抗抗

張抗抗(1950~)，原名張抗美，中國女作家，中國作家協會會員，出生於浙江杭州，祖籍廣東新會杜阮鎮長喬。1963年考入杭州市一中，1969年中學畢業後到黑龍江國營農場勞動八年，當過農工、磚廠工人、通訊員、報道員、創作員等。她於1975年便完成了反映知青題材的長篇小說《分界線》，1979年以短篇小說《愛的權利》而知名。八十年代則更是作品不斷，從事專業文學創作至今。現為一級作家、黑龍江省作家協會副主席。中國作家協會第六屆主席團委員、第十屆全國政協委員。在2006年11月第七屆全國作代會上最新當選為全國作協第七屆副主席；2009年11月13日，被聘為中國國務院參事室參事。

《夏》獲全國優秀短篇小說獎、《淡淡的晨霧》獲全國優秀中篇小說獎。《紅罌粟》獲首屆《上海文學》獎、長篇小說《隱形伴侶》獲黑龍江省文學大獎賽大獎、《赤彤丹朱》獲東北文學獎長篇小說一等獎、《張抗抗散文自選集》獲東北文學獎散文集一等獎、中篇小說《鐘点人》獲《東海》全國純文學最高稿酬獎、1995年獲庄重文文學獎、1998年獲中國首屆女性文學創作獎、其它各省市刊物獎數十次、各報副刊全國獎數十次。

張辛欣

張辛欣(1953~)，女，北京人。漢族1984年畢業於中央戲劇學院導演系。1969年後歷任黑龍江生產建設兵團農工、湖南19分部戰士、北京醫學院第三附屬醫院護士、學院團委幹部，北京人民藝術劇院導演。美國康乃爾大學、喬治亞大學訪問學者等。

1978年開始發表作品，1979年考取中央戲劇學院導演系，其間發表了《在同一地平線上》、《我們這個年紀的夢》、《瘋狂的君子蘭》等作品而蜚聲

文壇，同時也成爲最有爭議的作家之一，并一度影響到她的畢業分配和作品的發表及出版。1984年她與桑曄合作開始了口述實錄文學《北京人》的創作，1985年初同時在五個文學期刊推出，她再次成爲文壇上引人注目的人物。這部作品使她在國外贏得了很大的文學聲譽，外文譯本多達8種。而且，自《北京人》問世後，中國文壇逐漸興起了有增無減的紀實文學熱。1985年她被分到北京人民藝術劇院當導演，依然致力於小說和散文創作。《北京人》前後的創作曾一度打破自我感受的直接表露和抒發，在選擇主題和表現題材上採取將自身置於作品之外的創作方法，但不久又推出像中篇小說《這次你演哪一半》（1988年）這樣刻畫女性自身矛盾心理和追尋生存方式的作品。1988年10月去美國康乃爾大學當訪問學者，其中有一時期在佐治亞大學學習和寫作。

宗璞

宗璞(1928~)，女，原名馮鐘璞，筆名還有綠鬃、任小哲等。祖籍河南唐河，生於北京，著名哲學家馮友蘭之女。少時就讀於清華子校和西南聯大附中，抗戰勝利後先後就讀於南開和清華大學外文系。1951年大學畢業後，先後在政務院宗教事務委員會、中國文聯、《文藝報》、《世界文學》雜誌社工作。曾任中國社會科學院外國文學研究所副研究員，中國作家協會理事。1957年發表小說《紅豆》（《人民文學》1957年7期）飲譽文壇，在反右鬥爭中遭到批判。60年代轉向描寫農村生活。1978年重返文壇，發表小說、散文、童話數十萬字，其中《弦上的夢》、《三生石》先後獲1978年、1979年全國優秀短篇與中篇小說獎。散文集《丁香結》獲全國優秀散文(集)獎。她的作品多寫知識分子階層，文字優雅，富於學養，含蓄蘊藉。“文革”後的創作追求現代主義技巧的探索，注重心理描寫，具有超現實的荒誕和象徵，比如《我是誰》、《蝸居》、《泥沼中的頭顱》等，受到批評界的注意。

鄭義

鄭義(1947~)，原名鄭光召。生於重慶，祖籍四川省雙流縣。現旅居國外。中國作家協會會員，中國作家協會山西分會專業作家。他是北京清華附中的

學生，和史鐵生、張承志等優秀作家是中學校友，從北京來山西農村插隊。

作品持有渾厚沈郁的風格和宏闊的歷史感，在反映當前農村的變革生活和民族性格方面，有新的開掘和大膽的探索。章仲鏢的山西之行滿載而歸，他發現了幾顆文壇新星。《遠村》的成功使鄭義增強了信心，他又寫了個中篇小說《老井》，依然是土生土長的農村題材，活靈活現的生活場景。他的《楓》是描寫文革傷痕的作品。章仲鏢興致勃勃地在一九八五年的《當代》雜誌搞山西作家中篇小說專號，隆重推出了鄭義的《老井》、李銳的《紅房子》、成一的《云中河》、羅雪珂的《女人的力量》。還熱情洋溢地以“晉軍崛起，引人注目”為題寫了編者按，“晉軍”的冠名為文壇所認可。這期的《當代》在文壇引起轟動，《老井》被搬上銀幕，獲得電影國際大獎。張藝謀也因這部作品獲得金鷄獎最佳男主角。

竹林

竹林(1949~)，著名作家。原名王祖鈴。20世紀60年代末作為知青赴安徽鳳陽插隊6年。1979年，她的一部反映知青生活的長篇小說《生活的路》曾轟動海內外，當時暢銷超過100萬冊，竹林因此被譽為“知青文學第一人”。這位昔日知名的“知青作家”，從1979年創作《生活的路》至今，從知青文學寫到兒童文學，又寫到青春文學，在文學道路上已經走過了第28個年頭，著有長篇小說《摯愛在人間》、《嗚咽的瀾滄江》、《女巫》、《脆弱的藍色》、《今日出門昨夜歸》、《靈魂有影子》……兒童散文集《老水牛的眼鏡》以及中短篇小說集、散文集共30多種、約400萬字，成為著名的多產作家。最近幾年，致力於青春文學、校園文學的探索，2005年初向讀者奉獻新作《今日出門昨夜歸》等。竹林現為國家一級作家，上海市作協專業作家。她先後在少年兒童出版社、上海文學編輯部、上海市作家協會工作。

朱曉平

朱曉平(1952~)，男，河北人。1968年插隊農村，1970年應征入伍，1975年復員當工人。1978年考入中央戲劇學院文學系，1982年畢業留校工作。1985年調中國作家協會。1991年調北京電影製片廠。國家一級編劇。

1978年開始發表作品。1987年加入中國作家協會。創作小說、詩歌、話劇、電影電視劇等文藝作品約300萬字，小說作品單行本七部，并被翻譯成法、英、日等文字出版。小說《桑樹坪紀事》獲第四屆全國中篇小說獎，話劇《桑樹坪》獲文化部優秀劇目獎，電影《黃河謠》獲金鷄百花獎、蒙特利爾國際電影節獎，電視劇《三國演義》、《編輯部的故事》獲中宣部“五個一”工程獎、飛天獎、金鷹獎，《姊妹坡》獲解放軍文藝獎、優秀編劇獎。

周克芹

周克芹(1936~1990)，1936年生於四川省簡陽縣農村。1958年在成都農業技術學校畢業後回鄉務農，先後當過農民、民校教師、生產隊長、大隊會計、農業技術員、公社和區幹部。由於他長期生活在農村，熟悉農村生活，他的作品大都是反映農村生活的題材。1963年發表第一篇短篇小說《井臺上》之後，1973年以來陸續發表了《早行人》等20余篇作品。1979年調入四川省文聯從事專業創作。1980年加入中國作家協會。1985年擔任四川省作協黨組成員。1990年任四川省協黨組副書記、常務副主席，兼任《現代作家》文學月刊主編。1990年8月5日在成都病逝。

1973年以來陸續發表了《早行人》等20余篇作品。1979年，調省文聯從事專業創作，同年發表了長篇小說《許茂和他的女兒們》，獲第一屆茅盾文學獎，該小說的發表標志着其創作道路上新的高度和新的起點。他的作品還有短篇小說集《石家兄妹》，短篇小說《勿忘草》，《山月不知心里事》，《桔香，桔香》和《晚》等等，其中《勿忘草》和《山月不知心里事》分別獲1980年和1981年全國優秀短篇小說獎。周克芹歷任全國政協委員、中國作家協會理事、中國作家協會四川分會黨組副書記、常務副主席、《現代作家》主編。1990年8月5日，在成都病逝，終年53歲。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一．知識青年上山下鄉的探索階段

(一九五五年～一九六一年)

【一九五五年】

1. “一五”計劃要求實現3868萬畝開荒任務
2. 青年團中央決定籌組青年志願墾荒隊
3. 積極引導家居農村的高小和初中畢業生參加農業生產
4. 中共中央轉發農村工作部關於墾荒問題的報告
5. 第一支墾荒隊赴黑龍江省蘿北縣創建“北京莊”
6. 《人民日報》就中小學畢業生從事生產勞動發表社論
7. 國務院要求停止從社會上錄用新職工
8. 毛澤東發出中小學畢業生到農村去的號召
9. 上海青年墾荒隊在江西創建“共青社”
10. 天津青年志願墾荒隊遠征“北大荒”
11. 勞動部提出參加農業生產的就業方向

【一九五六年】

1.	《全國農業發展綱要草案》提出“四到”的就業途徑
2.	胡耀邦視察蘿北墾荒隊
3.	謝覺哉向國務院匯報移民工作
4.	青年團中央提出墾荒隊的成就和問題
5.	全年有8萬多人回鄉務農
6.	開發建設大陳島的一支青年墾荒隊

【一九五七年】

1.	毛澤東指示“精簡一定要堅決搞”
2.	劉少奇南下調查
3.	勞動部對安置城市失業人員發出通知
4.	《人民日報》就中小學畢業生問題發表長篇社論
5.	馬文瑞談不能昇學青年的就業問題
6.	勞動部、高教部就招工就業問題聯合發出通知
7.	《全國農業發展綱要修正草案》中首次使用“下鄉七山”用語

【一九五八年】

1.	勞動部把總結下鄉上山經驗列為工作要點
2.	上海市召開志願參加農村建設青年活動分子大會
3.	邢燕子立志回鄉做有文化的新型農民
4.	中央決定5年內動員570萬青壯年支援邊疆和少數民族地區
5.	毛齊華認為勞動力全面緊張

【一九五九年】

1.	中央連續發出通知控制城鎮職工增長
----	------------------

【一九六〇年】

1.	國民經濟計劃又一次制定高指標
2.	全國人大正式通過《全國農業發展綱要》
3.	中央下達大辦農業的指示
4.	職工增長達到高峰

【一九六一年】

1.	中共八屆九中全會通過“八字方針”
2.	中央決定實行精簡政策
3.	董加耕回鄉務農
4.	全年城鎮人口減少1300萬

二. 知識青年上山下鄉在全國有計劃地展開階段

(一九六二年~一九六六年)

【一九六二年】

1.	克服“三年困難”的一項根本措施
2.	中央發出減少職工和城鎮人口的宣傳要點的通知
3.	國務院提出精簡職工安置辦法
4.	侯雋自願下鄉務農
5.	遼寧省委批轉省安置工作會議紀要
6.	國務院農林辦首次召開安置工作匯報會
7.	國務院批轉四部一委關於安置經費預算管理的通知
8.	1962年城鎮人口減少1048萬

【一九六三年】

1.	國務院農林辦安置領導小組召開安置計劃落實會議
2.	中央相繼發出管好用好安置經費的補充通知
3.	上海市安置知青工作的艱巨性和長期性
4.	浙江省委肯定嘉興縣插隊經驗
5.	周恩來提出調整安置工作方向
6.	黃宗英等撰寫長篇報告文學《特別的姑娘》
7.	中央宣布精簡工作基本結束
8.	中央決定每年拿出專款辦好插隊工作
9.	周恩來要求共青團多做知識青年下鄉工作
10.	知青下鄉上山納入城市工作會議紀要
11.	中央安置領導小組召開插隊經驗交流會
12.	金縣、農安縣創造集體戶的插隊形式
13.	全國已有30萬人下鄉上山

【一九六四年】

1.	鄧小平主持討論知青工作
2.	中央頒發指導知青下鄉上山工作的綱領性文件
3.	《人民日報》就知青下鄉上山連續發表社論
4.	糧食部對下鄉知青的糧油供應作出規定
5.	商業部門決定給到高寒地區的下鄉青年補助冬裝
6.	共青團中央要求各地團組織對下鄉上山工作負起責任來
7.	五個部委就安置工作機構的編制問題發出通知
8.	中共中央批轉共青團中央的四份材料
9.	中央批准下達1964年安置計劃
10.	中共上海市委批轉共青團市委關於下鄉上山工作的總結報告
11.	關於制止下鄉知青早婚的通報
12.	譚震林接見東北各省、市安置領導小組組長
13.	國家計委等部門規定下鄉知青建房木材按基建用材作價
14.	毛澤東同外國代表團談子女下鄉
15.	東北局、中南局提出安置工作規範化的要求
16.	國營農場安置城市知青的紀律規定
17.	王震在人代會上贊揚下鄉知青在農墾戰線的業績
18.	董加耕、邢燕子當選全國人大代表
19.	全年知青下鄉32萬人

【一九六五年】

1.	勞動部提供1965年城市勞動力資源情況
2.	周恩來對下鄉上山工作提出五點方向性的指示
3.	團中央研討共青團在知青工作中的任務
4.	中央安置辦要求有重點地安排知青開發建設山區
5.	國務院批轉1965年安置計劃
6.	《人民日報》就關心下鄉上山知青發表長篇社論
7.	財政部、農業銀行對安置經費管理做出規定

8.	嚴肅處理迫害下鄉知青的違法亂紀行爲
9.	國營農場要加強進場知青安置工作
10.	華北局召開安置工作會議
11.	譚震林對下鄉上山工作提出四點意見
12.	周恩來、陳毅在新疆看望支邊青年
13.	譚震林聽取調查回來的同志匯報
14.	譚震林對召開安置工作座談會的指示
15.	安置工作座談會在京召開
16.	創建長白山勞動大學
17.	全年下鄉、回鄉人數超計劃完成

【一九六六年】

1.	遼寧省召開下鄉知青積極分子代表會
2.	西藏要求內地增加進藏支邊青年
3.	推廣業餘教育座談會在京召開
4.	高校招生取消考試
5.	國務院對串連的師生留新疆問題的復電
6.	數萬名下鄉知青涌向北京“造反”
7.	《人民日報》發表紀念“-二·九”運動30周年社論
8.	“文化大革命”開始後知青下鄉上山工作即行停頓

三. 接受貧下中農再教育的政治運動階段

(一九六七年~一九七七年)

【一九六七年】

1.	周恩來對上訪人員發表重要演講
2.	中央發出《關於反對經濟主義的通知》
3.	《人民日報》號召逗留城鎮的下鄉知青返鄉春耕
4.	中央、國務院就知青外出串連問題發出通知
5.	國務院就上訪知青的返城路費問題電復上海

6.	中央連續發出停止串連上訪的通知
7.	國務院給浙江省軍管會的復電
8.	北京市就堅決執行中央關於停止串連的通知發布通告
9.	天津市五大群眾組織發出《告返津支農支邊知識青年書》
10.	財政部等對動用安置經費結餘款做出新規定
11.	下鄉知識青年大量進京
12.	《文匯報》發表社論鼓勵返滬人員盡快回去
13.	《人民日報》發表“堅持知識青年上山下鄉的正確方向”的社論
14.	國務院給青海省軍管會的復電
15.	中央接連採取措施動員上訪人員就地鬧革命
16.	北京等地青年學生自願下鄉插隊
17.	全國各地堅決貫徹執行《緊急通知》
18.	周恩來支持首都一批中學生去雲南務農的請求

【一九六八年】

1.	中央再次號召下鄉知青返回農村
2.	濟南市首批知識青年赴沂蒙山區落戶
3.	中央對畢業生的分配要求堅持“四個面向”的原則
4.	北京市革委會發出分配中學畢業生的通知
5.	中央安置領導小組關於“老三屆”畢業生上山下鄉的請示報告
6.	《文匯報》發表“堅持同工農相結合的大方向”的社論
7.	創辦“五·七”幹校
8.	高等教育制度的兩項重大“改革”
9.	江西省革委會對畢業生的安置就業做出安排
10.	雲南請求增加插場知青計劃
11.	毛澤東的“七·二一”指示
12.	周恩來勉勵侄女堅持在內蒙古草原落戶
13.	中央發出68屆大專和中專畢業生分配的通知
14.	天津市組織慰問下鄉知青
15.	毛澤東號召知識青年接受貧下中農再教育
16.	全國上山下鄉出現高潮

【一九六九年】

1.	京津滬浙跨地區下鄉62.1萬人
2.	北京市制定知識青年和城鎮居民下鄉辦法
3.	全國計劃會議提出年內動員400萬青年上山下鄉
4.	中央安置領導小組召開跨省區下鄉協作會議
5.	本年頭4個月下鄉涌現高潮
6.	各級上山下鄉辦事機構建立
7.	安徽推廣草場大隊自力更生搞好安置工作的經驗
8.	金訓華奮戰山洪不幸犧牲
9.	黨中央邀請314名下鄉知青代表參加國慶觀禮
10.	京津滬就跨地區下鄉商定具體政策
11.	廣東省召開下鄉知青學用毛澤東思想經驗交流大會
12.	中央發出中專、技校畢業生分配的通知
13.	中央安置領導小組辦公室併入勞動部
14.	全年在動亂中動員267萬青年下鄉

【一九七〇年】

1.	各地普遍加強知識青年“再教育”工作
2.	國務院召開延安地區插隊青年工作座談會
3.	貪污、盜竊、挪用安置經費問題嚴重
4.	中央轉發毛澤東批示的〔1970〕26號文件
5.	首都三大報刊發表“改造世界觀”的社論
6.	北京市召開動員知青下鄉的萬人大會
7.	中央調整合併安置工作機構
8.	中央三個單位發出加強安置費管理的通知
9.	中央批准首都兩所高校招收工農兵學員
10.	《人民日報》發表抓好知青工作的社論
11.	《吉林日報》刊載安圖縣下鄉知青工作條例
12.	全國近3年中有573萬名知青到農村落戶

【一九七一年】

1.	規定下鄉兩年以上的知青可以作為招工對象
2.	山東省革委會要求嚴加查處迫害知青案件
3.	全國教育會議提出的“兩個估計”
4.	中央發出杜絕高校招生“走後門”的通知
5.	周恩來接見日本農民代表團邀請侯雋等作陪
6.	外國記者采訪延安地區插隊知青
7.	內遷工作中的知青問題
8.	參觀學習揚州、上海配合“再教育”的經驗
9.	湖南省委要求全省進一步做好知青工作
10.	各地開展務實活動迎接“一二·二二”指示發表3周年
11.	周恩來提出要注意解決“三個突破”

【一九七二年】

1.	天津市召開下鄉知青及其家長代表會
2.	要重視下鄉女知青的健康保護
3.	國家計委發出通知要求控制“三個突破”
4.	杜恒昌等69名知青被大火吞噬
5.	國務院發出召開全國知青工作座談會通知
6.	山東組團赴內蒙古慰問下鄉知青
7.	錦州地區捕判姦污迫害女知青的犯罪分子
8.	黑龍江省委緊急通知各地解決知青中的三個突出問題
9.	“三個突破”繼續發展，全年知青下鄉67萬人

【一九七三年】

1.	黑龍江省甘南縣發生姦污女知識青年的要案
2.	國務院提出解決“三個突破”的措施
3.	國務院轉發兩件落實僑務政策的報告

4.	國家計委就實行工分制復函內蒙古革委會
5.	國務院科教組對下鄉知青參加高考的意見
6.	河北省召開知青代表會議
7.	毛澤東給下鄉青年家長李慶霖復信
8.	周恩來主持會議研究落實毛澤東的復信精神
9.	中央工作會議上印發解決知青問題的意見
10.	中共中央發出[1973]21號文件
11.	國務院召開全國知識青年上山下鄉工作會議
12.	福建省採取應急措施落實毛澤東的“復信”精神
13.	全國中專、技校恢復招生
14.	周恩來就查處雲南生產建設兵團18團問題的兩次重要批示
15.	《遼寧日報》、《人民日報》登載“一份發人深省的答卷”
16.	華國鋒直接聽取邢燕子、侯雋的意見
17.	中共中央轉發全國知青工作會議報告
18.	《人民日報》發表“進一步做好上山下鄉工作”的社論
19.	處決姦污女知青的罪犯黃硯田、李躍東
20.	四川向中央報告知青下鄉工作情況
21.	山東省委研究制定兩份上山下鄉工作的重要文件
22.	各地認真傳達貫徹中央[1973]30號文件
23.	財政部發出上山下鄉經費管理辦法
24.	各地積極選派帶隊幹部
25.	全年動員89萬知青上山下鄉

【一九七五年】

1.	吉林省召開上山下鄉知識青年代表會議
2.	遼南地震中插隊知青英勇救災
3.	國家計委印發城鄉統籌招工的規定
4.	公安部等同浙江省研究解決知青自殺案件
5.	福建省統籌解決知青問題卓有成效
6.	遼寧、山西省舉辦知識青年上山下鄉大型展覽

7.	國務院知青辦在長春召開座談會
8.	廣西大辦知青業餘學校
9.	12名知青代表參加全國農業學大寨會議
10.	國務院知青辦會同有關方面審理山西迫害知青案件
11.	關於軍隊幹部子女上山下鄉問題
12.	河南省委關於開展紀念毛澤東指示發表20周年活動的通知
13.	本年是“四五”期間下鄉人數最多的一年

【一九七六年】

1.	財政部對知青工作部門業務活動經費做出安排
2.	全國計劃會議討論確定城鄉統籌招工“
3.	毛澤東對吳桂賢來信的批示
4.	山東省召開知青代表會議
5.	國務院知識青年上山下鄉領導小組正式成立
6.	國務院知青問題學習調查組分赴12個省區
7.	省、市、自治區知青辦負責人碰頭會在京召開
8.	山西省召開下鄉知青農業學大寨積極分子代表會
9.	姚文元指使《人民日報》發表19名下鄉青年的一封信
10.	國務院知青辦印發學習材料
11.	安徽省7萬多名知青上函授大學
12.	關於召開全國知青工作會議的請示報告
13.	全軍成立知識青年上山下鄉領導小組
15.	208名下鄉知青代表參加第二次全國農業學大寨會議
16.	在農村的下鄉青年有809萬人

【一九七七年】

1.	社會各界開始研究知青上山下鄉問題的轉折點
2.	國務院派工作組進駐國務院知青辦
3.	全國高等學校招生工作會在京召開
4.	國家勞動總局對下鄉知青工齡問題的意見

5.	吉林省知青辦召開下鄉青年農業科學技術現場會
6.	公安部關於處理下鄉知青戶口問題的通知
7.	關於紀念毛澤東“二·二二”指示發表9周年的通知
8.	國務院知青辦召開省、市、自治區知青辦負責人座談會
9.	全年又有171萬城鎮知識青年上山下鄉

四．知識青年上山下鄉重大歷史轉折階段

(一九七八年～一九八一年)

【一九七八年】

1.	放寬城鎮安排知青的渠道
2.	明確在農場的知青是國家職工
3.	華國鋒在《政府工作報告》中談上山下鄉
4.	北京市知青辦邀請17名下鄉青年聽取意見
5.	鄧小平提出解決知青問題的基本思路
6.	加強國務院知青辦領導班子建設
7.	鼓勵上山下鄉知青參加高考
8.	六省知青辦提議有條件的縣鎮不再動員知青上山下鄉
9.	國務院知青辦與國家勞動總局合署辦公
10.	對退休工人子女就業實行有條件的照顧
11.	黨和國家領導人對知青問題的思考
12.	上海市採取措施解決跨省區下鄉知青的困難
13.	國務院知青辦就上山下鄉方針提出請示報告
14.	調整後的國務院知青領導小組
15.	北京市提出今後城市中學畢業生和在鄉知青的安排意見
16.	到昭盟插隊的萬餘名青年被全部招回
17.	胡耀邦對摧殘知青案件的批示
18.	朱穆之對上山下鄉問題的直言
19.	關於農場知青工齡計算、探親等問題
20.	國務院領導人主持討論知青工作大政方針

21.	中央發出召開全國知青工作會議通知
22.	中央政治局、國務院討論知青問題匯報提綱
23.	中央決定統籌解決知青問題
24.	《中國青年報》對知青上山下鄉認識問題發表評論員文章
25.	雲南農場知青請愿、罷工要求回城
26.	本年下鄉人數減少，調回城鎮青年增多

【一九八〇年】

1.	推廣湘潭市知青場隊經驗
2.	新財政體制下的知青經費管理
3.	對安置待業知青的企業減免徵稅
4.	胡耀邦等不主張再搞上山下鄉
5.	城鎮就業制度的重大改革
6.	抓緊糾正知青冤假錯案
7.	對因公致殘下鄉知青的安置處理意見
8.	國務院知青領導小組對解決當前知青問題提出鮮明意見
9.	北京市實行上山下鄉新辦法
10.	各地統籌解決知青問題取得顯著成效

【一九八一年】

11.	國務院知青辦編印《真實的故事》等書
12.	關於調整知青場隊稅收規定
13.	國務院知青辦提出年內要辦的四項工作
14.	在牡丹江召開知青場隊經驗交流會
15.	國務院知青辦對知識青年上山下鄉歷史的基本看法
16.	中央發布城鎮就業問題的決定
17.	勞動部門統管知青工作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1

地 區		北 京	河 北	陝 西	內 蒙 古	
計 劃 數		3000	18100	9500	8290	
完 成 數	合 計	4757	16880	8360	10401	
	下 鄉	4756	14150	7769	9179	
	回 鄉	1	2730	591	1222	
完 成 %		108.5	93.25	88.00	125.46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3762	8911	4073	4554	
	縣 鎮	994	5239	3696	4625	
下 鄉 對 象	知 識 青 年	4756	7851	5790	6480	
	退 伍 兵	—	473	30	14	
	閑 散 勞 力	—	1894	1233	1062	
	家 屬	—	3932	717	1632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 體 插 隊	1221	6866	2989	4847
		單 身 插 隊	—	229	473	86
		成 戶 插 隊	—	4288	1038	2234
		新 建 隊	—	1731	763	1322
	國 營 農 林 牧 場		3535	1036	926	77
	水 土 保 持 隊		—	—	1578	613
上 山		1331	4024	2014	1725	
支 援 外 省、區		9494	10391	—	—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2

地 區		遼 寧	吉 林	黑龍江	上 海	
計劃數		40400	18100	25000	1450	
完 成 數	合 計	45578	24403	34483	14692	
	下 鄉	37703	23254	31262	8815	
	回 鄉	7875	1149	3221	5877	
完成%		112.81	135.57	137.93	101.32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24215	7413	16525	8541	
	縣 鎮	13488	15841	14737	274	
下 鄉 對 象	知識青年	32270	15783	18631	8815	
	退 伍 兵	30	10	—	—	
	閑散勞力	2943	2434	3902	—	
	家 屬	2466	5027	8729	—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體插隊	30239	13981	13106	—
		單身插隊	543	1479	1974	274
		成戶插隊	4393	7189	11490	—
		新 建 隊	2134	605	4692	57
	國營農林牧場	389	—	—	8484	
	水土保持隊	—	—	1578	—	
上 山		8443	8766	899	—	
支援外省、區		—	—	—	14795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3

地 區		江 蘇	浙 江	安 徽	江 西	
計劃數		26000	30000	36000	22080	
完 成 數	合 計	19230	41099	39660	22242	
	下 鄉	18016	30091	24621	18026	
	回 鄉	1214	11008	13239	4216	
完成%		73.96	136.99	110.14	100.73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5004	9139	6427	6460	
	縣 鎮	13012	20952	19994	11566	
下 鄉 對 象	知識青年	13738	22224	5387	10619	
	退 伍 兵	411	17	92	39	
	閑散勞力	2578	5908	9749	5118	
	家 屬	1289	1942	11193	2250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體插隊	5217	19168	1721	868
		單身插隊	2070	6407	1288	1988
		成戶插隊	3399	2977	22481	3402
		新 建 隊	300	1539	931	6717
	國營農林牧場	7030	—	—	5051	
	水土保持隊	—	—	—	—	
上 山		126	1042	9595	11135	
支援外省、區		10014	1079	—	—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4

地 區		福 建	山 東	廣 東	廣 西	
計劃數		20000	33000	29200	15500	
完 成 數	合 計	19245	36200	33951	15966	
	下 鄉	15761	30027	32331	15130	
	回 鄉	3486	6173	1620	836	
完成%		96.23	109.69	116.27	103.00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7651	21913	17712	4363	
	縣 鎮	8109	8114	14619	10767	
下 鄉 對 象	知識青年	10797	7327	21219	12929	
	退 伍 兵	30	32	24	—	
	閑散勞力	3672	9614	10824	2102	
	家 屬	1261	13054	264	99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體插隊	1870	9032	16067	6900
		單身插隊	4244	1331	2228	13
		成戶插隊	2208	19220	424	1537
		新 建 隊	5498	464	2447	6634
	國營農林牧場		1940	—	11165	46
	水土保持隊		—	—	—	—
上 山		12600	3297	7952	—	
支援外省、區		—	72911	—	—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5

地 區		湖 北	湖 南	河 南	四 川	
計劃數		24000	25000	20000	15100	
完 成 數	合 計	18003	22174	20856	12382	
	下 鄉	16441	21118	18009	12064	
	回 鄉	1562	1056	2847	318	
完成%		75.01	88.69	104.28	82.00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6521	11391	3343	7365	
	縣 鎮	9920	9727	14666	4699	
下 鄉 對 象	知識青年	12401	17926	6896	10891	
	退 伍 兵	28	12	32	1	
	閑散勞力	2534	2041	5552	1011	
	家 屬	1478	1136	5529	161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體插隊	11345	8017	7052	3418
		單身插隊	—	22	—	224
		成戶插隊	2672	1760	10957	348
		新 建 隊	2398	89242	—	8074
	國營農林牧場	26	2345	—	—	
	水土保持隊	—	—	—	—	
上 山		2293	8537	2849	—	
支援外省、區		4079	—	—	2197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6

地 區		雲 南	貴 州	西 藏	陝 西	
計劃數		2000	6800	—	12500	
完 成 數	合 計	5018	3362	177	14376	
	下 鄉	4948	3110	177	11012	
	回 鄉	70	252	—	3364	
完成%		250.90	49.44	—	115.00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3921	573	177	2314	
	縣 鎮	1027	2537	—	8698	
下 鄉 對 象	知識青年	4611	2350	—	6393	
	退 伍 兵	—	—	—	43	
	閑散勞力	301	613	—	1940	
	家 屬	36	147	—	2636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體插隊	2166	2000	—	164
		單身插隊	109	83	—	52
		成戶插隊	—	636	—	3176
		新 建 隊	376	391	—	3860
	國營農林牧場	2297	—	177	2521	
	水土保持隊	—	—	—	1239	
上 山		148	1391	—	1329	
支援外省、區		—	—	—	—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7

地 區		甘 肅	新 疆	寧 夏	青 海	
計劃數		18826	15000	8000	—	
完 成 數	合 計	19177	19232	10057	5056	
	下 鄉	17076	19232	9270	5056	
	回 鄉	2101	—	787	—	
完成%		101.86	128.21	125.71	—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12610	16378	6879	3203	
	縣 鎮	4466	2854	2391	1853	
下 鄉 對 象	知識青年	12061	10864	6944	3203	
	退 伍 兵	40	—	1	—	
	閑散勞力	3086	8368	883	590	
	家 屬	1889	—	1442	1263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體插隊	274	—	631	—
		單身插隊	510	262	727	—
		成戶插隊	3153	7970	1732	1853
		新 建 隊	207	—	257	—
	國營農林牧場	12176	11000	5435	3203	
	水土保持隊	756	—	488	—	
上 山		2884	—	110	—	
支援外省、區		—	—	—	—	

1965年安置計劃執行情況統計表-8

地 區		新疆生 產兵團	東北農 墾總局	中僑委 直屬場	省份總計	
計劃數		43000	3000	1500	543296	
完 成 數	合 計	57206	2030	880	597123	
	下 鄉	57206	2030	880	520319	
	回 鄉	—	—	—	76815	
完成%		133.6	67.66	58.66	110.00	
市、鎮 下鄉人 數	城 市	42298	2030	880	276546	
	縣 鎮	14098	—	—	243773	
下 鄉 對 象	知識青年	23227	2030	810	325412	
	退 伍 兵	20664	—	3	21416	
	閑散勞力	1908	—	65	91925	
	家 屬	12007	—	2	81566	
下 鄉 人 員 安 置 方 式	人 民 公 社	集體插隊	—	—	—	169159
		單身插隊	—	—	—	26671
		成戶插隊	—	—	—	120517
		新建隊	—	—	—	60321
	國營農林牧場	57206	2030	880	138977	
	水土保持隊	—	—	—	4674	
上 山		—	—	—	92270	
支援外省、區		—	—	—	59340	

中國 當代文學 키워드

每一年說得最多、叫得最響的詞匯聚着這一年的走向。不過，時過境遷回頭再來咀嚼這些詞匯，味道可就難說得很了！

1949年：第一次文代會

兩支文藝“大軍”“會師”了。一支趾高氣昂，一支灰溜溜。

1951年：《武訓傳》批判

講當代文學的人最怕講當代文藝思潮。永遠的三部曲：一.某年某月開展了關於某人某作的討論(爭論)；二.偉人講話，論爭昇級為批判鬭爭，當事人受到嚴肅處理。三.若干年後，證明批判是錯誤的，予以平反昭雪。從批判《武訓傳》到批判……，都是這樣。

1953年：“抗美援朝”文學

這一題材中最有影響的是《誰是最可愛的人》，最有人性含量的是《窪地上的戰役》。兩部作品在歷史上的待遇有天壤之別。

1954年：“合作化”文學

一批誠實的有生活底蘊的作家，創作了一批反映非走合作化道路不可的作品。但由於那條路錯了，他們也跟着錯。“合作化”文學提供了一個反例—再有才華的作家，如果失去了獨立的思想 and 認識，只會產生垃圾。

1955年：胡風的批判和批判胡風

胡風，魯迅之後又一個硬骨頭，或許是最後一個硬骨頭作家。之後中國文人普遍“缺鈣”。胡風的悲劇不僅是他個人的悲劇，也是那個時代中國知識界的悲劇。

1956年：雙百方針(百花齊放，百家爭鳴)

沒有法律保障的言論自由是脆弱的，恩賜的百花如假花，構不成春天！

1957年：干預生活

當年敢于者在80年代初仍是干預者，不過有人在文學史上消失了……當文學應不應該有人情也成了問題的時候，也就是文學本身的存在也成了問題的時候。

1959年：新民歌

“鄉鄉要出王老九，縣縣要出郭沫若”。表面上看，這是一場繁榮藝術的運動，但實際上是一個民間藝術取代文人藝術的反詩歌運動，一場世界文學史上罕見的鬧劇。

1961年：題材問題

當文學寫什麼題材也成了問題的時候，也就是文學本身的存在也成了問題的時候。

1962年：現實主義深化

其實當年也沒有“深化”到哪里去。現實主義源于人的理性、人的懷疑精神，現實主義就是對現實現世的批判。

1963年：鬼戲

寫人不成，寫鬼也不成。

1964年：中間人物論

當文學寫什麼人物也成了問題的時候，也就是文學本身的存在也成了問題的時候。

1966年：《海瑞罷官》

對一部劇作的批判，引發了一場史無前例的文化大革命。由此可見中國社會主義文化的高度意識形態特徵。

1967年：樣板戲

八個樣板戲中，沒有一個正常完整的家庭和夫妻生活。江青告訴人們：革命就是孤男寡女的事業！

1972年：浩然小說

魯迅走在金光大道上。一個被誤讀、被歪曲、被利用的魯迅，和浩然的高、大、全式的人物，竟然是10億中國人10年的文學大餐！

1973年：《園丁之歌》

一部沒有多大藝術价值的作品，因與一個特殊的時代和一個特殊的人物有了聯系而出了名，使文學不得不提到它。

1975年：《春苗》《創業》

當時一篇批判《春苗》的文章說，這部電影中官職最大的人竟是一個壞人(走資派)，表現了支流，是對時代的污蔑。

1976年：四五詩歌運動

一個沒有正常發言渠道的時刻，借一個傳統節氣悼一個在民間口碑極好的偉人，用的是詩歌話語方式，言說的是對高壓政治的不滿。

1977年：《班主任》

劉心武本想以宋寶琦這個小流氓形象來控訴文革，却不料謝惠敏這個人物引起了更大的共鳴。謝惠敏一個團支書，一個極權政治下的畸形人格。

1978年：《傷痕》

那是一個敏感的青年給長期處在感情荒原人性沙漠的中國人的一滴甘泉。

1979年：“反思文學”

“傷痕文學”的政治主題的邏輯的深化。它提醒人們，沒有孤立的文革運動，早該警惕十七年的“極左”思潮。僅此一點，“反思文學”就有特殊意義。

1980年：意識流小說

中國作家以為東想西想就是意識流，殊不知意識流是一種更真切更現代的認知方式。不過，它的傳入多少打破了單一的線性的文學思維慣性。

1981年：朦朧詩

跟此前的當代詩人相比較，他們用“小我”審“大我”取代了“大我”淹“小我”的傾向。

1982年：茅盾文學獎

茅盾的文名早已褪色，茅盾文學獎的含金量也不見得高。20世紀中國作家誰擅長寫長篇小說？

1983年：性格二重組合論

一個有明顯缺陷的理論，却是中國當代文學史上第一次文學本體的角度對“好人\壞人”模式的清算。

1985年：方法熱

是80年代中期的文學由政治中心向文學自身轉移的重要過渡。

1986年：文學尋根、新生代詩群

尋文化之根，中國作家終於跳出了狹隘的政治視野。這時期出現了幾個好作家(韓少功就是其中之一)。

新生代詩人開始把詩當成了自娛自樂的卡拉OK。

1987年：女性主義文學

只有文學回到人學的時代，女性主義文學才有存在的可能。

1990年：汪國真熱

在許多作家完全寫不出東西來的時候，他贏得了不諳世事的初中生的狂熱崇拜。

1991年：新寫實主義

現實主義在剝去偽飾的主流—支流論後，又降為一地雞毛。

1992年：後新時期文學

新時期是從什麼時候結束的？應該是1989年。後新時期是從什麼時候開始的？應該是1992年“南巡講話”以後。後新時期文學(又稱轉型期文學、世紀末文學)就是市場經濟時代多元化文學。

1993年：文稿大拍賣

文學市場化的一次嘗試。

1994年：人文精神大討論

雖然不僅僅是文學界參與，但確是文學界發動的。充分說明了無論什麼時候文學都是精神家園的守望者。

1996年：現實主義衝擊波

讓民衆分享艱難，任貪官肆虐橫行。

1997年：王小波年

世紀末中國最好的小說家，也是本世紀最好的小說家之一，可是英年早逝。

1998年：文學批評話語

批評家普遍失語，社會價值也普遍失範。迷茫的，不僅僅是批評

家……

1999年：文學百部經典

世紀末各項批評比較多。官方的、民間的，太正常了。關於百部文學經典，其實仁者見仁，智者見智，本沒有定論。

2000年：“新新人類作家”鋒芒畢露

從年初頗受爭議的《上海寶貝》到年僅17歲出書的韓寒，讓人不得不刮目相看。

2011中國文學：透明·堅守·隱憂

2011年夏季揭曉的第八屆茅盾文學獎，體現了一種超越往屆的程序透明。張煒《你在高原》、劉醒龍《天行者》、莫言《蛙》、畢飛宇《推拿》、劉震雲《一句頂一萬句》最終問鼎。

《你在高原》長450万字，張煒為之傾盡心力，撰寫的田野筆記、集納的民間資料蔚為壯觀；劉醒龍多年如一日關注中國鄉村教育，《天行者》是獻給山村知識分子的一首大地之歌；莫言的《蛙》書寫了一位鄉村醫生的生命史詩；畢飛宇的《推拿》關注殘疾人群體，追尋真善美的現實意涵；劉震雲的《一句頂一萬句》講述幾代普通人的心靈之困。

後記

筆者在十多年前完成碩士論文《傷痕文學中人物形象研究》之後，已經着手搜集有關知青文學方面的資料了。每當看到堆積如山的資料時，真不知道從何下手，加上韓國語的能力有限更讓本人遲遲沒能動手寫作。

首先對五位評委沈揆昊教授、金良守教授、李權洪教授、趙洪善教授以及趙成植教授在論文審查過程當中提出的寶貴意見表示衷心地感謝！根據沈揆昊教授的意見，재론문적대방향진행 ㄹ修改，金良守教授和趙洪善教授在專業知識方面提出了良好的建議，李權洪教授和筆者的導師趙成植教授對論文進行了逐字逐句地修改，再次表示感謝！

從論文的資料搜集整理以及論文修改等方面，金恩希教授至始至終地給予大力支持，每當遇到困難和挫折時，總是在第一時間為筆者提供幫助並加以鼓勵，多次通閱全稿加以修改，彌補了許多疏漏。三聖女子高中的金太局老師、表善中學的金宣佑老師在韓國語語法的修改方面也提出了許多寶貴的建議，在此向諸位表示感謝！

筆者大學的同事李永碩教授和申榮大教授，不僅熱心地幫助修改論文，而且時常給予精神上的鼓勵，使得本論文可以順利的完成。產學協力團的康仁權部長多年來一直督促筆者完成論文，林徹宇先生在論文圖表的製作上提供幫助，使得論文看起來更加通俗直觀易懂。

在本論文寫作的過程中，得到了許多朋友的熱情鼓勵和熱心幫助。在此向高宙進社長、宋建洙先生、天天漢語學院金蘭院長、申東彧社長、崔美南畫家，以及所有關心和幫助過我的朋友，致以最誠摯的感謝。沒有這些老師和朋友們的幫助，就不可能有現在這篇論文的問世，筆者在此向各位表示由衷的感激和敬意。

筆者謹識

2014年冬